

『철학사상』 별책 제7권 제1호

토픽맵에 기초한, 철학 고전 텍스트들의 체계적 분석 연구와  
디지털 철학 지식지도 구축

## 지의 『마하지관』

김 정 희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6

『철학사상』 별책 제7권 제1호

토픽맵에 기초한, 철학 고전 텍스트들의 체계적 분석 연구와  
디지털 철학 지식지도 구축

## 지의 『마하지관』

김 정 희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6

편집위원 : 백종현(위원장)

김남두

박찬국

이남인

이태수

정원재

김상현(주간)

## 발 간 사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철학문헌정보센터의 전임연구단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기초학문육성지원 사업비를 받아 앞서 2년 간(2002.8-2004.7) <철학 텍스트들의 내용 분석에 의거한 디지털 지식 자원 구축을 위한 기초적 연구>를 수행하여 그 결실을 『철학사상』 별책 제2권 제1호~제14호, 별책 제3권 제1호~제25호로 출간한 데 이어, 그 후속으로 다시금 2년 동안(2004.9-2006.8) <토피맵에 기초한, 철학 고전 텍스트들의 체계적 분석 연구와 디지털 철학 지식지도 구축> 사업을 수행하면서 지난 해 『철학사상』 별책 제5권 제1호~제14호를 펴냈다. 이제 이 후속 사업의 두 번째 성과물을 『철학사상』 별책 제7권 제1호~제25호로 엮어낸다.

이 연구 작업은 중요한 철학 문헌들의 내용을 개념 체계도를 세워 분석하고, 이를 디지털 지식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편성하는 것이다. 이 같은 일은 지식정보 사회에 있어 철학이 지식 산업과 지식 경제의 토대가 되는 디지털 지식 자원을 생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초 연구라 할 것이다.

우리 연구단은 긴 논의 과정을 거쳐 우리 사회 문화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친 동서양의 철학 고전들을 선정하고 이를 연구자의 전공별로 나누어, 각각 먼저 분담한 저작의 개요를 작성한 후, 개념들의 관계를 밝혀 개념 지도를 만들고, 그 틀에 맞춰 주요 개념들을 상술했다. 이 같은 문헌 분석 작업만으로도 대표적인 철학 저술의 독해 작업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의 목표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이 작업의 성과물을 디지털화된 철학 텍스트들에 접목시켜 누구나 각자의 수준에서 철학 고전의 텍스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대표적인 것으로 꼽는 철학 고전들은 모두 외국어나 한문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이를 지식 자원으로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화에 앞서 현대 한국어로의 번역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적절한 한국어 번역이 아직 없는 경우에도 원전의 사상을 이루는 개념 체계를 소상히 안다면 원전에 대한 접근이 한결 수월해질 것이다. 우리 연구 작업의 성과는 1차적으로는 이를 위해 활용될 수 있을 것이지만, 장차 한국어 철학 텍스트들이 확보되면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기초가 될 것이다.

아무쪼록 우리 공동 연구 사업의 이 성과물이 인류 사회 문화의 자산을 확대 재생산하는 데 초석이 되고, 한국의 철학 문화 향상에도 이바지하는 바 있기를 바란다.

2006년 3월 25일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철학문헌정보센터 장 /  
<토픽맵에 기초한, 철학 고전 텍스트들의 체계적 분석  
연구와 디지털 철학 지식지도 구축> 연구책임자 백종현

『철학사상』 별책 제7권 제1호

토픽맵에 기초한, 철학 고전 텍스트들의 체계적 분석 연구와  
디지털 철학 지식지도 구축

## 지의 『마하지관』

김 정 희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6

## 머 리 말

지의의 『마하지관』은 책제목이 말해주듯이 대승불교의 수행법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대승의 대는 크다[大], 많다[多], 뛰어나다[勝] 등의 의미를 갖는다. 수행법이란 불교의 최고선인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을 말한다. 그리하여 지의의 『마하지관』은 깨달음에 이르는 가장 뛰어나고 위대하며 다수를 위한 수행법을 설명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뛰어나다는 것과 다수라는 것은 얼핏 보기에 양립하기 어려운 듯하다. 뛰어나다는 것은 가치를 서열화한 뒤의 최고 정점을 가리키며, 정점은 다수가 공유할 수 없다. 가치란 대개 희소성으로 인해 성립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대승불교에는 포용성과 자기 우월성의 양면성이 공존한다고 말할 수 있다.

대승불교의 수행서인 지의의 『마하지관』 또한 이러한 양면성이 보인다. 『마하지관』은 대승불교의 수행법을 원돈지관(圓頓止觀)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여타의 불교 수행법에 대한 우월성을 주장했다. 동시에 『마하지관』은 지의가 활약하던 당시 중국인들이 실천하고 있던 기존의 다양한 수행법들, 다시 말해 대승의 수행법뿐만 아니라 소승의 수행법들까지 모두 대승불교 교리에 근거해서 재해석함으로써 원돈지관으로 포용했다.

필자는 『마하지관』을 대승불교의 포용성에 더 무게 중심을 둔 책이라고 보았다. 『마하지관』은 대승불교의 위대함이 중생들의 모든 근기를 헤아리는 부처의 지혜와 자비심에 근거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전자보다 후자, 즉 『마하지관』이 설명하는 다양한 수행법들을 힘닿는 한 분류하고 정리하려고 했다.

『마하지관』에 따르면, 산정상은 이미 저기 있으므로 방향만 잘 잡았다면 빨리 오르기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자기에게 맞는 길을 찾아 주위

의 풍경도 눈여겨보면서 쉽 없이 정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한다. 정말로 산을 오르는 길은 다양하며, 정상 정복만을 위해 산을 오르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최고봉 또한 최고봉이 아닐 수 있다. 산을 오르려는 자, 불교의 수행법에 대해 관심을 가진 이라면 이 책을 통해 불교의 풍부한 수행론의 세계를 만나 보기를 기대한다.

소개한 길이 명료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필자의 능력 부족 때문임을 고백한다. 특히 원문에 대한 해석에서 수행과 관련된 전문 한자 용어들을 제대로 풀어쓰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필자에게도 『마하지관』은 그 양면성, 내용의 풍부함과 방대함으로 거대한 산과 같았다. 다만 필자 또한 갈 길이 멀다는 것과 그 길을 앞으로도 열심히 걸겠다고 다짐할 뿐이다.

이 소책자는 필자가 1997년 『마하지관』을 만난 이후, 처음으로 내는 책자이다. 부끄럽지만 불교라는 망망대해에서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신 故 심재룡선생님 영전에 이 책을 바친다. 나아가 연구책임자이신 백종현 선생님과 아낌없는 조언을 주신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하신 여러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린다.

2006년 4월  
김정희



## 목 차

제1부 철학자 및 철학 문헌 해제 .....	1
1. 지의의 생애 및 저작 .....	1
1.1 생애 요약 .....	1
1.2 생애 해설 .....	2
1.3 생애 연보 .....	5
1.4 저작 .....	6
1.4.1 마하지관 .....	6
1.4.2 법화현의 .....	6
1.4.3 천태소지관 .....	6
2. 『마하지관』 해제 .....	7
2.1 『마하지관』 요약 .....	7
2.2 『마하지관』 해설 .....	8
2.2.1 책의 판본에 대해 .....	8
2.2.2 성립 배경 .....	9
2.2.3 『마하지관』에 대한 연구 주석 .....	10
2.3 『마하지관』 상세 목차 .....	12
2.4 주요 용어 .....	13
2.4.1 지관 .....	13
2.4.2 원돈(圓頓) .....	14
2.4.3 마음 .....	16

제2부 철학 지식지도 .....	17
1. 철학자 지식지도 .....	17
2. 철학 문헌 지식지도 .....	18
3. 철학 용어 지식지도 .....	19
3.1 지관 .....	19
3.2 원돈 .....	20
3.3 마음 .....	21
4. 철학 문헌 내용 지식지도 .....	22
제3부 『마하지관』 내용 분석 연구 .....	45
1. 법(法) .....	45
1.1 법의 의미 .....	45
1.1.1 진여(眞如) .....	45
1.1.1.1 이언진여(離言眞如) .....	45
1.1.1.2 의언진여(依言眞如) .....	46
1.2 교법(敎法)의 분류 .....	47
1.2.1 지관(止觀)의 의미 .....	48
1.2.1.1 상대지관(相待止觀) .....	48
1.2.1.1.1 지(止)의 세 가지 의미 .....	49
1.2.1.1.1.1 지식(止息) .....	49
1.2.1.1.1.2 정지(停止) .....	49
1.2.1.1.1.3 대부지지(對不止止) .....	50
1.2.1.1.2 관(觀)의 세 가지 의미 .....	50
1.2.1.1.2.1 관천(觀穿) .....	50
1.2.1.1.2.2 관달(觀達) .....	51
1.2.1.1.2.3 대불관관(對不觀觀) .....	51
1.2.1.2 절대지관(絶待止觀) .....	52

1.2.1.2.1 상대지관의 부정으로서의 절대지관 .....	52
1.2.1.2.2 명정(明淨)으로서의 절대지관 .....	53
1.2.1.3 상대지관과 절대지관의 관계 .....	54
1.2.2 지관교법의 형태 .....	55
1.2.2.1 이론적 근거에 따른 형태 .....	56
1.2.2.1.1 대승불교에서의 지관 .....	56
1.2.2.1.2 지관의 종류 - 삼지삼관(三止三觀) .....	57
1.2.2.1.2.1 삼지(三止) .....	57
1.2.2.1.2.1.1 체진지(體眞止) .....	57
1.2.2.1.2.1.2 방편수연지(方便隨緣止) .....	58
1.2.2.1.2.1.3 식이변분별지(息二邊分別止) .....	58
1.2.2.1.2.1.4 상대지관에서의 삼지(三止)와의 관계 .....	58
1.2.2.1.2.2 삼관(三觀) .....	59
1.2.2.1.2.2.1 종가입공관(從假入空觀) .....	60
1.2.2.1.2.2.2 종공입가관(從空入假觀) .....	60
1.2.2.1.2.2.3 중도제일의제관(中道第一義諦觀) .....	61
1.2.2.1.2.2.4 상대지관에서의 삼관(三觀)과의 관계 .....	61
1.2.2.1.2.3 삼지삼관(三止三觀)의 관계 .....	62
1.2.2.1.2.3.1 차례적(次第的) 관계 .....	62
1.2.2.1.2.3.2 불차례적(不次第的) 관계 .....	63
1.2.2.2 성취하는 능력[功用]에 따른 형태 - 안(眼)과 지(智) .....	64
1.2.2.2.1 삼안삼지(三眼三智) .....	65
1.2.2.2.1.1 삼안(三眼) .....	65
1.2.2.2.1.1.1 혜안(慧眼) .....	65
1.2.2.2.1.1.2 법안(法眼) .....	66
1.2.2.2.1.1.3 불안(佛眼) .....	66
1.2.2.2.1.2 삼지(三智) .....	66
1.2.2.2.1.2.1 일체지(一切智) .....	66
1.2.2.2.1.2.2 도종지(道種智) .....	66

1.2.2.2.1.2.3 일체종지(一切種智) .....	67
1.2.2.2.1.3 삼안삼지(三眼三智)의 관계 .....	67
1.2.2.2.1.3.1 안과 지의 관계 .....	67
1.2.2.2.1.3.2 삼안과 삼지 사이의 차제의 유무(有無) .....	68
1.2.2.3 깨달음의 경계에 따른 형태 .....	68
1.2.2.3.1 다양한 경계가 성립하는 원인 - 감응(感應) .....	69
1.2.2.3.1.1 감응의 형태 .....	70
1.2.2.3.1.1.1 수정설(隨情說) .....	70
1.2.2.3.1.1.2 수정지설(隨情智說) .....	71
1.2.2.3.1.1.3 수지설(隨智說) .....	72
1.2.2.3.1.2 사실단(四悉檀)과의 관계 .....	72
1.2.2.3.2 깨달음의 경계의 형태 .....	73
1.2.2.3.2.1 삼장교(三藏敎) .....	74
1.2.2.3.2.2 통교(通敎) .....	75
1.2.2.3.2.3 별교(別敎) .....	76
1.2.2.3.2.4 원교(圓敎) .....	76
1.2.2.3.3 다양한 지(智)의 형태 .....	76
1.2.2.3.4 경계와 지(智)의 관계 .....	77
1.2.2.3.4.1 사의(思議)의 관계 .....	77
1.2.2.3.4.2 불사의(不思議)의 관계 .....	78
1.2.2.4 통찰을 막는 장애[迷惑]에 따른 형태 .....	79
1.2.2.4.1 견사혹(見思惑) .....	79
1.2.2.4.2 진사혹(塵沙惑) .....	80
1.2.2.4.3 무명혹(無明惑) .....	81
1.2.2.4.4 삼혹(三惑)과 삼지삼관(三止三觀)의 관계 .....	81
1.2.3 지관의 종류 .....	82
1.2.3.1 삼종지관(三種止觀) .....	82
1.2.3.2 삼종지관의 형태 .....	83
1.2.3.2.1 점차지관(漸次止觀) .....	83

1.2.3.2.2 부정지관(不定止觀) .....	83
1.2.3.2.3 원돈지관(圓頓止觀) .....	84
2. 대승 .....	85
2.1 대승원교(大乘圓敎)의 의미 .....	85
2.1.1 삼제원융(三諦圓融) .....	86
2.1.1.1 삼제의 의미 .....	86
2.1.1.2 삼제의 관계 .....	87
2.1.1.2.1 장교의 이해 .....	87
2.1.1.2.2 통교의 이해 .....	88
2.1.1.2.3 별교의 이해 .....	88
2.1.1.2.4 원교의 이해 .....	89
2.1.1.3 원융(圓融)의 의미 .....	89
2.1.1.3.1 불차제(不次第) .....	89
2.1.1.3.2 불이(不二) .....	90
2.1.2 심구일체법(心具一切法) .....	91
2.1.2.1 일체법(一切法)의 의미 - 십법계(十法界) .....	92
2.1.2.1.1 십법계의 성립 .....	92
2.1.2.1.2 십법계의 형태 .....	92
2.1.2.1.2.1 지옥법계 .....	93
2.1.2.1.2.2 아귀법계 .....	93
2.1.2.1.2.3 축생법계 .....	93
2.1.2.1.2.4 아수라법계 .....	93
2.1.2.1.2.5 인법계(人法界)와 천법계(天法界) .....	94
2.1.2.1.2.6 이승(二乘)의 성문법계와 연각법계 .....	94
2.1.2.1.2.7 보살법계 .....	94
2.1.2.1.2.8 불법계(佛法界) .....	94
2.1.2.2 마음의 의미 .....	94
2.1.2.2.1 연기적 현상으로서의 마음 [一念心] .....	94

2.1.2.2.2 일법계(一法界)로서의 마음 .....	95
2.1.2.2.3 불사의(不思議)의 마음 .....	96
2.1.2.3 구(具)의 논리적 근거 - 십여시(十如是) .....	96
2.1.2.3.1 십여시의 의미 .....	97
2.1.2.3.2 십여시의 형태 .....	98
2.1.2.3.2.1 여시상(如是相) .....	98
2.1.2.3.2.2 여시성(如是性) .....	98
2.1.2.3.2.3 여시체(如是體) .....	99
2.1.2.3.2.4 여시력(如是力) .....	99
2.1.2.3.2.5 여시작(如是作) .....	99
2.1.2.3.2.6 여시인(如是因) .....	99
2.1.2.3.2.7 여시연(如是緣) .....	99
2.1.2.3.2.8 여시과(如是果) .....	99
2.1.2.3.2.9 여시보(如是報) .....	100
2.1.2.3.2.10 여시본말구경등(如是本末究竟等) .....	100
2.1.2.3.3 십여시의 의의 .....	100
2.1.2.3.3.1 십법계에 공통하는 존재 형식 .....	100
2.1.2.3.3.2 십법계를 사이의 불이(不二) .....	101
2.2 대승원교 지관법의 특징 .....	102
2.2.1 대승의 체법관(體法觀)이다 .....	102
2.2.1.1 소승 관법 .....	103
2.2.1.2 대승 관법 .....	104
2.2.1.3 소승 관법과 대승 관법의 비교 .....	104
2.2.2 돈(頓)의 관법이다 .....	105
2.2.2.1 점(漸)의 관법 .....	105
2.2.2.2 돈(頓)의 관법 .....	106
2.2.3 진실(眞實) 관법이다 .....	107
2.2.3.1 방편의 의미 .....	107
2.2.3.2 방편과 진실의 관계 .....	108

2.2.3.2.1 사실단(四悉檀)과 관련해서 .....	109
2.2.3.2.2 오미(五味)와 관련해서 .....	109
2.2.3.2.3 사종지관(四種止觀)과 관련해서 .....	110
2.2.3.2.4 불사의의 의미와 관련해서 .....	110
2.3 대승원교의 수행계위 .....	111
2.3.1 육즉(六卽)의 성립 .....	111
2.3.2 육즉의 의의 .....	111
2.3.3 육즉의 형태 .....	112
2.3.3.1 리즉(理卽) .....	112
2.3.3.2 명자즉(名字卽) .....	113
2.3.3.3 관행즉(觀行卽) .....	114
2.3.3.4 상사즉(相似卽) .....	115
2.3.3.5 분진즉(分眞卽) .....	115
2.3.3.6 구경즉(究竟卽) .....	116
3. 선정(禪定) .....	117
3.1 삼매(三昧)의 본질 .....	117
3.2 삼매의 형태 .....	117
3.2.1 삼매의 의미 .....	117
3.2.2 삼매의 구성 .....	118
3.2.3 삼매의 네 가지 형태 - 사종삼매(四種三昧) .....	119
3.2.3.1 상좌삼매(常坐三昧) .....	119
3.2.3.1.1 의미 .....	119
3.2.3.1.2 수행방법 .....	120
3.2.3.1.2.1 몸 .....	120
3.2.3.1.2.2 입 .....	121
3.2.3.1.2.3 마음 .....	122
3.2.3.1.2.3.1 지(止) .....	122
3.2.3.1.2.3.2 관(觀) .....	122

3.2.3.2 상행삼매(常行三昧) .....	123
3.2.3.2.1 의미 .....	123
3.2.3.2.2 수행방법 .....	124
3.2.3.2.2.1 몸 .....	124
3.2.3.2.2.2 입 .....	124
3.2.3.2.2.3 마음 .....	125
3.2.3.2.2.3.1 지(止) .....	125
3.2.3.2.2.3.2 관(觀) .....	125
3.2.3.3 반좌반행삼매(半坐半行三昧) .....	126
3.2.3.3.1 의미 .....	126
3.2.3.3.2 수행방법 .....	126
3.2.3.3.2.1 방등참회(方等懺悔) .....	126
3.2.3.3.2.1.1 몸 .....	126
3.2.3.3.2.1.2 입 .....	127
3.2.3.3.2.1.3 마음 .....	127
3.2.3.3.2.2 법화참회(法華懺悔) .....	128
3.2.3.3.2.2.1 의미 .....	128
3.2.3.3.2.2.2 수행방법 .....	129
3.2.3.3.2.2.2.1 몸과 입 .....	129
3.2.3.3.2.2.2.2 마음 .....	129
3.2.3.4 비행비좌삼매(非行非坐三昧) .....	130
3.2.3.4.1 의미 .....	130
3.2.3.4.2 수행방법 .....	131
3.2.3.4.2.1 여러 경전에 근거하다 .....	131
3.2.3.4.2.1.1 의미 .....	131
3.2.3.4.2.1.2 수행방법 .....	132
3.2.3.4.2.1.2.1 몸과 입 .....	132
3.2.3.4.2.1.2.2 마음 .....	132
3.2.3.4.2.2 세 가지 마음에 근거하다 .....	133



3.2.3.4.2.2.1 수행방법 - 사운심(四運心) .....	133
3.2.3.4.2.2.2 여러 선한 마음에 근거하다 .....	133
3.2.3.4.2.2.3 여러 악한 마음에 근거하다 .....	134
3.2.3.4.2.2.3.1 수행방법 .....	135
3.2.3.4.2.2.4 무기(無記)의 마음에 근거하다 .....	136
3.2.3.4.2.2.4.1 수행방법 .....	136
3.3 사종삼매(四種三昧)의 관계 .....	137
3.3.1 수행의 권유와 관련해서 .....	137
3.3.2 수행방법의 다양함과 관련해서 .....	137
4. 방편 .....	139
4.1 방편의 의미 .....	139
4.1.1 일반적 의미 .....	139
4.1.1.1 선교(善巧) .....	139
4.1.1.2 화합(和合) .....	140
4.1.2 원교에서의 방편의 의미 .....	140
4.2 이십오방편(二十五方便)의 형태 .....	141
4.2.1 다섯 가지 조건을 갖추다 [具五緣] .....	141
4.2.1.1 지계청정(持戒清淨) .....	141
4.2.1.1.1 계명(戒名) .....	142
4.2.1.1.1.1 성계(性戒) .....	142
4.2.1.1.1.2 객계(客戒) .....	142
4.2.1.1.1.3 성계와 객계의 관계 .....	142
4.2.1.1.2 계율의 의미 .....	143
4.2.1.1.2.1 사계(事戒) - 현상으로서의 계 .....	143
4.2.1.1.2.2 리계(理戒) - 진리로서의 계 .....	144
4.2.1.1.2.3 사계와 리계의 관계 .....	144
4.2.1.1.3 범계(犯戒) .....	145
4.2.1.1.3.1 범계의 원인 .....	145

4.2.1.1.3.1.1 애(愛) .....	145
4.2.1.1.3.1.2 견(見) .....	145
4.2.1.1.4 참회 .....	146
4.2.1.1.4.1 의미 .....	146
4.2.1.1.4.2 수행방법 .....	146
4.2.1.1.4.2.1 순류(順流)의 열 가지 마음 .....	147
4.2.1.1.4.2.2 역류(逆流)의 열 가지 마음 .....	147
4.2.1.2 의식구족(衣食具足) .....	148
4.2.1.3 한거정처(閑居靜處) .....	148
4.2.1.4 식제연무(息諸緣務) .....	149
4.2.1.5 득선지식(得善知識) .....	149
4.2.2 다섯 가지 욕망을 꾸짖다 [呵五欲] .....	149
4.2.2.1 의미 .....	149
4.2.2.2 관법으로서의 가오욕(呵五欲) .....	150
4.2.3 다섯 가지의 덮개를 버리다 [棄五蓋] .....	150
4.2.3.1 수행방법 .....	151
4.2.3.1.1 사(事)의 기사(棄捨) .....	151
4.2.3.1.1.1 부정관(不淨觀) .....	151
4.2.3.1.1.2 자비관(慈悲觀) .....	151
4.2.3.1.1.3 정진(精進) .....	152
4.2.3.1.1.4 수식관(數息觀) .....	152
4.2.3.1.1.5 자신의 실제 모습을 부자의 눈먼 아들이라고 생각하다 .....	153
4.2.3.1.2 리(理)의 기사(棄捨) .....	153
4.2.4 다섯 가지 일을 조절하다 [調五事] .....	154
4.2.4.1 사(事)의 오사(五事) .....	155
4.2.4.1.1 음식을 조절하다 .....	155
4.2.4.1.2 잠을 조절하다 .....	155
4.2.4.1.3 몸, 호흡, 마음을 조절하다 .....	155

4.2.4.2 리(理)의 오사(五事) .....	156
4.2.5 다섯 가지 법을 행하다 [行五法] .....	156
4.2.5.1 형태 .....	156
4.2.5.2 의미 .....	157
5. 관(觀) .....	159
5.1 관의 필요성 .....	159
5.2 관의 의미 .....	159
5.3 관의 형태 .....	160
5.3.1 십경(十境) .....	161
5.3.1.1 십경의 의미 .....	161
5.3.1.2 십경의 구성 .....	161
5.3.1.2.1 십경의 발생 .....	161
5.3.1.2.1.1 음입계경(陰入界境)이 처음에 오다 .....	161
5.3.1.2.1.2 차례로 발생하다 .....	162
5.3.1.2.1.3 일정한 순서 없이 발생하다 .....	162
5.3.1.2.2 십경의 관계 .....	163
5.3.1.3 십경의 형태 .....	163
5.3.1.3.1 음입계경 .....	163
5.3.1.3.2 번뇌경(煩惱境) .....	164
5.3.1.3.2.1 수행의 필요성 .....	164
5.3.1.3.2.2 번뇌의 모습 .....	164
5.3.1.3.2.3 번뇌가 일어나는 인연 .....	165
5.3.1.3.2.3.1 습인(習因)의 종자 .....	165
5.3.1.3.2.3.2 업력(業力)의 자극 .....	166
5.3.1.3.2.3.3 마귀의 선동 .....	166
5.3.1.3.2.4 번뇌를 치료하는 방법 .....	166
5.3.1.3.2.5 지관(止觀)수행 .....	167
5.3.1.3.2.5.1 번뇌경과 관련한 두 가지 오해 .....	167

5.3.1.3.2.5.1.1 무애도(無礙道)에 대한 오해 .....	167
5.3.1.3.2.5.1.2 중도행(中道行)에 대한 오해 .....	168
5.3.1.3.2.5.2 대승원교의 무애도 .....	169
5.3.1.3.2.5.3 번뇌경에 대한 지관수행 .....	169
5.3.1.3.3 병환경(病患境) .....	170
5.3.1.3.3.1 수행의 필요성 .....	170
5.3.1.3.3.2 병환의 모습 .....	171
5.3.1.3.3.3 병환의 원인 .....	171
5.3.1.3.3.3.1 주병(注病) .....	171
5.3.1.3.3.3.2 수식(數息)의 부조화(不調和) .....	172
5.3.1.3.3.3.3 지(止) .....	172
5.3.1.3.3.3.4 관(觀) .....	172
5.3.1.3.3.4 병환을 치료하는 방법 .....	173
5.3.1.3.3.4.1 지(止) .....	173
5.3.1.3.3.4.2 기(氣) .....	174
5.3.1.3.3.4.3 식(息) .....	174
5.3.1.3.3.4.4 가상(假想) .....	175
5.3.1.3.3.4.5 관심(觀心) .....	175
5.3.1.3.3.4.6 방술(方術) .....	175
5.3.1.3.3.5 병환경에 대한 지관수행 .....	175
5.3.1.3.4 업상경(業相境) .....	176
5.3.1.3.4.1 업상이 일어나는 인연 .....	177
5.3.1.3.4.1.1 내부 인연 .....	177
5.3.1.3.4.1.2 외부 인연 .....	177
5.3.1.3.4.2 업상이 일어나는 모습 .....	177
5.3.1.3.4.2.1 습인습과(習因習果)의 의미 .....	178
5.3.1.3.4.2.2 보인보과(報因報果)의 의미 .....	178
5.3.1.3.4.2.3 보과의 모습 .....	178
5.3.1.3.4.2.4 습인의 모습 .....	178

5.3.1.3.4.2.5 선업상(善業相) .....	179
5.3.1.3.4.2.6 악업상(惡業相) .....	179
5.3.1.3.4.3 업장(業障)의 차이에 대해 .....	180
5.3.1.3.4.4 업상경에 대한 지관 수행 .....	181
5.3.1.3.5 마사경(魔事境) .....	182
5.3.1.3.5.1 마사의 의미 .....	182
5.3.1.3.5.2 마사가 나타나는 모습 .....	183
5.3.1.3.5.2.1 퇴척귀(퇴惕鬼) .....	183
5.3.1.3.5.2.2 시미귀(時媚鬼) .....	183
5.3.1.3.5.2.3 마라귀(魔羅鬼) .....	184
5.3.1.3.5.3 마사경이 일으키는 손실 .....	184
5.3.1.3.5.4 치료 방법 .....	185
5.3.1.3.5.5 마사경에 대한 지관수행 .....	185
5.3.1.3.6 선정경(禪定境) .....	186
5.3.1.3.6.1 선정의 분류 .....	187
5.3.1.3.6.1.1 종류에 따른 분류 .....	187
5.3.1.3.6.1.2 유루(有漏)·무루(無漏)에 따른 분류 .....	187
5.3.1.3.6.1.3 깊고 얕음에 따른 분류 .....	188
5.3.1.3.6.2 선정이 일어나는 인연 .....	188
5.3.1.3.6.2.1 내부 인연 .....	188
5.3.1.3.6.2.2 외부 인연 .....	189
5.3.1.3.6.3 선정이 일어나는 모습 .....	189
5.3.1.3.6.3.1 근본사선(根本四禪) .....	189
5.3.1.3.6.3.1.1 욕계(欲界)의 선정 .....	190
5.3.1.3.6.3.1.1.1 욕계정이 일어나는 모습 .....	190
5.3.1.3.6.3.1.1.2 욕계정의 의미 .....	190
5.3.1.3.6.3.1.2 색계(色界)의 사선(四禪)이 일어나는 모습 .....	191
5.3.1.3.6.3.1.2.1 초선(初禪)에서 일어나는 여덟 가지의 지각 ..	191
5.3.1.3.6.3.1.2.1.1 초선의 의미 .....	191

5.3.1.3.6.3.1.2.1.2 여덟 가지 지각의 유래 .....	9
5.3.1.3.6.3.1.2.1.3 여덟 가지 지각의 내용 .....	9
5.3.1.3.6.3.1.2.1.4 올바른 지각 .....	9
5.3.1.3.6.3.1.2.1.5 잘못된 지각 .....	9
5.3.1.3.6.3.1.2.2 색계의 사선과 오지(五支) .....	13
5.3.1.3.6.3.1.2.2.1 오지 .....	13
5.3.1.3.6.3.1.2.2.2 색계 사선과 오지의 관계 .....	13
5.3.1.3.6.3.2 십육특승(十六特勝) .....	194
5.3.1.3.6.3.2.1 십육특승의 의미 .....	194
5.3.1.3.6.3.2.2 십육특승이 일어나는 모습 .....	194
5.3.1.3.6.3.3 통명선(通明禪) .....	195
5.3.1.3.6.3.3.1 통명선의 의미 .....	195
5.3.1.3.6.3.3.2 통명선이 일어나는 모습 .....	196
5.3.1.3.6.3.4 부정선(不淨禪) .....	196
5.3.1.3.6.3.4.1 구상(九想)의 의미 .....	196
5.3.1.3.6.3.4.2 부정관이 일어나는 모습 .....	197
5.3.1.3.6.3.4.2.1 창상(脹相) .....	197
5.3.1.3.6.3.4.2.2 괴상(壞相) .....	197
5.3.1.3.6.3.4.2.3 혈도상(血塗相) .....	197
5.3.1.3.6.3.4.2.4 농란상(膿爛相) .....	197
5.3.1.3.6.3.4.2.5 청어상(靑瘀相) .....	198
5.3.1.3.6.3.4.2.6 담상(噉相) .....	198
5.3.1.3.6.3.4.2.7 산상(散相) .....	198
5.3.1.3.6.3.4.2.8 골상(骨相) .....	198
5.3.1.3.6.3.4.3 부정관의 대치효능 .....	198
5.3.1.3.6.3.5 팔배사(八背捨) .....	199
5.3.1.3.6.3.5.1 팔배사의 의미 .....	199
5.3.1.3.6.3.5.2 팔배사가 일어나는 모습 .....	199
5.3.1.3.6.3.6 대부정(大不淨) .....	200

5.3.1.3.6.3.6.1 대부정의 의미 .....	20
5.3.1.3.6.3.6.2 대부정이 일어나는 모습 .....	21
5.3.1.3.6.3.7 자비심(慈悲心) .....	22
5.3.1.3.6.3.7.1 자비심의 의미 .....	22
5.3.1.3.6.3.7.2 자비심이 일어나는 모습 .....	22
5.3.1.3.6.3.8 인연(因緣) .....	23
5.3.1.3.6.3.8.1 인연의 의미 .....	23
5.3.1.3.6.3.8.2 인연과 십승관법(十乘觀法) .....	24
5.3.1.3.6.3.9 염불(念佛) .....	25
5.3.1.3.6.3.9.1 염불이 일어나는 모습 .....	25
5.3.1.3.6.3.9.2 올바른 염불 .....	25
5.3.1.3.6.3.10神通(神通) .....	26
5.3.1.3.6.4 선정경에 대한 지관수행 .....	26
5.3.1.3.6.4.1 선정에 대한 주의 .....	26
5.3.1.3.6.4.2 십승관법의 수행 .....	26
5.3.1.3.7 제견경(諸見境) .....	207
5.3.1.3.7.1 제견경의 의미 .....	207
5.3.1.3.7.2 제견에 따른 사람과 그 가르침 .....	207
5.3.1.3.7.2.1 사견인(邪見人)의 종류 .....	27
5.3.1.3.7.2.1.1 불법(佛法)과 무관한 외도(外道) .....	27
5.3.1.3.7.2.1.2 불법에 근거한 외도 .....	28
5.3.1.3.7.2.1.3 불법 내부의 외도 .....	29
5.3.1.3.7.2.2 사견인이 집착하는 가르침의 종류 .....	29
5.3.1.3.7.3 제견이 일어나는 모습 .....	209
5.3.1.3.7.3.1 제견이 일어나는 원인 .....	210
5.3.1.3.7.3.1.1 선정의 경우 .....	20
5.3.1.3.7.3.1.2 가르침을 듣는 경우 .....	20
5.3.1.3.7.3.1.3 선정과 가르침을 듣는 경우의 차이 .....	21
5.3.1.3.7.3.2 사견(邪見)이 일어나는 모습 .....	211

5.3.1.3.7.3.2.1 선정에 근거해서 사건이 일어나는 모습 .....	21
5.3.1.3.7.3.2.2 화법사교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모습 .....	21
5.3.1.3.7.3.3 제견이 일어나는 모습에서의 차이 .....	212
5.3.1.3.7.4 제견의 과실(過失) .....	212
5.3.1.3.7.4.1 제견의 허물에 대해 .....	212
5.3.1.3.7.4.1.1 중국의 경우 .....	212
5.3.1.3.7.4.1.1.1 삼현(三玄) .....	212
5.3.1.3.7.4.1.1.2 삼현의 이득과 과실을 논하다 .....	213
5.3.1.3.7.4.1.2 인도의 경우 .....	213
5.3.1.3.7.4.1.2.1 공견[無見]의 종류 .....	213
5.3.1.3.7.4.1.2.2 무견의 이득과 과실을 논하다 .....	214
5.3.1.3.7.4.1.3 불법 내부의 사건에 대한 과실을 논하다 .....	214
5.3.1.3.7.4.2 제견의 진위(眞僞)를 결정하는 방법 .....	215
5.3.1.3.7.4.2.1 제견을 일으키는 가르침의 진위를 결정하다 .....	215
5.3.1.3.7.4.2.2 근거하고 있는 가르침과 관련해 제견의 진위를 결정하다 .....	215
5.3.1.3.7.5 제견경이 갖는 효용 .....	216
5.3.1.3.7.6 제견경에 대한 지관수행 .....	217
5.3.1.3.8 증상만경(增上慢境) .....	218
5.3.1.3.9 이승경(二乘境) .....	218
5.3.1.3.10 보살경(菩薩境) .....	219
5.3.2 십승관법(十乘觀法) .....	220
5.3.2.1 관불사의경(觀不思議境) .....	220
5.3.2.1.1 관불사의경의 의미 .....	221
5.3.2.2 기자비심(起慈悲心) .....	222
5.3.2.2.1 기자비심의 형태 .....	222
5.3.2.2.1.1 발고서원(拔苦誓願) .....	222
5.3.2.2.1.2 여락서원(與樂誓願) .....	222
5.3.2.3 교안지관(巧安止觀) .....	223



5.3.2.3.1 교안지관의 형태 .....	223
5.3.2.3.1.1 총체적 지관 .....	223
5.3.2.3.1.1.1 지(止) .....	223
5.3.2.3.1.1.2 관(觀) .....	224
5.3.2.3.1.1.3 지관의 관계 .....	224
5.3.2.3.1.2 개별적 지관 .....	224
5.3.2.3.1.2.1 신행인(信行人) .....	225
5.3.2.3.1.2.2 법행인(法行人) .....	225
5.3.2.4 파법편(破法遍) .....	226
5.3.2.4.1 파법의 기준 .....	226
5.3.2.4.2 파법의 방법 .....	227
5.3.2.4.2.1 세로로 부수다 .....	228
5.3.2.4.2.1.1 종가입공관(從假入空觀) .....	228
5.3.2.4.2.1.1.1 종견가입공관(從見假入空觀) .....	228
5.3.2.4.2.1.1.1.1 견혹(見惑)과 가유(假有) .....	228
5.3.2.4.2.1.1.1.1.1 견혹 .....	228
5.3.2.4.2.1.1.1.1.2 가유 .....	229
5.3.2.4.2.1.1.1.2 파가관(破假觀) [空觀] .....	229
5.3.2.4.2.1.1.1.2.1 공관의 방법 .....	229
5.3.2.4.2.1.1.1.2.2 공관의 내용 .....	229
5.3.2.4.2.1.1.2 종사가입공관(從思假入空觀) .....	230
5.3.2.4.2.1.1.2.1 사가혹(思假惑) .....	230
5.3.2.4.2.1.1.2.2 사가를 부수는 관법 .....	231
5.3.2.4.2.1.1.3 원교에서의 종가입공관의 의미 .....	231
5.3.2.4.2.1.2 종공입가관(從空入假觀) .....	232
5.3.2.4.2.1.2.1 입가(入假)의 의미 .....	232
5.3.2.4.2.1.2.2 입가의 인연 .....	232
5.3.2.4.2.1.2.2.1 자비의 마음이 강하다 .....	232
5.3.2.4.2.1.2.2.2 본원(本願)을 기억하다 .....	233

5.3.2.4.2.1.2.2.3 지혜가 예리하다 .....	23
5.3.2.4.2.1.2.2.4 선교방편으로 .....	23
5.3.2.4.2.1.2.2.5 커다란 정진의 힘으로 .....	23
5.3.2.4.2.1.2.3 입가관(入假觀) .....	23
5.3.2.4.2.1.2.3.1 병에 대해 알다 .....	24
5.3.2.4.2.1.2.3.2 약에 대해 알다 .....	24
5.3.2.4.2.1.2.3.3 약을 투여하다 .....	24
5.3.2.4.2.1.2.4 입가의 계위 .....	24
5.3.2.4.2.1.3 중도관(中道觀) .....	25
5.3.2.4.2.1.3.1 의미 .....	25
5.3.2.4.2.1.3.2 중도관의 인연 .....	26
5.3.2.4.2.1.3.2.1 무연자비(無緣慈悲) .....	26
5.3.2.4.2.1.3.2.2 서원의 성취 .....	27
5.3.2.4.2.1.3.2.3 부처의 지혜를 구하다 .....	27
5.3.2.4.2.1.3.2.4 대방편을 세우다 .....	27
5.3.2.4.2.1.3.2.5 견고하게 정진 수행하다 .....	28
5.3.2.4.2.1.3.3 수행방법 .....	28
5.3.2.4.2.1.3.4 계위와 이익을 밝히다 .....	29
5.3.2.4.2.2 가로로 부수다 .....	240
5.3.2.4.2.3 가로와 세로의 불이(不二)로 부수다 .....	240
5.3.2.4.2.3.1 총괄해서 무명의 일념심을 밝히다. ....	240
5.3.2.4.2.3.2 무명 이외의 다른 마음에 대해 밝히다. ....	241
5.3.2.5 식통색(識通塞) .....	242
5.3.2.5.1 통색의 내용 .....	242
5.3.2.6 도품조적(道品調適) .....	243
5.3.2.6.1 원교에서의 삼십칠도품(三十七道品) .....	243
5.3.2.7 조도대치(助道對治) .....	244
5.3.2.7.1 조도의 지위 .....	245
5.3.2.7.2 육바라밀의 의미 .....	245

5.3.2.8 계위를 알다 [知次位]	246
5.3.2.9 능안인(能安忍)	246
5.3.2.9.1 능안인의 방법	247
5.3.2.10 법에 대해 집착하지 않는다 [無法愛]	248
6. 열반	249
6.1 커다란 과보를 느끼다	249
6.2 가르침을 베풀다	250
6.3 구극의 경지로 돌아가다 [旨歸]	250
6.3.1 지귀와 삼덕(三德)	251
6.3.1.1 총체적 의미	252
6.3.1.2 개별적 의미	252
6.3.1.2.1 불신(佛身)의 세 가지 의미	252
6.3.1.2.2 불신과 삼신(三身)의 관계	253
6.3.1.2.3 반야의 세 가지 의미	253
6.3.1.2.4 반야와 삼지(三智)의 관계	253
6.3.1.2.5 해탈의 세 가지 의미	254
6.3.1.2.6 해탈과 세 가지 속박의 관계	254
6.3.1.3 세 가지 장애와 삼덕의 관계	255
6.3.1.4 불사의의 지귀	255
참고문헌	257



## 일 러 두 기

1. 이 연구는 『대정신수대장경』(46권)을 저본으로 하여 김무득의 『대지관좌선법』1-5와 이케다로잔(池田魯參)의 『詳解摩訶止觀』을 표준 번역본으로 했다.
2. 본문의 해설 가운데, 특히 십경십승(十境十乘)에 대한 설명은 많은 부분 안도토시오(安藤俊雄)의 『천태학』과 이영자의 『천태불교학』의 도움을 받았다.
3. 이 책의 장, 절 표시는 그 내용의 위계에 따라 예를 들어 1. 법(法), 1.1 진여(眞如), 1.1.1이언진여(離言眞如) 순으로 표시하였다.
4. 3부 각 단락의 맨 앞에 있는 ‘(e1.1)’ 또는 ‘(q1.2)’ 등은 철학 지식지도의 웹 구현을 위한 표시일 뿐 책의 내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므로 책을 읽을 때에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참고로 ‘e’는 해설을 ‘q’는 인용을 의미한다.



## 제 1 부 철학자 및 철학 문헌 해제

### 1. 지의의 생애 및 저작

#### 1.1 생애 요약

지의(智顗, 538-597)는 중국사에서 남북조시대, 남조(南朝)의 양(梁) 대 대동4년(538)에 호북성 형주 강릉의 화양 땅에서 태어났다. 속성은 진(陳), 자는 덕안이다. 아버지 진기조는 양무제의 총애를 받았던 고관이었다. 17세 때 양의 멸망과 더불어, 세상의 영고성쇠를 목격하고 출가할 뜻을 세웠으나 부모의 반대로 실행하지 못했다. 18세 때 부모가 돌아가시자 양주 과원사의 법서(法緒, ?-?) 문하로 출가하여 “지의”라는 법명을 받았다. 승려로서 그의 생애는 크게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전반기는 다시 대소산에서 혜사(慧思, 515-577)의 지도를 받던 20대의 수학기와, 진(陳)의 수도 금릉에서 활약하던 30대의 전도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수학기의 지의는 혜광(慧曠, 534-612)을 사 아래서 율장과 대승경전에 대해 배우고, 구족계를 받았다. 23세 때 대소산의 혜사를 방문하여, 이후 8년 동안 혜사에게서 법화삼매와 『법화경』 등을 공부했다. 이 시기, 지의는 삼매를 실천하던 중 『법화경』 ‘약왕 품제불동찬’(藥王品諸佛同讚)이라는 구절에서 크게 깨닫는다. 이는 ‘대소 사개오’(大蘇山開悟)라고 하여, 지의의 생애 전반기의 중요한 사건으로서 평가된다. 30세 때 지의는 스승과 헤어져 진의 수도 금릉으로 나아가 와관사에서 『법화경』 등을 강하고, 선법을 열어 불법의 전도에 힘썼다. 38세 때, 도시의 화려함과 번잡함이 깨달음에 장애가 됨을 염려하던 중, 북

주(北周)의 폐불(廢佛)을 계기로 천태산으로 들어갈 결심을 한다. 이후는 후반기에 해당한다. 후반기 또한 다시 천태산으로 들어가 정진하던 10년 동안의 수양기와 48세에 하산해서 60세에 생을 마감할 때까지 쉽없이 설법을 펼쳤던 전도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수양기 동안, 지의는 강독과 선수행을 통해 『법화경』을 이론[敎相]과 실천[觀心]이 통합된 구경의 경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그는 교관쌍미(敎觀雙美)의 천태사상을 확립했다. 48세 때 진(陳)왕의 요청으로 다시 금릉으로 나아가 『지도론』·『인왕반야경』·『법화문구』·『법화현의』·『마하지관』·『유마경소』를 강의하는 등 불법의 전도에 힘썼다. 54세 때 양주총관이었던 진왕(晉王) 광(후의 수양제)을 위해 보살계를 주고 지자대사(智者大師)라는 칭호를 받았다. 60세 때, 진왕의 초청으로 양주로 나가던 중 산동의 석성산에 이르러 병을 얻어 24일 열반했다.

## 1.2 생애 해설

지의의 생애는 한 마디로 『법화경』 연구로 요약할 수 있다. 그는 『법화경』이 이론적으로 가장 뛰어난 붓다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논증하고, 나아가 이에 근거한 대승불교의 수행론을 완성하는 것을 일생의 과제로 삼았다. 『법화경』 연구와 관련해서, 스승 혜사와의 만남과 북주 무제의 폐불 사건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8세 때 상주 과원사 법서 문하로 출가했던 지의는 일찍이 법화삼부경으로 알려져 있는 『무량의경』(無量義經)·『법화경』(法華經)·『보현관경』(普賢觀經)을 독송하고, 그 깊은 의미를 연구하여 이름을 떨쳤다. 그러나 23세 되던 해 그는 광주 대소산에 있는 혜사(당시 46세)를 방문하여 제자로 들어갔다. 이후 8년 동안은 혜사 밑에서 『법화경』을 수학하고 법화삼매를 실천했다. 이미 『법화경』 연구로 이름을 떨쳤던 그가 다시 혜사의 문하로 들어가 『법화경』을 연구한 것은, 『법화경』에 대한 혜사의 이해가 기존의 『법화경』 이해와 다른 독



특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혜사는 이전의 법화학자들과 달리 『법화경』을 실천법문을 대표하는 구경의 경전으로 이해했다. 이는 『대지도론』에 근거한 이해라고 할 수 있다. 혜사는 『대지도론』을 중시했던 혜문의 제자였다. 주지하다시피 『대지도론』은 『대품반야경』의 주석서로서, 대승불교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던 용수의 저술이다. 중국불교사상사에서, 삼론종(三論宗)은 용수의 중관사상에 근거해서 성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수의 저서인 『대지도론』에 그다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혜문은 『대지도론』을 실천지관법문을 설명하는 저서로서 중시했다. 스승의 영향으로 혜사 또한 『대지도론』을 중시했고, 조예 또한 깊었다. 이는 그가 주석서로서 『석론현의』(1권)를 저술한 것에서 알 수 있다. 『대지도론』은 『법화경』을 성문이승(聲聞二乘)의 성불(成佛) 가능성과 속질원오(速疾圓悟)의 실천법에 대해 설명하는 경전으로 높이 평가했다. 혜사는 이러한 평가에 근거해서 『반야경』을 불교의 이론법문을, 『법화경』을 실천법문을 대표하는 구경의 경전으로 주장했다. 이에 바탕을 두고 혜사는 주석학적 연구에 머물렀던 이전의 법화학자들과 달리, 『법화경』의 교목과 관심(觀心)의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했고, 이는 『법화경』 연구에 커다란 전환을 가져왔다. 지의는 이 점에 감명을 받아 혜사의 문하로 들어갔던 것이다. 그러나 『법화경』에 대한 혜사의 이해는 이론과 실천의 두 측면에 걸쳐서 『법화경』을 구경의 경전으로 확립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그는 이론법문에서의 구경의 경전을 『반야경』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법화경』을 실천뿐만 아니라 이론에서도 구경의 경전으로 확립하는 일은 지의의 과제로 남겨졌다. 그는 경전의 교판을 통해 이 과제를 성취했다. 그가 활약하던 당시, 남북조의 불교인들은 교판을 통해 대승과 소승의 수많은 불교경전들의 우열을 판단했다. 이것이 남삼칠북(南三北七)의 교판론이다. 이들은 이러한 교판을 통해, 『열반경』이나 『화엄경』을 궁극적 진리를 가르치는 구경의 경전으로 주장했다. 지의는 기존의 교판 체계를 분석한 뒤, 이들의 교판은 일관된 교판의 원리가 없어 설법 형식(化儀)과 설법 내용(化法)을 혼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비판을 통해, 그는 먼저 화의와 화법의 교판 원리를 확립한 뒤

이에 근거해 『법화경』이 이론에서도 궁극의 가르침임을 논증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 천태삼대부(天台三大部) 중 『법화현의』와 『법화문구』라는 두 저서이다. 이들은 지의의 『법화경』 연구에서 이론과 실천 중 이론 부문[교상문(敎相門)]에 해당한다. 지의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실천적인 측면에서도 『법화경』이 구경의 경전임을 논증하고자 했다. 그 결실이 천태삼대부 중의 『마하지관』이다. 지의는 이들 세 저서를 통해, 이론과 실천이 완비된 교관쌍수의 천태사상을 확립할 수 있었다. 지의가 『법화경』 연구에서 특히 실천적 측면을 중시했던 것은 그가 살았던 남북조 시대의 불교계의 타락과 관계가 깊다. 지의는 남북조시기의 불교계의 모습을 크게 불교의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냥 앉아 있기만 하면 그것이 곧 선수행인 줄 아는 암증선사(暗證禪師)와, 경전을 외우기만 하고 실제로 수행은 실천하지 않는 문자법사(文字法師)의 두 가지로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남북조시기의 불교 모습은 한 마디로 수행의 부재로 요약된다. 수행의 부재는 불교의 타락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지의는 그의 인생의 전반기에 이러한 불교계의 타락상을 실제로 경험했다. 31세 되던 해인 568년, 지의는 스승인 혜사의 문하를 떠나 북제의 수도인 금릉에 나아가 법회를 통해 그 이름을 장안에 떨쳤다. 이 때 그는 이미 물질적인 보시의 풍부함과 제자의 수의 증가에 반비례해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당하고 득도하는 제자는 더욱 적어지는 것을 보고 불교의 본질에 대해 회의했다. 지의에 앞서, 그의 스승인 혜사는 당시의 불교계를 말법(末法)시대로 규정하고 수행의 부재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나아가 수행이야말로 불교계의 타락을 막고 진정한 불교를 부흥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혜사의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남북조시기의 불교계는 전혀 개혁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결국 574년 북주 무제의 폐불이라는 극단적 정책을 가져왔다. 폐불 정책에 앞서, 이미 번잡한 수도에서의 생활이 수행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던 지의는 폐불 정책을 계기로, 38세 되던 해(575년) 마침내 금릉을 떠나 천태산으로 들어가 수행과 경전 연구에 일생을 바치기로 결심했다. 천태산으로 들어간 지의는 남북조시기의 불교계의 타락을 극복할 수 있는 사상

적 토대를 확립하기 위해 고민했다. 그는 남북조시기의 불교계의 타락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불교수행에서 이론과 실천의 병행을 주장했다. 수행에 대한 이러한 그의 관점이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저서가 바로 천태삼대부 중의 하나인 『마하지관』이다. 그는 이 저서를 통해 『법화경』의 실천법문인 ‘대승돈각(大乘頓覺), 속질원오’의 수행법을 체계적으로 주장함으로써, 교상문과 관상문의 이문(二門) 모두에서 법화지상주의를 확립할 수 있었다. 교상문과 관상문 이문에서 『법화경』이 가장 뛰어난 경전임을 주장하는 지의의 천태사상은 『법화경』의 실천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그의 스승인 혜사의 영향과 남북조 시기의 불교계가 안고 있었던 문제들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성립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1.3 생애 연보

- 1세(538): 양의 형주 화용현에서 출생.
- 18세(555): 상주 과원사 법서 문하로 출가. 지의라는 법명을 받음.
- 20-23세(555-560): 혜광의 문하에서 율과 대승경전을 배움.
- 23-30세(560-567): 대소산 혜사의 문하로 들어감. 대소산에서 크게 깨달음을 얻음.
- 31-38세(568-575): 금릉으로 나가 불법의 전도에 노력함.
- 38-48세(575-585): 천태산으로 들어가 경전연구와 수행정진.
- 50세(587): 금릉에서 『법화문구』강설.
- 54세(591): 진왕 광(후의 수양제)에게 보살계를 주고, 지자대사의 칭호를 받다.
- 56세(593): 『법화현의』 강설.
- 57세(594): 『마하지관』 강설.
- 58세(595): 『유마경소』 저술.
- 60세(597): 산동 석성산에서 열반.

## 1.4 저작

### 1.4.1 마하지관

한국어 표준본: 大止觀坐禪法 1-5, 김무득 역, 우리출판사, 1995.

영어 표준본: *The Great Calming and Contemplation*, Neal Donner and Daniel B. Stevenson, A Kuroda Institute Book, University of Hawaii Press, Honolulu, 1998.

원어 표준본: 『摩訶止觀』, 대정신수대장경, 46권, 1-140쪽.

일어 표준본: 『詳解摩訶止觀』, 池田魯參 譯, 大藏出版, 東京, 1998.

### 1.4.2 법화현의

한국어 표준본:

영어 표준본:

원어 표준본: 『妙法蓮華經玄義』, 대정신수대장경, 33권, 681-814쪽.

일어 표준본: 『法華玄義』, 菅野博史譯, 第三文明社, 東京, 1995.

### 1.4.3 천태소지관

한국어 표준본:

영어 표준본:

원어 표준본: 『修習止觀坐禪法要』, 대정신수대장경, 46권, 462-475쪽.

일어 표준본: 『天台小止觀』, 關口眞大譯, 岩波文庫, 東京, 1996.

## 2. 『마하지관』 해제

### 2.1 『마하지관』 요약

『마하지관』은 지의가 수의 개황14년(594) 4월 26일 형주 옥천사에서 하안거 동안 강설한 내용을 제자인 관정(灌頂)이 기록한 것이다. 이 책은 오략십광(五略十廣)으로 구성된다. 십광이란 1. 대의(大意), 2. 석명(釋名), 3. 체상(體相), 4. 섭법(攝法), 5. 편원(偏圓), 6. 방편(方便), 7. 정관(正觀), 8. 과보(果報), 9. 기교(起教), 10. 지귀(旨歸)의 10장(章)이고, 오략이란 1. 대의장(大意章)을 다시 발대심(發大心)·수대행(修大行)·감대과(感大果)·열대망(裂大綱)·귀대처(歸大處)의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마하지관』의 전체 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지의는 10장의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해의 편의를 위해 이러한 구성을 취한다고 했다. 10장 중 1장에서 5장까지는 발대심에, 6장과 7장은 수대행에, 8장은 감대과에, 9장은 열대망에, 10장은 귀대처에 각각 해당한다. 먼저 제1 대의장의 발대심은 올바른 발보리심에 대해 설명했다. 수대행은 보리심을 세운 중생이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 실천해야 할 방법으로서 사종삼매(四種三昧)를 설명하고, 감대과는 수행의 결과 얻게 되는 중도(中道)의 커다란 과보에 대해, 열대망은 과보의 결과 주위의 중생 또한 깨달음으로 이끄는 이타행(利他行)의 성립에 대해, 귀대처는 자리(自利)와 이타의 수행이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귀착지로서 법신(法身), 반야(般若), 해탈(解脫)의 세 가지 덕[三德]에 대해 설명했다. 대의장을 통해 『마하지관』의 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한 뒤, 다시 제2 석명장에서는 지관의 의미, 제3 체상장에서는 지관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진리, 제4 섭법장에서는 지관이라는 개념을 통해 부처의 모든 가르침[敎]을 포섭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했다. 제5 편원장은 섭법장에서 설명했던 부처의 가르침에 대소(大小), 공(共)불공(不共), 권실(權實), 사의(思議)와 불사의(不思議)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 제6 방편장은 지관을 실천하기에 앞서 갖추어야 할 이십오방편에 대해 설명하고 제7 정관장은 『마

하지관』의 중심 내용을 이루는 부분으로 십경십승관법(十境十乘觀法)에 대해 설명했다. 십경 중 관경(觀境)이후부터 10장까지는 하안거 기간이 끝남에 따라, 지의가 더 이상 강설하지 않아 장(章)의 이름만 있고 내용은 없다. 그러나 이 부분의 내용은 대의장의 감대과, 열대망, 귀대처를 통해 추론할 수 있다.

## 2.2 『마하지관』 해설

### 2.2.1 책의 판본에 대해

현재 우리가 보는 『마하지관』은 천태종 6조인 담연(湛然)의 『지관보행전홍결』(止觀輔行傳弘決)에 따르면, 지의의 제자인 관정(灌頂)이 선행하는 두 종류의 필록본(筆錄本)과 초고본(草稿本)에 근거해서 크게 재정비한 것이다. 『마하지관』을 전후로 해서 세 본이 더 있다. 첫째는 20권, 두 번째는 1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본(本)에 대해서는 아무 기록도 남아 있지 않지만, 두 번째 본인 초고본의 책 제목은 『원돈지관』(圓頓止觀)으로, 처음이 ‘생각하기’[竊念]로 시작된다. 서론 부분[序論分]은 1. 상략(商略), 2. 사승(祖承), 3. 변차(辯差), 4. 인증(引證), 5. 시처(示處)로, 본 내용 부분[正說分]은 1. 개장(開章), 2. 생기(生起), 3. 분별(分別), 4. 료간(料簡), 5. 해석(解釋)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관정은 자기의 서론분과 스승에게서 들은 정설분을 나란히 쓰는 것이 옳지 않다고 보고, 현재 전해지는 『마하지관』에서는 두 번째 본의 서론 부분의 상략(商略)을 없애고, 서론 부분을 다시 통서(通序)와 별서(別序)로 나눠, 통서에서는 ‘지관명정’(止觀明靜)으로 시작하여 『마하지관』이 설해진 시간과 장소를 밝혔다. 그리고 사승(師承) 이후부터를 별서로 삼되, 별서의 내용을 두 번째 본과 같이 구분해서 말하지 않고 그냥 서술하고, 정설분은 두 번째 본에 따라 서술했다. 한편 두 번째 본

을 광본(廣本), 현재의 세 번째 본을 약본(略本)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었다. 이에 대해 답연은 두 번째 본과 세 번째 본이 모두 쪽수가 같기 때문에, 세 번째 본은 두 번째 본의 약본이 아니라, 개정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2.2.2 성립 배경

지의는 『마하지관』에서 용수의 공사상, 세친의 유식사상과 같은 대승 불교 이론에 근거한 불교의 수행법을 확립하고자 했다. 중국인들은 일찍이 경론을 들여오던 시기부터 불교수행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이는 후한의 안세고와 삼국시대의 강승희 등이 선관(禪觀)에 대한 경전을 번역하고, 구마라집이 승예의 요청에 따라 『좌선삼매경』·『선법요해』·『선비요법경』과 같은 선경을 번역하여 선법이 중국에서 크게 유행토록 했던 것에서 알 수 있다. 동진의 혜원은 선법을 중시하여 제자를 서역으로 보내 선경과 계율을 구해오도록 했으며, 불타발타라에게 선경의 번역을 요청했다. 지의가 활약하기 이전, 중국인들이 실천했던 이러한 수행법들은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지만, 대체로 소승불교의 수행법을 따르고 있었던 듯하다. 이 이외에도 대승불교의 선법으로서 구마라집이 번역한 『수능엄삼매경』에 근거한 ‘수능엄삼매’, 지루가참이 번역한 『반주삼매경』에 근거한 ‘반주삼매’도 실천했다. 그런데 불교수행법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은 남북조시기에 이르러 왜곡되었다. 먼저 남조의 경우, 제(齊)와 양(梁)대에 이르러 『성실론』과 『열반경』 등과 같은 경론에 근거한 강학불교가 중시되면서 실제적인 실천수행은 무시되었다. 지의에 따르면, 문자법사인 이들은 경전을 이론적인 측면에서 분석할 뿐 실제적인 수행은 무시했다. 이와 달리 북조 불교는 『십지론』이나 『무량수경론』·『법화론』과 같은 세친이 서술한 경론에 근거해서 수행을 중시했지만, 경론의 독송에만 힘쓸 뿐 경론을 수행의 지침으로서 연구하지는 않았다. 지의는 이들을 경전에 대한 지적 이해 없이 단지 좌선만을 실천하는 암증선사들로 비판했다.

지의가 『마하지관』을 저술하기 전, 중국불교계는 수행론과 관련해서 중관론, 지론, 화엄과 같이 다양한 이론에 근거해 있었으며, 문자법사와 암증선사들 때문에 이론과 실천이 함께하는 정혜쌍수의 불교전통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었다. 중국불교계가 안고 있었던 이러한 문제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지의의 『마하지관』은 불교수행에서 하나의 통일된 이론체계를 확립하고, 이에 근거한 정혜쌍수의 불교 전통을 확립하기 위해 성립했다. 이는 구체적으로 대승불교의 이론에 근거해서 지관쌍수를 주장하는 원돈지관으로 나타났다.

### 2.2.3 『마하지관』에 대한 연구 주석

『마하지관』의 연구와 관련해서 중요한 사상가는 크게 관정(灌頂, 561-632), 담연(湛然, 711-782), 지예(知禮, 960-1028)를 들 수 있다. 관정은 지의의 제자로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마하지관』은 그의 덕택이다. 『마하지관』은 원래 지의가 594년(57세) 하안거 동안 형주의 옥천사에서 강설했던 것을, 관정이 필록하고 오늘날과 같이 정리하여 간행했기 때문이다. 그는 『마하지관』을 597년까지 정리하여, 그해 가을 이 정리본을 들고 요양 중이었던 여장에서 천태산으로 돌아와, 생전의 지의에게 헌정했다. 곧 지의는 진왕 광의 부름을 받아 천태산을 내려왔고, 산록 신창현의 석성사에서 60세로 입멸했다. 이후 관정은 632년 72세로 죽을 때까지 스승이 남긴 불법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의가 직접 보았던 정리 본은 그의 사후, 침삭과 수정을 거쳐 605년 수정본(제2본)으로 완성되었다. 관정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수정을 더해 607년부터 632년까지 약 25년에 걸쳐 『마하지관』을 완성했는데, 바로 이 책이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재수정본(제3본)으로서의 『마하지관』이다. 관정이 입멸한 뒤, 천태교학에서 그에 필적할 만한 활동을 한 이는 보이지 않는다. 관정 이후, 천태교학은 지위(智威, ?-680) — 해위(慧威, 634-713) — 현량(玄朗, 673-754)을 법맥으로 하여 이어지는 쇠퇴기를 경



험했다. 그러다가 현량의 제자인 담연에 와서 천태교학은 부흥기를 맞이했다. 담연은 천태교학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통해 천태교학의 기초를 확립한 인물로, 천태종 제6조(祖)로 평가된다. 그가 활약하던 시기, 중국불교계는 화엄종·선종·정토종 등 다양한 종파들이 서로 다투고 있었다. 담연은 지의의 『법화현의』·『법화문구』·『마하지관』의 천태삼대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들 종파불교들과 논쟁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천태교학의 특징을 밝혔다. 먼저 45세 때 『마하지관』의 주석서인 『보행전홍결』(輔行傳弘決, T.46)의 초본을 완성하고, 이후 수정을 거쳐 55세 때 완성했다. 이 저서는 『마하지관』에 대한 최초의 연구 주석서에 그치지 않고, 『마하지관』을 읽기 위해서는 후학들이 반드시 참조해야 하는 책이 되었다. 『마하지관』에 대한 그의 연구는 매우 엄밀했을 뿐만 아니라, 천태지관의 특징을 최초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마하지관』에서 “마음을 불가사의의 대상이라고 관찰한다.”라고 설명하는 구문에서의 마음이 “개이망심(介爾妄心)으로서의 한 순간[一念]의 마음”임을 명백히 했다. 다시 말해 한 순간 한 순간 생멸하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마음을 불교수행의 출발점으로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천태지관의 특징이자 뛰어난 점이라고 주장했던 것은 담연이 최초이다. 담연은 삼론종과 법상종의 『법화경』 해석에 반론을 제기했다. 또 징관에서 종밀로 전개되었던 화엄교학이 천태지관을 점차지관 혹은 점돈지관 정도로 폄하했던 것에 대해 원돈지관의 의미와 그 우월성을 명백히 하고, 또 『화엄경』을 별교일승(別敎一乘)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 초팔제호(超八醍醐)의 법화(法華) 교판론을 전개하여 대항했다. 한편, 그 세력이 왕성했던 선종을 『마하지관』에서 지의가 비판했던 암증선사의 입장과 같다고 비판함으로써 이론[敎]과 실천[觀]의 병행을 주장하는 천태지관의 우월성을 재확인했다. 그에 따르면, 교관의 수행 체계로부터 벗어나는 수행은 아무리 고상한 수행이라고 하더라도 불교의 수행이 아니다. 담연의 이러한 주장은 천태교학의 기본 정신으로 확립되면서 후세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마하지관』에 대한 그의 연구는 『보행전홍결』 외에도 보행의 요약본인 『지관수요기』(止觀搜要記)10권(續藏2編4套 2.3책)이 있다.

또 『마하지관』 전체를 개설한 『지관대의』(止觀大意)1권(T.46)이 있다. 또 『마하지관』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할 해석상의 요점을 정리하고 원돈지관의 의의를 명확히 한 『지관의례』(止觀儀例)2권(T.46)과 천태지관의 요점을 간명하게 설명한 『시종심요』(始終心要)1권(T.46)이 있다. 담연 이후 천태교학은 보문(709-792) — 양숙(751-793) — 도수(760-805)로 이어지면서 다시 한 번 쇠퇴의 길을 걷다가, 의적 문하의 의통의 제자였던 지례에 와서 다시 한 번 부흥기를 맞이했다. 지례는 ‘산가산외’(山家·山外)의 논쟁을 통해 담연의 천태교학을 재정립하는 일에 기여했다. 그는 종옥(宗昱)과 원청(源淸)의 ‘진심관경설’(眞心觀境說)에 대해 ‘망심관경설’(妄心觀境說)을 주장함으로써, 천태지관에서 수행의 출발점은 ‘망심’이라는 담연의 주장을 재확인했다. 그의 저서는 『지관의례경관호조』(止觀儀例境觀互照, T.46), 『석보행제하주문』(釋輔行題下注文, 상동), 『십불이문지요초』(十不二門指要鈔, T.46) 등이 중요하다. 이외에, 광지(廣智) 계통의 종의(從義)(1042-1091)의 『시종심요주』(始終心要註)1권(續藏, 2編5套4冊), 『지관의례찬요』6권(續藏, 2篇4套4冊) 『천태삼대부보주』(天台三大部補註)14권(續藏, 43套5冊-44套5冊)이 있다. 이들은 난해한 문구를 취하여 엄밀하게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참조할 만한 주장들이 많고 『마하지관』의 연구에 참조할 만한 저서라고 할 수 있다. 광지계의 처원(處元)이 저술한 『지관의례수석』(止觀儀例隨釋)6권(續藏, 2編4套5冊) 역시 『지관의례』를 읽을 때 반드시 참조해야 할 저서이다.

## 2.3 『마하지관』 상세 목차

	제1 발대심
	제2 수대행
서분	제1장 대의장 제3 감대과

	(5略)	제4 열대망	
		제5 귀대처	
	제2장 석명장		
	제3장 체상장		
	제4장 섭법장		
	제5장 편원장		
정설분	제6장 방편장		
	제7장 정관장	제1 음입계경	
	(10境)	제2 번뇌경	
		제3 병환경	
		제4 업상경	
		제5 마사경	
		제6 선경경	
		제7 제건경	
		제8 상만경	이하 不說
		제9 이승경	
		제10 보살경	
	제8장 과보장		
	제9장 기교장		
	제10장 지귀장		

## 2.4 주요 용어

### 2.4.1 지관

지관의 지(止)는 산스크리트어의 śamatha의 역어로 마음의 어지러움

을 고요히 하는 방법을, 관(觀)은 vipaśyana의 역어로 대상을 자세히 관찰하여 대상의 참된 모습을 통찰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일반적으로 지관은 깨달음이라는 불교의 최고선을 이루기 위한 실천적 방법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쓰인다. 그런데 지의는 『마하지관』에서 지관을 실천적 방법에 한정하지 않고, 실천적 방법이 지향하는 깨달음 즉 진리의 본성 자체를 설명하는 개념으로까지 확장해서 사용했다. 이는 상대지관과 절대지관에 대한 그의 설명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는 지관의 의미를 상대지관과 절대지관으로 구분하고, 상대지관을 통해 실천 방법과 관련하여 성립하는 지관의 의미를 각각 지식(止息), 정지(停止), 대부지지(對不止止)와 관천(貫穿), 관달(觀達), 대불관관(對不觀觀)의 세 가지로 설명했다. 나아가 절대지관에서는 명정(明淨)의 의미에 근거해서 상대지관을 개회(開會)했다. 여기서 명정은 진리의 원래 모습으로서, 진리의 본성을 의미한다. 한편 지의에게서 지관은 이론[敎相門]과 실천[觀相門]의 두 문의 통합을 주장하는 교관쌍수의 천태수행론을 확립하는 매개 개념이기도 하다. 지의에 따르면, 진리 자체는 언어적 분별을 통해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진리를 깨달은 부처는 중생을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해 언어를 매개로 해서 중생의 근기에 맞는 다양한 가르침[敎]을 펼쳤다. 그 결과 진리와 관련된 다양한 이론들이 성립했다. 지의는 이들을 화법사교(化法四敎)로 교관한 뒤, 이들 이론들에 근거한 다양한 수행법들을 중가입공관(從假入空觀), 종공입가관(從空入假觀), 식이변중도관(息二邊中道觀)의 삼지삼관(三止三觀)으로 정리했다. 나아가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실천 방법과 관련해서는 사중삼매(四種三昧), 이십오방편(二十五方便), 십경십승관법(十境十乘觀法)과 같은 구체적인 방법으로 지관의 의미를 다양한 측면에서 자세히 설명했다.

#### 2.4.2 원돈(圓頓)

지의는 『마하지관』에서 화법사교에 근거한 다양한 불교수행법들을 정

리했지만, 이러한 노력의 궁극적인 목적은 원교(圓敎)에 근거해서 성립하는 수행법인 원돈지관의 의미를 밝히는 것에 있었다. 그에 따르면, 원돈지관은 대승불교의 수행법이다. 이는 『마하지관』의 마하가 산스크리트어의 mahā의 역어로서, mahāyāna 즉 대승(大乘)을 가리킨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대승불교는 용수의 공사상에 근거해서 성립했다. 지의는 대승불교의 공사상을 용수의 『중론』(中論), 「관사제품」(觀四諦品), 24장(章), 18계(偈)인 “중생인연법, 아설즉시공, 역위시가명, 역시중도의”(衆因緣生法, 我說卽是空, 亦爲是假名, 亦是中道義)에 근거해서 이해했다. 용수에 따르면, 모든 존재는 조건에 의존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자성이 없다. 그는 자성이 없는 것을 가리켜 공이라고 하고, 조건에 의존해서 현상적으로 존재하는 모습을 가로, 이와 같이 모든 존재가 공이면서 동시에 가로 존재하는 모습을 가리켜 중도로 설명했다. 용수에게서 공·가·중은 모든 현상이 조건에 의존해서 일어난다는 불교의 궁극적인 진리인 연기(緣起)에 근거해서 논리적으로 도출된 개념으로서 이 셋은 모두 같은 의미를 갖는다. 4세기 경, 구마라집이 용수의 공사상을 중국에 소개한 뒤, 중국의 불교도들은 용수의 공사상에 근거해서 대승불교를 이해하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사상에 대한 이들의 이해나 주장은 하나로 통일되지도 않았고 심지어 공사상을 오해하기도 했다. 지의는 그가 활약하던 당시, 공사상과 관련된 중국인들의 이해 방식을 장교(藏敎), 통교(通敎), 별교(別敎), 원교(圓敎)의 화법사교(化法四敎)로 분류하고, 이 가운데 원교를 공사상을 가장 완전하고 타당하게 이해하는 가르침으로 평가했다. 원교에 따르면, 공·가·중은 즉공즉가즉중(卽空卽假卽中)의 원융(圓融)한 관계로서 하나의 연기적 현상을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한 이론이다. 지의는 이러한 원교에 근거하는 대승불교의 수행법을 원돈지관으로 정의했다. 만약 공·가·중을 지혜의 정도에 따라 드러나는 독립된 세 개의 진리로서 이해한다면,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은 점차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원교는 공·가·중을 원융한 관계로 이해하기 때문에, 궁극적인 깨달음은 단계적인 수행 과정 없이 한 순간에 완전하게[頓] 성취된다. 이것이 대승불교의 수행법으로서 성립하는 원돈지관의 의미이다.

### 2.4.3 마음

원돈지관은 한 마디로 한 순간 일어나는 중생의 마음의 참된 모습이 불사의(不思議)라는 것을 관찰하는 관심법(觀心法)이다. 지의는 즉공즉가즉중으로서의 제법실상(諸法實相)을 통찰하기 위한 관찰대상으로서 마음을 중시했다. 여기서의 마음은 번뇌로 물들어 있는 현상적인 중생의 마음을 가리킨다. 불교의 깨달음은 제법실상을 통찰함으로써 이를 수 있다. 중생은 번뇌로 마음이 어지럽기 때문에 제법의 실상을 통찰할 수 없다. 그래서 제법실상의 진리를 통찰하기 위해서는 먼저 번뇌를 제거함으로써 마음을 고요히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번뇌를 제거하기 위한 수많은 수행의 과정과 단계를 요구한다. 그런데 『마하지관』에 따르면, 원돈지관은 이러한 번뇌를 제거하기 위한 어떠한 단계적인 수행 과정도 밟지 않고, 나아가 모든 존재 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 마음에서 제법실상을 통찰하는 수행법이다. 지의는 원돈지관에 대한 이러한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마음과 모든 존재들[一切法]의 관계를 분석했다. 먼저 마음이 모든 존재를 만든다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를 통해, 일체법을 주관인 마음에 대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객관 대상으로 분별하는 일반적인 이해를 비판했다. 나아가 일체법을 만드는 마음 또한 육근과 육경을 조건으로 하여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적인 중생의 마음으로 설명함으로써, 모든 현상의 제1원인으로서 절대적인 마음이 아님을 논증했다. 나아가 심구일체법(心具一切法)을 통해 번뇌와 보리의 관계가 불이(不二)로 평등하다고 주장했다. 불이론에 따르면, 제법실상의 진리는 번뇌로 물든 마음을 떠나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진리가 아니라, 번뇌로 물든 마음의 실상으로서 번뇌와 함께 한다. 이는 제법실상의 통찰이 번뇌를 제거한 뒤가 아니라 바로 번뇌의 마음에서 통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단계적인 수행 과정 없이 한 순간에 온전히 진리를 통찰한다는 지의의 원돈지관은 일체유심조와 심구일체법과 같은 마음에 대한 이론에 근거해서 다시 한 번 정당화되었다.

## 제 2 부 철학 지식지도

### 1. 철학자 지식지도

- 토픽명: 지의
- 토픽 ID: ch\_zhiyi
- 상위 토픽명: 중국철학자
- 상위 토픽 ID: ch\_philosophers

#### 내부 어커런스

원어 이름: zhiyi

영어 이름: zhiyi

생애 요약: 1부 1.1

#### 외부 어커런스

생애 요약: 1부 1.1

생애 해설: 1부 1.2

인물 사진:

원어 웹사이트:

영어 웹사이트:

한국어 웹사이트:

#### 연관 관계

관계된 철학자: 나가르주나(in\_nagarjuna)

기여한 철학 분야: 불교철학(ch\_buddhism)

기여한 철학 학과: 선종(ch\_seon\_school),  
정토종(ch\_jeongto\_school),  
천태종(ch\_cheontae\_school)  
기여한 철학 이론: 돈점론(ch\_donjeom),  
불성론(ch\_bulseong),  
삼제론(ch\_samje),  
수행론(ch\_suhaeng),  
중도론(ch\_jungdo)  
주요 저작: 마하지관(ch\_zhiyi\_mahe),  
법화현의(ch\_zhiyi\_fahuaxuanyi),  
천태소지관(ch\_zhiyi\_xiaozhiguan)

## 2. 철학 문헌 지식지도

- 토픽명: 마하지관
- 토픽 ID: ch\_zhiyi\_mahe
- 상위 토픽명: 중국철학문헌
- 상위 토픽 ID: ch\_phil\_texts

### 내부 어커런스

원어 제목: mahezhiguan  
영어 제목: The Great Calming and Discerning  
원전 요약: 1부 2.1  
원전 초판 출판년도: 594년

### 외부 어커런스

원전 요약: 1부 2.1



원전 해설: 1부 2.2

상세 목차: 1부 2.3

책표지 그림:

원어 디지털 텍스트:

영어 디지털 텍스트:

한국어 디지털 텍스트:

철학 문헌 내용 토픽맵: ch\_zhiyi\_mahe\_km.xtm

## 연관 관계

저자: 지의(ch\_zhiyi)

관계된 철학자: 나가르주나(in\_nagarjuna)

기여한 철학 분야: 불교철학(ch\_buddhism)

기여한 철학 학파: 선종(ch\_seon\_school),  
정토종(ch\_jeongto\_school),  
천태종(ch\_cheontae\_school)

기여한 철학 이론:

## 3. 철학 용어 지식지도

### 3.1 지관

- 토픽명: 지관
- 토픽 ID: t1
- 상위 토픽명: 관
- 상위 토픽 ID: t\_ch\_discerning

### 내부 어커런스

원어 용어: zhiguan

영어 용어: calming and discerning

한자 표기: 止觀

용어 설명: 1부 2.4.1

### 외부 어커런스

용어 설명: 1부 2.4.1

### 연관 관계

사용한 철학자: 지의(ch\_zhiyi)

사용한 철학 문헌: 마하지관(ch\_zhiyi\_mahe)

사용한 내용 토픽: (c1.2.1.1)

## 3.2 원돈

- 토픽명: 원돈(마하지관)
- 토픽 ID: t2
- 상위 토픽명: 대승
- 상위 토픽 ID: t\_ch\_mahayana

### 내부 어커런스

원어 용어: yuantun

영어 용어:

한자 표기: 圓頓

용어 설명: 1부 2.4.2

## 외부 어커런스

용어 설명: 1부 2.4.2

## 연관 관계

사용한 철학자: 지의(ch\_zhiyi)

사용한 철학 문헌: 마하지관(ch\_zhiyi\_mahe)

사용한 내용 토픽: (c2.1)

## 3.3 마음

- 토픽명: 마음(마하지관)
- 토픽 ID: t3
- 상위 토픽명: 마음
- 상위 토픽 ID: t\_ch\_mind

## 내부 어커런스

원어 용어: hsin

영어 용어: mind

한자 표기: 心

용어 설명: 1부 2.4.3

## 외부 어커런스

용어 설명: 1부 2.4.3

## 연관 관계

사용한 철학자: 지의(ch\_zhiyi)

사용한 철학 문헌: 마하지관(ch\_zhiyi\_mahe)

사용한 내용 토픽: (c2.1.2)

## 4. 철학 문헌 내용 지식지도

### 1. 법(法)

#### 1.1 법의 의미 (e1.1.1)

##### 1.1.1 진여(眞如)

1.1.1.1 이언진여(離言眞如) (e1.1.1.1.1 / q1.1.1.1.2)

1.1.1.2 의언진여(依言眞如) (e1.1.1.2.1 / q1.1.1.2.2)

#### 1.2 교법(敎法)의 분류 (e1.2.1 / q1.2.2)

##### 1.2.1 지관(止觀)의 의미 (e1.2.1.1)

##### 1.2.1.1 상대지관(相待止觀) (e1.2.1.1.1)

##### 1.2.1.1.1 지(止)의 세 가지 의미 (q1.2.1.1.1.1)

1.2.1.1.1.1 지식(止息) (e1.2.1.1.1.1.1 / q1.2.1.1.1.1.2)

1.2.1.1.1.2 정지(停止) (e1.2.1.1.1.2.1 / q1.2.1.1.1.2.2)

1.2.1.1.1.3 대부지지(對不止止) (e1.2.1.1.1.3.1

/ q1.2.1.1.1.3.2)

##### 1.2.1.1.2 관(觀)의 세 가지 의미 (q1.2.1.1.2.1)

1.2.1.1.2.1 관천(觀穿) (e1.2.1.1.2.1.1 / q1.2.1.1.2.1.2)

1.2.1.1.2.2 관달(觀達)(e1.2.1.1.2.2.1 / q1.2.1.1.2.2.2)

1.2.1.1.2.3 대불관관(對不觀觀) (e1.2.1.1.2.3.1

/ q1.2.1.1.2.3.2)

##### 1.2.1.2 절대지관(絶待止觀) (e1.2.1.2.1)

1.2.1.2.1 상대지관의 부정으로서의 절대지관 (e1.2.1.2.1.1

/ q1.2.1.2.1.2-3)

1.2.1.2.2 명정(明淨)으로서의 절대지관 (e1.2.1.2.2.1

/ q1.2.1.2.2.2-4)

##### 1.2.1.3 상대지관과 절대지관의 관계 (e1.2.1.3.1 / q1.2.1.3.2)

#### 1.2.2 지관교법의 형태(e1.2.2.1 / q1.2.2.2)

##### 1.2.2.1 이론적 근거에 따른 형태

- 1.2.2.1.1 대승불교에서의 지관 (e1.2.2.1.1.1 / q1.2.2.1.1.2)
- 1.2.2.1.2 지관의 종류 - 삼지삼관(三止三觀) (e1.2.2.1.2.1)
  - 1.2.2.1.2.1 삼지(三止) (e1.2.2.1.2.1.1 / q1.2.2.1.2.1.2)
    - 1.2.2.1.2.1.1 체진지(體眞止) (e1.2.2.1.2.1.1.1 / q1.2.2.1.2.1.1.2)
    - 1.2.2.1.2.1.2 방편수연지(方便隨緣止) (e1.2.2.1.2.1.2.1 / q1.2.2.1.2.1.2.2)
    - 1.2.2.1.2.1.3 식이변분별지(息二邊分別止) (e1.2.2.1.2.1.3.1 / q1.2.2.1.2.1.3.2)
    - 1.2.2.1.2.1.4 상대지관에서의 삼지(三止)와의 관계 (e1.2.2.1.2.1.4.1 / q1.2.2.1.2.1.4.2)
  - 1.2.2.1.2.2 삼관(三觀) (q1.2.2.1.2.2.1)
    - 1.2.2.1.2.2.1 종가입공관(從假入空觀) (e1.2.2.1.2.2.1.1 / q1.2.2.1.2.2.1.2)
    - 1.2.2.1.2.2.2 종공입가관(從空入假觀)(e1.2.2.1.2.2.2.1 / q1.2.2.1.2.2.2.2)
    - 1.2.2.1.2.2.3 중도제일의제관(中道第一義諦觀) (e1.2.2.1.2.2.3.1 / q1.2.2.1.2.2.3.2)
    - 1.2.2.1.2.2.4 상대지관에서의 삼관(三觀)과의 관계 (e1.2.2.1.2.2.4.1 / q1.2.2.1.2.2.4.2)
  - 1.2.2.1.2.3 삼지삼관(三止三觀)의 관계
    - 1.2.2.1.2.3.1 차제적(次第的) 관계 (e1.2.2.1.2.3.1.1 / q1.2.2.1.2.3.1.2-3)
    - 1.2.2.1.2.3.2 불차제적(不次第的) 관계 (e1.2.2.1.2.3.2.1 / q1.2.2.1.2.3.2.2-4)
- 1.2.2.2 성취하는 능력[功用]에 따른 형태 - 안(眼)과 지(智) (e1.2.2.2.1 / q1.2.2.2.2)
  - 1.2.2.2.1 삼안삼지(三眼三智) (e1.2.2.2.1.1 / q1.2.2.2.1.2)
    - 1.2.2.2.1.1 삼안(三眼)

- 1.2.2.2.1.1.1 혜안(慧眼) (e1.2.2.2.1.1.1.1  
/ q1.2.2.2.1.1.1.2)
- 1.2.2.2.1.1.2 법안(法眼) (e1.2.2.2.1.1.2.1  
/ q1.2.2.2.1.1.2.2)
- 1.2.2.2.1.1.3 불안(佛眼) (q1.2.2.2.1.1.3.1)
- 1.2.2.2.1.2 삼지(三智)
  - 1.2.2.2.1.2.1 일체지(一切智) (e1.2.2.2.1.2.1.1  
/ q1.2.2.2.1.2.1.2)
  - 1.2.2.2.1.2.2 도종지(道種智) (q1.2.2.2.1.2.2.1)
  - 1.2.2.2.1.2.3 일체종지(一切種智) (q1.2.2.2.1.2.3.1)
- 1.2.2.2.1.3 삼안삼지(三眼三智)의 관계
  - 1.2.2.2.1.3.1 안과 지의 관계 (e1.2.2.2.1.3.1.1  
/ q1.2.2.2.1.3.1.2)
  - 1.2.2.2.1.3.2 삼안과 삼지 사이의 차제의 유무(有無)  
(e1.2.2.2.1.3.2.1 / q1.2.2.2.1.3.2.2)
- 1.2.2.3 깨달음의 경계에 따른 형태 (e1.2.2.3.1 / q1.2.2.3.2)
- 1.2.2.3.1 다양한 경계가 성립하는 원인 - 감응(感應)
  - (e1.2.2.3.1.1 / q1.2.2.3.1.2)
  - 1.2.2.3.1.1 감응의 형태 (e1.2.2.3.1.1.1 / q1.2.2.3.1.1.2)
    - 1.2.2.3.1.1.1 수정설(隨情說) (e1.2.2.3.1.1.1.1  
/ q1.2.2.3.1.1.1.2)
    - 1.2.2.3.1.1.2 수정지설(隨情智說) (e1.2.2.3.1.1.2.1  
/ q1.2.2.3.1.1.2.2)
    - 1.2.2.3.1.1.3 수지설(隨智說) (e1.2.2.3.1.1.3.1  
/ q1.2.2.3.1.1.3.2)
  - 1.2.2.3.1.2 사실단(四悉檀)과의 관계 (e1.2.2.3.1.2.1  
/ q1.2.2.3.1.2.2)
- 1.2.2.3.2 깨달음의 경계의 형태 (e1.2.2.3.2.1  
/ q1.2.2.3.2.2)

- 1.2.2.3.2.1 삼장교(三藏敎) (e1.2.2.3.2.1.1 / q1.2.2.3.2.1.2)
- 1.2.2.3.2.2 통교(通敎) (e1.2.2.3.2.2.1 / q1.2.2.3.2.2.2)
- 1.2.2.3.2.3 별교(別敎)(e1.2.2.3.2.3.1 / q1.2.2.3.2.3.2)
- 1.2.2.3.2.4 원교(圓敎)(e1.2.2.3.2.4.1 / q1.2.2.3.2.4.2)
- 1.2.2.3.3 다양한 지(智)의 형태 (e1.2.2.3.3.1 / q1.2.2.3.3.2)
- 1.2.2.3.4 경계와 지(智)의 관계
  - 1.2.2.3.4.1 사의(思議)의 관계 (e1.2.2.3.4.1.1 / q1.2.2.3.4.1.2)
  - 1.2.2.3.4.2 불사의(不思議)의 관계 (e1.2.2.3.4.2.1 / q1.2.2.3.4.2.2-3)
- 1.2.2.4 통찰을 막는 장애[迷惑]에 따른 형태 (e1.2.2.4.1 / q1.2.2.4.2)
  - 1.2.2.4.1 견사혹(見思惑) (e1.2.2.4.1.1 / q1.2.2.4.1.2)
  - 1.2.2.4.2 진사혹(塵沙惑) (e1.2.2.4.2.1 / q1.2.2.4.2.2)
  - 1.2.2.4.3 무명혹(無明惑) (e1.2.2.4.3.1 / q1.2.2.4.3.2)
  - 1.2.2.4.4 삼혹(三惑)과 삼지삼관(三止三觀)의 관계 (q1.2.2.4.4.1)
- 1.2.3 지관의 종류
  - 1.2.3.1 삼중지관(三種止觀) (e1.2.3.1.1 / q1.2.3.1.2)
  - 1.2.3.2 삼중지관의 형태
    - 1.2.3.2.1 점차지관(漸次止觀)(e1.2.3.2.1.1 / q1.2.3.2.1.2)
    - 1.2.3.2.2 부정지관(不定止觀)(e1.2.3.2.2.1 / q1.2.3.2.2.2)
    - 1.2.3.2.3 원돈지관(圓頓止觀)(e1.2.3.2.3.1 / q1.2.3.2.3.2)

## 2.대승 (e2.1 / q2.2)

- 2.1 대승원교(大乘圓敎)의 의미 (e2.1.1)
  - 2.1.1 삼제원융(三諦圓融)

- 2.1.1.1 삼제의 의미 (e2.1.1.1.1 / q2.1.1.1.2)
- 2.1.1.2 삼제의 관계 (e2.1.1.2)
  - 2.1.1.2.1 장교의 이해 (e2.1.1.2.1.1 / q2.1.1.2.1.2)
  - 2.1.1.2.2 통교의 이해(e2.1.1.2.2.1 / q2.1.1.2.2.2)
  - 2.1.1.2.3 별교의 이해(e2.1.1.2.3.1 / q2.1.1.2.3.2)
  - 2.1.1.2.4 원교의 이해(e2.1.1.2.4.1 / q2.1.1.2.4.2)
- 2.1.1.3 원융(圓融)의 의미
  - 2.1.1.3.1 불차제(不次第) (e2.1.1.3.1.1 / q2.1.1.3.1.2-3)
  - 2.1.1.3.2 불이(不二) (e2.1.1.3.2.1 / q2.1.1.3.2.2)
- 2.1.2 심구일체법(心具一切法) (e2.1.2.1)
  - 2.1.2.1 일체법(一切法)의 의미 - 십법계(十法界)
    - 2.1.2.1.1 십법계의 성립 (e2.1.2.1.1.1 / q2.1.2.1.1.2)
    - 2.1.2.1.2 십법계의 형태 (e2.1.2.1.2.1)
      - 2.1.2.1.2.1 지옥법계 (e2.1.2.1.2.1.1 / q2.1.2.1.2.1.2)
      - 2.1.2.1.2.2 아귀법계 (q2.1.2.1.2.2.1)
      - 2.1.2.1.2.3 축생법계 (q2.1.2.1.2.3.1)
      - 2.1.2.1.2.4 아수라법계 (q2.1.2.1.2.4.1)
      - 2.1.2.1.2.5 인법계(人法界)와 천법계(天法界)
        - (q2.1.2.1.2.5.1)
      - 2.1.2.1.2.6 이승(二乘)의 성문법계와 연각법계
        - (q2.1.2.1.2.6.1)
      - 2.1.2.1.2.7 보살법계 (q2.1.2.1.2.7.1)
      - 2.1.2.1.2.8 불법계(佛法界) (q2.1.2.1.2.8.1)
  - 2.1.2.2 마음의 의미
    - 2.1.2.2.1 연기적 현상으로서의 마음[一念心] (e2.1.2.2.1.1 / q2.1.2.2.1.2)
    - 2.1.2.2.2 일법계(一法界)로서의 마음 (e2.1.2.2.2.1 / q2.12.2.2.2)
    - 2.1.2.2.3 불사의(不思議)의 마음 (e2.1.2.2.3.1)





- 2.2.3 진실(眞實) 관법이다 (e2.2.3.1)
  - 2.2.3.1 방편의 의미 (e.2.2.3.1.1 / q2.2.3.1.2)
  - 2.2.3.2 방편과 진실의 관계 (e2.2.3.2.1)
    - 2.2.3.2.1 사실단(四悉檀)과 관련해서 (q2.2.3.2.1.1)
    - 2.2.3.2.2 오미(五味)와 관련해서 (q2.2.3.2.2.1)
    - 2.2.3.2.3 사종지관(四種止觀)과 관련해서 (q2.2.3.2.3.1)
    - 2.2.3.2.4 불사의의 의미와 관련해서 (q2.2.3.2.4.1)

## 2.3 대승원교의 수행계위

- 2.3.1 육즉(六卽)의 성립 (e2.3.1.1 / q2.3.1.2)
- 2.3.2 육즉의 의의 (e2.3.2.1 / q2.3.2.2)
- 2.3.3육즉의 형태
  - 2.3.3.1리즉(理卽) (e2.3.3.1.1 / q2.3.3.1.2)
  - 2.3.3.2명자즉(名字卽) (e2.3.3.2.1 / q2.3.3.2.2)
  - 2.3.3.3관행즉(觀行卽) (e2.3.3.3.1 / q2.3.3.3.2)
  - 2.3.3.4상사즉(相似卽) (e2.3.3.4.1 / q2.3.3.4.2)
  - 2.3.3.5분진즉(分眞卽) (e2.3.3.5.1 / q2.3.3.5.2)
  - 2.3.3.6구경즉(究竟卽)(e2.3.3.6.1 / q2.3.3.6.2)

## 3. 선정(禪定)

- 3.1삼매(三昧)의 본질 (e3.1.1 / q3.1.2)
- 3.2삼매의 형태
  - 3.2.1삼매의 의미 (e3.2.1.1 / q3.2.1.2)
  - 3.2.2삼매의 구성 (e.3.2.2.1 / q3.2.2.2)
  - 3.2.3삼매의 네 가지 형태 - 사종삼매(四種三昧) (e3.2.3.1 / q3.2.3.2)
    - 3.2.3.1상좌삼매(常坐三昧)
      - 3.2.3.1.1의미 (e3.2.3.1.1.1 / q3.2.3.1.1.2)
      - 3.2.3.1.2수행방법 (e3.2.3.1.2.1 / q3.2.3.1.2.2)
        - 3.2.3.1.2.1몸 (e3.2.3.1.2.1.1 / q3.2.3.1.2.1.2)

- 3.2.3.1.2.2 입(e3.2.3.1.2.2.1 / q3.2.3.1.2.2.2)
- 3.2.3.1.2.3 마음
  - 3.2.3.1.2.3.1 지(止) (e3.2.3.1.2.3.1.1 / q3.2.3.1.2.3.1.2)
  - 3.2.3.1.2.3.2 관(觀) (e3.2.3.1.2.3.2.1 / q3.2.3.1.2.3.2.2)
- 3.2.3.2 상행삼매(常行三昧)
  - 3.2.3.2.1 의미 (e3.2.3.2.1.1 / q3.2.3.2.1.2)
  - 3.2.3.2.2 수행방법
    - 3.2.3.2.2.1 몸 (e3.2.3.2.2.1.1 / q3.2.3.2.2.1.2)
    - 3.2.3.2.2.2 입 (e3.2.3.2.2.2.1 / q3.2.3.2.2.2.2)
    - 3.2.3.2.2.3 마음
      - 3.2.3.2.2.3.1 지(止) (e3.2.3.2.2.3.1.1 / q3.2.3.2.2.3.1.2)
      - 3.2.3.2.2.3.2 관(觀) (e3.2.3.2.2.3.2.1 / q3.2.3.2.2.3.2.2)
- 3.2.3.3 반좌반행삼매(半坐半行三昧)
  - 3.2.3.3.1 의미 (e3.2.3.3.1.1 / q3.2.3.3.1.2)
  - 3.2.3.3.2 수행방법
    - 3.2.3.3.2.1 방등참회(方等懺悔)
      - 3.2.3.3.2.1.1 몸(e3.2.3.3.2.1.1.1 / q3.2.3.3.2.1.1.2)
      - 3.2.3.3.2.1.2 입 (q3.2.3.3.2.1.2.1)
      - 3.2.3.3.2.1.3 마음 (e3.2.3.3.2.1.3.1 / q3.2.3.3.2.1.3.2)
    - 3.2.3.3.2.2 법화참회(法華懺悔)
      - 3.2.3.3.2.2.1 의미 (e3.2.3.3.2.2.1.1 / q3.2.3.3.2.2.1.2)
      - 3.2.3.3.2.2.2 수행방법
        - 3.2.3.3.2.2.2.1 몸과 입 (e3.2.3.3.2.2.2.1.1 / q3.2.3.3.2.2.2.1.2)
        - 3.2.3.3.2.2.2.2 마음 (e3.2.3.3.2.2.2.2.1)

/ q3.2.3.3.2.2.2.2)

### 3.2.3.4 비행비좌삼매(非行非坐三昧)

3.2.3.4.1 의미 (e3.2.3.4.1.1 / q3.2.3.4.1.2)

3.2.3.4.2 수행방법 (e3.2.3.4.2.1 / q3.2.3.4.2.2)

3.2.3.4.2.1 여러 경전에 근거하다

3.2.3.4.2.1.1 의미 (e3.2.3.4.2.1.1.1)

3.2.3.4.2.1.2 수행방법

3.2.3.4.2.1.2.1 몸과 입 (q3.2.3.4.2.1.2.1.1)

3.2.3.4.2.1.2.2 마음 (e3.2.3.4.2.1.2.2.1

/q3.2.3.4.2.1.2.2.2)

3.2.3.4.2.2 세 가지 마음에 근거하다

3.2.3.4.2.2.1 수행방법 - 사운심(四運心) (e3.2.3.4.2.2.1.1

/ q3.2.3.4.2.2.1.2)

3.2.3.4.2.2.2 여러 선한 마음에 근거하다 (e3.2.3.4.2.2.2.1

/ q3.2.3.4.2.2.2.2)

3.2.3.4.2.2.3 여러 악한 마음에 근거하다 (e3.2.3.4.2.2.3.1

/ q3.2.3.4.2.2.3.2)

3.2.3.4.2.2.3.1 수행방법 (e3.2.3.4.2.2.3.1.1

/ q3.2.3.4.2.2.3.1.2)

3.2.3.4.2.2.4 무기(無記)의 마음에 근거하다

(e3.2.3.4.2.2.4.1)

3.2.3.4.2.2.4.1 수행방법 (q3.2.3.4.2.2.4.1.1)

### 3.3 사종삼매(四種三昧)의 관계

3.3.1 수행의 권유와 관련해서 (e3.3.1.1 / q3.3.1.2)

3.3.2 수행방법의 다양함과 관련해서 (e3.3.2.1 / q3.3.2.2)

## 4.방편 (e4.1)

4.1 방편의 의미

4.1.1 일반적 의미

- 4.1.1.1 선교(善巧) (q4.1.1.1.1)
- 4.1.1.2 화합(和合) (q4.1.1.2.1)
- 4.1.2 원교에서의 방편의 의미 (e4.1.2.1 / q4.1.2.2)
- 4.2 이십오방편(二十五方便)의 형태 (e4.2.1 / q4.2.2)
- 4.2.1 다섯 가지 조건을 갖추다[具五緣] (q4.2.1.1)
- 4.2.1.1 지계청정(持戒淸淨) (e4.2.1.1.1)
- 4.2.1.1.1 계명(戒名)
- 4.2.1.1.1.1 성계(性戒) (q4.2.1.1.1.1.1)
- 4.2.1.1.1.2 객계(客戒) (e4.2.1.1.1.2.1 / q4.2.1.1.1.2.2)
- 4.2.1.1.1.3 성계와 객계의 관계 (e4.2.1.1.1.3.1 / q4.2.1.1.1.3.2)
- 4.2.1.1.2 계율의 의미 (e4.2.1.1.2.1)
- 4.2.1.1.2.1 사계(事戒) -현상으로서의 계 (e4.2.1.1.2.1.1 / q4.2.1.1.2.1.2)
- 4.2.1.1.2.2 리계(理戒) -진리로서의 계 (e4.2.1.1.2.2.1 / q4.2.1.1.2.2.2)
- 4.2.1.1.2.3 사계와 리계의 관계 (q4.2.1.1.2.3.1)
- 4.2.1.1.3 범계(犯戒)
- 4.2.1.1.3.1 범계의 원인
- 4.2.1.1.3.1.1 애(愛) (q4.2.1.1.3.1.1.1)
- 4.2.1.1.3.1.2 견(見) (e4.2.1.1.3.1.2.1 / q4.2.1.1.3.1.2.2)
- 4.2.1.1.4 참회
- 4.2.1.1.4.1 의미 (e4.2.1.1.4.1.1 / q4.2.1.1.4.1.2)
- 4.2.1.1.4.2 수행방법 (e4.2.1.1.4.2.1)
- 4.2.1.1.4.2.1 순류(順流)의 열 가지 마음 (e4.2.1.1.4.2.1.1 / q4.2.1.1.4.2.1.2)
- 4.2.1.1.4.2.2 역류(逆流)의 열 가지 마음 (e4.2.1.1.4.2.2.1 / q4.2.1.1.4.2.2.2)

- 4.2.1.2 의식구족(衣食具足) (e4.2.1.2.1 / q4.2.1.2.2)
- 4.2.1.3 한거정처(閑居靜處)(e4.2.1.3.1 / q4.2.1.3.2)
- 4.2.1.4 식제연무(息諸緣務) (e4.2.1.4.1 / q4.2.1.4.2)
- 4.2.1.5 득선지식(得善知識)(e4.2.1.5.1 / q4.2.1.5.2)
- 4.2.2 다섯 가지 욕망을 꾸짖다[呵五欲]
- 4.2.2.1 의미 (e4.2.2.1.1 / q4.2.2.1.2)
- 4.2.2.2 관법으로서의 가오욕(呵五欲) (q4.2.2.2.1)
- 4.2.3 다섯 가지 덮개를 버리다[棄五蓋] (e4.2.3.1 / q4.2.3.2)
- 4.2.3.1 수행방법
- 4.2.3.1.1 사(事)의 기사(棄捨)
- 4.2.3.1.1.1 부정관(不淨觀) (e4.2.3.1.1.1.1 / q4.2.3.1.1.1.2)
- 4.2.3.1.1.2 자비관(慈悲觀) (e4.2.3.1.1.2.1 / q4.2.3.1.1.2.2)
- 4.2.3.1.1.3 정진(精進) (e4.2.3.1.1.3.1 / q4.2.3.1.1.3.2)
- 4.2.3.1.1.4 수식관(數息觀) (e4.2.3.1.1.4.1 / q4.2.3.1.1.4.2)
- 4.2.3.1.1.5 자신의 실제 모습을 부자의 눈 먼 아들이라고 생각하다 (e4.2.3.1.1.5.1 / q4.2.3.1.1.5.2)
- 4.2.3.1.2 리(理)의 기사(棄捨) (e4.2.3.1.2.1 / q4.2.3.1.2.2)
- 4.2.4 다섯 가지 일을 조절하다[調五事] (q4.2.4.1)
- 4.2.4.1 사(事)의 오사(五事)
- 4.2.4.1.1 음식을 조절하다 (q4.2.4.1.1.1)
- 4.2.4.1.2 잠을 조절하다 (q4.2.4.1.2.1)
- 4.2.4.1.3 몸, 호흡 마음을 조절하다 (e4.2.4.1.2.1 / q4.2.4.1.3.2)
- 4.2.4.2 리(理)의 오사(五事) (e4.2.4.2.1 / q4.2.4.2.2)
- 4.2.5 다섯 가지 법을 행하다[行五法]

4.2.5.1 형태 (e4.2.5.1.1 / q4.2.5.1.2)

4.2.5.2 의미 (e4.2.5.2.1 / 4.2.5.2.2)

## 5.관(觀)

5.1 관의 필요성 (e5.1.1 / q5.1.2)

5.2 관의 의미 (e5.2.1 / q5.2.2)

5.3 관의 형태 (e5.3.1)

5.3.1 십경(十境)

5.3.1.1 십경의 의미 (q5.3.1.1.1)

5.3.1.2 십경의 구성

5.3.1.2.1 십경의 발생

5.3.1.2.1.1 음입계경(陰入界境)이 처음에 오다  
(q5.3.1.2.1.1.1)

5.3.1.2.1.2 차례로 발생하다 (q5.3.1.2.1.2.1)

5.3.1.2.1.3 일정한 순서 없이 발생하다 (q5.3.1.2.1.3.1)

5.3.1.2.2 십경의 관계 (q5.3.1.2.2.1)

5.3.1.3 십경의 형태

5.3.1.3.1 음입계경 (e5.3.1.3.1.1 / q5.3.1.3.1.2)

5.3.1.3.2 번뇌경(煩惱境)

5.3.1.3.2.1 수행의 필요성 (e5.3.1.3.2.1.1  
/ q5.3.1.3.2.1.2)

5.3.1.3.2.2 번뇌의 모습 (e5.3.1.3.2.2.1 / q5.3.1.3.2.2.2)

5.3.1.3.2.3 번뇌가 일어나는 인연 (e5.3.1.3.2.3.1)

5.3.1.3.2.3.1 습인(習因)의 종자 (q5.3.1.3.2.3.1.1)

5.3.1.3.2.3.2 업력(業力)의 자극 (q5.3.1.3.2.3.2.1)

5.3.1.3.2.3.3 마귀의 선동 (q5.3.1.3.2.3.3.1)

5.3.1.3.2.4 번뇌를 치료하는 방법 (e5.3.1.3.2.4.1  
/ q5.3.1.3.2.4.2)

5.3.1.3.2.5 지관(止觀)수행

- 5.3.1.3.2.5.1 번뇌경과 관련한 두 가지 오해
  - 5.3.1.3.2.5.1.1 무애도(無礙道)에 대한 오해
    - (e5.3.1.3.2.5.1.1.1
    - / q5.3.1.3.2.5.1.1.2)
  - 5.3.1.3.2.5.1.2 중도행(中道行)에 대한 오해
    - (e5.3.1.3.2.5.1.2.1
    - / q5.3.1.3.2.5.1.2.2)
- 5.3.1.3.2.5.2 대승원교의 무애도 (e5.3.1.3.2.5.2.1
  - / q5.3.1.3.2.5.2.2)
- 5.3.1.3.2.5.3 번뇌경에 대한 지관수행 (e5.3.1.3.2.5.3.1
  - / q5.3.1.3.2.5.3.2)
- 5.3.1.3.3 병환경(病患境)
  - 5.3.1.3.3.1 수행의 필요성 (e5.3.1.3.3.1.1
    - / q5.3.1.3.3.1.2)
  - 5.3.1.3.3.2 병환의 모습 (e5.3.1.3.3.2.1)
  - 5.3.1.3.3.3 병환의 원인 (e5.3.1.3.3.3.1)
    - 5.3.1.3.3.3.1 주병(注病) (q5.3.1.3.3.3.1.1)
    - 5.3.1.3.3.3.2 수식(數息)의 부조화(不調和)
      - (q5.3.1.3.3.3.2.1)
  - 5.3.1.3.3.3.3 지(止) (q5.3.1.3.3.3.3.1)
  - 5.3.1.3.3.3.4 관(觀) (q5.3.1.3.3.3.4.1)
- 5.3.1.3.3.4 병환을 치료하는 방법 (e5.3.1.3.3.4.1
  - / q5.3.1.3.3.4.2)
  - 5.3.1.3.3.4.1 지(止) (q5.3.1.3.3.4.1.1)
  - 5.3.1.3.3.4.2 기(氣) (e5.3.1.3.3.4.2.1
    - / q5.3.1.3.3.4.2.2)
  - 5.3.1.3.3.4.3 식(息) (q5.3.1.3.3.4.3.1)
  - 5.3.1.3.3.4.4 가상(假想) (q5.3.1.3.3.4.4.1)
  - 5.3.1.3.3.4.5 관심(觀心) (q5.3.1.3.3.4.5.1)



- 5.3.1.3.3.4.6 방술(方術) (q5.3.1.3.3.3.4.6.1)
- 5.3.1.3.3.5 병환경에 대한 지관수행 (e5.3.1.3.3.5.1 / q5.3.1.3.3.5.2)
- 5.3.1.3.4 업상경(業相境) (e5.3.1.3.4.1 / q5.3.1.3.4.2)
  - 5.3.1.3.4.1 업상이 일어나는 인연
    - 5.3.1.3.4.1.1 내부 인연 (q5.3.1.3.4.1.1.1)
    - 5.3.1.3.4.1.2 외부 인연 (q5.3.1.3.4.1.2.1)
  - 5.3.1.3.4.2 업상이 일어나는 모습 (e5.3.1.3.4.2.1)
    - 5.3.1.3.4.2.1 습인습과(習因習果)의 의미 (q5.3.1.3.4.2.1.1)
    - 5.3.1.3.4.2.2 보인보과(報因報果)의 의미 (q5.3.1.3.4.2.2.1)
    - 5.3.1.3.4.2.3 보과의 모습 (q5.3.1.3.4.2.3.1)
    - 5.3.1.3.4.2.4 습인의 모습 (q5.3.1.3.4.2.4.1)
    - 5.3.1.3.4.2.5 선업상(善業相) (e5.3.1.3.4.2.5.1 / q5.3.1.3.4.2.5.2)
    - 5.3.1.3.4.2.6 악업상(惡業相) (e5.3.1.3.4.2.6.1 / q5.3.1.3.4.2.6.2)
- 5.3.1.3.4.3 업장(業障)의 차이에 대해 (e5.3.1.3.4.3.1 / q5.3.1.3.4.3.2)
- 5.3.1.3.4.4 업상경에 대한 지관수행 (e5.3.1.3.4.4.1 / q5.3.1.3.4.4.2)
- 5.3.1.3.5 마사경(魔事境) (e5.3.1.3.5.1 / q5.3.1.3.5.2)
  - 5.3.1.3.5.1 마사의 의미 (e5.3.1.3.5.1.1 / q5.3.1.3.5.1.2)
  - 5.3.1.3.5.2 마사가 나타나는 모습
    - 5.3.1.3.5.2.1 퇴척귀(퇴惕鬼) (q5.3.1.3.5.2.1.1)
    - 5.3.1.3.5.2.2 시미귀(時媚鬼) (e5.3.1.3.5.2.2.1 / q5.3.1.3.5.2.2.2)
    - 5.3.1.3.5.2.3 마라귀(魔羅鬼) (e5.3.1.3.5.2.3.1)



- 5.3.1.3.6.3.1.2.1.3 여덟 가지 지각의 내용  
(q5.3.1.3.6.3.1.2.1.3.1.)
- 5.3.1.3.6.3.1.2.1.4 올바른 지각  
(q5.3.1.3.6.3.1.2.1.4.1)
- 5.3.1.3.6.3.1.2.1.5 잘못된 지각  
(q5.3.1.3.6.3.1.2.1.5.1)
- 5.3.1.3.6.3.1.2.2 색계의 사선과 오지(五支)
  - 5.3.1.3.6.3.1.2.2.1 오지 (q5.3.1.3.6.3.1.2.2.1.1)
  - 5.3.1.3.6.3.1.2.2.2 색계 사선과 오지의 관계  
(e5.3.1.3.6.3.1.2.2.2.1  
/ q5.3.1.3.6.3.1.2.2.2.2)
- 5.3.1.3.6.3.2 십육특승(十六特勝)
  - 5.3.1.3.6.3.2.1 십육특승의 의미 (q5.3.1.3.6.3.2.1.1)
  - 5.3.1.3.6.3.2.2 십육특승이 일어나는 모습  
(e5.3.1.3.6.3.2.2.1  
/ q5.3.1.3.6.3.2.2.2)
- 5.3.1.3.6.3.3 통명선(通明禪)
  - 5.3.1.3.6.3.3.1 통명선의 의미 (q5.3.1.3.6.3.3.1.1)
  - 5.3.1.3.6.3.3.2 통명선이 일어나는 모습  
(q5.3.1.3.6.3.3.2.1)
- 5.3.1.3.6.3.4 부정선(不淨禪)
  - 5.3.1.3.6.3.4.1 구상(九想)의 의미 (e5.3.1.3.6.3.4.1.1  
/ q5.3.1.3.6.3.4.1.2)
  - 5.3.1.3.6.3.4.2 부정관이 일어나는 모습
    - 5.3.1.3.6.3.4.2.1 창상(脹相) (q5.3.1.3.6.3.4.2.1.1)
    - 5.3.1.3.6.3.4.2.2 괴상(壞相) (q5.3.1.3.6.3.4.2.2.1)
    - 5.3.1.3.6.3.4.2.3 혈도상(血塗相)  
(q5.3.1.3.6.3.4.2.3.1)
    - 5.3.1.3.6.3.4.2.4 농란상(膿爛相)

- (q5.3.1.3.6.3.4.2.4.1)
- 5.3.1.3.6.3.4.2.5 청어상(靑瘀相)
  - (q5.3.1.3.6.3.4.2.5.1)
- 5.3.1.3.6.3.4.2.6 담상(噉相) (q5.3.1.3.6.3.4.2.6.1)
- 5.3.1.3.6.3.4.2.7 산상(散相) (q5.3.1.3.6.3.4.2.7.1)
- 5.3.1.3.6.3.4.2.8 골상(骨相) (q5.3.1.3.6.3.4.2.8.1)
- 5.3.1.3.6.3.4.3 부정관의 대치효능 (q5.3.1.3.6.3.4.3.1)
- 5.3.1.3.6.3.5 팔배사(八背捨)
  - 5.3.1.3.6.3.5.1 팔배사의 의미 (q5.3.1.3.6.3.5.1.1)
  - 5.3.1.3.6.3.5.2 팔배사가 일어나는 모습
    - (e5.3.1.3.6.3.5.2.1
    - / q5.3.1.3.6.3.5.2.2)
- 5.3.1.3.6.3.6 대부정(大不淨)
  - 5.3.1.3.6.3.6.1 대부정의 의미 (e5.3.1.3.6.3.6.1.1
  - / q5.3.1.3.6.3.6.1.2)
  - 5.3.1.3.6.3.6.2 대부정이 일어나는 모습
    - (e5.3.1.3.6.3.6.2.1
    - / q5.3.1.3.6.3.6.2.2)
- 5.3.1.3.6.3.7 자비심(慈悲心)
  - 5.3.1.3.6.3.7.1 자비심의 의미 (q5.3.1.3.6.3.7.1.1)
  - 5.3.1.3.6.3.7.2 자비심이 일어나는 모습
    - (e5.3.1.3.6.3.7.2.1
    - / q5.3.1.3.6.3.7.2.2)
- 5.3.1.3.6.3.8 인연(因緣)
  - 5.3.1.3.6.3.8.1 인연의 의미 (e5.3.1.3.6.3.8.1.1
  - / q5.3.1.3.6.3.8.1.2)
  - 5.3.1.3.6.3.8.2 인연과 십승관법(十乘觀法)
    - (e5.3.1.3.6.3.8.2.1
    - / q5.3.1.3.6.3.8.2.2)

- 5.3.1.3.6.3.9 염불(念佛)
  - 5.3.1.3.6.3.9.1 염불이 일어나는 모습 (e5.3.1.3.6.3.9.1.1 / q5.3.1.3.6.3.9.1.2)
  - 5.3.1.3.6.3.9.2 올바른 염불 (q5.3.1.3.6.3.9.2.1)
- 5.3.1.3.6.3.10 신통(神通) (q5.3.1.3.6.3.10.1)
- 5.3.1.3.6.4 선정경에 대한 지관수행
  - 5.3.1.3.6.4.1 선정에 대한 주의 (q5.3.1.3.6.4.1.1)
  - 5.3.1.3.6.4.2 십승관법의 수행(q5.3.1.3.6.4.2.1)
- 5.3.1.3.7 제견경(諸見境)
  - 5.3.1.3.7.1 제견경의 의미 (e5.3.1.3.7.1.1 / q5.3.1.3.7.1.2)
  - 5.3.1.3.7.2 제견에 따른 사람과 그 가르침
    - 5.3.1.3.7.2.1 사견인(邪見人)의 종류
      - 5.3.1.3.7.2.1.1 불법(佛法)과 무관한 외도(外道) (e5.3.1.3.7.2.1.1.1 / q5.3.1.3.7.2.1.1.2)
      - 5.3.1.3.7.2.1.2 불법에 근거한 외도 (e5.3.1.3.7.2.1.2.1 / q5.3.1.3.7.2.1.2.2)
      - 5.3.1.3.7.2.1.3 불법 내부의 외도 (q5.3.1.3.7.2.1.3.1)
    - 5.3.1.3.7.2.2 사견인이 집착하는 가르침의 종류 (q5.3.1.3.7.2.2.1)
  - 5.3.1.3.7.3 제견이 일어나는 모습 (e5.3.1.3.7.3.1)
    - 5.3.1.3.7.3.1 제견이 일어나는 원인
      - 5.3.1.3.7.3.1.1 선정의 경우 (q5.3.1.3.7.3.1.1.1)
      - 5.3.1.3.7.3.1.2 가르침을 듣는 경우 (q5.3.1.3.7.3.1.2.1)
      - 5.3.1.3.7.3.1.3 선정과 가르침을 듣는 경우의 차이 (q5.3.1.3.7.3.1.3.1)
    - 5.3.1.3.7.3.2 사견(邪見)이 일어나는 모습
      - 5.3.1.3.7.3.2.1 선정에 근거해서 사견이 일어나는 모습 (q5.3.1.3.7.3.2.1.1)

- 5.3.1.3.7.3.2.2 화법사교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모습
- 5.3.1.3.7.3.3 제견이 일어나는 모습에서의 차이
  - (q5.3.1.3.7.3.3.1)
- 5.3.1.3.7.4 제견의 과실(過失)
  - 5.3.1.3.7.4.1 제견의 허물에 대해
    - 5.3.1.3.7.4.1.1 중국의 경우
      - 5.3.1.3.7.4.1.1.1 삼현(三玄) (q5.3.1.3.7.4.1.1.1.1)
      - 5.3.1.3.7.4.1.1.2 삼현의 이득과 과실을 논하다
        - (q5.3.1.3.7.4.1.1.2.1)
    - 5.3.1.3.7.4.1.2 인도의 경우 (e5.3.1.3.7.4.1.2.1)
      - 5.3.1.3.7.4.1.2.1 공견[無見]의 종류
        - (q5.3.1.3.7.4.1.2.1.1)
      - 5.3.1.3.7.4.1.2.2 무견의 이득과 과실을 논하다
        - (q5.3.1.3.7.4.1.2.2.1)
    - 5.3.1.3.7.4.1.3 불법 내부의 사건에 대한 과실을 논하다
      - (q5.3.1.3.7.4.1.3.1)
  - 5.3.1.3.7.4.2 제견의 진위(眞僞)를 결정하는 방법
    - 5.3.1.3.7.4.2.1 제견을 일으키는 가르침의 진위를 결정하다
      - (q5.3.1.3.7.4.2.1.1)
    - 5.3.1.3.7.4.2.2 근거하고 있는 가르침과 관련해서 제견의 진위를 결정하다 (e5.3.1.3.7.4.2.2.1 / q5.3.1.3.7.4.2.2.2)
- 5.3.1.3.7.5 제견경이 갖는 효용 (e5.3.1.3.7.5.1 / q5.3.1.3.7.5.2)
- 5.3.1.3.7.6 제견경에 대한 지관수행 (e5.3.1.3.7.6.1 / q5.3.1.3.7.6.2)
- 5.3.1.3.8 증상만경(增上慢境) (e5.3.1.3.8.1 / q5.3.1.3.8.2)
- 5.3.1.3.9 이승경(二乘境)(e5.3.1.3.9.1 / q5.3.1.3.9.2)
- 5.3.1.3.10 보살경(菩薩境)(e5.3.1.3.10.1 / q5.3.1.3.10.2)

## 5.3.2.4.2.1.1.1.2 파가관(破假觀)[空觀]

- 5.3.2.4.2.1.1.2.1 공관의 방법
  - (e5.3.2.4.2.1.1.1.2.1.1
  - / q5.3.2.4.2.1.1.1.2.1.2)
- 5.3.2.4.2.1.1.2.2 공관의 내용
  - (q5.3.2.4.2.1.1.1.2.2.1)
- 5.3.2.4.2.1.1.2 종사가입공관(從思假入空觀)
  - 5.3.2.4.2.1.1.2.1 사가혹(思假惑) (e5.3.2.4.2.1.1.2.1.1
  - / q5.3.2.4.2.1.1.2.1.2)
  - 5.3.2.4.2.1.1.2.2 사가를 부수는 관법
    - (e5.3.2.4.2.1.1.2.2.1)
- 5.3.2.4.2.1.1.3 원교에서의 종가입공관의 의미
  - (e5.3.2.4.2.1.1.3.1
  - / q5.3.2.4.2.1.1.3.2)
- 5.3.2.4.2.1.2 종공입가관(從空入假觀) (e5.3.2.4.2.1.2.1)
  - 5.3.2.4.2.1.2.1 입가(入假)의 의미 (q5.3.2.4.2.1.2.1.1)
  - 5.3.2.4.2.1.2.2 입가의 인연
    - 5.3.2.4.2.1.2.2.1 자비의 마음이 강하다
      - (q5.3.2.4.2.1.2.2.1.1)
    - 5.3.2.4.2.1.2.2.2 본원(本願)을 기억하다
      - (q5.3.2.4.2.1.2.2.2.1)
    - 5.3.2.4.2.1.2.2.3 지혜가 예리하다
      - (q5.3.2.4.2.1.2.2.3.1)
    - 5.3.2.4.2.1.2.2.4 선교방편으로 (q5.3.2.4.2.1.2.2.4.1)
    - 5.3.2.4.2.1.2.2.5 커다란 정진의 힘으로
      - (q5.3.2.4.2.1.2.2.5.1)
  - 5.3.2.4.2.1.2.3 입가관(入假觀) (e5.3.2.4.2.1.2.3.1)
    - 5.3.2.4.2.1.2.3.1 병에 대해 알다 (e5.3.2.4.2.1.2.3.1.1
    - / q5.3.2.4.2.1.2.3.1.2)
    - 5.3.2.4.2.1.2.3.2 약에 대해 알다 (q5.3.2.4.2.1.2.3.2.1)



- 5.3.2.4.2.1.2.3.3 약을 투여하다 (q5.3.2.4.2.1.2.3.3.1)
- 5.3.2.4.2.1.2.4 입가의 계위 (e5.3.2.4.2.1.2.4.1  
/ q5.3.2.4.2.1.2.4.2)
- 5.3.2.4.2.1.3 중도관(中道觀) (e5.3.2.4.2.1.3.1)
- 5.3.2.4.2.1.3.1 의미 (e5.3.2.4.2.1.3.1.1  
/ q5.3.2.4.2.1.3.1.2)
- 5.3.2.4.2.1.3.2 중도관의 인연
- 5.3.2.4.2.1.3.2.1 무연자비(無緣慈悲)  
(e5.3.2.4.2.1.3.2.1.1  
/ q5.3.2.4.2.1.3.2.1.2)
- 5.3.2.4.2.1.3.2.2 서원의 성취 (q5.3.2.4.2.1.3.2.2.1)
- 5.3.2.4.2.1.3.2.3 부처의 지혜를 구하다  
(q5.3.2.4.2.1.3.2.3.1)
- 5.3.2.4.2.1.3.2.4 대방편을 세우다 (e5.3.2.4.2.1.3.2.4.1  
/ q5.3.2.4.2.1.3.2.4.2)
- 5.3.2.4.2.1.3.2.5 견고하게 정진 수행하다  
(q5.3.2.4.2.1.3.2.5.1)
- 5.3.2.4.2.1.3.3 수행방법(e5.3.2.4.2.1.3.3.1  
/ q5.3.2.4.2.1.3.3.2)
- 5.3.2.4.2.1.3.4 계위와 이익을 밝히다 (e5.3.2.4.2.1.3.4.1  
/ q5.3.2.4.2.1.3.4.2)
- 5.3.2.4.2.2 가로로 부수다 (e5.3.2.4.2.2.1  
/ q5.3.2.4.2.2.2)
- 5.3.2.4.2.3 가로와 세로의 불이(不二)로 부수다  
(e5.3.2.4.2.3.1)
- 5.3.2.4.2.3.1 총괄해서 무명의 일념심을 밝히다  
(e5.3.2.4.2.3.1.1 / q5.3.2.4.2.3.1.2)
- 5.3.2.4.2.3.2 무명 이외의 다른 마음에 대해 밝히다  
(q5.3.2.4.2.3.2.1)

- 5.3.2.5 식통색(識通塞) (e5.3.2.5.1 / q5.3.2.5.2)
  - 5.3.2.5.1 통색의 내용 (e5.3.2.5.1.1 / q5.3.2.5.1.2)
- 5.3.2.6 도품조적(道品調適) (e5.3.2.6.1 / q5.3.2.6.2)
  - 5.3.2.6.1 원교에서의 삼십칠도품(三十七道品) (e5.3.2.6.1.1 / q5.3.2.6.1.2)
- 5.3.2.7 조도대치(助道對治) (e5.3.2.7.1 / q5.3.2.7.2)
  - 5.3.2.7.1 조도의 지위 (e5.3.2.7.1.1 / q5.3.2.7.1.2)
  - 5.3.2.7.2 육바라밀의 의미(e5.3.2.7.2.1 / q5.3.2.7.2.2)
- 5.3.2.8 계위를 알다[知次位] (e5.3.2.8.1 / q5.3.2.8.2)
- 5.3.2.9 능안인(能安忍) (e5.3.2.9.1 / q5.3.2.9.2)
  - 5.3.2.9.1 능안인의 방법 (q5.3.2.9.1.1)
- 5.3.2.10 법에 대해 집착하지 않는다[無法愛] (e5.3.2.10.1 / q5.3.2.10.2)

## 6.열반 (e6.1)

- 6.1 커다란 과보를 느끼다 (e6.1.1 / q6.1.2)
- 6.2 가르침을 베풀다 (e6.2.1 / q6.2.2)
- 6.3 구극의 경지로 돌아가다[旨歸] (e6.3.1 / q6.3.2)
  - 6.3.1 지귀와 삼덕(三德) (e6.3.1.1 / q6.3.1.2)
    - 6.3.1.1 총체적 의미I (e6.3.1.1.1 / q6.3.1.1.2)
    - 6.3.1.2 개별적 의미 (e6.3.1.2.1)
      - 6.3.1.2.1 불신(佛身)의 세 가지 의미 (q6.3.1.2.1.1)
      - 6.3.1.2.2 불신과 삼신(三身)의 관계 (q6.3.1.2.2.1)
      - 6.3.1.2.3 반야의 세 가지 의미 (q6.3.1.2.3.1)
      - 6.3.1.2.4 반야와 삼지(三智)의 관계 (q6.3.1.2.4.1)
      - 6.3.1.2.5 해탈의 세 가지 의미 (q6.3.1.2.5.1)
      - 6.3.1.2.6 해탈과 세 가지 속박의 관계 (q6.3.1.2.6.1)
  - 6.3.1.3 세 가지 장애와 삼덕의 관계 (e6.3.1.3.1 / q6.3.1.3.2)
  - 6.3.1.4 불사의의 지귀 (e6.3.1.4.1 / q6.3.1.4.2)

## 제 3 부 『마하지관』 내용 분석 연구

### 1. 법(法)

#### 1.1 법의 의미

(e1.1.1) 법(法, Dharma)이란 진리 자체[眞如], 규범, 관습, 의무, 가르침[교법]과 같이 다양한 의미를 갖는 개념이다. 여기서는 교법을 중심으로 교법과 진여의 관계, 진여에 대한 가르침[교법]의 의미와 관련해서 법의 의미를 분석했다.

#### 1.1.1 진여(眞如)

##### 1.1.1.1 이언진여(離言眞如)

(e1.1.1.1.1) 진여(眞如)로서의 법은 모든 존재의 참된 모습으로서 궁극적 진리인 연기(緣起)를 가리킨다. 불교는 이러한 진리가 언어를 통해 설명할 수 없다고 이해한다. 여기에는 언어가 진리를 가리킬 수 없다는 언어관이 전제된다. 불교에 따르면, 우리의 언어는 변화하는 현상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고정불변의 실체를 전제한 가운데 성립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언어를 통해 어떤 존재를 설명할 때, ‘어떤 것이 생겨났다가 사라졌다’고 한다. 이 경우 우리의 언어 사용에는 이러한 생성과 소멸의 주체로서 ‘어떤 것’이 고정불변의 실체로서 있음을 전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교는 변화하는 현상에 앞서 존재하는 고정불변의 실체를

부정한다. 부처는 모든 존재의 존재 원리인 연기를 통찰함으로써 깨달음에 이르렀다. 그에 따르면, 모든 존재는 조건에 의존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영원불변의 실체는 없다. 이는 언어가 존재의 참된 모습[진여]을 설명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우리의 언어는 고정불변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불교는 이를 부정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불교는 진여에 대해 불생불멸의 적멸이라고 할 뿐 더 이상의 언어를 통한 설명을 거부한다.

(q1.1.1.1.2) 모든 존재의 寂滅의 모습은 언어를 통하여 펼칠 수 없다. 『대열반경』은 “생[현상]의 생성은 말할 수 없으며, 또한 불생(不生[열반]) 이 생겨나지 않음을 말할 수 없다.”라고 했다. 총괄해서 말하든 개별적으로 말하든 언어의 길은 끊어져 있어서 말하는 주체도 없고 말해지는 진리도 없다. 『유마경』에서 사리불은 “내가 들은 해탈의 가르침 중에 말을 통한 설명은 없었다. 그리하여 나는 이것에 대해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했다. 『유마경』은 “설해진 가르침에는 설함도 없고 가리켜 보임도 없다. 그 가르침을 듣는 자에게는 들음도 없고 얻음도 없다.”고 했다.(3.a)

#### 1.1.1.2 의언진여(依言眞如)

(e1.1.1.2.1) 모든 존재의 참된 모습인 진여는 언어를 통해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부처는 진여에 대해 침묵하지 않고, 다양하게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해탈에 만족하지 않고[上求菩提] 중생 또한 자신이 깨달은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여 깨달음을 성취토록 하고자[下化衆生] 했기 때문이다. 『법화경』은 부처의 이러한 교법의 동기를 “모든 중생에게 부처 자신의 지견(知見)을 열어 보이기 위해”라고 설명했다. 진여에 대한 부처의 가르침[교법]은 이렇게 성립한다. 이는 언어가 진리 자체를 가리키지는 않지만, 진리를 깨닫기 위한 수단, 도구로서 성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불교에서의 최고선인 깨달음은 진리의 통찰에 의해서만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진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야 하고, 이는 언어를 통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진여와 언어의 관계에 대한 이러한 논의들은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수단, 도구[門]로서 언어[교법]의

중요성을 주장함과 동시에,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방법에 대해 논의한 수행서로서의 『마하지관』의 정당성을 확립하는 의미 또한 갖는다. 다시 말해 언어로 설명된 『마하지관』은 그 자체가 진리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지만, 수행을 유도하여 진리로 나아가게 하는 도구로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교법에 대한 지의의 이러한 주장은 이론과 실천이 병행하는 불교수행을 확립하고자 했던 그의 수행관과 밀접히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q1.1.1.2.2) 『대열반경』은 “하늘의 구름과 우리는 상아 위에 꽃을 피운다.”고 했다. 언제 전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가? 만약 말할 수 있다가, 혹은 침묵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서로 싸운다면 가르침의 의미는 이해할 수 없고 진리와의 거리는 더욱 멀어진다. 언어를 떠나서 진리는 있을 수 없고 진리를 떠나서 언어도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언어에서 곧 언어가 없는 것이며, 언어가 없는 것에서 곧 언어가 있다. 언어와 무설(無說)은 각각 독립된 두 개가 아니며 또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곧 현상에서 진리가 드러난다. [...] 눈이 대상에 의지하듯이, 열반에 드는 것은 문자를 통하면 쉽다. 그러나 문자에 사로잡히면 [열반에] 장애(障害)가 되니 문자가 절대적 문자가 아님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3.b)

## 1.2 교법(敎法)의 분류

(e1.2.1)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부처의 가르침인 교법은 흔히 팔만사천 법문이라고 말해지듯이 그 내용이 매우 방대하다. 지의의 『마하지관』은 소송의 지관법에 대해 대승의 지관법을 확립하기 위해 서술되었다. 그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먼저 그 자신 활약하던 당시 중국인들이 실천했던 다양한 수행론과 그 수행론이 근거하고 있는 제법실상론(諸法實相論)을 분류하고 체계화했다. 그는 이러한 작업을 ‘지관’(止觀)이라는 두 개념을 통해 수행했다.

(q1.2.2) 모든 교법을 망라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지관이라는 말은 너무 간략하여 모든 교법을 망라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의심하는

이들이 있다. 이는 그렇지 않다. 지관은 모든 존재를 포함하며 널리 모든 교법을 망라한다. 왜 그러한가? 지는 모든 교법을 고요히 하는 것으로 이는 쑥뜸을 할 때 혈이 적절하게 맞으면 모든 병이 낫는 것과 같다. 관은 진리를 비추는 것으로, 이는 주옥을 얻으면 모든 구슬은 그 색을 잃는 것과 같다. 지관이라는 말은 모든 불법을 구족한다.(29.c)

### 1.2.1 지관(止觀)의 의미

(e1.2.1.1) 일반적으로 지관은 번뇌를 끊고 진리를 통찰하기 위한 수행방법을 의미한다. 지의는 지관을 통해 수행방법과 관련된 기존의 교법 뿐만 아니라 이러한 수행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깨달음의 세계인 진여까지 설명하고자 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진리 자체로서의 진여는 언어의 분별을 넘어서 있다. 여기에는 중생과 부처, 번뇌와 보리, 생사와 열반이라는 이원론적인 구분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수행방법에 대한 설명은 이러한 분별을 전제한다. 수행방법은 중생이 부처가 되기 위한 방법과 과정으로 성립하기 때문이다. 수행의 과정과, 수행의 도달점인 진여 자체는 인식론적으로 전혀 다른 두 영역이다. 그런데 지의는 서로 다른 두 영역을 ‘지관’이라는 하나의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자 했다. 그는 지관을 상대지관과 절대지관으로 나누어 그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지관을 통해 수행과 깨달음과 관련된 모든 불교의 교법을 포섭하는 문제를 해결했다.

#### 1.2.1.1 상대지관(相待止觀)

(e1.2.1.1.1) 일반적으로 마음을 어지럽히는 번뇌를 조용히 멈추는 수행법인 지(samatha)와 진리를 통찰하는 수행법인 관(vipaśyanā)에는 멈추는 주체[能止]와 멈춰지는 대상[所止], 보는 주체[能觀]와 보이는 대상[所觀]의 상대적 관계를 전제한다. 지의는 이와 같이 상대적 관계에 근거한 지와 관의 의미를 다음 세 가지로 각각 정리했다.

#### 1.2.1.1.1 지(止)의 세 가지 의미

(q1.2.1.1.1.1) 지관의 상대적 의미를 밝히겠다. 지와 관 각각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 지의 세 가지 의미는 멈춘다[息], 머문다[停], 머물지 않는 것에 대해 머문다[對不止止]이다.(21.b)

##### 1.2.1.1.1.1 지식(止息)

(e1.2.1.1.1.1.1) 지식은 멈춰지는 대상, 혹은 부수어지는 대상[所止]에 근거해서 성립하는 것으로, 망상분별을 멈추는 수행법을 의미한다.

(q1.2.1.1.1.1.2) 멈춘다는 것은 모든 잘못된 감정, 사려분별, 사려분별에 사로잡힌 망념 등이 고요해지면서 멈춘다는 의미이다. 『유마경』에서 “조건에 매달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욕계, 색계, 무색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삼계(三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멈춘다는 것은 무엇인가? 마음에 연을 대상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고 했다. 이는 부수어지는 대상의 관점에서 지를 말한 것으로, 여기서 지(止)는 멈춘다는 의미의 식(息)이다.(21.b)

##### 1.2.1.1.1.2 정지(停止)

(e1.2.1.1.1.2.1) 식으로서의 지는 멈춰지는 대상[所止]의 관점에서 지의 의미를 설명했다면, 정지의 지는 번뇌를 멈추게 하는 주체[能止]의 관점에서 성립하는 의미이다.

(q1.2.1.1.1.2.2) 머문다는 의미는 마음을 명백히 진리에 근거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나타나는 마음을 붙들어 매어 진리에 머물게 함으로써 움직이지 않는다. 『인왕경』은 “진리인 반야[理般若]에 들어가는 것을 주(住)라고 한다.”고 했다. 『대품반야경』은 “머물지 않는 법으로 반야바라밀에 머문다.”고 했다. 이는 머무는 주체의 관점에서 정의한 것으로, 여기서 지는 머문다는 의미이다.(21.b)

### 1.2.1.1.1.3 대부지지(對不止止)

(e1.2.1.1.1.3.1) 앞의 멈춤과 머문다는 지의 의미는 끊는 주체인 지(智)와 끊어지는 대상인 단(斷)의 상대적 관점에서 성립하는 반면, 대부지지는 분별할 수 없는 진리에 대해 분별을 설정하여 무명을 부지(不止)로, 이에 상대해서 법성을 지(止)로 세워 지의 의미를 설명한다.

(q1.2.1.1.1.3.2) 머물지 않는 것에 대해 머문다[對不止止]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것과 공통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 의미는 영원히 다르다. 앞의 두 지는 생사의 움직임에 대해 열반의 관점에서 지식을 설명하고, 마음과 진리를 상대적으로 독립해서 두고, 반야에 근거해서 정지를 설명했다. 이는 지혜와 단멸이라는 상대적 관점에서 지의 의미를 논한 것이다. 여기서는 진리에 근거한 대대의 의미를 논하겠다. 무명은 곧 법성이고, 법성은 곧 무명이다. 무명은 머무는 것도 아니고 머물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무명을 머물지 않는다고 분별했다. 법성 또한 머무는 것도 아니고, 머물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법성을 머문다고 분별했다. 이는 무명이 머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법성을 머문다고 설정한 것이다. 이는 경전에서 법성은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닌데 법성을 적멸하다고 말하듯이, 혹은 법성은 더러움도 아니고 깨끗함도 아닌데 법성을 청정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것이 對不止止의 의미이다.(21.b-21.c)

### 1.2.1.1.2 관(觀)의 세 가지 의미

(q1.2.1.1.2.1) 관에도 똑같이 관천(觀穿), 관달(觀達), 대부관관(對不觀觀)의 세 가지 의미가 있다.(21.c)

#### 1.2.1.1.2.1 관천(觀穿)

(e1.2.1.1.2.1.1) 뚫는다[穿]란 의미는 관을 통해 부수어지는 대상[所破]에 근거한다.

(q1.2.1.1.2.1.2) 뚫는다는 것은 지혜의 날카로운 작용이 번뇌를 뚫어 소멸시킨다는 의미이다. 『대열반경』은 “예리한 팽이로 흙을 파면, 돌과 모



래는 물론이고 바로 금강에까지 이른다.”고 했다. 『법화경』은 “고원을 파 들어갈 때 처음에는 건조한 땅과 같이 보여도 멈추지 않고 노력하면 마침내 진흙에 이른다.”고 했다. 이는 부서지는 대상의 관점에서 설명한 것으로, 여기서 관은 뚫는다는 의미이다.(21.c)

#### 1.2.1.1.2.2 관달(觀達)

(e1.2.1.1.2.2.1) 통달은 관을 통해 이루는 지혜[能觀]에 근거해서 관의 의미를 설명한 것이다.

(q1.2.1.1.2.2.2) 통달이란 관찰하는 지혜가 통달하여 진여와 계합한다는 의미이다. 『서용본기경』은 “마음을 멈추어 본원에 통달하기 때문에 사문이라고 한다.”고 했다. 『대지도론』은 “청정한 마음으로 항상 변하지 않으면 반야를 드러낼 수 있다.”고 했다. 이는 관찰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설명한 것으로, 여기서 관은 통달의 의미이다.(21.c)

#### 1.2.1.1.2.3 대불관관(對不觀觀)

(e1.2.1.1.2.3.1) 대부지지와 같이 대불관관 또한 분별할 수 없는 진리에 대해 분별을 임시로 설정하여 무명을 불관(不觀)으로, 이에 상대해서 법성을 관으로 세워 관의 의미를 설명한 것이다.

(q1.2.1.1.2.3.2) 보지 않는 것에 상대해서 본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것과 통하는 면도 있지만 그 의미는 영원히 다르다. 앞의 두 관은 생사에 대해서 관전을 설명하고 미혹과 어리석음에 대해서 관달을 설명한 것이다. 이는 지혜와 단멸의 상대적 관점에 근거해서 관의 의미를 밝힌 것이다. 여기서는 진리에 근거한 상대의 의미를 설명하겠다. 무명이 곧 법성이고 법성이 곧 무명이다. 무명은 봄도 아니고 보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무명을 보지 않는다고 분별했다. 법성 또한 봄도 아니고 보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법성을 본다고 분별했다. 이는 경전에서 법성은 밝음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지만 법성을 밝음이라고 하듯이, 제일의공은 지혜도 아니고 어리석음도 아니지만 제일의공을 지혜라고 하는 것과 같다. 이것이 대불관관의 의미이다.(21.c)

### 1.2.1.2 절대지관(絶待止觀)

(e1.2.1.2.1) 상대지관의 의미는 능지(能止)와 소지(所止), 능관(能觀)과 소관(所觀), 부지(不止)와 지(止), 불관(不觀)과 관(觀)이라는 분별에 근거해서 성립한다. 여기에는 무명과 보리, 번뇌와 열반에 대한 상대적 이해를 전제한다. 다시 말해 상대지관에서 지관은 번뇌의 제거를 통해 열반을 증득하기 위한 수행법을 의미한다. 지관이 지향하는 진여 자체는 이러한 분별을 넘어서 있다. 지의는 번뇌와 보리, 중생과 부처, 생사와 열반의 이원론적인 분별을 넘어서 있는 진여 자체의 의미를 절대지관을 통해 설명했다.

#### 1.2.1.2.1 상대지관의 부정으로서의 절대지관

(e1.2.1.2.1.1) 절대지관에서 절대는 상대적 관계를 넘어선다는 의미이다. 지의는 절대적 의미로서의 지관을 용수의 사구분별(四句分別)을 통해 밝힌다. 이는 용수가 사구분별을 통해 모든 분별을 넘어서는 존재의 참된 모습인 공을 설명했던 것에 따른다.

(q1.2.1.2.1.2) 절대적 의미에서의 지관을 밝히겠다. 이는 앞의 세 가지의 상대지관을 부수는 것이다. 먼저 가로로 부수고 다음에는 세로로 부수겠다. 만약 지식의 지가 부수어지는 대상에 근거해서 말한 것이라면, 그 대상을 비추는 것은 정(正)의 의미이고 미혹을 제거하는 것은 방(傍)의 의미이다. 지식은 제거되는 것에 근거해서 말했으니, 이 이름은 방에 따라 성립한다. 이는 타성(他性)의 오류에 빠지는 것이다. 만약 정지의 지가 부수는 주관에 근거해서 말한 것이라면, 대상을 비추는 것이 정이고 미혹을 제거하는 것은 방이다. 능조(能照)라는 이름이 지혜에 따라 성립한다면, 이는 자성(自性)의 오류에 빠진다. 만약 망상이 멈추기 때문에 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에 머무르기 때문에 지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와 단멸의 인연 때문에 지라고 한다면 이는 합(合)의 관점에 따른다. 이는 공성(共性)의 오류에 빠진다. 부수어지는 대상에 따른 것도 아니고 부수는 주관에 따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라고 한다면 이는 무인성(無因性)의 오류에 빠진다.(21.c-22.a)

(q1.2.1.2.1.3) 여기서 말하는 절대지관은 가로와 세로의 모든 상대적 의미를 끊는 것이며, 사려분별을 끊는 것이고, 또 모든 번뇌, 모든 업, 모든 과보를 끊는 것이다. 모든 가르침[敎], 관법[觀], 깨달음[證]을 끊는 것이다. 이 모두가 생겨나지 않는 까닭에 지라고 하며, 이 지는 얻을 수가 없다. 관은 진실의 대상과 명일한 것이다. 이 대상은 적멸하고 청정하므로 청정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관도 얻을 수 없다. 지와 관이 없으므로, 지관에 상대해서 부지관을 설명할 수 없고, 또 지관에 대해서 부지관을, 지부지(止不止)에 대해서 비지비부지도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지와 부지 모두는 얻을 수가 없다. 대대가 끊어졌으므로 유위법이 아니다. 사구(四句)로 사려 분별할 수 없으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심식(心識)이 분별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다. 이미 분별할 수 있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이에 근거한 번뇌도 생길 수 없다. 번뇌가 없으면, 생사가 없고 부수어야 할 대상도 없다. 끊음도 멸했고 멸도 끊어졌기 때문에 절대지라고 한다. 전도망상이 끊어졌기 때문에 절대관이라고 한다. 이는 유위를 끊은 지관, 생사를 끊은 지관이라고도 한다.(22.a)

#### 1.2.1.2.2 명정(明淨)으로서의 절대지관

(e1.2.1.2.2.1) 지의가 설명하는 절대지관의 또 하나의 의미는 명(明)과 정(淨)으로서의 지관이다. 여기서 명정은 언어적 분별을 넘어서 있는 진리의 본성[法性]을 가리킨다. 지의에 따르면, 법성은 곧 마음의 본성으로 이 마음은 원래 생겨남 없이 고요하지만[淨] 항상 진리를 비춘다[明]. 법성으로서의 명정은 원래 생겨남이 없기 때문에 얻을 수도 없다. 다시 말해 진리는 원래 그렇게 있음[진여]이기 때문에, 수행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의는 절대지관에서 명정을 지관의 본체로서 설명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수행방법을 의미하던 지관의 의미를 궁극적 진리에까지 확장했다. 천태종 육조(六祖) 담연(湛然)은 『보행전홍결』(輔行傳弘決, T.46.142.b)에서 명정으로서의 절대지관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지관 두 자는 [지의의 강의에서] 들었던 [가르침의] 본체를 보이며, 명정 두 자는 그 본체의 본성을 찬탄한다. 다시 말해 정은 지의 본체이고, 명은 관의 본체이다.” 지의의 제자이자, 『마하지관』을 필록하고,

그 서문을 썼던 관정(灌頂)은 서문에서 명정지관에 대한 가르침은 들어본 적이 없는 지의만의 가르침이라고 강조했다.

(q1.2.1.2.2.2) 밝음과 고요함으로서의 지관은 이제까지 들은 본 적이 없다.(1.a)

(q1.2.1.2.2.3) 법성이 항상 고요한 것이 지의 의미이고, 고요하면서 항상 비추는 것이 관의 의미이다.(18.b)

(q1.2.1.2.2.4) 이러한 지관은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지관이라고 한다. 불사의지관, 무생지관, 일대사지관이라고도 할 수 있다. 여기서 대사(大事)란 작은 일에 대해 크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는 허공을 작은 하늘에 비교해서 큰 하늘이라고 하지 않는 것과 같다. 절대지관 또한 어리석음, 혼란에 대해 지관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상대가 없는 완전한 불법의 세계를 절대지관이라고 한다.(22.b)

### 1.2.1.3 상대지관과 절대지관의 관계

(e1.2.1.3.1) 절대지관은 상대지관에 대한 부정이다. 그러나 여기서 절대지관을 상대지관에 대해 성립하는 초월적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지의의 지관사상은 용수의 공사상에 근거해서 성립했기 때문이다. 용수는 진리 자체로서의 모든 존재의 법성인 공을 연기적 현상을 넘어서 존재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그는 모든 존재가 조건에 의존해서 존재한다는 연기에 근거해서, 존재의 본성을 실체가 없는 공이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지의는 이러한 용수의 공사상에 근거해서 상대지관과 절대지관을 불이(不二)의 관계로 설명함으로써 절대지관이 상대지관을 넘어서는 초월적 의미가 아님을 주장했다.

(q1.2.1.3.2) 지와 관은 각각[법성]의 삼덕(三德)과 통한다. 지에는 관이 있고 관에는 지가 있기 때문이다. 지식(止息)이라는 의미에서의 지는 지선(止善)으로 선정에 속하고 해탈에 통한다. 정지(停止)라는 의미에서의 지는 행선(行善)으로 지혜에 속하고 반야에 통한다. 멈추지 않는 지라는 의미

에서의 지[對不止止]는 진리에 속하고 법신에 통한다. 관천(貫穿)이라는 의미에서의 관은 지선으로 선정에 속하고 해탈에 통한다. 관달(觀達)이라는 의미에서의 관은 행선으로 지혜에 속하고 반야에 통한다. 관이 아니라는 의미에서의 관[對不觀觀]은 진리에 속하고 법신에 통한다.(22.c-23.a)

## 1.2.2 지관교법의 형태

(e1.2.2.1) 지의는 지관을 상대적 의미와 절대적 의미 두 가지로 설명함으로써, 지관을 통해 언어의 분별을 넘어서 있는 진리 자체뿐만 아니라, 언어를 통해 성립하는 모든 교법을 망라할 수 있음을 밝혔다. 나아가 지의는 지관을 통해 다양한 교법에 근거해서 성립하는 불교의 다양한 수행법들의 분류와 체계화도 시도했다. 그는 이미 교상문(敎相門)인 『법화현의』, 『법화문구』를 통해 교법을 그 내용에 따라 크게 장교(藏敎), 통교(通敎), 별교(別敎), 원교(圓敎)의 네 가지로 분류했다. 이것이 그의 화법사교(化法四敎)이다. 지의는 『마하지관』에서 이들을 다시 지관과 관련하여 분석함으로써, 이들 교법에 근거한 다양한 불교수행법들을 분류하고 체계화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그는 소승불교의 수행법에 대해 대승불교의 수행법, 다시 말해 원돈지관을 확립하고자 했다. 그는 지관수행법들이 근거하는 제법실상에 대한 이론[敎相], 지관을 통해 성취하는 능력[眼智], 지관을 통해 성취하는 깨달음의 경계(境界), 지관의 실천에서 진리의 통찰을 막는 장애[迷惑]와 같은 네 가지 기준에 근거해서 지관법의 다양한 모습들을 분류하고 체계화했다.

(q1.2.2.2) 대개 진리는 가르침을 통해 설명되지만, 이 가르침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가르침의 내용[교상]에 근거해서 보면 이해하기 쉽다. 진리에 들어가는 방법도 다르지만, 눈과 지혜[眼智]에 근거해서 보면 이해하기 쉽다. 진리에는 방편과 진실이 있지만 경계에 근거해서 보면 이해하기 쉽다. 사람은 각각 다르지만 득과 실에 근거해서 보면 좋다. 『법화문구』(法華文句)는 가르침, 실천행, 사람, 진리의 네 가지 중 하나로 진리를 설명했지만, 여기서는 앞의 네 가지를 설정해서 진리를 드러내고자 한다.(23.c)

### 1.2.2.1 이론적 근거에 따른 형태

#### 1.2.2.1.1 대승불교에서의 지관

(e1.2.2.1.1.1) 지의는 대승불교의 수행법 확립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그가 활약하던 당시의 불교수행법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류했다. 그는 먼저 이들 수행법들을 ‘지관’으로 포섭한 뒤, 이들을 분류하기 시작했다. 그에 따르면, 모든 지관은 진여의 통찰을 지향하기 때문에 도달점의 측면에서 지관을 분류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 지관이 근거하는 이론들, 즉 교법들에 근거해서는 분류할 수 있다. 교법들은 화법사교로 다양하고, 이는 곧 지관의 실천모습의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지관이 근거하는 교법에는 대승뿐만 아니라 소승의 가르침인 장교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마하지관』에서 마하(maha)는 대승으로서 마하지관은 대승의 지관법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지의는 교상에 따른 지관의 모습을 분류·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소승의 지관과 대승의 지관을 구분함으로써, 교상에 따른 지관상은 통교, 별교, 원교의 삼승[大乘]에 한정한다는 것을 밝혔다.

(q1.2.2.1.1.2) 지관의 이름과 가르침은 범부와 성인에 공통하기 때문에 [지관이 지향하는] 진실의 체가 어디에 있는지 알기 어렵다. 교상에 근거해서 설명하면 분명해진다. 범부의 경우, 지선(止善)을 통해 나아지는 것이 지의 모습이고, 행선(行善)이 생기는 것이 관의 모습이 된다. 또 사선(四禪), 사무량심(四無量心)은 지(止)의 모습이고 육행(六行)은 관(觀)의 모습이다. 이 모두는 생각을 벗어나는 지관의 모습이 아니라, 유루의 지관상이다. [...] 지금 여기서는 이러한 지관상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다. 또 이승인(二乘人)의 경우, 구상(九想), 십상(十想), 팔배사(八背捨), 구차제정(九次第定)을 실천하지만, 이들은 현상적인 선[事禪]으로 일단은 지의 모습이고 유작의 사제(四諦)에 대한 지혜는 관의 모습이다. 이 지관은 생각을 벗어날 수 있지만 [자기만의 해탈을 지향하기 때문에] 졸렬한 구제라고 할 수 있다. [...] 이는 분석적인 방법[析法]을 통해 무루를 모습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대승의] 지관과는 다르다.(23.c-24.a)

#### 1.2.2.1.2 지관의 종류 - 삼지삼관(三止三觀)

(e1.2.2.1.2.1) 대승의 교법인 통교, 별교, 원교에 따르면 지관의 형태에는 세 가지의 지와 세 가지의 관이 성립한다.

##### 1.2.2.1.2.1 삼지(三止)

(e1.2.2.1.2.1.1) 삼지라는 용어는 경론에 나오지 않고, 지의가 삼관에 대한 설명을 참조해서 구성한 것이다. 지의는 『대지도론』의 법시(法施)에 근거해서 경론의 가르침을 참조해서 새로운 용어를 만드는 일이 사람들을 위해 가르침을 펼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정당화했다. 삼관은 공(空), 가(假), 중(中) 삼제(三諦)를 이해하는 태도이다. 이는 지의의 삼지 또한 공, 가, 중 삼제와 관련해서 성립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통교, 별교, 원교는 이들 삼제와 관련해서 그 이해 방식이 다르다. 그 결과 삼교에 근거하는 지관의 모습 또한 머무는 대상, 관찰의 대상, 부수는 대상, 드러나는 진리 등에 각각 차이가 있어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지관의 모습이 성립하게 된다.

(q1.2.2.1.2.1.2) 선교한 구제와 관련해서 지의 모습에는 1. 진실을 체득하는 지[체진지(體眞止)], 2. 방편으로 조건을 따르는 지 [방편수연지(方便隨緣止)], 3. 이변(二邊)의 분별을 쉬는 지[식이변분별지(息二邊分別止)]가 있다.(24.a)

##### 1.2.2.1.2.1.1 체진지(體眞止)

(e1.2.2.1.2.1.1.1) 모든 존재의 참 모습을 실체가 없는 공이라고 이해할 뿐, 현상의 다양한 모습을 보지 않는 통교의 가르침에 따른 지의 모습이다.

(q1.2.2.1.2.1.1.2) 모든 존재는 인연에 따라 생겨나고, 인연에 따라 생겨난 것은 공으로 실체가 없다고 안다. 마음을 멈추어 본원에 도달하는 사람을 사문이라고 한다. 인연이 임시로 화합하여 생겨나므로 환화와 같

이 자성이 없다고 알고, 이것을 체라고 한다. 다함이 없는 망상은 공을 깨달으면 멈추기 때문에 공이 진실이 된다. 이것이 체진지이다.(24.a)

#### 1.2.2.1.2.1.2 방편수연지(方便隨緣止)

(e1.2.2.1.2.1.2.1) 모든 존재의 본체인 공을 통찰하면서도,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현상의 다양함을 하나하나 분별하는 별교의 가르침에 따른 지의 모습이다.

(q1.2.2.1.2.1.2.2) 삼승이 모두 언설을 넘어선 도로서 번뇌를 끊고 진실에 들 경우, 진실은 삼승 모두에게 같다. 그러나 번뇌와 그 습성을 다 했는가, 다 하지 못했는가에 차이가 있다. 이승인은 진실을 체득할 뿐 방편지가 없다. 그러나 보살은 [공인 본체에] 임시로 들어가기 때문에 방편수연지를 실천할 수 있다. 공이 공아님을 알기 때문에 방편이라고 하고, 약과 병을 분별하기 때문에 수연이라고 한다. 또 마음을 속제에 두기 때문에 지라고 한다. 『경』에서 “움직일 때도, 멈출 때도 마음은 항상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 뜻이다.(24.a)

#### 1.2.2.1.2.1.3 식이변분별지(息二邊分別止)

(e1.2.2.1.2.1.3.1) 생사와 열반, 속제와 진제, 본체로서의 공의 진리[진제]와 현상으로서의 가(假)의 진리[속제]를 대립적인 관계로 이해하지 않고, 불이중도(不二中道)로 이해하는 원교에 근거하는 지의 모습이다.

(q1.2.2.1.2.1.3.2) 끊임없이 흐르는 생사와, 확고한 깨달음의 열반은 모두 치우친 실천이고 치우친 작용으로서 중도에 일치하지 않는다. 지금 속제가 속제 아님을 알기 때문에 속제의 측면이 고요해진다. 나아가 속제 아님 또한 얻을 수 없으므로 공의 측면이 고요해진다. 이것이 [진제와 속제]의 두 측면이 멈추는 지[식이변지]이다.(24.a)

#### 1.2.2.1.2.1.4 상대지관에서의 삼지(三止)와의 관계

(e1.2.2.1.2.1.4.1) 지의는 교상과 관련해서 지를 체진지, 방편수연



지, 식이변지의 삼지로 설명했다. 또 지관의 의미를 설명하는 곳에서 지를 지식(止息), 정지(停止), 대부지지(對不止止)의 세 가지 의미로 설명했다. 이 둘은 삼지로서 같을 뿐만 아니라 지의 의미를 설명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 함의하는 내용은 각각 다르다. 지의는 이들의 관계를 각각이 근거하는 진리[諦]와 포섭 관계를 통해 설명했다. 『마하지관』은 상대지관의 삼지를 석명장(釋名章)에서 교상과 관련한 삼지를 체상장(體相章)에서 설명했다기 때문에, 앞의 삼지를 석명장의 삼지, 뒤의 삼지를 체상장의 삼지라고 하여 이 둘의 관계를 해석했다.

(q1.2.2.1.2.1.4.2) 여기서[체상장]의 삼지는 석명장의 삼지와 그 말은 같은 듯하지만 그 양상은 다르다. 대체로 지식의 지는 체진지와, 정지의 지는 방편수연지와, 대부지지의 지는 식이변지와 닮은 듯하지만 분명하게 그 모습은 다르다. 석명장의 삼지는 삼지에 근거해서 하나의 진리[諦]를 드러내었지만 여기서[체상장]의 삼지는 [삼지 각각이 하나의 진리와 관계 함으로써] 세 가지의 진리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석명장의 삼지는 체상장의 삼지를 성립하지만 체상장의 삼지는 삼지 하나하나에 석명장의 삼지를 모두 갖춘다. 왜 그러한가? 체진지의 경우, 인연은 가명이므로 공이고 실체가 없다고 깨닫기 때문에 멈추지 않던 악이 멈추게 된다. 이는 지식의 의미이다. 마음을 진리에 머무르게 하여 바르게 인연을 깨닫는다. 이는 정지의 의미이다. 이 진리는 진실로서 곧 본원(本源)이다. 본원은 멈추는 것도 멈추지 않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부지지의 의미이다. 이와 같이 삼지가 함께 체진지의 모습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24.a)

#### 1.2.2.1.2.2 삼관(三觀)

(q1.2.2.1.2.2.1) 관에도 가르침에 따라 세 가지 모습이 있다. 가에서 공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제관(二諦觀)이라고 한다. 공에서 가로 들어가는 것으로 평등관(平等觀)이라고 한다. 앞의 두 관을 방편도로 하여 중도에 들어간다. 이제를 다 함께 비추고 마음 마음이 적멸하여 진리의 바다로 자연스럽게 들어간다. 이를 중도제일의제관(中道第一義諦觀)이라고 한다.(24.b)

#### 1.2.2.1.2.2.1 종가입공관(從假入空觀)

(e1.2.2.1.2.2.1.1) 『마하지관』이 설명하고자 하는 지관법은 대승의 지관법이다. 소승에 대해 성립하는 대승불교는 용수의 공사상에 근거해서 성립했다. 용수는 모든 존재가 조건에 의존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공이고, 가이며 중도라고 했다. 지의가 중시했던 공, 가, 중 삼제사상은 여기에 근거했다. 삼관 중, 종가입공관은 인연에 의해 생겨난 모든 현상[假]의 실상이 공임을 통찰하기 위한 관법이다. 이 관법을 통해 ‘인연제법아설즉시공’(因緣諸法 我說卽是空)의 공의 진리를 드러낸다.

(q1.2.2.1.2.2.1.2) 이제관이란 공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 가에 근거해서 공에 계합하기 때문에 주관과 객관을 합해서 이제관이라고 한다. 또 공에 계합할 때는 공만을 보지 않고 또 가를 알게 된다. 이는 구름이 겉혀 가리고 있는 것이 사라지면 하늘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땅 위도 분명하게 되는 것과 같다.(24.c)

#### 1.2.2.1.2.2.2 종공입가관(從空入假觀)

(e1.2.2.1.2.2.2.1) 종가입공관은 모든 존재가 조건에 따라 생겨나기 때문에 고정된 자성이 없는 공임을 통찰하기 위한 관법이다. 여기서 공은 인연소생법(因緣所生法)인 현상을 떠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절대적인 공이 아니다. 그러므로 보살은 종가입공관을 통해 공을 통찰하면, 다시 생멸하는 현상으로 돌아와 현상의 다양한 모습을 분별하게 된다. 이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보살행의 근거가 된다. 예를 통해 종가입공관과 종공입가관의 차이를 설명하면, 전자는 지금까지 눈이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시력을 찾아 처음으로 하늘과 대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후자인 종공입가관은 대상이 풀, 나무뿌리, 줄기, 가지, 잎인지, 나아가 약인지 혹은 독인지 남김없이 아는 경우에 해당한다.

(q1.2.2.1.2.2.2.2) 이 관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진실이 진실 아님을 알고 방편을 통해 현상[假]으로 나오기 때문에 ‘공으로부터’(從空)라고 하며, 약과 병을 틀림없이 분별하기 때문에 ‘가에

들어간다'[入假]고 한다. 평등이란 이제관에 비해 평등하다는 의미이다. 이제관은 마술과 같은 현상[가]의 병을 부수기 위해, 가[속제]의 가르침은 쓰지 않고 진체의 가르침만을 썼다. 그러므로 평등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종공입가관은 공에 대한 질병을 부수고 가의 가르침을 사용하므로, 부수는 것과 쓰이는 것이 균등할뿐만 아니라 이제관을 통합하고 있기 때문에 평등이라고 한다.(24.c)

#### 1.2.2.1.2.2.3 중도제일의제관(中道第一義諦觀)

(e1.2.2.1.2.2.3.1) 종가입공관과 종공입가관을 방편으로 하여 중도에 부합하는 관이다.

(q1.2.2.1.2.2.3.2) 중도제일의제관은 먼저 가의 공을 관하니 이는 생사를 공으로 한 것이고, 다음으로 공도 공임을 관하니 이는 열반을 공으로 한 것이다. 생사와 열반의 두 측면을 함께 부정하는 것을 “두 개의 공관을 방편도로 하여 중도에 계합한다.”고 한다. “한 생각 한 생각의 마음이 조용히 멀하여 일체지의 바다로 들어간다.”고 한다. 또 먼저 공을 사용하여 관찰하고 다음에는 가를 사용하여 관찰한다. 그러므로 두 개의 관을 방편으로 하여 중도에 들어가면 이제를 동시에 비출 수 있다. 『유교경』은 “마음이 선전에 머무르면 세간의 생멸하는 모습을 잘 알 수 있다.”고 했다. 이것이 앞의 두 개의 공관과 가관을 방편으로 한다는 의미이다.(24.c)

#### 1.2.2.1.2.2.4 상대지관에서의 삼관(三觀)과의 관계

(e1.2.2.1.2.2.4.1) 교상과 관련해서 성립하는 삼관은 삼지와 같이 상대지관에서의 관천, 관달, 대부관관의 삼관과의 관계를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지의는 이 부분을 삼지의 경우와 같이 설명했다.

(q1.2.2.1.2.2.4.2) 여기서의[체상장의] 삼관은 석명장에서 설명했던 삼관과 표현은 닮았지만 그 의미는 분명히 다르다. 닮았다는 점은 관천의 관은 모든 존재가 허망하다고 관찰하기 때문에 종가입공관과 닮았고, 관달의 관은 진리와 현상에 통달하여 진리와 현상을 조화시키므로 가에 들어가는 평등관과 닮았고, 대부관의 관은 중도제일의제의 관과 닮았다. 그

러나 그 내용에서 보면 [이들은] 다르다. 석명장의 삼관은 하나의 진리상을 드러내지만, 체상장의 삼관은 [공, 가, 중] 세 가지의 진리를 드러낸다. 또 석명장의 삼관은 체상장의 삼관을 성립시키는 반면, 후자는 석명장의 삼관을 그 안에 포섭한다. 왜 그러한가? 가에서 공으로 들어가, 사주의 번뇌를 부수는 것은 관천의 의미이다. 들어갔을 때의 공은 곧 진리이며, 지혜가 이 진리를 드러낸다. 이는 관달의 의미이다. 또 공의 진리는 대부관의 관의 의미이다. 이와 같이 석명장의 삼관의 의미는 중가입공관 하나의 모습을 구성하고 있다.(25.a)

### 1.2.2.1.2.3 삼지삼관(三止三觀)의 관계

#### 1.2.2.1.2.3.1 차제적(次第的) 관계

(e1.2.2.1.2.3.1.1) 앞의 삼지삼관은 제법실상이라는 하나의 진리를 공, 가, 중의 세 가지 진리로 설명하고, 나아가 이들을 각각 독립된 하나의 진리로 보고 지와 관을 실천하는 모습을 설명한 것이다. 공, 가, 중의 진리를 이처럼 독립적인 진리로 이해하면, 이들 삼지삼관의 사이에는 우열, 권실(權實)의 차별이 성립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차별에 근거해서 삼지삼관의 관계를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나아가는 것으로 이해하면, 이는 삼지삼관의 관계를 차제적인 관계로 주장하는 것이 된다. 통교, 별교, 원교의 가르침 중 별교가 삼지삼관을 이러한 관계로 이해한다.

(q1.2.2.1.2.3.1.2) 이는 대승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삼지와 삼관의 모습을 설명한 것이지만, 그 의미를 모습에 따라 설명하면 여기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다. 삼관을 논하면 권과 실, 얕음과 깊음이 있고 삼지를 논하면, 우열과 전후가 있으며 세 사람을 논하면 지위에서 대소의 차이가 있다. 이는 차례로 배열하여 설명하는 방식으로 [...] (25.b)

(q1.2.2.1.2.3.1.3) 차제삼관에 따르면, 이승과 통교보살은 중가입공관을 실천한다. 이는 선정이 많고 지혜가 적은 경우에 해당하여 불성을 볼 수 없다. 별교보살은 중가입공관을 실천한다. 이는 지혜가 많고 선정이 적은 경우에 해당하여 똑 같이 불성을 볼 수 없다. 두 개의 관을 방편으로 하여 중도제일의관에 들면 비로소 불성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25.a)

#### 1.2.2.1.2.3.2 불차제적(不次第的) 관계

(e1.2.2.1.2.3.2.1) 대승불교에서의 공, 가, 중 삼제는 장교와 통교 그리고 별교에서 서로 독립적인 진리로 분별되지만, 실제로는 인연소생법을 세 가지 측면에서 말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주지하다시피 이들 삼제는 용수의 『중론』 「관사제품」 24장 18계인 “중인연생법, 아설즉시공, 역위시가명, 역시중도의(衆因緣生法, 我說卽是空, 亦爲是假名, 亦是中道義)”에 근거한다. 용수에 따르면, 연기, 공, 가, 중 모두는 모든 존재가 조건에 의존해서 일어나[인연] 어떠한 실체도 없이[공] 임시적으로 존재[가]하는 존재의 실상[중도]에 대한 설명이다. 즉 공, 가, 중 삼제는 연기적 현상을 세 가지 측면에서 주장한 것으로 공, 가, 중이 서로 다른 의미를 함의하는 것은 아니다. 지의는 공, 가, 중의 이러한 관계를 즉공즉가즉중(卽空卽假卽中)으로 표현했다. 공, 가, 중 삼제가 불가분의 관계로 하나의 진리에 대한 세 가지 측면이라면, 이러한 진리를 대상으로 하여 실천하는 삼지삼관의 모습에도 우열이나 차제는 성립하지 않는다. 지의는 이러한 불차제의 지관을 한 순간의 마음에 세 가지 지관이 동시에 성립하는 일심삼관(一心三觀)으로 설명하고, 이를 대승의 지관상 중 원교의 지관상에 해당시켰다.

(q1.2.2.1.2.3.2.2) 사려분별을 넘어서며, 방편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고 우열의 평가를 넘어서며 전후의 구분도 없으며,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다. 『중론』은 “인연에 따라 생겨난 것은 즉공(卽空), 즉가(卽假), 즉중(卽中)이다.”고 했다. 『금강반야경』은 “사람에게 눈이 있기 때문에 햇빛이 밝게 비치면 여러 가지의 색을 볼 수 있는 것과 같다. 눈만으로 볼 수 있다면 햇빛은 필요 없고, 색이 없으면 햇빛과 눈이 있어도 볼 대상은 없다. 눈, 햇빛, 색은 시간을 달리 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독립해서 있는 것도 아니다.”고 했다. 눈은 지를, 햇빛은 관을, 색은 경을 비유한 것으로 이들 세 가지는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뒤에 있는 것도 아니다. 동시에 세 가지를 말하고 세 가지 안에서 하나를 설명하는 것과 같다. 이 의미를 이해하면 원돈의 가르침에 상응하는 지관의 실천모습을 이해할 수 있다.(25.b)

(q2.2.1.2.3.2.3) 원돈지관의 모습은 지에 근거해서 진리[諦]를 보이면, 하나의 진리이지만 곧 세 가지 진리이다. 진리에 근거해서 지를 설명하면, 하나의 지가 곧 세 가지 지이다. 이는 공, 가, 중의 세 가지 모습이 한 순간의 하나의 마음[一念心]에 있으며, 일념심이지만 세 가지 모습을 갖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지와 진리도 이와 같다.(25.b)

(q1.2.2.1.2.3.2.4) 관(觀)에 근거해서 대상[境]을 관찰하면, 하나의 대상이 곧 세 가지의 대상이다. 대상에 근거해서 관을 일으키면, 하나의 관이 곧 세 가지의 관이다. 이는 대자재천의 얼굴에 있는 세 개의 눈이 그 개수는 세 개이지만 하나의 얼굴에 있는 것과 같다. 대상과 관도 이와 같다. 관도 설명하면, 머무르는 대상으로서의 진리는 하나이지만 세 가지이고, 머무르는 마음은 세 가지이지만 하나이다. 관도 세 가지이면서 하나이고, 일어나는 경도 하나이면서 세 가지이다.(25.b)

#### 1.2.2.2 성취하는 능력[功用]에 따른 형태 - 안(眼)과 지(智)

(e1.2.2.2.1) 다음으로 지관의 실천을 통해 얻는 과보에 따라 지관을 분류했다. 모든 지관은 진여를 지향하기 때문에, 지관의 궁극적 과보는 진여에 대한 깨달음이다. 이는 언어로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근거해서는 지관의 모습을 분류할 수 없다. 지의는 앞에서 가르침에 근거해서 분류했던 삼지삼관이 성취하는 과보인 안과 지를 통해 지관의 모습을 분류했다. 그에 따르면, 지관은 번뇌를 끊고 진리를 통찰하는 수행법이다. 이는 지관 실천을 통해, 수행자는 어떤 진리를 보고, 알 수 있는 능력[공용]을 성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의는 삼지삼관의 실천모습의 차이에 따라 획득하는 능력 또한 삼안삼지(三眼三智)로 다르다고 분류했다.

(q1.2.2.2.2) 안과 지혜에 근거해서 지관이 [지향하는 진실의] 본체를 보이겠다. 진실의 본체는 알 수도 볼 수도 없고, 원인도 아니고 결과도 아니기 때문에 설명하기 어렵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는 더욱 어렵다. 알기도 어렵고, 보기도 어려운 것은 분명하지만 안(眼)과

지혜[智]에 근거하면 알고 볼 수 있다. [진실의 본체는] 원인도 아니고 결과도 아니지만, 원인과 결과에 근거해서 설명하면 드러낼 수 있다. 다시 말해 삼지와 삼관을 원인으로 하고 안과 지혜를 이에 대한 결과로 설정하면, 원인에서 체를 드러내는 것은 원거리에서 설명하는 방법이고, 결과에서 체를 드러내는 것은 근거리에서 설명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진실의 본체는 앎과 견해의 분별을 넘어서 있어, 분별할 수 없지만 안과 지혜를 통해 고찰하면 체는 이해하기 쉽다.(25.c)

#### 1.2.2.2.1 삼안삼지(三眼三智)

(e1.2.2.2.1.1) 지의에 따르면, 안과 지는 지와 관의 결과로서 성립한다. 지와 관에 각각 세 가지의 모습이 있으므로 안과 지 또한 각각 세 가지의 모습으로 설명된다.

(q1.2.2.2.1.2) 세 가지의 지와 세 가지의 관을 원인으로 하여 세 가지의 눈과 세 가지의 지혜를 성취하고 각각 세 가지의 진리를 얻는다. 이와 같이 안과 지를 통해 지관의 진리를 드러낼 수 있다.(25.c)

##### 1.2.2.2.1.1 삼안(三眼)

###### 1.2.2.2.1.1.1 혜안(慧眼)

(e1.2.2.2.1.1.1.1) 체진지는 모든 현상을 실체가 없는 공으로 이해함으로써, 현상에 대한 집착을 끊고 공에 머무는 지관법이다. 현상에 대한 집착을 끊음으로써 획득되는 눈이 혜안으로 공의 진리를 본다.

(q1.2.2.2.1.1.1.2) 체진지는 어리석은 미혹을 일으키지 않고 지를 통해 선정을 일으킨다. 선정은 무루를 낳음으로써 혜안이 열려 제일의(第一義)를 본다. 여기서 진제의 삼매가 성립한다. 즉 지가 안을 낳고, 안은 진리를 보고 진리를 증득한다.(25.c)

#### 1.2.2.2.1.1.2 법안(法眼)

(e1.2.2.2.1.1.2.1) 방편수연지를 통해 열리는 눈으로, 현상의 다양한 모습들의 차이를 분명히 봄으로써 중생을 병으로부터 구제할 수 있도록 한다.

(q1.2.2.2.1.1.2.2) 방편수연지는 진제에 명일하면서 현상인 가(假)로 나와 마음을 속제에 편안히 둔다. 이 지를 통해 다라니를 얻고, 다라니가 약과 병을 분별함으로써 법안이 밝게 열려 신통을 방해하는 무지를 부순다. 항상 삼매에 머물면서 생사와 열반을 구분하는 [관점에서] 체불의 국토를 보지 않는다. 여기서 속제의 삼매가 성립한다. 지가 안을 열고, 안은 체를 증득하므로 속제의 진리를 얻는다.(25.c)

#### 1.2.2.2.1.1.3 불안(佛眼)

(q1.2.2.2.1.1.3.1) 식이변지는 생사와 열반, 공과 유가 함께 없어진다. 이 지는 중도의 선정을 일으킴으로써 불안을 밝게 열어 모든 현상들을 비춘다. 중도의 삼매가 성립한다. 지를 통해 안을 얻고 이 안이 진리를 증득하는데, 중도의 진리[體]를 얻는다.(25.c)

#### 1.2.2.2.1.2 삼지(三智)

##### 1.2.2.2.1.2.1 일체지(一切智)

(e1.2.2.2.1.2.1.1) 연기적 현상의 본체인 공을 관찰하는 종가입공관에 근거해서 성립하는 지혜이다.

(q1.2.2.2.1.2.1.2) 종가입공관은 공의 지혜가 작용하여 견사혹을 부수어 일체지를 성취한다. 이 일체지로 진리를 증득하는데, 진제의 진리를 얻는다.(26.a)

##### 1.2.2.2.1.2.2 도종지(道種智)

(q1.2.2.2.1.2.2.1) 종공입가관은 약과 병에 대한 모든 종류의 가르침



을 분별하여 무지를 부숨으로써 도종지를 성취한다. 도종지로 진리를 증득하는데, 속제의 진리를 얻는다.(26.a)

#### 1.2.2.2.1.2.3 일체종지(一切種智)

(q1.2.2.2.1.2.3.1) 생사와 열반의 두 측면을 함께 부정하는 것을 방편으로 삼아 중도에 드는 중도제일의제관은 무명을 부수어 일체종지를 성취한다. 이 일체종지로 진리를 증득하는데, 중도의 진리를 증득한다. 이와 같이 삼지(三止)와 삼관(三觀)이 함께 삼안과 삼지(三智)를 성취하여 각각의 세 가지 진리를 체득한다. 지관의 체가 안과 지를 통해 드러내는 것은 이 때문이다.(26.a)

#### 1.2.2.2.1.3 삼안삼지(三眼三智)의 관계

##### 1.2.2.2.1.3.1 안과 지의 관계

(e1.2.2.2.1.3.1.1) 눈과 지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눈으로 보는 것과 안다는 것에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과 관련된다. 지의의 설명에 따르면, 보는 것은 깨달음[體得]과 관련되고 안다는 것은 들어서 아는 지적인 이해와 관련된다.

(q1.2.2.2.1.3.1.2) 본다는 것과 안다는 것과 관련해서 네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알지도 보지 못하는 경우, 보고도 알지 못하는 경우, 알기도 하고 보기도 하는 경우, 알지도 보지도 못하는 경우의 네 가지이다. 범부는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했기 때문에 알지도 못한다. 이승인은 깨닫기 때문에 보고, 듣기 때문에 안다. 연각인은 깨닫기 때문에 보지만, 듣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 방편도인은 듣기 때문에 알지만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볼 수가 없다. 또 신행인은 듣는 것을 통해 지혜가 갖추어지고, 지혜를 통해 무루를 일으켜 일체지를 얻는다. 이 지는 듣는 것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 측면에서 안다고 할 수 있다. 범행인은 사유를 통해 선정을 얻고, 이 선정을 통해 무루를 일으켜 해안을 성취한다. 이 안은 선정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 측면에서 안을 통해 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아는 것도 보는 것도 모두 같이 진체를 깨닫기 때문에 그 근거하는 것에 따라 알기도, 보기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는 혜안과 일체지의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으로 다른 두 가지의 안과 두 가지의 지(智)의 경우도 똑같다.(26.a)

#### 1.2.2.2.1.3.2 삼안과 삼지 사이의 차제의 유무(有無)

(e1.2.2.2.1.3.2.1) 삼지삼관들 사이의 관계를 우열, 권실, 깊이에 기준해서 나누고 그 차제를 따졌던 별교의 입장에서는 삼안과 삼지 사이에도 차제적인 관계가 성립한다. 삼지삼관을 즉공즉가즉중의 입장에서 일심삼관으로 이해한다면, 삼안과 삼지 사이에도 어떠한 분별이나 차제는 성립할 수 없다. 다시 말해 불차제의 관계로 성립한다.

(q1.2.2.2.1.3.2.2) 일심의 삼지가 성취하는 삼안은 사려분별을 넘어선 [즉공즉가즉중의] 삼제를 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보는 것은 지를 통해 성취되므로 안이라고 한다. 일심의 삼관이 성취하는 삼지는 사려분별을 넘어선 세 가지 대상[三境]을 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아는 것은 관을 통해 성취되므로 지(智)라고 한다. 경과 진리[諦]는 동일한 하나에서의 좌와 우의 차이 정도이며, 본다와 안다는 것도 동일한 하나를 안이라고도 부르고 눈[目]이라고도 부르는 정도의 차이로 다른 것이 아니다. 여기서는 삼관을 이해하기 쉽도록 임시로 대상에 근거해서 지(智)라고 하고, 삼지를 이해하기 쉽도록 진리[諦]에 근거해서 안(眼)이라고 했다. 이와 같이 각각 세 가지 용어로 구분해서 설명해도 사실은 사려분별을 넘어선 하나의 가르침이다. 이와 같이 하나의 가르침인 안과 지를 통해 원돈지관의 진리[諦]를 이해할 수 있다.(26.b)

#### 1.2.2.3 깨달음의 경계에 따른 형태

(e1.2.2.3.1) 삼안삼지는 지관을 통해 보이고 알려지는 대상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삼안과 삼지는 보고 아는 주체로서, 주체가 있으면 작용의 대상으로서 객체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통찰하는 대상은 공, 가, 중 삼제의 진리로서 삼지삼관을 통해 성취하는 깨달음의 경계이기도 하다. 지의는 삼안과 삼지에 근거해서 그 보고 아는 대상으로서의 깨달음의 경계의 형태를 설명하고, 이를 통해 지관의 모습을 분류했다.

(q1.2.2.3.2) 『법화경』은 “모든 중생에게 불타의 지건을 열어 보이기 위해” 라고 했다. 만약 대상[境]이 없다면 지혜와 아는 것도 있을 수 없으며, 눈과 보는 것도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불안(佛眼)의 대상을 드러내 보여야 한다.(26.a)

### 1.2.2.3.1 다양한 경계가 성립하는 원인 - 감응(感應)

(e1.2.2.3.1.1) 지의는 삼지삼관과 삼안삼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면, 경계에 대한 설명은 필요 없다고 보았다. 삼안삼지에 따르면, 지관이 통찰하는 대상은 공, 가, 중의 삼제로 성립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한다. 수행자는 삼지삼관의 수행을 통해 삼안삼지의 지혜를 성취한다. 이러한 지혜에 근거해서 수행자는 진리를 통찰하고 깨달음의 경계에 이를 수 있다. 삼지삼관, 삼안삼지에 따르면 깨달음의 경계 또한 공, 가, 중으로 세 가지가 있게 된다. 그러나 궁극적 진리는 하나밖에 없듯이, 깨달음의 경계 또한 하나여야만 한다. 지의는 깨달음의 경계가 세 가지로 다양한 이유를, 부처의 가르침이 중생에 대한 부처의 일방적인 설법이 아니라 부처와 중생의 상호작용[감응]의 결과로서 성립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시 말해 부처는 중생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하나의 진리에 대해 공, 가, 중의 세 가지 진리를 가르쳤다는 것이다.

(q1.2.2.3.1.2) 수행자는 스스로 이 마음을 내는가? 아니면 타인의 가르침이 이 마음을 내게 하는가? 자(自), 타(他), 공(共), 리(離)의 관점 모두가 맞지 않다. 감응의 도가 상호 교류함과 관련해서 발심(發心)을 논한다. 마치 아이가 물이나 불 속에 빠지면 부모가 정신없이 그를 구하는 것과 같다. 『유마경』은 “아들이 병이 나면 그 부모 또한 병이 난다.” 고 했다. 『대열반경』은 “부모는 병이 난 자식에게 마음이 더욱 기운다.” 고 했다. 진리[법성]의 산을 움직여 생사의 바다에 뛰어들다. 그러므로 [부처에게는] 중생과 같은 병을 앓는 병의 징후가 있고, 영아행(嬰兒行)이 있다. 이를 서로 느끼고 반응하여 [진리에 대해 설법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일으킨다[感應發心]고 한다.(4.c)

#### 1.2.2.3.1.1 감응의 형태

(e1.2.2.3.1.1.1) 지의는 하나의 진리에 대한 가르침이 공, 가, 중 삼제로 다양한 이유를 중생과 부처 사이의 상호작용, 즉 감응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설법주체인 부처와 법을 듣고, 이해하는 중생 사이의 상호작용의 형태를 사설단(四悉檀), 사수(四隨), 오부차(五復次)와 같은 다양한 개념으로 설명했다. 지의는 이러한 감응의 형태를 다음 세 가지로 정리했다.

(q1.2.2.3.1.1.2) 이와 같이 삼제의 진리는 사려분별을 넘어서 있어 결정된 속성이 없다. 그러므로 언어로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러나 [언어로 분별해서 설명했던] 조건에 근거해서 설명하면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감정에 따른 설법[隨情說]으로 이는 타인의 측면에 따라 말하는 것이다. 2. 감정과 지혜에 따른 설법[隨情智說]으로 이는 자신과 타인의 측면에 따라 말하는 것이다. 3. 지혜에 따른 설법[隨智說]으로 이는 자기의 측면에 따라 말하는 것이다.(26.c)

##### 1.2.2.3.1.1.1 수정설(隨情說)

(e1.2.2.3.1.1.1.1) 수정설이란 부처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그의 욕구에 따라 하나의 진리를 삼제로 다양하게 설법했다는 것이다. 삼제 모두는 절대적 진리에 대한 방편적 도구로서 성립한다.

(q1.2.2.3.1.1.1.2) 수정설이란 맹인이 우유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어떤 사람에게 “우유가 어떤 색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이 “우유의 흰색은 조개, 죽, 눈, 학과 같은 색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와 같다. 맹인은 이 말을 들어도 우유의 색깔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하나하나의 이론에 집착한다. [...] [부처는 중생이] 삼제의 실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큰 자비심으로 방편을 일으켜 분별해 설명했다. [...] 이와 같이 설명을 들어도 삼제의 실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범부는 항상 상(常), 락(樂), 아(我), 정(淨)의 실상을 볼 수 없다. 아직 실상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각자는 유, 혹은 공을 집착하여 서로 시비를 다툰다. [...] 모두가 옳다고 한다면 진리는 무한히 많게 되고, 모두 틀렸다고 한다면

각각 타당한 부분이 있어 [틀렸다고도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자기의 견해가 옳고 타인의 견해는 틀렸다고 다투면, 애써 불타의 가르침을 배워도 생명을 상해 도중에 죽고 만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감정에 따라 삼제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것을 이해하면, 여러 가지로 다른 교설을 들어도 여래는 중생의 감정에 따라 교화했으며, 어떤 사람들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의 가르침을 설했다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26.c)

#### 1.2.2.3.1.1.2 수정지설(隨情智說)

(e1.2.2.3.1.1.2.1) 삼제를 진제 속제의 이제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앞의 수정설에서 삼제는 하나의 절대적 진리에 대한 세 가지 진리로 성립하지만, 여기서는 삼제들을 진제와 속제의 이제로 나누어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의 진리에 대한 삼제의 관계를 말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중생의 근기에 따르면, 삼제는 모두 속제이고 성인의 지혜에 따르면 삼제는 모두 진제로서 절대적 진리이다.

(q1.2.2.3.1.1.2.2) 감정과 지혜에 따라 삼제를 설하는 경우, 감정에 따라서는 이제를 설명하고 지혜에 따라서는 일제를 설명한다. 이 경우 일제와 관련해서 삼제를 논의할 수 없다. 범부의 감정에 따르면, 범부의 감정은 모두 방편이 되어 일제가 곧 삼제라고 해도 이들을 묶어 이제의 의미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또 성자의 지혜에 따르면, 모두 진실을 얻을 수 있어 일제가 곧 삼제라고 해도 이들을 묶어 하나의 진실의 의미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감정과 지혜를 함께 대조해서 삼제를 말한다. 상사위(相似位)의 경우, 육근(六根)이 청정하여 진실을 이해하지만 중도를 아직 통찰하지 못한다. 삼제를 관찰해도 사주번뇌(四住煩惱)와 진사혹을 겨우 부수었기 때문에 방편도는 깨달아도 중도제일의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방편도와 중도제일의제를 묶어서 [각각 속제와 진제의] 이제로서 이해한다. 만약 초주에 들어 무명을 부수면 불성을 통찰하여 이제를 함께 비추게 되면, 이것을 지혜(智慧)라고 한다. 삼제를 갖추고 있어도 이것을 묶어서 중도제일의제라고 이해한다. 이와 같이 수행자의 감정과 지혜를 합한 설법을 자신과 타인의 양 측면에 따른 설법이라고 한다.(26.c-27.a)

### 1.2.2.3.1.1.3 수지설(隨智說)

(e1.2.2.3.1.1.3.1) 부처의 지혜에 따른 설법으로, 삼제의 참된 모습은 범부중생이나 이승은 결코 이해할 수 없다는 의미를 갖는다.

(q1.2.2.3.1.1.3.2) 지혜에 따라 삼제를 설명한다는 것은 초주 이후부터 중도제일의제를 설명해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진제와 속제에 대해서도 같다. 삼제는 심오하고 미묘한 진리이기 때문에 오직 지혜만이 비출 수 있다. 보일 수도 생각할 수도 없다. 이러한 말을 들으면 누구라도 당연히 놀라고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안에도, 밖에도 있지 않고 어렵지도 쉽지도 않으며, 모습이 있지도 없지도 않다. 이는 세간의 모든 현상과 다르며, 아무리 많은 말을 통해 설명해도, 사구를 통해 설명하려고 해도 파악할 수 없다. “오직 부처와, 부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알 수 있다.”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길이 끊어졌으며 사려분별을 넘어서 있다.”고밖에 할 수 없다. 범부의 감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하나라고 해도, 세 가지라고 해도 범부의 사고분별을 넘어서 있다. 이승인도 생각할 수 없으니 범부는 더욱 생각할 수 없다. 이는 우유의 색은 눈을 떠 볼 때에만 비로소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어떤 말로도 맹인은 우유의 색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이 지에 따른 삼제의 모습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측면에 따른 설명 방식이다.(27.a)

### 1.2.2.3.1.2 사실단(四悉檀)과의 관계

(e1.2.2.3.1.2.1) 사실단은 부처의 설법 방식을 말한다. 부처가 네 가지 방식을 통해 중생에게 가르침을 베풀었기 때문에 실단이라고 했다. 사실단은 1.세계실단(世界悉檀)이다. 부처가 범부의 희망에 따라 세계의 법을 설해, 듣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다. 2.위인실단(爲人悉檀)이다. 사람의 근기에 따라 각자에게 상응하는 법을 설하여 선을 행하게 하는 방법이다. 3.대치실단(對治悉檀)이다. 중생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설명 방식이다. 4.제일의실단(第一義悉檀)이다. 중생의 능력이 성숙한 때 제법의 실상을 설하여 참된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설명 방법이다. 지의에 따르면, 위의 세 가지 설명 방식은 각각이 사실단을 모두 갖추고 있다.

(q1.2.2.3.1.2.2) 세 가지 설명 방식에는 각각 사실단의 의미가 담겨 있다. 수정설의 경우 사실단은 진리[諦理]를 설명할 수 없지만, 설명하고자 하면 반드시 언어를 통해야 하고, 언어는 반드시 중생의 감정에 부응하므로 감정에서 반드시 희열을 낳는다. 진제를 듣고 환희하고 속제를 듣고 환희하고 중도를 듣고 환희한다. 이는 감정에 따른 설명 방식 중에서 세계실단의 의미이다. 또 중생이 편안해 하는 것은 서로 달라서, 어떤 사람은 무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계율과 지혜를 증장하고 어떤 사람은 유(有)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계율과 지혜를 증장하고 어떤 사람은 중도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계율과 지혜를 증장한다. 이는 감정에 따른 설명 방식 안에서 위인실단이다. 또 수행자가 악을 부수는 것도 하나로 같지 않다. 어떤 때는 유(有)의 가르침을 듣고 수면이나 각관을 부수고, 어떤 때는 무의 가르침을 듣고 졸음과 산만함을 부수고 어떤 때는 중도를 듣고 졸음이나 산만함을 부순다. 이는 감정에 따른 설명 방식 안에서 대치실단[治惡]의 의미이다. 중생이 깨닫는 방식도 다르다. 어떤 때는 무의 가르침을 들어 깨닫고, 어떤 때는 유(有)의 가르침을 듣고 깨닫고, 어떤 때는 중도의 가르침을 듣고 철저히 할 수 있다. 이는 제일의실단의 의미이다.(27.b)

#### 1.2.2.3.2 깨달음의 경계의 형태

(e1.2.2.3.2.1) 하나의 진리에 대한 공, 가, 중 삼제는 설법 주체인 부처와 그 법을 듣고 이해하는 중생의 상호작용에서 성립했다. 지의에 따르면, 부처는 중생들의 욕구와 지적 능력에 근거해서 삼제를 각각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한 도구로서 설명했지만, 이 가르침을 들은 중생들이 삼제 중의 하나를 절대화하거나 삼제 사이의 관계를 잘못 이해함으로써 지관을 통해 성취하는 깨달음의 경계와 관련한 다양한 주장들이 성립하게 되었다. 그는 이러한 형태들을 화법사교들이 이제에 근거해서 이들 삼제를 이해하는 방식을 통해 네 가지로 설명했다. 이제는 진제(眞諦)와 속제(俗諦)의 두 가지 진리로서, 전자는 깨달음에 관한 진리이고 후자는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진리를 가리킨다. 이는 공, 가, 중 삼제 중 무엇을 진제로 하고 또 무엇을 속제로 이해하는가에 따라 깨달음의 경계의 형태를 알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q1.2.2.3.2.2) 여기에서는 경전에서 보이는 이제에 대한 글을 인용하여 삼제의 주장을 분명히 하겠다. 범부가 인연을 분명하게 깨달아 관해(觀解)를 일으킨다고 하면, 이는 감정에 따른 속제를 설명하는 것이다. 인연을 공이라고 깨닫는다고 하면, 이는 감정에 따른 진제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 방식은 감정에 따라 이제를 설명하는 것이다. 또 범부의 마음이 보는 것은 속제이고 성인의 마음이 보는 것은 진제라고 한다면, 이러한 설명 방식은 감정과 지혜에 따라 이제를 설명하는 것이다. 또 범부는 세간에서 생활하고 있어도 세간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러한 범부는 세간의 속제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진제는 더욱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제는 범부의 감정에 근거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지혜에 따라 이제를 설명하는 방식이다. 이제에 이와 같이 세 가지의 설명 방식이 있듯이 삼제도 같이 이해할 수가 있다.(27.a)

#### 1.2.2.3.2.1 삼장교(三藏敎)

(e1.2.2.3.2.1.1) 여기서 말하는 삼장교는 성문승과 연각승의 소승이 아니라,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보살을 가리킨다. 이들은 진제와 속제의 이제를 선후가 있는 독립적 진리로서 이해한다. 삼제 중 중도제일의제는 속제와 진제를 다 깨달은 뒤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를 깨달은 부처만이 알 수 있는 경계이다. 그리하여 삼장교에서의 지관이 통찰하는 경계는 연기적 현상을 다 부순 뒤에 성립하는 단공이 된다. 삼장교에서 세 번째의 진리인 중도는 말만 있고 그 내용이 없어 안(眼)에 특별히 보는 것이 없고, 지(智)에도 특별히 아는 것이 없다.

(q1.2.2.3.2.1.2) 삼장교는 방편교이므로 이제만을 설명한다. 보살은 처음과 중간 정도에서 진제에 근거해서 사주의 번뇌를 항복시켜 번뇌를 차례로 제거한다. 삼아승지겁에 걸쳐 육바라밀을 수행하여 공덕을 쌓아나간다. [...] 이와 같이 일념에서 종가입공하여 해안을 얻고 진제를 비추어 성불한다. 이 불은 먼저 속제를 비추고 다음으로 진제를 비추어 이제가 함께 분명해지기 때문에 이승, 보살과 다르다. 보살은 속제만을 비출 뿐 진제를 비추지 않고, 이승은 진제만을 비출 뿐 속제를 비추지 않지만 불은 이제를 함께 비추기 때문에 그 위에 중도제일의제를 더하게 된다. 삼



장교의 이제는 이와 같이 방편교이고, 이제 위에 다시 중도를 더하는 것은 방편 위에 다시 방편을 더하는 것이므로 중도제일의제를 비추기 위해 다시 불안을 설명하고 이 중도제일의제를 알기 위해 다시 일체중지를 설명한다. 이와 같이 제자의 입장에서 이제는 앞과 뒤로 나누어져 있고, 불의 입장에서 삼제를 더하게 된다. 이것이 삼장교에서 이제와 삼제의 이합이다.(27.c-28.a)

#### 1.2.2.3.2.2 통교(通敎)

(e1.2.2.3.2.2.1) 단공과 부단공으로 진제의 공을 설명하면, 공에 대한 불타의 깨달음이 어떻게 이승의 깨달음과 다르며 동시에 자비행이 어떻게 가능한 지도 설명가능하다. 삼장교에서 세 번째의 진리는 이름만 있지만, 통교에서는 진제라고도, 혹은 중도제일의제라고도 하며, 이에 상응하는 실체와 상응하는 견, 상응하는 지가 있다. 이것이 통교의 이제와 삼제의 모습이다.

(q1.2.2.3.2.2.2) 삼승인은 모두 언설을 넘어선 도를 통해 번뇌를 끊지만 諦의 이합을 보면 속제는 공통적이지만 진제는 각각 다르다. 『대지도론』은 “공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단공이고, 다른 하나는 부단공이다.”고 했다. 『열반경』은 “이승인은 공만을 보고, 불공을 보지 않는다. 지혜로운 자는 공만을 보지 않고, 불공도 본다. 불공이란 대열반이다.”고 했다. 이승의 단공의 지혜는 반딧불이 같은 것이고 보살인의 지혜는 햇빛과 같다. 이와 같이 공과 지혜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의 의미에도 차이가 발생한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일단 모두 하나의 진제로 한다. 이승은 가(假)를 체득하여 공에 들지만, 단공에 들어가기 때문에 종공입가는 불가능하다. 그 결과 중생을 교화하는 작용은 없다. 보살은 가를 체득하여 참된 공에 들어갈 수 있어 종공입가가 가능하다. 그 결과 중생을 교화하고 제도하여 불국토를 정화할 수 있다. 상근기의 보살은 가를 체득하여 진실공에 들어가는데 먼저 단공에 들고 다음으로 부단공에 들어가 무명을 부수고 불성을 본다. 앞의 진실공의 의미와 명백히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진제라고는 할 수 없다.(28.a)

#### 1.2.2.3.2.3 별교(別敎)

(e1.2.2.3.2.3.1) 중도를 설명하기 때문에 삼제가 성립하고, 범부의 속제와 이승의 진제를 모두 속제로 하고 중도제일의제를 진제로 한다.

(q1.2.2.3.2.3.2) 별교의 이제는 앞의 장교, 통교와 다르다. 앞에서 설명한 진제와 속제는 모두 별교의 경우에는 속제에 해당한다. 여기서 속제란 속제는 유이고 진제는 무라고 하듯이 서로 격별하고 있는 세계라는 의미이다. 범부는 속제에 포섭되고 이승은 진제에 포섭된다는 것과 같이 속제와 진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속제라고 하는 것이다. 『승만경』은 “이승을 가리켜 공에 마음이 흔들리는 중생이라고 한다.”고 했고, 『열반경』은 “나는 미륵과 함께 세제에 대해 논하고 있었는데 오백의 성문은 진제를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제를 설명하고 있는 한에서는 속제를 열지 않지만, 삼제를 설명할 때는 유를 열어 속제로 하고, 무를 열어 진제로 하고, 단공에 대해 제일의제를 대응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별교의 이제와 삼제의 모습이다.(28.a-28.b)

#### 1.2.2.3.2.4 원교(圓敎)

(e1.2.2.3.2.4.1) 하나의 진리만을 보이기 위해 여러 가지의 진리[諦]로 설명한 것이다. 하나의 진리에 대해, 사제, 삼제, 이제, 일제 등으로 그 수를 다양하게 합하거나 나눌 수 있다.

(q1.2.2.3.2.4.2) 하나의 진실만을 보인다. 『열반경』은 “진실은 하나이지만 방편으로 세 가지를 설명한다.”고 했다. 원교의 입장이다. 『법화경』은 “전혀 다른 방편을 가지고 제일의제를 드러낸다.”고 했다. 이것이 원교의 이제, 삼제, 1제의 이합의 모습이다.(28.b)

#### 1.2.2.3.3 다양한 지(智)의 형태

(e1.2.2.3.3.1) 지는 지의 통찰대상인 진리[諦]와 관련해서 나눔과 통합이 있다. 경전 중에 진리와 관련해서 일제, 이제, 삼제와 같은 나눔과 통합이 있듯이 지(智)에도, 일지, 이지, 삼지, 사지 내지 십일지 등과 같

은 이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삼제와 삼지에 포섭해서 설명할 수 있다.

(q1.2.2.3.3.2) 경전 중에는 오제, 육제, 칠제, 팔제, 구제, 내지는 무한한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 예도 있지만 앞에서 말한 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모두 삼제의 의미로 포섭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십일지(十一智) 중 세지(世智)와 타심지(他心智) 두 종류는 세제를 비추고, 팔지(八智)는 진제(眞諦)를, 여실지(如實智)는 중도제(中道諦)를 통찰한다. 이와 같이 지에는 이합집산에 따라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지만 그 의미는 모두 삼제로 포섭할 수 있다.(28.b)

#### 1.2.2.3.4 경계와 지(智)의 관계

##### 1.2.2.3.4.1 사의(思議)의 관계

(e1.2.2.3.4.1.1) 진리를 통찰하는 주체로서의 지혜와 그 대상으로서 진리의 관계에 대한 이해 방식을 사구(四句)를 통해 설명했다.

(q1.2.2.3.4.1.2) 지가 마음에 근거해서 생겨서 스스로 대상[경]을 비춘다고 할 때, 이것을 햇불이 사물을 비추듯 비추지 않든지 비쳐지는 사물은 원래부터 있고, 관찰하든 하지 않든지 대상[경]은 본연으로 있는 것과 같다면 제(諦)와 지(智)는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지는 스스로 지로 있는 것이 아니고 경에 따라 지가 되며, 경 스스로도 경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에 따라 경이 되어, 장단(長短)이 비교를 통해 성립하는 것과 같다고 한다면 경과 지의 관계는 서로 의지해서 성립한다. 경은 스스로 경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지에 따라 경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경과 지가 합쳐서 경도 되고 지도 된다고 한다면 이는 경과 제(諦)가 함께 합해져 있는 경우이다. 위의 세 가지 경우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고 원래 그렇게 경으로 되고, 지로 된다고 한다면 이는 경과 지가 아무런 원인 없이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는 의미이다.(29.a)

#### 1.2.2.3.4.2 불사의(不思議)의 관계

(e1.2.2.3.4.2.1) 수행을 통해 얻는 지혜와 그 지혜가 통찰하는 진리의 관계는 주체와 객체의 이원론적인 분별을 넘어서 있다. 인식 주체로서의 주관과 그 대상으로서의 객관은 주관과 객관이 각각 실체로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이원론에 근거한다. 그러나 부처의 연기법에 따르면, 모든 존재는 조건에 의존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주관과 객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실체가 없다. 따라서 수행을 통해 성취되는 지혜와 그 지혜가 통찰하는 진리는 주관과 객관으로 설명할 수 없는 관계, 즉 불사의의 관계이다.

(q1.2.2.3.4.2.2) 지와 경의 관계에 대한 위의 네 가지 해석은 모두 옳지 않다. 이러한 해석은 모두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있고, 사로잡혀 있는 것에 근거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이러한 판단은 애착과 분노를 낳고, 나아가 모든 번뇌를 낳는다. 이러한 번뇌에 따라 의미 없는 논쟁이 발생한다. 논쟁에 따라 몸과 마음으로 짓는 업이 발생한다. 업이 발생하면 괴로움의 바다에서 윤회하여 해탈은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용수는 그 뿌리를 끊기 위해 “모든 존재는 스스로 생기지 않는다.”고 했으니, 지와 경은 스스로 생겨난 것이 아니다. 또 “타자에 따라 생기지도 않는다.”고 했으니, 경과 지는 서로 의지해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또 “함께 생겨난 것도 아니다.”고 했으니 경과 지는 함께 합해져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또 “인연 없이 우연히 생기지 않는다.”고 했으니, 경과 지는 아무 이유 없이 우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 네 가지 방식에 집착하면 여러 가지의 어리석음과 미혹이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은 결코 지혜일 수가 없다. 여기에서는 “스스로 생기지 않는다.”와 같은 사구(四句)를 통해 네 가지의 잘못된 방식을 부순다. 이에 따라 네 가지 잘못된 방식에 대한 집착도 사라짐으로써 결국 괴로움의 바다를 부르는 일도 없어진다. 청정한 마음으로 항상 고요하면 반야를 볼 수 있다.(29.a-29.b)

(q1.2.2.3.4.2.3) 이러한 의미에서 경과 지는 스스로 생긴다고 하는 괴로움과 집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는 생생불가설(生生不可說)의 의미로 사리불의 묵연(默然)에 해당한다. 우연히 경과 지가 생긴다고 하는 괴로움과 집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는 불생불생불가설(不生不生不可

說)의 의미로 유마가 입을 다물었다는 것에 해당한다.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의 작용이 소멸하기 때문이다.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사실단의 인연 때문에 설명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경과 지가 스스로 생긴다고 하고, 혹은 아무런 이유 없이 경과 지가 생긴다고 한다. 이와 같이 네 가지 방식으로 설명하지만, 거기에 따른 집착을 오래 전에 부수었다. 이름만 있고, 이름에 해당하는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는 이름은 머무르지도 않고, 머무르지 않는 것도 아니다. 이를 불가사의라고 한다.(29.b)

#### 1.2.2.4 통찰을 막는 장애[迷惑]에 따른 형태

(e1.2.2.4.1) 원래 진리는 부처가 오든 오지 않든지 상관없이 영원하다. 번뇌는 진리에 미혹되기 때문에 발생하여, 중생으로 하여금 생사윤회의 바다를 유전하도록 한다. 삼지삼관은 이러한 번뇌를 끊고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방법이다. 따라서 삼지삼관의 수행 대상으로서 미혹을 이해함으로써, 지관의 모습을 분류할 수 있다. 삼지삼관과 관련해서 미혹에는 각각 견사혹(見思惑), 진사혹(塵沙惑), 무명혹(無明惑)의 세 가지가 있다.

##### 1.2.2.4.1 견사혹(見思惑)

(e1.2.2.4.1.1) 견혹과 사혹으로서의 견사혹은 견애(見愛), 견수(見修), 사주(四住), 염오무지(染污無智), 지말무명(枝末無明), 통혹(通惑), 계내혹(界內惑)이라고도 한다. 견혹이란 편벽된 세계관을 통해 일으키는 번뇌로서, 아견(我見), 변견(邊見)의 미혹을 말한다. 사혹이란 세간의 현상을 사려분별함으로써 일으키는 번뇌를 말한다. 견혹과 사혹은 삼계 내의 생사윤회의 원인으로서, 이를 끊어야 비로소 삼계의 생사를 벗어날 수 있다. 지의에 따르면, 견사혹은 장교와 통교가 공관을 통해 닦는 번뇌이다. 그는 먼저 순관(順觀)의 십이인연을 보이고, 다시 이들을 번뇌도, 업도, 고도의 삼도(三道)로 분류한 뒤, 이들을 병으로 하고 가에서 공으로 들어가는 지관[從假入空觀]을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설명했다.

(q1.2.2.4.1.2) 진리에 대한 미혹 때문에 생사의 번뇌를 일으킨다. 진

리에 대한 미혹이 무명이다. 방편의 진리에 대해 미혹되면 삼계내(三界內)와 상응하는 무명과 독두(獨頭)의 무명이 있게 된다. 상응의 무명은 견사혹과 같은 번뇌와 함께 하는 것이고, 상응하지 않는 것은 독두라고 한다. 이러한 현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탐욕을 일으킨다. 모르는 것은 무명이다. 탐욕을 일으키는 것은 행이다. [...]이 일련의 열두 가지의 가르침은 서로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된다. 번뇌는 업과 통하고, 업은 고와 통하고 고는 번뇌에 통한다. 이것을 삼도(三道)라고 한다. [...] 경전에서는 ‘십이견연’(十二牽連) 혹은 ‘십이륜’(十二輪)이라고 한다. 사람을 끊임없이 묶기 때문에 수레바퀴라고 했다. 삼세(三世)로 나뉘기 때문에 분단(分段)이라고 한다. 진제의 진리를 덮어 해탈할 수 없기 때문에 병과 같다. 병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약을 아는 것이다. 이 약은 가에서 공으로 들어가는 지관이다. 약을 관찰해서 병을 알게 되므로 이 번뇌는 공에 들어가는 지관에 포섭된다.(29.c-30.a)

#### 1.2.2.4.2 진사혹(塵沙惑)

(e1.2.2.4.2.1) 진사혹이란 먼지와 모래알만큼이나 수없이 많은 현상의 다양한 사태들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하여 대처할 능력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는 현실교화의 장애가 되기 때문에 화도장(化導障)의 미혹이라고도 한다. 이는 과거의 행위에 따른 업보[習氣] 때문에 아직 남아있는 번뇌이다. 그리하여 견사혹이 공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견해에 집착하여 일으키는 염오무지인데 반해, 견사혹은 공을 깨달았기 때문에 불염오무지(不染汚無智)라고 한다. 지의에 따르면, 진사혹은 대승보살만이 닦는 번뇌로서 별교는 가관을 통해 이를 끊는다. 그는 진사혹을 삼계외의 무명으로 설명함으로써 삼계 밖에 다시 무명을 인연으로 하는 십이인연을 설명한 뒤, 종공입가관을 통해 끊는다고 설명했다.

(q1.2.2.4.2.2) 진실의 진리에 대해 미혹되면 삼계(三界) 밖과 상응하는 무명과 독두의 무명이 있게 된다. 삼계 안과 상응하는 번뇌와 독두의 번뇌를 끊어도, 아직 습기의 번뇌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소승교는 습기를 정당한 번뇌로 인정하지 않지만, 대승교는 습기도 상응의 번뇌로 인정한다. 이는 삼계외의 무명에 해당한다. [...] 무루지에 따른 업이 행이고,

세 가지의 중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뜻대로 생을 받는 몸이 있고, 또 다섯 가지의 의생신이 있다. 의생의 의는 식(識)이고, 몸은 명색(名色), 육입(六入), 촉(觸), 수(受)이다. 무명의 미세한 번뇌에 따라 희론이 있고, 아직 구경멸(究竟滅)이 아니다. 이는 수(受)와 취(取)이다. 물든 번뇌, 물든 업, 물든 생사가 있으므로 아직 구경이 아니다. 이는 유(有)이다. 세 가지의 의가 원인이 되니 생(生)이고, 그 결과가 변하니 노(老)와 사(死)이다. [...] 그러므로 삼계의 밖에도 십이인연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처를 제외한 모든 존재는 무명을 갖추고 있어 무명이 업을 윤택하게 하고 업이 윤택해지면 고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열두 개의 바퀴는 깨달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무명의 바퀴에 따라 노사에 이르며, 노사의 바퀴에 따라 무명에 이르도록 한다.(30.a)

#### 1.2.2.4.3 무명혹(無明惑)

(e1.2.2.4.3.1) 부처가 아닌 모든 존재가 갖추고 있는 번뇌로서, 부처의 지견을 막는 상위의 번뇌로 지장(智障)이라고 한다. 지의에 따르면, 비유비무(非有非無)의 진리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중도를 깨닫는 것을 방해하는 번뇌이다. 그는 무명혹을 가에 들어가는 관과 중에 들어가는 관을 통해 끊는다고 설명했다. 이승과 통교의 보살은 삼계내의 미혹은 처리할 수 있지만 가와 중의 관을 닦지 않았기 때문에 삼계밖에 태어나도 오랜 시간에 걸쳐 가관을 닦아 진사혹을 부수지 않으면 안 된다. 별교와 원교의 사람은 중관을 닦아 삼계 밖의 삼도를 치료하고 하나씩 무명을 소멸한다.

(q1.2.2.4.3.2) 진실의 진리를 방해하는 것은 무명이다. 이 무명혹은 가에 들어가는 관과 중에 들어가는 관 두 개를 통해 치료할 수 있다.(30.a)

#### 1.2.2.4.4 삼혹(三惑)과 삼지삼관(三止三觀)의 관계

(q1.2.2.4.4.1) 석공과 채공을 닦은 이승인과 통교보살의 경우, 이들은 먼저 삼교내의 미혹을 다 끊었지만 아직 한 번도 가명과 중도를 실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삼계 밖에 태어나도 삼계외의 미혹을 완전히 끊지 못하

여, 그 근기가 둔하다. 이러한 사람이 관을 실천할 경우, 그는 먼저 차례로 오랜 시간에 걸쳐 수행을 하여 갠지즈강의 모래알과 같이 무한히 많은 불타의 가르침을 배워 먼저 진사혹을 부수어야 한다. 진사혹은 생사윤회를 낳지는 않지만 교화의 길을 방해하기 때문에 먼저 부수어야 한다. [...] 별교와 원교의 사람은 통혹을 먼저 없애고, 별혹을 항복시킨 사람으로서, 이들이 삼계 외에 태어나면 그 근기가 예리하다. 근기가 예리하기 때문에 중도관을 실천하여 삼도를 치료한다. 초지부터 뒤의 지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지에 따른 삼도와 무명을 하나하나씩 소멸시키고 업을 소멸시키고 고를 소멸시킨다. 각각의 지에서 상응하는 무명이 제거될 때 독두의 무명 또한 제거된다. 각각의 지에서 지혜가 갖추어지면, 이 지혜는 무명과 섞여 있다. [...] 삼도를 다하는 이는 여래뿐이다.(30.a-b)

### 1.2.3 지관의 종류

#### 1.2.3.1 삼종지관(三種止觀)

(e1.2.3.1.1) 삼지삼관, 삼안삼지, 삼제, 삼혹에 따른 지관의 분류는 지관의 모습이 다양함을 말해준다. 지의는 이들 다양한 지관을 진리에 이르는 방법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다. 이것이 점차지관, 부정지관, 원돈지관의 세 가지 지관법[三種止觀]이다.

(q1.2.3.1.2) 천태는 남악의 삼종지관(三種止觀)을 전했다. 첫째는 점차지관(漸次止觀)이다. 둘째는 부정지관(不定止觀)이다. 셋째는 원돈지관(圓頓止觀)이다. 이들은 대승법이고 실상에 근거하므로 똑같이 모두 지관이라고 한다. 점(漸)은 처음이 얕고 뒤는 깊은 것으로 사다리나 계단과 같다. 부정은 앞뒤가 서로 정해져 있지 않고 교환한다. 금강석이 햇빛 속에 놓인 것과 같다. 원돈(圓頓)은 처음과 뒤가 다르지 않다. 통달한 자가 하늘을 오르는 것과 같다. 세 가지는 근기의 차이 때문에 세 가지 실천방법을 말하고 세 가지의 비유를 들었다. 간략한 설명을 마친다.(1.c)



### 1.2.3.2 삼종지관의 형태

#### 1.2.3.2.1 점차지관(漸次止觀)

(e1.2.3.2.1.1) 점차지관은 마치 사다리를 오르듯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얕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나아가 진리에 이르는 지관법이다. 지의는 이 지관법을 『석선바라밀차제법문』(釋禪波羅蜜次第法門) 10권에서 설명했다. 이 저서의 특징은 모든 불교의 수행을 ‘선’(禪)이라는 한 개념을 통해 정리했다는 점에 있다. 삼종지관 가운데 가장 일찍 발표된 점차지관은 지의가 금릉(金陵)에 있을 때 와관사(瓦官寺)에서 강의한 것으로서, 장엄사(莊嚴寺) 법신(法愼)이 필록한 것을 후에 장안 관정(章安灌頂)이 추려 10권으로 하였다고 한다.

(q1.2.3.2.1.2) 점차지관 또한 처음부터 실상을 알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이해하기 어렵고 점차는 실천하기 쉽다. 먼저 귀계(歸戒)를 닦아 거짓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올바른 길로 나아간다. 화혈도(火血刀)를 멈추고 세 가지 선한 도[삼선도]를 달성한다. 다음은 선정을 닦아 욕망이 흩어지고 달아나는 것을 멈추어 색계의 선정[色定]과 무색계의 선정[無色定]을 달성한다. 다음은 무루선(無漏禪)을 닦아 삼계 감옥을 멈추고 열반도를 달성한다. 다음은 자비를 닦아 스스로를 위한[自利]의 깨달음을 멈추고 보살도를 달성한다. 다음은 실상을 닦아 이변(二邊)에 치우침을 멈추어 상주도(常住道)를 달성한다. 이것이 처음은 알고 뒤는 깊은 점차지관의 모습이다.(1.c)

#### 1.2.3.2.2 부정지관(不定止觀)

(e1.2.3.2.2.1) 부정지관은 원돈과 점차의 법문을 서로 교차하여 알은 수행법을 깊게 하거나, 앞의 수행법을 뒤에 하는 등 자유로이 활용하는 관법으로서 독립적인 수행방법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부정지관에 대해 설명하는 『육묘법문』(六妙法門)은 차제지관과 원돈지관에 대해 설명하는 『차제선문』과 『마하지관』이 각각 10권으로 구성된 것에 비해 상당히 짧은 1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육묘법문』(六妙法門)은 지의가 상서령

(尙書令) 모희(毛喜)의 요청을 따라 금릉의 와관사에서 친히 찬술한 것이라고 한다.

(q1.2.3.2.2.2) 부정은 구별된 독립적 계위가 없다. 앞의 점과, 뒤의 돈에 근거하면 앞[의 점] 두[의 돈], 얕고 깊음이 서로 호환한다. 어떤 경우에는 현상에 초점을 맞추고 어떤 경우에는 진리에 초점을 맞춘다. 어떤 경우에는 세계실단을 제일의실단으로 여기고 혹은 제일의실단을 가리켜 위인실단·대치실단으로 삼는다. 혹은 관을 멈춘 것이 지가 되고 혹은 지를 비추는 것이 관이 되기 때문에 부정지관이라고 한다.(1.c)

#### 1.2.3.2.3 원돈지관(圓頓止觀)

(e1.2.3.2.3.1) 장안관정은 차제지관, 부정지관, 원돈지관의 삼종지관을 지의가 남악혜사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삼종지관과 관련해서 혜사는 윤곽만 제시했을 뿐 이를 체계적으로 조직한 이는 지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하지관』은 원돈지관에 대한 설명을 목적으로 지의 말년에 저술된 가장 웅대하고 원숙한 사상적 체계를 가진 저서라고 평가할 수 있다.

(q1.2.3.2.3.2) 원돈이란 처음부터 실상을 대상으로 하여 관의 대상이 무엇이든지 곧 중도로서 모두가 진실이다. 법계와 관계하여 일념 일념이 법계와 하나가 되면 하나의 색 하나의 향이 모두 중도이다. 자기의 세계, 부처의 세계와 중생의 세계 또한 그러하다. 오온(五蘊)과 십이입처(十二入處) 모두가 중도이니 버려야 할 괴로움이란 없다. 무명과 번뇌가 곧 보리이니 끊어야 할 집착도 없다. 편벽된 견해와 사건(邪見)이 모두 중도이며 정견이니 닦아야 할 수행도도 없다. 생사가 곧 열반이니 증득해야 할 멸도 없다. 괴로움도 없고, 집착도 없기 때문에 세간도 없다. 수행도도 없고 멸도 없기 때문에 출세간도 없다. 순수하고 유일한 실상만 있고 실상 외에 다른 법이 없다. 존재의 본성이 고요한 것을 가리켜 지라고 하고, 고요하면서 항상 비추고 있는 것을 가리켜 관이라고 한다. 처음과 뒤라고 말하지만 둘이 아니며 구별할 수 없다. 이것을 원돈지관이라고 한다.(1.c)

## 2. 대승

(e2.1) 지의는 『마하지관』의 목적이 원돈지관의 의미를 밝히는 것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원돈지관에 대한 그의 논의는 대승에 대한 이해와 밀접히 관련된다. 『마하지관』의 마하는 크다[大]는 뜻으로, 소승불교에 대한 대승불교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q2.2) 지관(止觀)이 모든 깨달은 자들의 스승이라고 알아야 한다. 진리는 영원하므로, 모든 깨달은 자 또한 영원하며, 낙(樂), 아(我), 정(淨) 또한 이와 같다. 이와 같이 인용하여 증명하였는데도 믿지 못하는가? 이미 이러한 진리를 믿는다면 반드시 세 종류의 책을 알아야 한다. 『차제선문』은 총 30권인데 지금은 10축으로 되어있다. 이것은 대장엄사(大莊嚴寺) 법신(法愼)이 기록했다. 부정(不定)지관에 대한 저서는 『육묘문』이다. 부정의 의미에 근거해서 십이선(十二禪), 구상(九想), 팔배(八背), 관(觀), 연(練), 훈(熏), 수(修), 인연(因緣), 육바라밀[六度]를 밝으니 막힘 없이 돌리고 중형으로 자재한다. 이것은 陳 상서령 모희의 청에 따라 지자대사가 낸 실천서이다. 원돈의 실천서는 형주옥천사의 관정이 기록한 10권이니, 여기 이 책[『마하지관』]이다.(3.a)

### 2.1 대승원교(大乘圓敎)의 의미

(e2.1.1) 주지하다시피 대승불교는 용수의 공사상에 근거해서 성립했다. 용수는 모든 존재들이 조건에 의존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존재의 참된 모습[諸法實相]은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이 공하다고 주장했다. 용수에 따르면, 제법실상으로서의 공은 연기(緣起)에 근거해서 논리적으로 도출된 개념으로서 연기적 현상을 떠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절대적 존재가 아니다. 그는 공 또한 공하다고 주장함으로써 이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지의가 활약하던 당시, 중국불교계는 조건에 의존해서 일어난 연기적 현상과 공의 관계, 공의 존재론적 지위를 둘러싸고 논의가 분분했다. 이는 대승의 의미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낳았다. 지의는 이러한 주장

들을 통교, 별교, 원교의 세 가지로 분류했다. 이 세 가지 가르침에 소승의 가르침으로서 장교를 더 한 것이 그의 교법 체계인 화법사교이다. 지의는 위 세 가지 가르침 중 원교를 용수의 공사상에 대한 가장 완전하고 올바른 이해로서 평가했다. 이는 원교야말로 대승의 의미를 가장 온전하게 드러낸 가르침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원교에서 대승은 어떤 의미인가? 여기서는 공·가·중 삼제(三諦)와 마음에 대한 이론과 관련해서 원교의 의미를 살펴보겠다.

## 2.1.1 삼제원융(三諦圓融)

### 2.1.1.1 삼제의 의미

(e2.1.1.1.1) 용수에 따르면, 제법실상으로서의 공은 연기적 현상을 떠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다. 그는 공의 이러한 존재지위를 『중론』(中論) 「관사제품」(觀四諦品) 24장, 18제인 “중인연생법, 아설즉시공, 역위시기명, 역시중도의”(衆因緣生法, 我說卽是空, 亦爲是假名, 亦是中道義)를 통해 명백히 했다. 지의는 이를 삼제계(三諦偈)라고 하여 중시하고, 이를 통해 연기적 현상으로서의 제법과 그 참된 모습으로서의 공의 관계를 설명했다. 그리하여 지의에게서 공·가·중 삼제는 원교가 이해했던 대승의 의미를 보여주는 주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q2.1.1.1.2) 지자대사는 『관심론』(觀心論)에서 “용수(龍樹)에게 귀의 한다.”고 했다. 이를 통해 용수가 고조(高祖)임을 알 수 있다. 의심하는 사람들은 “『중론』은 부정하여 버리는 데 반해 『마하지관』은 긍정하여 무엇인가를 주장한다. 어찌 같은 사상적 맥락에 있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말한다. 그러나 인도에서 중론에 주석을 단 것은 칠십 가지의 갈래가 있으니 청목(靑目)은 옳고 나머지는 틀렸다고 해서는 안 된다. 또 『중론』은 “인연에 따라 생겨난 모든 존재를 나는 공(空)이라고 설한다, 또 이는 가명(假名)이며, 또 이는 중도의(中道義)이다.”라고 했다.(1.b)

### 2.1.1.2 삼제의 관계

(e2.1.1.2.1) 용수에 따르면, 공, 가, 중 삼제는 연기와 무자성(無自性)의 진리에 근거해서 도출된 논리적 개념으로서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다시 말해 그는 모든 존재가 조건에 의존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것을 공으로,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가로, 실체가 없으면서도 임시적으로 존재하는 현상의 모습을 가리켜 중도라고 했다. 그러나 지의가 자기 사상을 정립해 가던 당시, 중국불교계는 이러한 용수의 공, 가, 중 삼제의 관계를 두고 논의가 분분했다. 지의는 이와 같이 다양한 중국인들의 이해를 장교, 통교, 별교, 원교의 화법사교로 분류했다. 각각의 이해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원교의 이해를 보다 명백히 하고자 한다.

#### 2.1.1.2.1 장교의 이해

(e2.1.1.2.1) 지의에 따르면, 장교는 소승교로서 대승의 가르침인 공을 이해하지 못한다. 용수는 공을 연기하는 모든 존재의 참된 모습으로서 연기적 현상을 떠나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교는 공이 연기적 현상 자체의 참된 모습을 가리킨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공을 연기적 현상을 분석한 뒤에 비로소 드러나는 진리로 이해한다. 지의는 이들을 공의 실상도 설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승불교에서의 가명과 중도의 의미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q2.1.1.2.2) [장교는 용수의] “인연에 의해 생겨난 모든 존재, 그것을 나는 곧 공이라고 주장한다.”를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 이미 인연에 의해서 생겨났다고 했으면 어디에서도 즉공을 얻을 수 없다. 반드시 인연을 모두 분석하고 나서 비로소 공을 만날 수 있다. [이들은] 미래의 공[方空]을 불러서 즉공(卽空)의 의미로 삼는다. 또 “가명이라고 한다.”는 것은 유위법은 허약하여 홀로 성립할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빌어 이루어진다고 [이해한다.] 조건에 의지한다는 의미에서 가(假)를 말할 뿐, 방편(權)을 베푼다는 의미에서의 가는 아니다. 또 “중도의(中道義)라고 한다.”는 것은 단상(斷常)을 떠난 중도를 말할 뿐, 불성중도(佛性中道)로 이

해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이해한다면 세 구절이 비록 모두 공을 말하지만, 즉공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으니 즉가즉중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것이 생멸사제의 관점[에 따른 장교의 삼제 이해]다.(7.b)

#### 2.1.1.2.2 통교의 이해

(e2.1.1.2.2.1) 장교는 공을 제법의 분석한 뒤 성립하는 진리로서 이해하는 반면, 통교는 처음부터 일체공의 이법(理法)에 기초해서 모든 존재의 공을 주장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통교는 대승의 첫째 문에 해당한다. 그러나 통교는 제법의 실상인 공을 체득하고 이를 중시하기 때문에, 연기적 현상의 다양한 측면 즉 가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가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중도의 의미 또한 이해하지 못한다.

(q2.1.1.2.2.2) [통교는] 인연에 따라 생겨난 현상들을 [析空에서와 같이] 결코 파멸시키지 않고 그 본체가 곧 공(卽空)이라고 안다. 그러나 즉공이 곧 가이며 곧 중임을 알지 못한다. 비록 가와 중을 설정하고는 있지만 모두 공으로 들어가 버린다. 왜 그러한가? 모든 존재가 곧 공이니 주체의 아(我)가 없기 때문이다. 가가 있기는 하나 또한 공이므로 임시로 설정하기 때문이다. 중도 또한 있기는 하나 곧 공이니 단멸과 상주의 양 극단을 벗어난 중이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 말은 비록 다르지만 모두 공에 따라 들어간다. 물려서면 이승의 법을 분석해서 공을 깨닫는 것이 아니며, 나아가면 별교도 아니고 원교도 아니니 곧 세 마리의 짐승이 강을 건너는 것과 같으니 모두 공의 의미뿐이다.(7.b)

#### 2.1.1.2.3 별교의 이해

(e2.1.1.2.3.1) 별교는 삼제를 차별적으로 이해한다. 다시 말해 이들은 연기를 경험 현상[有, 假]로 보고 이 유를 부정한 곳에서 드러나는 진리를 공으로 이해하고, 마지막으로 이 공을 부정한 곳에서 드러나는 진리를 중도로 주장하는 것이다. 특히 공·가와 중 사이에는 깊은 간격이 있다고 이해한다.

(q2.1.1.2.3.2) [별교는] 즉공즉가즉중을 말하는데 이 세 가지가 연이어 있으면서 각각 독립적으로 있다고 이해한다. 공·가·중 모두는 공이니 주인이 없기 때문에 공이고, 임시로 설정된 것이므로 공이고 극단이 없는 까닭에 공이다. 공, 가, 중 모두는 가이니 똑 같이 이름이기 때문에 가이다. 공·가·중은 모두 중이니 중진, 중기, 중실로써 중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차별적인 것으로 원융함을 잃었다.(7.b)

#### 2.1.1.2.4 원교의 이해

(e2.1.1.2.4.1) 원교는 삼체의 관계를 즉공즉가즉중의 원용으로 이해한다. 공은 가와 중을, 가는 공과 중을, 중은 공과 가를 포섭한다. 공은 단순히 현상을 부정하는 진리가 아니고, 그 안에 긍정의 진리인 가와 함께 부정과 긍정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중도의 진리를 포함하고 있다. 그 리하여 공은 곧 가이고 중의 의미를 갖는다. 이는 용수가 공, 가, 중 삼체를 연기에 근거해서 논리적으로 도출된 같은 의미의 세 개념으로 주장했던 것과 같다.

(q2.1.1.2.4.2) [원교는] 즉공즉가즉중을 말하면 비록 세 가지이나 하나이며, 하나이면서 세 가지이다. 서로 막거나 장애가 되지 않는다. 공, 가, 중이 모두 공이라는 것은 말과 분별적 사유의 길이 끊어졌기 때문이다. 공, 가, 중이 모두 가라는 것은 단지 이름일 뿐이기 때문이다. 공, 가, 중이 모두 중이라는 것은 곧 실상이기 때문이다. 단지 공만을 지칭해도 곧 거기에 가와 중이 함께 갖추어져 있다. 공을 깨달으면 곧 동시에 가, 중을 깨닫는다. 다른 것도 그러하다.(7.b)

#### 2.1.1.3 원융(圓融)의 의미

##### 2.1.1.3.1 불차제(不次第)

(e2.1.1.3.1.1) 지의에 따르면, 원융이란 “공만을 지칭해도 곧 거기에 가와 중이 함께 갖추어져 있다. 공을 깨달으면, 동시에 가와 중을 깨닫는다.”는 뜻이다. 이는 공·가·중을 차례차례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한 순간에

통째로 깨친다는 불차제, 다시 말해 ‘돈’(頓)을 의미한다. 삼제원용이 돈을 의미한다는 것은, 별교의 격력삼제와 비교할 때 명확해진다. 별교는 삼제를 각각 단계적인 질서 속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진리로 이해하기 때문에, 중도를 연기적 현상과 공, 가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이해한다. 그 결과 이들은 중도를 공·가와 동시에 통찰할 수 있다고 이해하지 않고, 중은 공과 가의 뒤에 통찰하는 절대적 진리로 이해한다.

(q2.1.1.3.1.2) 또 어떤 이[별교]는 생멸을 듣고 곧 생멸과 불생멸이 서로 상대가 되어 둘이 되며 생멸도 아니고 불생멸도 아닌 것이 중도가 된다고 하여 중도만을 청정하다고 뽑아 서 생사와 열반의 바깥에 있다고 이해한다. 그리하여 내가 붓다를 얻고 중생을 위해서 가장 높은 도를 설명할 수 있기를 원한다. 홀로 중도만을 뽑아 내놓은 것이 마치 연꽃이 물 위로 나와 있는 것과 같고 달이 하늘에 있는 것과 같다.(6.c)

(q2.1.1.3.1.3) 또 어떤 이[원교]는 생멸을 듣고 곧 생멸(生滅)이 불생멸(不生滅)·비생멸(非生滅)·비불생멸(非不生滅)임을, 생멸과 불생멸을 함께 비추고,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이며 법계(法界)의 비밀은 상(常)·락(樂)·아(我)·정(淨)이 구축해 있다고 이해한다. 그리하여 내가 부처를 얻고 중생을 위해 비밀장을 설할 수 있기를 원한다. 마치 복덕이 있는 사람이 돌을 잡고 보석이라고 여기고 독을 들고 약이라고 여기는 것과 같다.(6.c-7.a)

#### 2.1.1.3.2 불이(不二)

(e2.1.1.3.2.1) 원용은 곧 불이(不二), 상즉(相卽)을 가리킨다. 불이는 번뇌와 보리, 중생과 불, 생사와 열반은 서로 의존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공으로 서로 다르지 않다는 의미로 용수가 주장했다. 용수는 공사상을 통해 아비달마불교 안에 있는 실체론을 비판했다. 그에 따르면, 실체론자들은 열반을 번뇌가 완전히 제거된 절대적 상태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들은 번뇌의 제거를 통해 열반을 증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용수는 제법실상으로서의 공이 연기적 현상을 떠나 있



지 않다고 주장함으로써, 번뇌의 제거를 통한 열반의 증득을 부정한다. 이것이 번뇌와 보리, 생사와 열반이 다르지 않다는 그의 불이론이다. 요컨대 불이론은 용수의 공사상에 근거해서 성립하며, 그 의미는 연기적 현상을 떠나 제법실상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의 또한 삼제 원융의 의미를 불이의 의미로 주장했다. 이는 중도실상을 연기적 현상을 떠나서 추구해서는 안 되고 번뇌의 연기적 현상에서 추구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q2.1.1.3.2.2) 무작사제[원교]를 헤아려 보리심을 발한다는 것은 법성과 일체법이 둘이 아니며 차별도 없다. 범부의 법이 이와 같으니 이승(二乘)은 말할 필요도 없다. 범부의 법을 떠나서 실상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마치 이 공을 피하고 다른 곳에 가서 공을 구하는 것과 같다. 범부의 법이 곧 진실법이니 범부의 법을 버리고 성인을 향해서는 안 된다. 경에서 말하였다. 생사가 곧 열반이고 하나의 색 하나의 향이 모두 중도이다. 이것을 무작사제를 헤아려 위로는 불도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하는 보리심을 발한다고 한다.(6.a-b)

## 2.1.2 심구일체법(心具一切法)

(e2.1.2.1) 『마하지관』에서 대승원교의 의미와 관련해서 주요한 또 하나의 주제는 마음에 대한 이해이다. 지의에 따르면, 원교는 제법실상을 즉공즉가즉중의 원융으로 이해한다. 깨달음은 이러한 제법실상을 통찰함으로써 성취된다. 제법실상의 통찰을 위해서는 수행이 필요하다. 여기서 어디에서 제법실상을 통찰할 것인가라는 수행의 당처(當處)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지의는 하나의 마음에서 제법실상을 통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한 마음에서 공·가·중 진리를 동시에 통찰한다는 그의 일심삼관(一心三觀)이다. 일심삼관은 한 마음에서 모든 존재의 실상의 통찰을 주장한다. 그런데 마음은 모든 존재 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지의는 마음과 일체법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통해, 마음에서 모든 존재의 실상을 통찰할 수 있음을 논증했다. 이것이 지의의 심구일체법(心具一切法)이다. 심구일체법은 문자대로라면, 마음이 모

든 존재를 갖추고 있다는 의미로 여기서 마음은 일체법을 만드는 제1원인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용수의 공사상을 온전히 이해하는 원교에서는 이러한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공은 독립적이고 고정불변의 자기원인적인 존재를 부정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심구일체법은 어떤 의미인가?

## 2.1.2.1 일체법(一切法)의 의미 - 십법계(十法界)

### 2.1.2.1.1 십법계의 성립

(e2.1.2.1.1.1) 먼저 일체법의 의미를 살펴보겠다. 용수의 공사상에 따르면, 모든 존재들[一切法]은 인식 주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객관대상이 아니다. 원교는 이러한 일체법을 인식 주관인 마음이 구성한 세계로 주장한다. 다시 말해 모든 존재는 인식 주관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객관 대상이 아니라 인식 주관인 마음에 의존해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지의는 이를 『화엄경』의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에 근거해서 설명하고, 일체법을 십법계로 설명했다.

(q2.1.2.1.1.2) 『화엄경』에서 “마음은 마치 뛰어난 화가와 같이 여러 가지의 오음(五陰)을 만든다. 모든 세간 중에서 마음이 만들지 않은 것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여러 가지의 오음이란 앞의 십법계(十法界)의 오음과 같다.(52.c)

### 2.1.2.1.2 십법계의 형태

(e.2.1.2.1.2.1) 십법계는 지옥, 아귀, 축생, 수라, 인간, 천상, 성문, 연각, 보살, 불 열 가지로 중생의 미혹과 깨달음의 정도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중생의 심리적 상태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십법계 중 앞의 여섯 계는 삼악도(三惡道)와 삼선도(三善道)로 나뉘며 모두 미혹의 세계로서 범부의 세계이다. 뒤의 네 계는 깨달음의 정도에 차이가 있지만 모두 깨달음을 얻는 세계로서 성인의 세계이다.

#### 2.1.2.1.2.1 지옥법계

(e2.1.2.1.2.1.1) 법계로서의 마음은 육근(六根)과 육경(六境), 육식(六識)의 작용으로 일어난다. 이 마음의 분별 작용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따라 다양한 십법계 중 하나의 마음이 된다. 지옥은 탐욕이 지배하는 법계이다.

(q2.1.2.1.2.1.2) 안근(眼根)과, 색이라는 대상[塵], 공간, 빛의 각각에 보는 자는 없다. 또한 분별도 없다. 원인과 조건이 모여서 안식(眼識)을 낳는다. 안식의 인연으로 의식을 낳는다. 의식이 생겨날 때 동시에 사람은 [여러 가지의 색으로] 분별할 수 있다. 또 다시 의식에 의지해서 안식이 있게 된다. 안식에 의해서 사람은 볼 수 있다. 보게 되면 탐욕을 낳는다. 대상에 탐욕을 일으키고 물들어서 받은 계율을 어기게 된다. 이것이 지옥도의 마음이다.(16.a)

#### 2.1.2.1.2.2 아귀법계

(q2.1.2.1.2.2.1) 의식이 실제로는 색을 좋아하면서도 거꾸로 기피하면서 싫다고 하는 것이 아귀도의 마음 작용이다.(16.a)

#### 2.1.2.1.2.3 축생법계

(q2.1.2.1.2.3.1) 대상에 대해 집착을 내어 나와 나의 것을 따지는 것은 축생도의 마음이다.(16.a)

#### 2.1.2.1.2.4 아수라법계

(q2.1.2.1.2.4.1) 나의 것, 남의 것, 나의 뛰어남, 타인의 열등함 등을 따지는 것은 아수라도의 마음 작용이다. 남이 나의 것을 좋아하는데 주지도 않고 취하지도 않는다.(16.a)

#### 2.1.2.1.2.5 인법계(人法界)와 천법계(天法界)

(q2.1.2.1.2.5.1) 이 색에 대해서 인(仁), 양보, 정(貞), 신(信), 명(明)등을 일으켜 오계(五戒)와 십선(十善)으로 [실천하니] 사람과 천도의 마음이다.(16.a)

#### 2.1.2.1.2.6 이승(二乘)의 성문법계와 연각법계

(q2.1.2.1.2.6.1) 앞의 여섯 법계의 선과 악은 무상하고 생멸하는 것으로 관하고, 이 관하는 마음 또한 생각 생각이 머무르지 않고, 보는 주관이나 보이는 대상이 모두 조건에 의해 일어나며, 조건에 의해 일어났기 때문에 공이라고 관하면 이는 이승인과법[이승법계]이다.(52.b)

#### 2.1.2.1.2.7 보살법계

(q2.1.2.1.2.7.1) 만약 이러한 공과 유는 이변에 떨어진 것으로 공에 빠지거나 유에 머무르는 것으로 관하여 크게 자비심을 일으켜 가의 세계에 들어가 중생을 교화하고, 실제로는 몸이 없는데 임시로 몸을 만들고, 실제로는 공도 없는데 공을 임시로 설하여 중생을 교화하고 이끈다고 하면 이는 보살인과법[보살법계]이다.(52.b)

#### 2.1.2.1.2.8 불법계(佛法界)

(q2.1.2.1.2.8.1) 이 법은 구체하는 것이거나 구체받는 것이거나 모두 중도실상의 법이라고 관하여 필경으로 청정하여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라고 할 것도 없고 무엇이 유이고 무엇이 무라고 할 것도 없고 무엇이 구체이며 무엇이 구체되는 것이라고 말할 것도 없이 모든 법은 이와 같이 중도라고 하는 것은 불인과법(佛因果法)[불법계]이다.(52.c)

### 2.1.2.2 마음의 의미

#### 2.1.2.2.1 연기적 현상으로서의 마음 [一念心]

(e2.1.2.2.1.1) 마음이 십법계를 만든다고 하면, 이때의 마음은 십법

계의 존재 근거로서 십법계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로서 이해할 수 있다. 지의에 따르면, 원교는 용수의 공사상을 가장 원만하고 완전하게 이해한 가르침이다. 이는 원교가 인연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어떠한 실체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원교는 심구 일체법에서의 마음을 십법계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로 주장할 수 없고, 연기적 현상으로 설명해야 한다. 마음에 대한 원교의 이러한 주장은 마음이 감각 기관과 감각 대상을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는 연기적 현상이라고 설명하는 곳에서 명백히 보인다.

(q2.1.2.2.1.2) 다음은 감각 기관과 감각 대상이 서로 상대하여 하나의 생각[일념심]이 일어나면 곧 공이고 가이며 중이다. 감각 기관과 감각 대상 모두가 법계이며, 필경공(畢竟空)이며, 여래장이며, 중도이다. 무엇을 공이라고 하는가? 감각 기관, 감각 대상, 일념심 모두가 조건에 의해 생겨난 것이며 조건에 의해 생겨난 것은 곧 고정된 영원한 주체가 없다는 것이다. 고정된 영원한 주체가 없다는 것, 그것은 곧 공이다. 무엇을 가라고 하는가? 고정된 영원한 주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겨났으니 이것이 곧 가이다. 무엇을 중이라고 하는가? 모두가 법성을 벗어나지 않으니 모두가 곧 중이다. 하나의 생각이 곧 공이며, 가이며, 중임을 알아야 한다. 또 필경공이며, 여래장이며, 실상이며 세 가지가 아니면서도 각각 세 가지이며, 세 가지이면서 또 세 가지가 아니다. 합(合)도 아니고 산(散)도 아니나 합이거나 산이며 합이 아니고 산이 아닌 것도 아니다. 같거나 다르다고 할 수 없으나 같거나 다르다.(8.c)

#### 2.1.2.2.2 일법계(一法界)로서의 마음

(e2.1.2.2.2.1) 심구일체법의 마음은 감각 기관과 감각 대상을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는 일념심이다. 지의는 이 마음을 반드시 십법계 중의 하나로서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심구일체법은 일법계구십법계(一法界具十法界)의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지의는 『법화현의』(法華玄義)(T.33.696.a)에서 “감각 기관과 감각 대상이 서로 상대하여 한 순간의 마음이 일어난다. [이 마음은] 십법계 중에 하나의 법계에 반드시

속한다.”라고 하여, 조건에 의해 일어나는 현재의 한 순간의 마음이 십법계 중에 하나로서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아래 인용문의 “일법계는 또 십법계를 갖추고”에서 일법계는 일념심으로서,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한 순간의 마음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q2.1.2.2.2.2) 대개 일심이 십법계를 갖추고 있다. 일법계는 또 십법계를 갖추고 있어 백법계가 된다. 일법계가 삼천 종류의 세간을 갖추고 있다. 백법계가 곧 삼천 종류의 세간을 갖추고 있다. 이 삼천의 법이 일념심에 있다. 만약 마음이 없으면 그만이지만 한순간의 마음이라도 있으면 그 마음에 삼천종의 세간이 갖추어져 있다.(54.a)

#### 2.1.2.2.3 불사의(不思議)의 마음

(e2.1.2.2.3.1) 심구일체법에서의 마음은 감각 기관[육근]과 감각 대상[육경]을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는 연기적 현상이다. 지의는 연기적 현상으로서, 독립적인 실체도 아니면서 십법계중의 하나의 법계로서 성립하는 마음이 모든 존재를 낳고, 갖추는 것을 가리켜 불사의(不思議)로 설명했다.

(q2.1.2.2.3.2) 주관과 객관이 없는데 어떻게 십법계를 갖추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답한다. 불가사의이기 때문에 무상이지만 십법계의 모습이 있다. 주관과 객관이 없지만 관찰과 관찰의 대상이 명백하다. 어떤 사람들은 수미산이 겨자씨를 품거나 겨자씨가 수미산을 품는 경우, 혹은 불이 연꽃을 피우는 경우, 사람이 바다를 걸어 건너는 경우, 아주 있을 수 없는 일이나 기적적인 일에 대해서 불가사의하다고 이해한다. 하지만 여기서는 마음, 념, 걷는자, 이르는 자가 없음을 불가사의리(不可思議理)라고 이해한다. 이때의 리는 모든 현상을 넘어서 있어 어떤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51.c)

#### 2.1.2.3 구(具)의 논리적 근거 - 십여시(十如是)

(e2.1.2.3.1) 십법계는 통칭하면 음계입이지만 그 실체는 같지 않다.

지옥, 아귀 축생의 삼도는 악이고, 수라, 인간, 천의 삼도는 선이다. 성문, 연각, 보살, 불법계는 선악을 넘어서 있지만, 그 깨달음의 정도에서는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십법계는 번뇌의 정도나 깨달음의 정도에서 서로 엄격히 구분된다. 지의는 법계의 의미를 “이 열 가지 존재 양태[십법계]는 원인과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섞일 수 없다.”(T.46.52.c)고 설명함으로써, 법계의 독립성을 주장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의 법계가 전체의 법계를 포섭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가? 그 근거로서 제시되는 것이 십이시이다.

(q2.1.2.3.2) 십법계는 통칭하면 음계입이지만 그 실체는 같지 않다. 삼도는 유루악(有漏惡)음계입이고 삼선은 유루선(有漏善)음계입이고 이승은 무루음계입이고 보살은 역유루역무루음계입이고 불타는 비유루비무루음계입이다. [...] 십중음계입이 다르기 때문에 오음세간(五陰世間)이라고 한다. 오음을 통칭하여 중생이라고 한다. [...] 상주음(常住陰)을 뽑아내어 존극중생(尊極衆生)이라고 한다. [...] 십계의 중생이 다르기 때문에 중생세간이라고 한다. 열 가지의 존재가 머무르는 곳을 통칭하여 국토세간이라고 한다. [...] 머무는 국토가 다르기 때문에 국토세간이라고 한다. 이 삼십 가지의 세간은 모두 마음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또 열 가지의 오음의 하나 하나는 십여시법(十如是法)을 갖추고 있다. 말하자면 여시상, 성, 체, 력, 작, 인, 연, 과, 보, 본말구경 등이다.(52.c-53.a)

### 2.1.2.3.1 십여시의 의미

(e2.1.2.3.1.1) 십여시란 『법화경』 「방편품」에 나오는 말로 모든 존재가 공통적으로 갖는 열 가지의 존재 형식을 가리킨다. 여기서 존재 형식은 인식의 범주이기도 하다. 십여시를 갖추는 십법계는 마음의 분별 작용에 근거해서 성립하기 때문이다. 지의는 마음의 분별 작용에 근거해서 일어나는 모든 법계 하나하나가 이 십여시를 공통적으로 갖추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십여시의 존재 형식은 우리의 마음이 일체법을 무수한 세계로 분별할 때뿐만 아니라 선악의 정도에 따라 십법계로 차별적으로 분별할 때도 적용되며, 일체법을 크게 윤회하는 범부의 세계

와 윤회를 벗어난 성인의 세계의 둘로 분별할 때도 똑 같이 적용된다.

(q2.1.2.3.1.2) 유형적으로 보면, 십여시와 관련해서 십법계를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삼악도의 세계는 고를 드러내는 것이 상(相)이고 악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성(性)이다. 끊어지는 육체와 마음이 체(體)이고, 칼산을 오르고 가마술에 들어가는 것은 력(力)이다. 열 가지의 악을 짓는 것은 작(作)이고 유루(有漏)의 악업(惡業)은 인(因)이며, 욕애(欲愛)와 취(取)는 연(緣)이다. 악으로 인한 습기는 결과[果]이고 세 개의 악의 세계는 보이다(報). 처음부터 끝 까지 어리석음[愚癡]에서 같다고 한다. 삼선(三善)의 세계는 [...] (53.c)

### 2.1.2.3.2 십여시의 형태

#### 2.1.2.3.2.1 여시상(如是相)

(q2.1.2.3.2.1.1) 먼저 총체적으로 십여시를 설명하면, 상이란 겉에서 봐서 알 수 있는 것이다. 『대지도론』은 “알기 쉽기 때문에 상이라고 한다. 물과 불의 모습의 차이는 쉽게 알 수 있는 것과 같다.”고 했다. 마음도 이와 같이 모든 상을 갖추고 있다. 중생의 상은 감추어져 있고, 미륵의 상은 드러나 있지만 여래는 이 상을 잘 알기 때문에 깨달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는 멀리 떨어져 있는 자로서, 깨달음에서 가까이 있는 자는 가까운 자로서 수기를 주었다. 잘 관찰할 수 없는 사람들은 마음에 모든 상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믿지 않지만, 진실을 볼 수 있는 자를 따라서 마음에 모든 상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53.a)

#### 2.1.2.3.2.2 여시성(如是性)

(q2.1.2.3.2.2.1) 여시성에서 성은 안에 있는 것이다. 다음 세 가지의 미가 있다. 1.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2. 성분이라는 의미이다. 각각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교환할 수 없다. 3. 실성(實性)이라는 의미이다. 실성은 진리의 본성으로서 지극히 진실하여 거짓이 없는 것이다. 불성의 다른 이름이다. 부도(不動)의 성은 공을 의미하고, 종류의 성은 가를 의미하고 진실의 성은 중을 의미한다.(53.a)



#### 2.1.2.3.2.3 여시체(如是體)

(q2.1.2.3.2.3.1) 여시체란 그것의 실질을 체라고 한다. 십법계의 오음은 모두 색과 심을 그 체질로 하고 있다.(53.b)

#### 2.1.2.3.2.4 여시력(如是力)

(q2.1.2.3.2.4.1) 여시력이란 그것에 갖추어져 있는 능력이다. 마음도 여러 가지의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번뇌라는 병 때문에 발휘할 수가 없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모든 능력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53.b)

#### 2.1.2.3.2.5 여시작(如是作)

(q2.1.2.3.2.5.1) 여시작이란 실제적으로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작이라고 한다. 마음을 떠나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마음이 모든 작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53.b)

#### 2.1.2.3.2.6 여시인(如是因)

(q2.1.2.3.2.6.1) 여시인이란 결과를 부르는 것이 인이며, 이는 업이다. 십법계의 업은 마음에 근거해서 일어나므로 마음이 있으면 거기에 여러 가지의 업이 갖추어지게 된다.(53.b)

#### 2.1.2.3.2.7 여시연(如是緣)

(q2.1.2.3.2.7.1) 여시연이란 이와 같이 조건지워져 있는 것을 연이라고 한다. 업을 돕는 것은 이러한 연에 포함된다. 무명과 애욕 등이 업을 윤택하게 하므로 이 마음이 연이 된다.(53.b)

#### 2.1.2.3.2.8 여시과(如是果)

(q2.1.2.3.2.8.1) 여시과란 획득된 것으로 결과이다.(53.b)

#### 2.1.2.3.2.9 여시보(如是報)

(q2.1.2.3.2.9.1) 여시보란 인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의 영향을 보라고 한다. 과거의 인과 과거의 과는 모두 인으로서, 미래의 보를 가져온다. 이를 인에 상응하는 보라고 한다.(53.b)

#### 2.1.2.3.2.10 여시본말구경등(如是本末究竟等)

(e2.1.2.3.2.10.1) 여시본말구경등은 십법계가 즉공즉가즉중의 실상임을 말해준다.

(q2.1.2.3.2.10.2) 여시본말구경등이란 상이 본이고 보가 말이다. 이들 본말은 모두 연에 따라 생긴다. 연에 따라 생겼으므로 공이다. 본말에 걸친 모두가 공이기 때문에 이 공의 원리에 따라 모두 평등하다고 한다. 또 상과 보는 말만 있고 임시로 설정된 것이다. 임시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가의 원리에 따라 평등하다고 한다.(53.b-c)

#### 2.1.2.3.3 십여시의 의의

##### 2.1.2.3.3.1 십법계에 공통하는 존재 형식

(e2.1.2.3.3.1.1) 지의는 십여시를 십법계에 공통하는 존재 형식으로 설명했다. 십여시에 대한 이러한 해석이 갖는 의의는 지의 이전의 법화학자인 광택(光宅)이 십여시와 십법계의 관계를 설명했던 태도와 비교할 때 명백히 드러난다. 광택은 십여시중, 여시상, 여시성, 여시체, 여시력, 여시작을 방편으로 삼아 범부의 존재 형식으로, 여시인, 여시연, 여시과, 여시보는 진실로 삼아 성인의 존재 형식으로, 마지막 여시본말구경등은 방편과 진실을 총괄하는 것으로 삼았다.(『법화현의』 [T.33.693.b] 참조) 지의는 이러한 해석에 대해 십여시는 십법계에 공통하는 존재 형식으로 삼았다.

(q2.1.2.3.3.1.2) 또 어떤 사람은 『법화경』 십여시를 ‘앞의 다섯 가지의 여시는 범부에 속하여 방편이지만, 뒤의 다섯 가지의 여시는 성인에

속하여 진실이다'라고 해석한다. 이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범부에게는 진실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성인이 될 수 없고, 성인에게는 방편의 다섯 가지가 없기 때문에 [성인의 지견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보편적인 지견일 수 없다. 이러한 주장은 완전히 자의적인 해석이며, 부처의 가르침을 훼손시키고 범부를 기만하는 것이다.(53.b)

#### 2.1.2.3.3.2 십법계들 사이의 불이(不二)

(e2.1.2.3.3.2.1) 지의는 십여시를 십법계의 공통적인 존재 형식으로 해석했다. 이는 범부의 세계에서 제법의 실상을 통찰할 수 있음을 주장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십여시를 방편과 진실로 나누어 범부와 성인의 세계에 각각 적용시키게 되면, 중생은 성인에 이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십여시에 근거해서 지옥계에서 불법계가 모두 동일한 존재 형식을 갖기 때문에 평등하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그의 심구일체법이다. 그리하여 심구일체법은 중생즉불의 불이론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지의는 십여시에 근거해서 중생계와 불법계가 평등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는 중생의 번뇌를 제거함이 없이 중생의 번뇌를 통찰함으로써 깨달음에 이른다는 대승불교의 수행론의 확립이라고도 할 수 있다.

(q2.1.2.3.3.2.2) 만약 이것을 이해하면 감각 기관과 감각 대상이 서로 상대하여 하나의 생각이 일어날 때 감각 기관이 곧 팔만사천법문의 저장고이니, 감각 대상 또한 그러하다. 하나의 생각이 일어나는 것 또한 팔만사천법문의 저장고이다. 불법계와 법계가 상대하여 법계를 일으키니 불법 아닌 것이 없다. 생사가 곧 열반이라는 것을 고의 진리[苦諦]라 한다. 하나의 감각 대상에 세 가지의 감각 대상이 있다. 하나의 마음에 세 가지의 마음이 있다. 하나하나의 감각 대상에 팔만사천 진로문이 있다. 하나하나의 마음 또한 이와 같다. 탐(貪), 진(瞋), 치(癡) 삼독 또한 그대로가 보리이다. 번뇌 또한 그대로가 보리이다. 이것을 집의 진리[集諦]라고 한다. 하나하나의 진로문(塵勞門)을 뒤집으면 그대로 팔만사천의 모든 삼매문(三昧門)이다. 또한 팔만사천의 모든 다라니문이다. 또한 팔만사천의 모든 대치문(對治門)이다. 또한 팔만사천의 모든 바라밀이 된다.(9.a)

## 2.2 대승원교 지관법의 특징

(e2.2.1) 원교의 진리 내용에 따르면, 원교는 용수의 공사상에 근거하는 대승불교이다. 지의는 화법4교 중 원교 이외에도 통교, 별교도 대승 불교로 분류했다. 그러나 이들은 용수의 공사상에 근거하면서도 공, 가, 중 삼제에 대한 이해에서 원교와 차이를 보인다. 이는 진리를 통찰하기 위한 지관법에서도 차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지의는 지관을 통해 불교의 모든 가르침을 포섭한 뒤, 원교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가르침들을 편교로 분류하고 원교에 근거하는 지관법의 특징을 설명했다. 그는 원교에 근거하는 지관법의 특징을 대소(大小), 반만(半滿), 편원(偏圓), 점돈(漸頓), 권실(權實)의 다섯 가지 기준을 통해 설명했다. 여기서는 그 특징을 대승지관법, 돈의 지관법, 진실의 지관법 세 가지로 정리했다. 이는 지의가 대소와 반만, 편원과 점돈은 동일한 외연을 갖는다고 설명했던 것에 따른다.

(q2.2.2) 치우친 관법과 원만한 관법에 대해 밝히겠다. [...] 대개 구극의 진리는 대(大)도 아니고 소(小)도 아니며, 방편[權]도 아니고 진실[實]도 아니다. 대와 소, 방편과 진실로 분별할 수 없다. 조건에 근거해서 대와 소 등을 말할 수 있다. 소승을 위한 방편력에 근거해서 다섯 비구를 위해 소승의 가르침을 설명하고, 대승을 위한 방편력에 근거해서 모든 보살을 위해 대승의 가르침을 설명한다. 이와 같이 대승과 소승은 모두 방편을 갖추고 있는데, [방편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위의 다섯 가지 상대적인 개념을 통해 혼란을 없애고자 한다.(32.a)

### 2.2.1 대승의 체법관(體法觀)이다

(e2.2.1.1) 불교에서의 구극의 진리는 모든 존재[諸法]가 조건에 의지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참된 모습[實相]은 어떠한 고정된 실체도 없다는 무아(無我), 공(空)이다. 체법실상에 대한 가르침은 이 가르침을 듣는 중생이 어떠한 견해에 사로잡혀 있는가에 따라 석법(析法)과 체법(體

法)으로 크게 나뉜다. 제법실상에 대한 이러한 이해의 차이는 제법실상을 통찰하기 위한 관법의 차이를 낳는다. 석법관과 체법관이 이것이다.

### 2.2.1.1 소송 관법

(e2.2.1.1.1) 소송의 관법은 석법관이다. 석법은 현상의 모든 존재[諸法]가 실재한다고 이해하기 때문에 이를 최소 단위까지 분석해 들어감으로써 어떠한 존재도 실재하지 않다[공]고 가르치는 방법이다. 이는 소송의 가르침으로서, 소송은 실상이 제법을 떠나서 존재한다고 이해하기 때문에 분석적인 관법을 실천한다. 소송은 이와 같은 관법을 통해, 외도가 잘못된 분석을 통해 상견, 단견을 일으키는 것을 올바른 분석법을 통해 몸과 마음의 실상을 분석하고 모든 존재가 인연에 의해 생겨나 실체가 없음을 통찰한다.

(q2.2.1.1.2) 소란 소송으로 지혜의 힘이 약하다. 현상을 분석해서 그 실상을 관찰하는 관법[석법지관]만을 감당할 수 있어, 몸과 마음에 대해서 분석한다. 『대지도론』은 보시바라밀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외도의 가르침을 부수었다. “이 티끌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만약 극미(極微)에 형체가 있다면, 모든 것에도 형체가 있다. 극미에 형체가 없다면 모든 것에도 형체는 없다.” 만약 극미의 형체를 끝까지 분석할 수 없다면 상견(常見)이나 유견(有見)을 낳고, 극미를 끝까지 분석할 수 있다면 단견이나 무견을 낳는다. 이는 외도가 형체에 대해 분석하는 방법이다. 마음을 분석하는 방법도 동일하다. [...] 『대지도론』은 삼장교의 석법관을 “거친 색이나, 미세한 색에 대해 관찰하여 모두 무상이고 무아이다.”라고 설명했다. [...] 어떤 경전은 “한순간의 마음에 300억의 찰나가 있다.”고 한다. 찰나는 머무름이 없으므로, 한 순간의 마음은 무상하다. 무상하고 실체가 없기 때문에 번뇌는 허물어져, 업도 없고 괴로움도 없다. 이와 같이 생사의 괴로움은 소멸하고, 괴로움이 소멸[한 뒤]를 열반이라고 한다. 몸과 마음을 분석하는 관찰법을 의미한다.(32.a-b)

### 2.2.1.2 대승 관법

(e2.2.1.2.1) 대승의 관법은 체법관이다. 체법관이란 모든 존재가 조건에 의존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실상이 바로 공이라고 통찰하는 방법이다. 이는 제법의 실상을 연기적 현상에 근거해서 공이라고 주장하는 대승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성립한다. 지의는 대승의 체법관을 통교, 별교, 원교의 공통적인 관법의 특징으로 설명했다.

(q2.2.1.2.2) 대승의 체법관은 삼장교의 석법관과 다르다. 삼장교에서 언어는 임시적이지만 언어가 지시하는 대상은 존재한다. 실재하는 것을 분석해서 공이라고 이해한다. 이는 기둥을 부수어 공으로 하는 것과 같다. 이에 반해 대승의 체법관에 따르면 언어뿐만 아니라 언어가 지시하는 대상도 모두 임시적인 것이며, 그 자체가 공으로서 본래 아무 것도 없다. 이는 거울에 비친 기둥과 같다. 원래 스스로 존재하는 기둥이 아닌 것으로, 기둥이 없어지고 나서 비로소 공이 되는 것이 아니다. 거울에 비친 기둥이 바로 공하므로, 불생불멸이고 실재하는 기둥과 다르다. 또 『대지도론』은 “불타는 한 개의 사각형 나무에서 여러 비구들에게 ‘비구가 선정에 들 때 흙이 변하여 금이 되고, 금이 변하여 흙이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금과 토가 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의 변화에 따라 만들어진 다.’라고 말했다.”를 인용하여 대승인의 체법관을 설명한다. 몸과 마음도 이와 같아서 생기지도 소멸하지도 않는다. 무명의 변화일 뿐이다. 원래 생기지 않으므로 지금 소멸하지도 않는다.(32.b-c)

### 2.2.1.3 소승 관법과 대승 관법의 비교

(q2.2.1.3.1) 삼장교에서의 분석은 감정에 따라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며, 현상을 분석하는 관은 사관(事觀)이며, 통찰한 진리는 불성의 진리가 아니다. 실상의 진리와 만나지 못하면서 감정에 따라 진리라고 설정할 뿐이다. 대승의 체법관은 진리에 따라 몸과 마음을 관찰한다. 이는 마술을 좇아 마술사의 일을, 마술사를 좇아 마술의 진실을 아는 것과 같다. 또 꿈을 좇아 자고 있다는 것을, 자고 있다는 것을 좇아 그 마음에 이르는 것과 같다. 환술과 같은 몸과 마음을 좇아 무명을, 무명을 좇아 불성을 얻는다. 법을 체득하면 진리와 통하기 때문에 진리에 따른 관이라고 한다.(32.c)

## 2.2.2 돈(頓)의 관법이다

(e2.2.2.1) 돈의 관법은 단계적인 과정을 밟아서 깨달음에 이른다는 점(漸)에 대해 성립한다. 지의는 대승과 소승을 기준으로 하여, 장교를 소승으로 통교·별교·원교를 대승으로 분류했다. 이를 다시 치우침(偏)과 원만함(圓)에 기준해서 원교만을 완전한 가르침으로 분류하고 원교의 지관법의 특징을 돈으로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원교를 제외한 모든 가르침은 치우친 가르침으로서, 점차적인 관법을 따른다.

(q2.2.2.2) 편은 치우침을, 원은 완전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소승을 편교라고 부른다. 이치에 맞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편교의 의미를 엄밀히 탐구해 보면, 이들은 분명히 다르다. 반과 소는 외연이 좁아 편과 같은 넓은 외연을 갖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편은 소승에서 대승을 망라하기 때문이다. 이는 반달이라고 하면 상현달과 하현달만 해당하지만, 보름달이라고 하면 [보름달을 제외한] 초승달부터 14일 밤의 달까지 모두 [반달에] 해당되는 것과 같다. 점월(漸月)은 반달보다 의미가 넓어서 보름달만을 완전한 달이라고 부른다. 소승과 반자교(半字敎)도 이와 같다. 석법은 반자교와 소승에 한정하므로 대승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편은 의미가 넓어 삼장교의 석법지관에서부터 별교의 유무의 양극단을 멈추고 중도에 드는 관법[去邊入中止觀]까지 포섭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 전체가 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열반경』은 “이 이전에 대해 우리는 모두 사견인(邪見人)이라고 한다.”고 했다. 원교의 일심삼제(一心三諦)의 수자의지관(隨自意止觀)만이 완전하다[圓]고 할 수 있다.( 32.c-33.a)

### 2.2.2.1 점(漸)의 관법

(e2.2.2.1.1) 화법사교중 장교, 통교, 별교의 지관법이 갖는 특징이다. 열반을 생사 번뇌를 떠나서 존재한다고 이해하는 장교는 물론이고, 통교와 별교 또한 공, 가, 중 삼제를 원융의 관계로 이해하지 못하고 차제적인 관계로 이해하기 때문에 중도실상 또한 현상에 근거해서 현상의 실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 이들은 십법계 중 지옥계나 인간계와 같은 중생계에서는 제법의 실상을 통찰할 수 없고 중생계의 번뇌를

다 제거한 뒤 불법계에 이르러야 비로소 중도실상을 통찰할 수 있다고 이해한다. 그 결과 이들은 공, 가, 중 삼제를 차례로 닦아 나아가야 한다고 이해하여, 가에서 공으로, 공에서 가로, 마지막으로 공과 가에서 중으로 들어가는 차제적인 관법을 주장한다.

(q2.2.2.1.2) 점이란 차제라는 의미로서 얕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이르는 의미이다. 돈이란 한 순간에 완전하게 구축된다[頓足], 한 순간에 구극의 진리를 통찰한다[頓極]는 의미이다. 점과 돈은 편과 원의 의미에 통하며, 특별한 의미는 없다. 앞의 삼교[장교·통교·별교]의 지관은 모두 점이요, 원교의 지관만이 돈이다. 이에 따라 해석하면, 그 의미는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33.a)

#### 2.2.2.2 돈(頓)의 관법

(e2.2.2.2.1) 원교의 돈의 관법은 돈족, 돈극의 의미와 더불어 방편을 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의에 따르면, 별교는 장교, 통교와 달리 중도실상을 이해한다. 다시 말해 별교는 공, 가, 중을 즉공즉가즉중으로 이해하는 원교와 달리, 중도를 공과 가를 떠나서 독립적으로 있는 절대적 진리로 이해하기 때문에 점이지만, 중도실상을 처음부터 지향한다는 점에서 중도실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장교·통교와 분명히 구분된다. 지의는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교(敎), 관(觀), 행(行), 증(證)의 네 측면에서 화법4교의 지관법의 특징을 분석한 뒤, 중도실상을 처음부터 알고 있는 별교에도 증의 측면에서 돈의 의미가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별교는 방편을 끼고서[帶] 중도실상에 이르기 때문에 점이라고 규정하고, 원교는 방편을 끼지 않는다는 점에서 순수하게 돈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지의가 돈을 방편을 갖지 않는다는 의미로 규정했다는 보여준다.

(q2.2.2.2.2) 원교의 지관은 돈으로 점이 아니다. 커다랗고 똑바른 길을 가기 때문에 갯길로 가도 도달한다. 별교의 지관은 점이기도 하고 돈이기도 한다. 최초의 발심에서 중의 진리를 알기 때문에 돈이다. 그러나 방편에 의지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점이기도 하다. 또 앞의 두 교는 교,



관, 교, 행, 증이 모두 점이다. 별교는 교와 관, 행이 점이지만, 증은 돈이다. 원교는 교, 관, 행, 증이 모두 돈이다. [...] 별교의 관은 방편을 갖고 설명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방편에 따라 수행한다. 먼저 통혹(通惑)을 부수기 때문에 교와 관, 행은 점이지만, 뒤에 무명을 부수고 불성을 보기 때문에 증은 돈에 해당한다. 원교의 관은 ‘바로 방편을 버리고 무상도만을 설명하며’, ‘이 하나만 진실이고 다른 것은 진실이 아니며’, ‘가장 진실한 것을 설한다.’는 것은 교가 진실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여래의 행을 실천하고’, ‘여래의 방에 들어가며’, ‘여래의 옷을 입고 자리에 앉는다.’고 말하고 또 ‘어떤 행위도 모두 여래의 행위이다.’고 하니 이러한 행은 모두 진실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보면 곧 중도로서 구경의 진리이며 여래가 얻은 법신과 동일하여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은 증이 진실이라는 것을 보여준다.(33.a)

### 2.2.3 진실(眞實) 관법이다

(e2.2.3.1) 원교의 지관법은 방편이 없는 순수한 돈의 관법이다. 다시 말해 중생의 행위 그대로가 곧 여래의 행위가 되는 관법이다. 그러나 이는 제법실상의 측면에서 그러하지만, 현상적으로 중생은 번뇌에 싸여 있어 여래의 행위를 드러내지 못한다. 여기서 수행이 필요하고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여러 가지 수행방법으로서 방편이 요구된다. 지의는 중생이 곧 부처라는 중생즉불에 근거해서 원돈지관을 주장하지만, 여기서 곧 수행의 부정으로 나가지 않는다. 이는 그가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 사중삼매, 이십오방편(二十五方便), 십경십승(十境十乘)의 관법과 같은 다양한 수행방법을 원돈지관의 실천방법으로 주장했던 것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중생이 곧 부처이기 때문에 어떠한 수행방법도 필요 없다는 돈의 지관법을 확립하면서, 동시에 부처가 되기 위해 다양한 수행방법들을 주장하는 모순을 지의는 방편과 진실에 대한 논의를 통해 극복했다.

#### 2.2.3.1 방편의 의미

(e2.2.3.1.1) 용수의 불이론은 중생이 곧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가 되

기 위한 수행은 필요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열반을 생사현상을 떠나서 있다고 이해하고, 현상을 부정함으로써 열반을 추구했던 아비달마불교의 실체론을 부정하고, 중생의 번뇌를 부정하지 않고 번뇌에서 번뇌의 실상을 통찰하는 수행법을 요구했던 것이다. 여기서 수행의 목적은 번뇌의 제거가 아니라, 번뇌의 실상에 대한 통찰로서 재확립된다. 다시 말해 용수의 불이론은 깨달음이라는 수행의 목적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번뇌의 제거를 수행의 목적으로 두지 않을 뿐이다. 이는 불이론이 번뇌의 실상을 통찰하기 위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 즉 방편을 요청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고는 용수의 불이론에 근거한다. 이는 원고에 근거하는 원돈지관이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 다양한 수행방법을 방편으로 주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q2.2.3.1.2) 권은 권모로서, 어떤 목적을 위해 잠시 쓰다가 버린다는 의미다. 실이란 진실의 가르침으로서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목적이라는 의미이다. 권에는 대략 세 가지의 의미를 세울 수 있다. 하나는 진실을 위해 권을 베푼다는 의미이다. 둘은 권을 사용해서 진실을 드러낸다는 의미이다. 셋은 권을 버리고 진실을 드러낸다는 의미이다. 『법화현의』에서의 연꽃에 대한 세 개의 비유와 같다. “제불은 일대사 인연이 있어 이 세상에 나왔다.”고 한다. 이는 원돈의 하나의 진실지관을 위해 세 개의 방편지관을 베푼다는 의미이다. 이 방편은 본래의 목적이 아니지만 이 방편 외에 다른 의도가 있지도 않기 때문에 이 세 개의 방편지관을 열어 원돈의 하나의 진실지관을 드러낸다. 진실을 위해 방편을 베푼기 때문에 진실이 보이며, 방편을 열어 진실을 드러내기 때문에 방편은 진실과 다르지 않다. 그리하여 진실 외에 설명해야 할 방편은 없게 된다. 방편을 버리고 진실을 드러내는 것에 따라 방편은 폐기되고 진실만이 존재한다고 한다. 이와 같이 방편과 진실을 이해하면 충분하다.(34.a)

### 2.2.3.2 방편과 진실의 관계

(e2.2.3.2.1) 제법실상의 진리는 언어적 분별을 넘어서 있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부처는 모든 중생을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해 다

양한 가르침을 베풀었다. 언어로 드러난 부처의 가르침은 제법실상의 진리 자체[진실]은 아니지만, 부처의 지혜에 근거하기 때문에 거짓도 아니다. 오히려 중생을 진리로 이끄는 방법으로서 절대적 가치를 지닌다. 불교의 다양한 수행방법도 이와 같다. 수행방법을 진실로 오해하지 않고 진실로 이끄는 방편임을 알면 방편을 진실에 대한 거짓이라고 부정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중생은 언어로 표현된 부처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깨달음으로 나갈 수 있듯이,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이라면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지의는 진실에 이르기 위해 방편을 포섭해야 한다는 것을 사실단과 오미(五味), 피접(被接)등의 다양한 개념을 통해 설명했다.

#### 2.2.3.2.1 사실단(四悉檀)과 관련해서

(q2.2.3.2.1.1) 불타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성질이나 욕구를 알고 사실단을 통해, 이를 성숙시킨다. 올바른 인연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삼장교의 관을 설명하고, 인연은 공에 지나지 않는다고 듣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는 통교의 관을 설명하고, 억겁에 걸쳐 수행을 한다는 것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는 별교의 관을 설명하고, 중도를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원교의 관을 설명한다. 이는 세계에 따른 실단이다. 또 사람의 욕구에 따른 것이며, 진실을 위해 권을 펼쳤고, 권과 실의 지관을 설명한 것이다. [...] 이와 같이 여래는 교묘하게 사실단을 사용하며, 보이거나 버리는 것이 때에 부합하고 근기에 따라 교화하며, 사람들은 모두 이익을 얻는다. 여래는 아무 목적 없이 가르침을 설명하지 않고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보이고, 버리는 것이다.(34.a-b)

#### 2.2.3.2.2 오미(五味)와 관련해서

(q2.2.3.2.2.1) 오미교(五味敎)에 근거해서 교의 흥폐(興廢)를 설명하면, 화엄은 대승의 수행인을 위한 두 개의 권(權)을 폐하고 하나의 권과 하나의 진실을 일으킨다. 삼장교는 두 개의 권과 하나의 진실을 폐하고 하나의 권만을 일으킨다. 방등은 네 가지 모두를 일으키고, 반야는 한 개의 권을 폐하고 두 개의 권과 하나의 진실을 일으킨다. 법화는 세 개의 권을 폐하고 하나의 진실을 일으킨다. 열반은 다시 네 가지를 모두 일으

켜 모두 불성으로 들어가 단절됨이 없다. 이와 같이 여래는 교묘하게 실단을 이용하여 시기에 적절하게 일으키고 폐하며, 근기에 따라 교화하여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한다. 그러므로 여래의 설법 중에는 무의미한 것이 없으며 모두 중생을 해탈로 이끌기 위하여 적절하게 일으키고 폐했던 것이다.(34.b-c)

#### 2.2.3.2.3 사종지관(四種止觀)과 관련해서

(q2.2.3.2.3.1) 세 개의 권에 대해 하나의 진실을 설명한다. 진실이 성립하면 권은 폐기된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대로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사종지관으로 분별하면 이들은 모두 진실로서 허망하지 않다. 결정적으로 열리지 않으면, 진리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성문의 가르침이 ‘제경전의 왕’임을 결정적으로 이해하면, 방편문을 열어 진실상을 보게 되어 각각의 지관이 모두 원교에 들어간다. 이는 준마가 채찍의 그림자를 보기만 해도 바른 길을 향해 달리는 것과 같다. 따라서 [장교, 통교, 별교, 원교의 지관인] 네 지관은 모두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다.(34.c)

#### 2.2.3.2.4 불사의의 의미와 관련해서

(q2.2.3.2.4.1) 사종지관은 모두 권이라고도 할 수 있다. 사종지관에 해당하는 진리는 불가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권도 불가설이므로 권이 아니다. 진실도 불가설이므로 진실이 아니다. 권이 아닌데 억지로 권이라고 설명하고, 진실이 아닌데 억지로 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이 임의로 설정하여 설명한 것이라면, 왜 권을 진실이라고 말하지 못하는가? 말로 설명한 것은 모두 권이기 때문이다. 또 권과 진실은 모두 권도 진실도 아니다. 모두는 불가설이기 때문이다. [...] 권도 아니고 실도 아니면서 항상 정직한 진리의 본성을 지(止)라고 하고, 고요하면서 항상 비추면서 권이기도 하고 진실이기도 한 것을 관이라고 한다. 관이므로 불지(佛智)라고 하고, 반야라고도 하고, 지(止)이므로 불안(佛眼)이라고 하고 수능엄정(首能嚴定)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며, 합산도 아닌 것을 불가사의지관이라고 한다. 이는 진실이 권도 아니고 진실도 아님을 밝힐 뿐만 아니라 권도 권이 아니고 진실도 아님을 밝힌다. 이것도 개권현실의 의미에 속한다.(34.c)

## 2.3 대승원교의 수행계위

### 2.3.1 육즉(六卽)의 성립

(e2.3.1.1) 지의는 용수의 불이론이 수행의 부정이 아니라, 소승의 수행론에 대해 대승의 수행론을 확립하기 위한 이론임을 밝히기 위해 다른 가르침과 구별되는 원교만의 수행의 계위로서 육즉을 주장했다. 육즉에서 즉(卽)은 모든 번뇌가 매 순간 보리와 동일함을 강조하는 것이고, 육(六)은 이 동일성을 현실화해 가는 경험적 과정을 여섯 단계로 구분한 것이다.

(q2.3.1.2) 묻는다. 어떤 의미로 배타적으로 원교에만 근거해서 육즉을 말하는가? 답한다. 원교에서 제법을 바라보는 것을 일러서 모두 육즉이라고 한다. 때문에 원교의 의미로서 모든 법을 근거지우고 또 육즉을 이용해서 그 원교의 계위를 판단한다. 나머지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육즉을 이용하지 않는다. 장교·통교·별교의 가르침에 해당해서 육즉을 사용해서는 그 뜻을 얻을 수 없다. 왜 그러한가? [이들이 말하는] 알고 가까움은 원교의 바른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위에서 잘못된 발심을 구별하는 것에서 먼저 괴로움의 진리와 세간을 벗어나고 빠지는 것에 근거해서 잘못된 발심을 간추려 내었다. 다음에는 네 가지의 사체의 지혜를 곡(曲), 줄(拙), 천(淺), 근(近)에 따라서 간추려 내었다. 다음은 4홍서원에 근거해서 간추려 내었다. 다음은 육즉위에 근거해서 간추려 내었으니 구르면서 깊어지고 미세하여져서 이윽고 올바른 발심을 드러내었다.(11.a)

### 2.3.2 육즉의 의의

(e2.3.2.1) 지의의 육즉은 그가 활약하던 당시 대승불교를 오해함으로써 선정수행을 무시했던 암증선사와 문자법사들을 비판하기 위해 성립했다. 암증선사들은 번뇌즉보리에 근거해서 계율을 부정하고, 아주 사소한 깨달음을 바로 부처와 같은 경지라고 주장하면서 수행을 가볍게 여겨 불

교의 타락을 가져왔다. 이에 반해 문자법사들은 경전의 어구에만 집착하여 부처의 깨달음을 요원한 세계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지관의 실천법을 닦고자 하지 않았다. 지의는 이들의 폐단을 육즉을 통해 극복하고자 했다. 다시 말해 즉을 통해 깨달음이 요원한 저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재 자기의 참된 모습임을 밝혀 적극적으로 수행에 참여하도록 했고, 여섯 가지의 계위를 통해서는 깨달음의 경지가 엄숙하고 진지한 수행 과정을 요구한다는 것을 밝혀 수행의 기풍을 재확립하고자 했다.

(q2.3.2.2) 지혜와 믿음이 함께 충족되면 일념이 곧 보리임을 듣고 그 말을 믿어 비방하지 않으며, 지혜로워 두려워하지 않으니 처음과 뒤가 모두 보리이다. 만약 믿음이 없으면 성인의 경지를 높이 헤아려 자기의 지혜가 닿을 수 없는 것으로 여기고, 만약 지혜가 없으면 증상만(增上慢)을 일으켜 자기가 불타와 똑 같다고 말한다. 처음과 뒤가 함께 그릇된 것이니 이러한 일 때문에 반드시 육즉을 알아야 한다. 육즉은 리즉(理卽), 명자즉(名字卽), 관행즉(觀行卽), 상사즉(相似卽), 분진즉(分眞卽), 구경즉(究竟卽)이다. 이 육즉은 범인으로 시작하여 성인으로 끝난다. 범인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의심과 겁을 없애고, 성인으로 끝나기 때문에 교만과 과장을 없앤다.(10.b)

## 2.3.3 육즉의 형태

### 2.3.3.1 리즉(理卽)

(e2.3.3.1.1.) 리즉의 리는 여래장의 진리를 가리킨다. 여래장이란 중생 안에 내재해 있는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지의는 이 여래장을 감각 기관과 감각 대상을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는 연기적 현상으로서의 한 순간의 마음[일념심]으로 정의했다. 연기적 현상으로서 일어나는 한 순간의 마음은 중생이 살아 있는 한에는 항상 현전한다. 지의는 이것을 바로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태라고 정의했다. 이는 중생이 현재 자신의 마음에서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존재론적으로 정당화

하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 중생의 마음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진리를 추구할 수 없다는 번뇌즉보리를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q2.3.3.1.2) 리즉이란 일념심이 곧 여래장(如來藏)의 리이다. 여(如)이기 때문에 즉공(卽空)이고, 장(藏)이기 때문에 즉가(卽假)이고 리(理)이기 때문에 즉중(卽中)이다. 세 가지의 지혜가 한 마음에 갖추어져 있다는 것은 불가사의이다.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삼제이면서 일제이며, 세 가지로 나뉘는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다. 하나의 색과 하나의 향기가 일체의 법이며, 일체의 마음 또한 그러하다. 이것을 일러서 진리에 즉한 올바른 발보리심이라고 한다. 또한 진리에 근거한 지관이라고도 한다. [한 마음이 본래] 고요한 것을 일러서 지라고 하고 [한 마음이 본래] 비추는 것을 일러서 관이라고 한다.(10.b)

### 2.3.3.2 명자즉(名字卽)

(e2.3.3.2.1) 명자즉은 모든 존재의 실상이 공이라는 것을 지적으로 이해하는[智解]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수행자는 선지식이나 경전을 통해 중도실상이 연기적 현상을 떠나 있지 않다고 지적으로 이해한다. 중도실상이 번뇌를 떠나 있지 않다고 이해함으로써 번뇌를 제거하고 진리를 구하고자 했던 기존의 잘못된 수행관을 멈춘다. 수행자는 현재 드러나 있는 자신의 마음 외에 진리가 없다고 이해함으로써, 수행의 당처를 이해한다. 즉 명자즉의 단계에서 수행자는 올바른 수행처를 알게 됨으로써 외부대상을 좇는 어지러운 마음의 작용이 멈춘다. 다시 말해 올바른 수행처에 대한 이해가 산란스러운 마음을 멈추어 고요하게[止]한다.

(q2.3.3.2.2) 명자즉이란 리가 비록 곧 그대로 옳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매일의 활동에서 알지 못한다. 아직 삼제를 듣지 못하였고 온전히 불법(佛法)을 알지 못한다. 소나 양이 눈이 있음에도 방향과 구석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혹은 선지식을 좇아, 혹은 경전을 통해, 위에서 말한 하나의 참된 진리를 듣는다. 문자에서 통달하고 이해하여, 일체법이 모두 불법임을 알게 된다. 이것을 명자에 근거한 발보리심이라고 하고, 또한 명자지관이라고도 한다. 만약 위에서 말한 완전한 진리를 아직 듣지

못했을 때 이리저리 달리면서 구하다가 이미 진리를 듣고 나면 무엇인가에 매달린 마음[반먹심(攀覓心)]이 멈추어지는 것을 일러서 지라고 하고, 오로지 법성(法性)을 믿고 그 이외의 것은 믿지 않는 것을 관이라고 한다.(10.b)

### 2.3.3.3 관행즉(觀行卽)

(e2.3.3.3.1) 명자즉은 지적인 이해 단계이기 때문에 이해한 진리를 체득하기 위한 수행이 요구된다. 이 시작이 관행즉이다. 여기서 관은 비파사나 수행법으로서, 수행자가 성인이 깨달은 진리에 의지해서 그것을 경험적으로 내재화하는 방법이다. 관행즉은 수행자가 명자즉의 단계에서 지적으로 이해했던 진리를 경험 현상에 대한 관찰을 통해 진리와 계합하기 위한 수행이다. 지의는 이 단계에서 수행자가 진리에 집중하기 때문에 마음의 다른 작용들이 멈추어 마음이 고요해진다고 했다.

(q2.3.3.3.2) 관행에 있어서 올바른 발심이란 만약 오로지 이름을 듣고 입으로 말만 하면 마치 벌레가 나무를 파먹어 우연히 글자를 이루는 것과 같다. 이 벌레는 바른 글자와 틀린 글자를 알지 못한다. 이미 문자의 의미를 꿰뚫어 알지 못했는데 어찌 보리라고 할 수 있겠는가? 반드시 마음의 바라봄이 명료해 진리와 지혜가 서로 상응하여 행하는 것이 말한 것과 같고 말한 것은 행하는 것과 같아야 한다. 『화수경』(華首經)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한 것을 행하지 못한다. 나는 말로서 하지 않고 오로지 마음으로 보리를 실천할 뿐이다.”라고 했다. 마음과 입이 서로 상응하는 것이 관행보리이다. 대지도론의 사구(四句)는 진리를 듣는 것과 지혜가 함께 충족돼야 함을 평가하였으니 마치 눈이 빛을 얻어야 밝게 비추고 알 수 있어 그릇됨이 없는 것과 같다. 관의 행위 또한 이와 같다. 비록 아직 진리와 계합하지 않았으나 진리를 관찰하는 마음이 쉬지 않는 것은 마치 『수능엄경』의 과녁을 향해 활을 쏘는 비유와 같다. 이것을 관행보리라고 하고, 관행지관이라고도 한다. 항상 이 생각[想]만을 하는 것을 관(觀)이라고 하고 다른 생각은 멈추는 것을 지(止)라고 한다.(10.b-c)



#### 2.3.3.4 상사즉(相似卽)

(e2.3.3.4.1) 관행즉은 명자즉에서 이루어진 지적인 이해에 근거해서 진리의 체득을 지향한다. 진리를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진리를 체득하는 사이에는 무수한 단계가 있다. 지의는 그 중에서 진리의 체득은 아니지만 진리의 체득에 다가간 단계를 관행즉과 구분해서 상사즉이라고 했다. 이 단계에서 관의 수행은 점차 깊어져 통찰하는 힘이 더 증대된다. 지의는 진리에 대한 통찰이 점점 깊어짐에 따라 마음의 어지러움 또한 더욱 고요해진다고 했다. 그는 상사즉에서 관의 수행이 점차 깊어져 지혜와 닮아 가는 것과 함께 무명의 굴복을 말했다. 중생의 마음이 번뇌로 어지러운 것은 무명 때문이다. 무명의 굴복은 중생의 마음이 근원적으로 고요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q2.3.3.4.2) 상사에 있어서 올바른 발보리심이라는 것은 관이 점점 더 잘 보고, 더 밝아지고, 더 머무르고 더 고요해지니 열심히 활을 쏘면 과녁에 가까워지는 것과 같다. 관과 지혜가 서로 닮아 간다. 모든 세간의 생산을 다스리는 일들이 서로 위배되는 것이 없고, 존재하는 사상이나 도량이 모두 먼저 불경(佛經)에서 말할 것과 같다. 육근청정(六根淸淨)에서 말한 것과 같다. 원만하게 무명을 굴복시키는 것을 지(止)라고 하고, 중도지혜와 유사한 것을 관(觀)이라고 한다.(10.c)

#### 2.3.3.5 분진즉(分眞卽)

(e2.3.3.5.1) 분진즉은 진리에 대한 통찰과 마음의 고요가 상사즉보다 깊어진 단계이다.

(q2.3.3.5.2) 분진즉이라는 것은 [지혜와] 유사한 관의 힘에 근거해서 동륜위(銅輪位)에 들어간다. 최초로 무명을 부수어 불성을 본다. 보물의 창고를 열어서 진여를 드러낸다. 발심주(發心住) 내지 등각(等覺)이라고 한다. 무명은 희미해지고 없어지는 반면 지혜는 굴러서 현저해진다. 마치 초하루부터 14일까지 달빛이 점차 원을 드리우게 되면 어두운 부분이 점차 다해지는 것과 같다. 만약 어떤 사람이 불신(佛身)을 [관찰해서] 해탈

하고자 한다면, 그는 부처가 그의 생애에서 깨달음을 얻었던 것을 드러낼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구법계(九法界)의 몸으로 해탈하고자 한다면 『법화경』에서 말한 것과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는 가르침으로 드러내 보여줄 것이다. 이것을 분진보리라고 하고 또한 분진지관, 분진지단이라고 한다.(10.c)

#### 2.3.3.6 구경즉(究竟卽)

(e2.3.3.6.1) 번뇌의 소멸과 진리의 통찰이 궁극적인 상태에 도달한 것으로, 진리와 계합한다. 이 단계는 가난한 사람이 자기 집에 보물창고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발견해서 얻어 쓰는 단계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다양한 부처의 공덕을 드러내는 단계로서 부처만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q2.3.3.6.2) 구경과 같은 보리란 등각이 한번 굴러서 묘각(妙覺)에 들어가는 것이다. 지혜의 빛이 원만하여 다시 더 증장될 것이 없다. 보리과(菩提果)라고 한다. 대열반의 끊음으로 다시 끊을 것이 없다. 과과(果果) 니르바나라고 한다. 등각은 통달할 수 없으니 오직 부처만이 통달할 수 있다. 차(茶)를 지난 것이므로 설명할 길이 없다. 때문에 구경보리라고 한다. 또한 구경지관이라고도 한다.(10.c)

### 3. 선정(禪定)

#### 3.1 삼매(三昧)의 본질

(e3.1.1) 번뇌즉보리(煩惱卽菩提)·생사즉열반(生死卽涅槃)·중생즉불(衆生卽佛)과 대승원교의 진리에 따르면, 끊어야 할 번뇌도 없고 증득해야 할 열반도 없기 때문에 자칫 수행은 필요 없다는 오해를 불러 올 수 있다. 지의는 이에 대해, 중생은 대승원교의 진리를 단지 문자로서 이해할 뿐 이를 체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분별과 집착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리하여 이러한 번뇌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대승원교의 진리에 근거한 엄숙한 수행을 요구했다.

(q3.1.2) 보살의 계위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중삼매를 실천하기를 권한다. 묘위(妙位)에 오르고자 하면 수행 없이는 오를 수 없기 때문에 이 지관을 설명한다. [생우유를] 잘 흔들고 걷어내면 제호(醍醐)를 얻을 수 있다. 『法華經』은 “또 불제자가 여러 가지의 수행을 닦음으로써 불도를 구하는 것을 나는 보았다.”고 했다.(11.a)

#### 3.2 삼매의 형태

##### 3.2.1 삼매의 의미

(e3.2.1.1) 삼매는 samādhi의 음사로서 정(定), 정수(正受), 등지(等持) 등으로 한역된다. 삼매는 마음의 번뇌를 고요히 하기 위한 수행법으로, 마음을 고요하게 하여 내관하는 선정[dhyana]과 동의어이다. 불교에서 깨달음은 진리의 통찰에 따른다. 중생은 번뇌로 마음이 어지럽기 때문에 진리를 통찰하지 못한다. 따라서 진리를 통찰하기 위해서는 먼저 번뇌로 어지러운 마음을 고요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한 수행이 삼매이다.

(q3.2.1.2) 일반적으로 삼매란 [마음을] 조복하고, 바르게 하며, 안정 되게 하는 것이다. 『대지도론』은 “마음을 한 곳에 잘 머무르게 하여 흔들리지 않는 것을 삼매라고 한다.”고 했다. 법계가 한 곳이고 올바르게 봄으로써 사람은 거기에 흔들림 없이 머무르게 된다. 네 가지 수행 방법이 조건이 되니, 사람이 마음을 관찰할 때, 마음을 조절하고 산만한 마음을 바르게 하기 위해 삼매에 의지한다. 그리하여 네 가지의 방법을 삼매라고 한다.(11.a)

### 3.2.2 삼매의 구성

(e3.2.2.1) 지의에 따르면, 삼매는 마음의 번뇌를 고요히 하기 위한 수행법이다. 그는 『마하지관』에서 사종삼매뿐만 아니라 이십오방편, 십경십승의 관법을 원교의 수행법으로서 제시했다. 여기서 십경십승의 관법은 진리를 통찰하기 위한 수행법을 의미한다. 한편 지의는 사종삼매를 오략(五略)의 제이수대행(第二修大行)에서, 십경십승의 관법을 십광(十廣)의 제칠정수장(第七正修章)에서 각각 설명하고 『마하지관』의 중심을 후자에 두었다. 그 결과 사종삼매는 해탈지를 개발하기 위한 조건적인 수행법에 지나지 않고, 진리를 통찰하기 위한 원교의 수행법은 아니라는 평가가 역사적으로 있어 왔다. 그러나 지의가 『마하지관』의 구성을 오략십광으로 설명하면서, 십광은 오략을 자세히 설명한 것이라는 그의 주장을 고려할 때 사종삼매 안에는 십경십승의 관법 또한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지의가 사종삼매를 염불과 좌선 같은 의례로서의 사관과 진리를 통찰하기 위한 관법으로서의 리관으로 구분하고, 리관을 사종삼매에 공통하는 근본적 요소로 설명하는 곳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q3.2.2.2) 사종삼매에서 각각은 수행 방법에서 다르지만 리관(理觀)이라는 점에서 같다. 앞의 세 가지의 수행에는 도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助道法門]에 대한 설명이 많다. 그런데 이들은 도의 실현을 방해할 수도 있다. 수자의삼매는 방법이 적어 조도의 법문이 적다. 수행을 실천할 때 조도의 법문만을 이해한다면, 의례적인 행위[事相]도 통달할 수

없다. 만약 리관을 이해하면 의례는 통달되지 않는 것이 없다. 또 리관의 뜻을 알지 못하면 사상조도(事相助道) 또한 이를 수가 없다. 리관의 뜻을 이해하면 삼매에서의 의례는 자연히 이루어진다. 만약 의례에 의지해서 도를 실천하는 자는 도량에 들어야만 마음을 관찰할 수 있지만 도량을 나오면 관찰할 수가 없다. 수자의삼매는 이러한 간격이 없다. 방법은 앞의 세 가지 삼매에 한정되고 리관은 사종삼매에 공통한다.(18.c)

### 3.2.3 삼매의 네 가지 형태 - 사종삼매(四種三昧)

(e3.2.3.1) 사종삼매는 상좌삼매(常坐三昧)·상행삼매(常行三昧)·반행반좌삼매(半行半坐三昧)·비행비좌삼매(非行非坐三昧)의 네 가지 삼매법으로 구성된다. 이는 지의가 일체의 경전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수행방법을 수행자가 취하는 몸의 자세에 따라 네 가지로 정리, 분류한 뒤 원교의 관점에서 재해석한 것이다. 사종삼매 중 비행비좌삼매는 사구(四句)로 분별하는 설명 방식에 따라 편의상 비행비좌라고 했지만, 사실은 좌선과 행 모두에 통하는 것으로, 앞의 세 가지 수행법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수행법을 아우르는 수행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이들은 각각이 근거하는 교법에 따라, 다시 일행삼매(一行三昧)·불립삼매(佛立三昧)·방등삼매(方等三昧)·법화삼매(法華三昧)·수자의삼매(隨自意三昧)라고도 한다.

(q3.2.3.2) 수행의 방법은 여러 가지로 많지만 간략하게 네 가지로 말할 수 있다. 1.상좌, 2.상행, 3.반행반좌, 4.비행비좌이다.(11.a)

#### 3.2.3.1 상좌삼매(常坐三昧)

##### 3.2.3.1.1 의미

(e3.2.3.1.1.1) 상좌삼매는 『문수설반야경』(文殊說般若經)과 『문수문반야경』(文殊問般若經)에 근거한 수행법이다. 『문수설반야경』은 일행삼매를 설명하고 있지만, 수행방법으로서 좌선에 대한 설명이 없는 반면, 『

『문수문반야경』은 좌선에 대한 설명은 있지만 일행삼매라는 명칭은 없고 무아상(無我想)을 닦는다는 말만 나온다. 그리고 『마하지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앉는 방법은 앞의 두 경전이 아니라 다른 경론, 즉 『대지도론』에서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상좌삼매를 일행삼매라고 규정하는 것에 대해 답연은 『지관보행』에서 상좌삼매가 몸의 자세를 오로지 앉는 것만 취하고 다른 자세를 섞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수설반야경』등은 일상평등(一相平等)의 법계만을 생각하는 것을 일행삼매라고 했고, 『대지도론』은 다른 수행을 섞지 않고 공삼매(空三昧)만을 닦는 것을 일행삼매라고 했다. 지의는 이 두 가지 모두에 근거해서 상좌삼매를 일행삼매라고 규정한 것 같다.

(q3.2.3.1.1.2) 상좌삼매는 『문수설반야경』과 『문수문반야경』에서 나온다. 일행삼매라고도 한다.(11.a)

### 3.2.3.1.2 수행방법

(e3.2.3.1.2.1) 상좌삼매는 일정 장소에서, 일정 기간에 걸쳐 좌선이라는 수행방법을 통해 진리를 통찰하는 수행법으로, 여기에는 진리를 통찰하기 위한 조도법문으로서 몸, 입에 대한 엄격한 수행방법과 진리를 통찰하는 관법으로서 마음에 대한 지관(止觀)이 설명된다.

(q3.2.3.1.2.2) 수행방법 중, 몸가짐에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입에는 말과 침묵이 있고, 마음[意]에는 지관이 있다.(11.a)

#### 3.2.3.1.2.1 몸

(e3.2.3.1.2.1.1) 상좌삼매라는 이름은 좌선이라는 수행자가 수행 중에 취하는 몸의 자세에 근거해서 성립했다. 따라서 상좌삼매에서는 오직 앉기만 하고 눕거나, 걷는 것과 같은 다른 행위는 용납되지 않는다.

(q3.2.3.1.2.1.2) 몸은 항상 앉는 자세를 취하여, 걷거나 서거나 눕거

나 하지 않는다. 여러 사람과 함께 실천하는 것도 괜찮지만, 혼자 하는 쪽이 훨씬 좋다. 시끄러운 장소로부터 멀리 벗어난 고요한 방안이나, 조용한 장소를 택해 하나의 침상만을 준비하고 그 이외에는 주위에 그 어떤 것도 두지 않는다. 구십일 동안 결가부좌하여 머리와 등을 똑 바로 하고 움직이거나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숙이거나 좌우로 비스듬히 기울지 않고, 줄곧 앉아서 눕지 않는다. 물론 졸거나 서서 돌아다니지도 않는다. 식사와 불일은 예외이다. 일불(一佛)을 향해 앉아 한 순간도 쉼 없이 계속 앉아 있다. 이와 같이 오직 앉은 자세로서 불타를 속이지 않고, 자기 마음에서 등을 돌리지 않고, 사람들을 속이지 않고 좌선을 행한다.(11.b)

### 3.2.3.1.2.2 입

(e3.2.3.1.2.2.1) 상좌삼매에서, 입과 관련된 수행방법은 원칙적으로는 침묵이다. 여기에서는 독경, 혹은 주문을 외우는 행위조차 마음의 고요를 방해한다고 하여 금지한다. 그러나 질병이나 수면 등이 좌선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해서 부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허용한다. 청명이 이러한 장애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q3.2.3.1.2.2.2) 입에서는 말과 침묵에 대해 말하겠다. 앉아 있는 것에 극도로 지쳤을 경우, 혹은 병으로 괴로운 경우, 졸릴 경우, 몸과 마음에 장애가 나타나 마음의 집중을 방해해서 어지럽히는 경우에는 입으로 일불(一佛)의 이름을 불러 마음 깊이 참회하고 신명을 걸어 불타에 귀의한다. 이는 시방불의 명호를 부르는 것과 같은 공덕이 있다. 이는 마음이 걱정으로 답답할 때 소리를 높여 슬퍼하면 마음이 풀리고, 또 너무 기쁠 때 소리 높여 노래를 부르거나 웃으면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과 같다. 수행자 또한 숨이 머리, 잇몸, 이, 입술, 혀, 목구멍, 가슴을 움직여 몸 전체의 움직임이 되면 목소리가 입술로 나와 입을 움직이게 된다. 이 두 움직임이 마음에 작용하여 불타가 응답하여 나타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이는 무거운 물건을 옮길 때 혼자 힘으로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을 경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빌리면 움직일 수 있는 것과 같다. 수행자도 마음의 의지가 약해 혼자서 장애를 없앨 수 없을 때 불타의 명호를 불러 자기를 보호해주기를 바라면, 어떤 나쁜 조건도 수행을 방해할 수 없다.(11.b)

### 3.2.3.1.2.3 마음

#### 3.2.3.1.2.3.1 지(止)

(e3.2.3.1.2.3.1.1) 지의에 따르면, 삼매는 어느 한 곳에 집중함으로써 마음을 고요히 해서 진리를 통찰하는 수행법이다. 몸과 입과 관련된 수행법은 마음을 고요히 하기 위한 조도법문에 해당한다면, 의지관은 진리를 통찰하기 위한 관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지는 마음이 집중해서 머무는 곳,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음은 어느 한 곳에 집중함으로써 여러 가지 번뇌로 물든 어지러운 마음을 고요히 한다.

(q3.2.3.1.2.3.1.2) 의지관은 마음에서 지관을 실천하는 것으로, 단정히 앉아서 올바르게 집중해서 바라본다. 잘못된 지각을 제거하고 모든 어지러운 상상(想像)을 버리고 의지적으로 구상해 내지도 말고 어떤 구별된 상을 만들어 취하지 않는다. 오직 법계를 대상으로 마음을 고정하여 한 순간의 마음과 법계를 일치시킨다. 법계를 대상으로 하여 마음을 고정하는 것이 지(止)고 한 순간의 마음과 법계가 일치하는 것이 관이다.(11.b)

#### 3.2.3.1.2.3.2 관(觀)

(e3.2.3.1.2.3.2.1) 마음이 머무는 대상에 대해 지혜로서 관찰하는 것이 관이다. 이러한 관을 통해 수행자는 중생법계가 곧 불법계와 다르지 않다는 진리의 통찰에 이른다.

(q3.2.3.1.2.3.2.2) 부처는 증득할 수 없으니 희유(希有)이기 때문이다. 왜 그러한가? 부처가 곧 법계이다. 만약 법계로서 법계를 증득한다고 하면 이는 논쟁을 위한 말이다. 깨달음도 없고, 얻음도 없다. 중생상을 보는 것이 곧 모든 부처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다. 중생계의 양이 곧 불법계(佛法界)의 양이다. 불법계의 양이 불가사의이듯이 중생계의 양도 불가사의이다. 중생계에 머무르는 것이 마치 허공에 머무르는 것과 같고, 머무르지 않는 법으로, 무상의 법으로 반야에 머문다. 범부의 법으로 구별해서 보지 않으니 무엇을 버린다고 할 수 있겠으며, 성인의 법으로 구별해서 보지 않으니 무엇을 취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생사·열반·구정(垢



淨)이 다 이와 같으니 버리지도 취하지도 않고 단지 실체에 머무른다. 이와 같이 중생을 관찰하는 것이 참된 불법계이다. 탐욕·분노·어리석음 등의 모든 번뇌를 항상 이것은 적멸행이며, 무동행(無動行)이며 생사법이 아니며, 열반법이 아니며, 모든 견해를 버리는 것도 아니고 무위를 버리는 것도 아니고 불도를 닦지만 도를 닦는 것도 아니고 닦지 않는 것도 아니라고 관찰하는 것, 이를 번뇌법계에 올바르게 머문다고 한다.(11.c)

### 3.2.3.2 상행삼매(常行三昧)

#### 3.2.3.2.1 의미

(e3.2.3.2.1.1) 상행삼매는 『반주삼매경』에 근거한 수행법으로 불립삼매(佛立三昧)라고도 한다. 179년 지루가첩이 번역했고, 산스크리트어 본은 남아 있지 않다. 『般舟三昧經』의 반주는 “~에 대해서 가깝게 서다”의 의미로, 이 삼매를 성취하면 시방의 부처가 앞에 서는 것을 본다고 설명한다. 이 경전은 정토경전의 선구로서 주목할 내용을 가지고 있다.

(q3.2.3.2.1.2) 상행삼매는 『반주삼매경』(般舟三昧經)에서 나온다. 번역하면 불타가 [내 눈 앞에] 서다가 된다. 불타는 세 가지의 요소에 따라 선다. 1. 불타의 위력, 2. 삼매의 힘, 3. 수행자의 본래 공덕의 힘이다. [이 세 가지 요소에 따라] 삼매 중에 시방의 현재불(現在佛)이 수행자의 눈앞에 선다. 마치 눈이 좋은 사람이 맑은 밤에 별을 볼 수 있듯이 시방의 불타를 수 없이 볼 수 있다. 그래서 불타가 [눈앞에] 서는 삼매라고 한다. 『십주비파사론』(十住毘婆沙論)의 계에서 “이 삼매가 머무르는 곳에는 소(少), 중(中), 다(多)의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특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머무는 곳이란 초선(初禪), 이선, 삼선, 사선에 머무르는 것을 말한다. 이 세력을 발휘하면 삼매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주처(住處)라고 했다. 초선은 소(少), 이선은 중(中), 삼사선은 다(多)이고, 혹은 짧은 시간 머무르면 소, 혹은 적은 세계를 보면 소, 혹은 불타를 적게 보면 소라고 한다. 중과 다도 이에 따른다.(12.a)

### 3.2.3.2.2 수행방법

#### 3.2.3.2.2.1 몸

(e3.2.3.2.2.1.1) 삼 개월 동안 먹을 때와 용변을 볼 때를 제외하고는 걷기만 하고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 사람들을 위해 경전을 설명해서도 안 되고, 옷과 음식을 요구해도 안 된다.

(q3.2.3.2.2.1.2) 몸에 관해서 설명하겠다. 몸은 항상 걷는다. 상행삼매는 나쁜 지도자나 어리석은 자와 친족 또는 마을로부터 멀리 떨어져 항상 혼자서 실천하며, 다른 사람과 함께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서도 안 된다. 항상 걸식을 하고, 공양을 받아서도 안 된다. 도량은 엄숙하게 장식한다. 법구, 향, 다과를 갖추고, 몸을 씻어 깨끗이 하고 용변을 전후해서는 매번 의복을 갈아입는다. 오직 걷기를 90일 동안 실천한다.(12.b)

#### 3.2.3.2.2.2 입

(e3.2.3.2.2.2.1) 상좌삼매의 경우, 삼매에 장애가 있을 경우에 부처의 이름을 외우는데 반해 상행삼매의 경우 수행기간 내내 아미타불의 주위를 돌면서 쉬지 않고 아미타불의 이름을 소리 내어 부른다.

(q3.2.3.2.2.2.2) 입과 관련해서 설명하겠다. 구십일 동안 몸은 항상 불상의 주변을 돌면서 쉬지 않는다. 구십일 동안 입으로는 항상 아미타불의 이름을 소리 내어 부르면서 쉬지 않는다. 구십일 동안 마음으로는 항상 아미타불을 생각하면서 쉬지 않는다. 소리와 생각이 함께 할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생각을 먼저하고 소리를 뒤에 하거나 소리를 먼저 하고 생각을 뒤에 한다. 소리와 생각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쉬이 없어야 한다. 비록 아미타불만을 소리 내더라도 이것은 곧 모든 부처를 소리 내는 것과 공덕은 같으니 단지 아미타불에만 전념하여 법문(法門)의 주인으로 삼는다. 요점을 말하면 걸음걸음, 소리소리, 생각생각이 모두 아미타불에만 있도록 해야 한다.(12.b)

### 3.2.3.2.2.3 마음

#### 3.2.3.2.2.3.1 지(止)

(e3.2.3.2.2.3.1.1) 아미타불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청명염불로서, 이는 입과 관련된 수행법이다. 마음에서 집중해서 생각한다는 염(念)은 청명염불에 근거해서 아미타불의 상호를 직접 수행자의 눈앞에 드러내는 관상염불에 해당한다. 수행자는 이 드러나는 상호에 집중하여[지(止)] 그 상호를 관찰함으로써 진리의 통찰에 이른다.

(q3.2.3.2.2.3.1.2) 마음에서 지관을 실천한다. 서방의 아미타불에 마음을 집중해서 생각한다. 아미타불은 여기로부터 서쪽으로 십만 억의 불국토 너머에 보지(寶地), 보지(寶池), 보수(寶樹), 보당(寶堂)에 있으면서 여러 보살의 중앙에 앉아서 경전을 설한다. 삼 개월 동안 항상 불타를 집중해서 생각한다. 집중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삼십이상호(三十二相好)를 집중해서 생각하니, 발아래의 천개의 바퀴살을 가진 바퀴의 상호를 생각하는 것에서, 하나하나 역으로 모든 상호를 생각하여 마지막으로는 무견정(無見頂)을 생각한다. 또한 무견정에서 차례로 천복륜(千輻輪)까지 집중해서 생각하는 것을 염(念)이라 한다. 자신도 또한 이 상호에 이르고자 [발원]한다.(12.b)

#### 3.2.3.2.2.3.2 관(觀)

(e3.2.3.2.2.3.2.1) 수행자의 마음에 나타난 아미타불의 상호가 마음이 지어낸 것으로 실체가 없는 공이라고 통찰한다.

(q3.2.3.2.2.3.2.2) 스스로 집중해서 생각한다. 부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 또한 이르는 곳이 없다. 내가 생각한 것이 곧 드러나니, 마음이 부처를 구성해 만들어내고 마음이 스스로 마음을 보고, 부처의 마음을 본다. 이 마음으로써 부처의 마음을 보고 부처를 구성해서 만들어낸다. 마음은 스스로 그 마음을 알 수 없고 스스로 마음을 볼 수도 없다. 마음에 [대상에 대한] 분별상(分別想)이 있으면 어리석은 마음이 되고 이 상이 없으면 적멸이다. 이 진리는 보여줄 수 없다. 모든 것은 생각이 만들어낸 것으로 비록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취할 것이 없는 공임을 알아야 한다.(12.c)

### 3.2.3.3 반좌반행삼매(半坐半行三昧)

#### 3.2.3.3.1 의미

(e3.2.3.3.1.1) 반좌반행삼매에는 『대방등다라니경』에 근거한 방등참회와 『법화경』과 『보현관경』에 근거한 법화참회의 두 가지가 있다. 이 수행법은 수행의 과정에서 반은 돌고, 반은 앉아 사유하기 때문에 반좌반행삼매라고 했다.

(q3.2.3.3.1.2) 이는 두 개의 경전에서 나온다. 『대방등다라니경』(大方等陀羅尼經)은 “120바퀴를 돌고 돌기가 끝나면 앉아서 사유한다.”고 했다. 『법화경』은 “그 사람이 만약 돌거나 서서 『법화경』을 독송하고, 앉아서 이 경전을 사유한다면 내[普賢菩薩]가 여섯 개의 상아를 가진 흰 코끼리를 타고 그 사람 앞에 나타날 것이다.”고 했다. 그러므로 반행반좌(半行半坐)의 방법임을 알 수 있다.(13.a)

#### 3.2.3.3.2 수행방법

##### 3.2.3.3.2.1 방등참회(方等懺悔)

###### 3.2.3.3.2.1.1 몸

(e3.2.3.3.2.1.1.1) 방등참회는 밀교적인 색채가 매우 진해 몸과 입에 관련된 의례의 규정이 엄격하고, 주문을 외우는 데에도 특색이 있다.

(q3.2.3.3.2.1.1.2) 방등참회는 죄를 소멸하기 위한 수행법 중 가장 뛰어난 수행법이므로 엄밀하게 실천해야 한다. 방등참회를 실천하고자 하면, 신명(神明)의 증거가 있어야 하므로 먼저 열두 몽왕(夢王)을 구한다. 이 중 하나의 왕이라도 보면 방등참회를 실천해도 좋다. 한적한 장소를 골라 도량을 정돈한다. 향기로운 진흙으로 도량의 부지와 방 안팎을 바르고 원형의 단을 만들어 채색하고, 오색의 깃발을 걸고 해안향을 태우며 등불을 밝히고 고좌를 설치하여 스물네 가지의 존상을 권청한다. 이 경우 다른 존상을 권청해도 문제는 없다. 진심을 담아 음식을 놓고 법의와 신을 새로 갖추다. 새로 갖추 수 없다면, 옛날 것을 깨끗이 빨아 사용해도 무방하다. 도량에 들어갈 때 입거나 벗을 때 어지럽지 않도록 한다. 칠일

을 기한으로 하여, 정오 이후부터는 식사를 하지 않고 하루 세 번 목욕을 한다. 첫날 승려를 공양하는 것은 편리한 대로 한다. 내외의 계율에 특히 밝은 한 사람을 스승으로 초청하여 이십사계와 다라니주를 수계한 뒤 스승에게 자신의 죄를 말한다. 이 수행은 매달 팔일이나 십오일을 첫날로 삼아 칠일을 기한으로 실천해야 한다. 이 기한이 지나도 수행을 계속 하고 싶다면 해도 좋지만, 줄여서는 안 된다. 여러 명과 함께 실천하는 경우, 세속인과 함께 해도 문제는 없지만 그 수가 열 명이 넘지 않도록 한다. 세속인의 경우, 승려의 삼의(三衣)와 유사한 법의를 준비해서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13.a-b)

### 3.2.3.3.2.1.2 입

(q3.2.3.3.2.1.2.1) 입에 대해 말하겠다. 처음 다라니주 1편을 독송하여 마음의 준비를 한다. 첫날에는 이구동성으로 세 번, 삼보, 십불, 방등의 부모와 십법왕자를 부른다. 부르는 방법은 『국청백록』의 설명에 따른다. 부르는 일이 끝나면 향을 태워 삼업을 공양하고, 공양을 마친 뒤에는 앞에서 불렀던 삼보에 예배하고 예배를 마친 뒤에는 지극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죄과를 후회하면서 진술한다. 이것이 끝나면, 일어나 120회를 돈다. 돌 때에는 하나의 주문을 읽을 정도의 속도를 유지하고, 높지도 낮지도 않은 목소리로 독송한다. 이것이 끝나면, 십불 혹은 방등의 부모, 십법왕자에게 예배한다. 이것이 끝나면 앉아서 생각한다. 생각이 끝나면 일어나 독송하면서 돌고, 이것이 끝나면 다시 앉아서 사유한다. 이것을 반복해서 7일 동안 계속한다. 이 수행법을 두 번째 실천할 경우, 소청은 생략하지만 나머지는 그대로 해야 한다.(13.b)

### 3.2.3.3.2.1.3 마음

(e3.2.3.3.2.1.3.1) 지의는 의지관에서 몸과 입과 관련한 수행동작들 하나하나를 진리의 통찰과 관련된 수행법으로 재해석한다. 즉 그는 다라니의 독송과 같은 종교적 의례를 진리의 통찰과 관련해서 재해석했다. 그리하여 그는 밀교적인 성격이 강한 방등삼매를 원돈지관인 사중삼매 중의 하나로 설명했는데, 이는 그의 교학 체계가 갖는 포용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그가 수행론에서의 중심을 진리

를 통찰하는 관법에 두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q3.2.3.3.2.1.3.2) 몽왕을 구하도록 하는 것은 [空假]의 이관(二觀)으로 전방편(前方便)이다. 도량은 청정한 경계이다. 다섯 겹의 쌓거를 가려서 실상의 정미를 드러내는 것이고 또 선정과 지혜로 법신을 장엄하게 장식하는 것이다. 향을 바르는 것은 위없는 계율이다. 오색으로 덮는 것은 오음(五陰)을 관찰하여 자박(子縛)을 면하고 대자비를 일으켜 법계를 덮는 것이다. 원단이란 실상으로 부동(不動)의 자리이다. 비단의 기는 법계에서의 미혹을 뒤집어서 동출(動出)의 이해를 낳는 것이다. 깃발과 단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니 동출과 부동출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향과 등은 계율과 지혜이다. 고좌(高座)는 제법의 공함이다. 모든 부처는 이 공에 머문다. 이십사상(二十四像)은 역으로 순으로 십이인연을 관하는 각료지(覺了智)이다. 희찬(餽饌)은 무상, 고의 초로 조도관(助道觀)이다. 깨끗한 새 옷은 적멸인(寂滅忍)이다. 분노와 미혹이 두껍게 쌓인 것을 고(故)라고 한다. 성냄을 뒤집어서 인내를 일으키는 것을 신(新)이라고 한다. 칠일은 칠각(七覺)이다. 하루는 하나의 참된 진리이다. 세 번 씻는 것은 하나의 참된 진리를 관하는 것과 삼관을 닦는 것이 삼장(三障)을 제거하고 삼지(三智)를 깨끗이 함을 말한다. 하나의 스승은 하나의 참된 진리이다. 이십사계는 역순의 십이인연으로 도공계(道共戒)를 발한다. 주문은 착오 없는 대응을 확보하는 것이다.(13.c)

### 3.2.3.3.2.2 법화참회(法華懺悔)

#### 3.2.3.3.2.2.1 의미

(e3.2.3.3.2.2.1.1) 법화참회에는 『관보현보살행법경』(觀普賢菩薩行法經)에 근거한 유상행과 『법화경』 「안락행품」에 무상행 두 가지가 있다. 유상행은 독송과 같은 의례를 실천할 뿐 삼매에 들지 않는 반면, 무상행은 어떠한 의례를 통하지 않고 바로 삼매에 들어 진리를 통찰한다는 차이가 있다. 원래 법화참회를 창시한 자는 지의의 스승인 혜사였다. 혜사는 유상행보다 무상행을 중시했는데, 지의는 유상행에서 실천하는 육근참회를 진리를 통찰하기 위한 수행법으로 재해석함으로써 무상행과의 차이를 부정했다. 다시 말해 그는 유상행과 무상행이 진리를 통찰하는

묘증의 단계에서는 그 구분이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q3.2.3.3.2.2.1.2) 수행자가 현상을 따라 육근참회를 닦아서 깨달음에 들어가는 까닭에 유상안락행이라고 한다. 일체법이 공함을 관하는 것을 방편으로 삼는 자를 일러서 무상안락행이라고 한다. 묘증(妙證)의 그 때는 무상과 유상의 수행을 모두 버린다. 만약 이 의미를 이해한다면 두 경전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14.a)

### 3.2.3.3.2.2.2 수행방법

#### 3.2.3.3.2.2.2.1 몸과 입

(e3.2.3.3.2.2.2.1.1) 지의는 법화삼매의 수행법 중, 몸과 입에 대해서는 『법화삼매참의』(法華三昧懺儀)(T.46)1권을 참조하라고 하고, 그 자세한 설명을 생략했다. 법화삼매의 행법과 관련해서 『법화삼매참의』의 ‘明初入道場正修行方法第四’ 이후의 내용은, 몸과 입에 대해 열 가지로 설명한 『마하지관』의 내용과 대체로 일치한다.

(q3.2.3.3.2.2.2.1.2) 이 방법은 1. 도량을 깨끗이 한다, 2. 몸을 깨끗이 한다, 3. 삼업을 공양한다, 4. 부처를 청한다, 5. 부처에게 예배한다, 6. 육근을 참회한다, 7. 걸으면서 돈다, 8. 경을 독송한다, 9. 좌선한다, 10. 증득한 모습을 보인다. 『법화삼매행법』이라는 천태대사가 서술한 책 1권이 세상에 돌고 있는데, 수행자들이 매우 귀중하게 여긴다. 여기에 몸과 관련된 수행법과 입과 관련된 수행법이 자세히 나오므로, 이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시 설명하지 않겠다.(14.a)

#### 3.2.3.3.2.2.2.2 마음

(e3.2.3.3.2.2.2.2.1) 『법화삼매참의』와 『마하지관』이 몸과 입의 수행법에서 거의 동일하지만, 의지관에서는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법화삼매참의』는 지의가 와관사에 머물던 시기에 찬술한 저서이고, 『마하지관』은 그의 학문이 원숙한 경지에 이르렀던 후기의 저술에 해당한다. 『법화삼매참의』에서 지의는 법화삼매를 보현보살의 현전을 최고목적으로 하는

수행법으로 보고 그 현전하는 모습에 대한 설명에 머물렀던 반면, 관법을 수행의 중심에 둔 『마하지관』에서는 보현보살의 현전을 수행자가 증득하는 능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재해석했다. 이는 지의가 관법에 근거해서 밀교적 성격이 강한 방등참회를 원돈지관의 수행법으로 재확립했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q3.2.3.3.2.2.2.2.2) 지금 문장을 따라 관(觀)을 수행하여, 육아백상(六牙白象)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보살의 무루육신통(無漏六神通)을 말한다. 상아는 날카로움의 작용이 있으니 관통함이 매우 빠르다. 코끼리는 큰 힘이 있으니 법신의 무게를 표현한다. [...] 방망이가 코끼리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지혜가 수행을 인도하는 것을 나타낸다. 수레바퀴를 굴리는 것은 가(假)를 벗어나는 것을 나타낸다. 여의주는 중도를 나타낸다. 상아 위에 연꽃이 있는 것은 팔해탈(八解脫)이 선의 요체임을 나타낸다. 통찰은 선정의 작용이다. 체용은 서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상아의 끝에는 연꽃이 있고 연꽃에는 연꽃이 있는데 꽃은 묘인(妙因)을 나타낸다. 신통력으로 불국토를 깨끗이 하고 중생을 이익토록 하기 때문에 원인이라고 한다.(14.a-b)

### 3.2.3.4 비행비좌삼매(非行非坐三昧)

#### 3.2.3.4.1 의미

(e3.2.3.4.1.1) 비행비좌삼매는 『법화경』, 『청관음경』, 『대품반야경』, 『수능엄삼매경』, 『대집경』, 『열반경』, 『앙굴마라경』, 『대지도론』등의 여러 대승경전과 논서에 근거한 수행법으로, 『대품반야경』의 각의삼매와 남악혜사의 수자의삼매가 여기에 속한다. 비행비좌라는 이름은 선정의 전체를 사구에 근거해서 분별했기 때문으로, 실제로 몸의 자세는 행주좌와(行住坐臥)와 같은 모든 행위에 통한다. 지의의 비행비좌삼매, 즉 수자의삼매는 혜사의 수자의삼매를 계승하고 있지만, 그 의미는 보다 광범위하다. 먼저 그는 수자의삼매를 모든 몸의 자세나 환경을 대상으로 하여 실상의 진리를 통찰하는 수행법으로 정의하고, 앞에서 설명한 세 가지 삼매를 제외한 모든 수행법을 수자의삼매에 포함했다.



(q3.2.3.4.1.2) 위에서와 같이 일단 행과 좌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지금까지 설명했던 행과 좌의 의미와 다르다. 단지 4구를 이루기 위해서 비행비좌라고 했다. 사실은 행과 좌 및 모든 몸가짐에 적용된다. 남악해사는 수자의(隨自意)로 불렀으니 의식이 일어나면 곧 그 곳에서 삼매를 닦는 것이다. 『대품반야경』은 각의삼매(覺意三昧)라고 불렀다. 의식이 나아가는 곳을 모두 지각하고 반성하여 분명하게 이해한다. 비록 세 개의 이름이 있으나 실체는 하나의 가르침이다. 지금 『대품반야경』에 근거해서 이름을 해석하겠다. 각이란 비취 아는 것이다. 의는 마음의 작용이다. 삼매는 앞의 해석과 같다. 수행자는 심의 작용이 일어날 때 돌이켜 비취 관찰해도 그 마음이 움직여 전전하는 근원과 종말, 즉 오는 곳과 가는 곳을 볼 수가 없다. 각이란 이와 같은 의미이다.(14.b-c)

### 3.2.3.4.2 수행방법

(e3.2.3.4.2.1) 비행비좌삼매는 앞의 세 가지 수행법에 속하지 않는 모든 수행법을 망라하는데, 지의는 이를 크게 특정의 경전에 근거하는 약제경(約諸經)과 특정의 경전에 근거하지 않고 선한 마음, 악한 마음,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무기(無記)의 삼성(三性)을 대상으로 자유롭게 관찰하는 수행법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q3.2.3.4.2.2) 여기에는 약제경, 약제선, 약제악, 약제무기의 네 가지가 있다.(14.c)

#### 3.2.3.4.2.1 여러 경전에 근거하다

##### 3.2.3.4.2.1.1 의미

(e3.2.3.4.2.1.1.1) 비행비좌삼매는 앞의 세 수행법이 근거한 경전을 제외한 모든 경전에 나타나는 삼매법을 망라하기에, 다양한 경전들 속에서 나타난다. 그리하여 『마하지관』은 여러 경전들을 들어 비행비좌삼매에 대해 설명했지만,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請觀世音菩薩消伏毒害陀羅尼經』을 들어 경전에 근거한 수자의삼매의 실천 형태를 살펴보았다.

### 3.2.3.4.2.1.2 수행방법

#### 3.2.3.4.2.1.2.1 몸과 입

(q3.2.3.4.2.1.2.1.1) 조용한 장소를 선택해서 도량을 깃발, 덮개, 향, 등불로 장식하고 아미타불상, 관음보살과 세지보살상을 청해 4면에 두고 버들가지와 깨끗한 물을 둔다. 용변의 사이에는 몸에 향을 바르고 깨끗이 씻은 뒤 청결한 새 옷을 걸친다. 육제일을 첫날로 정해 정서향으로 몸을 두고 오채투지의 예를 통해 삼보와 칠불, 석가모니불, 아미타불, 삼다라니와 이보살들에게 예배한다. 그 뒤 꿇어 앉아 향을 태우고 꽃을 뿌리면서 정해진 법대로 일심으로 생각한다. 공양이 끝나면 몸과 마음을 다잡아 결가부좌하여 집중해서 호흡을 쉰다. 십식(十息)을 일념으로 하고 십념(十念)이 되면 일어나 향을 태우고 중생을 위해 세 번, 앞에서 말한 삼보를 독송한다. 이것을 마치면, 삼보의 이름을 세 번 칭하고, 나아가 관세음의 이름을 칭한다. 합장하여 사행계를 독송한다. 독송이 끝나면 다시 세 편의 주문을 외우고, 이것을 1회 혹은 7회 할지는 시간의 진행 상황을 보고 판단한다. 적당한 때에 주문의 독송을 마치고, 죄과를 진술하여 참회하고 자신이 범했던 죄를 기억하여 고백함으로써 마음에서 씻어 낸다. 다음은 앞에서 청했던 삼보 외에 예배한다. 예배를 마친 뒤 한 사람이 고좌(高座)에 올라 이 경문을 부르거나 독송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잘 듣는다. 오시(午時)와 초야(初夜)에는 이와 같이 수행하지만, 다른 때에는 통상적인 의식을 따른다.(14.c-15.a)

#### 3.2.3.4.2.1.2.2 마음

(e3.2.3.4.2.1.2.2.1) 마음에 대한 지관법에서 육근, 육경, 육식의 세 가지 대상과 지, 수, 화, 풍의 사대를 사구추검을 통해 본래 공임을 논증하였다. 나아가 『마하지관』은 『청관음경』이 설명하는 여섯 종류의 관음을 수행자가 도달하는 경지인 이십오삼매의 상징으로 설명했다. 이는 앞에서 보현보살의 현전을 묘증(妙證)의 단계에 얻게 되는 공덕의 상징으로 재해석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서 주의해야 할 점이다. 이와 같은 상징론적 해석은 지의의 관음신앙의 근본을 이루는 사상으로서 그의 관음교학의 커다란 특색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q3.2.3.4.2.1.2.2.2) 육관세음은 곧 25삼매(三昧)이다. 대비는 무작삼매이고, 대자는 심락삼매(心樂三昧)이고 사자는 불퇴삼매, 대광은 환희삼매, 장부는 여환(如患) 등의 네 가지 삼매이고, 대범은 부동(不動) 등의 17삼매이다.(15.b)

### 3.2.3.4.2.2 세 가지 마음에 근거하다

#### 3.2.3.4.2.2.1 수행방법 - 사운심(四運心)

(e3.2.3.4.2.2.1.1) 세 가지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수자의삼매란 선, 악, 무기의 세 가지 일상적인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바로 그것을 대상으로 하여 관찰하는 수행법이다. 수자의삼매는 앞의 세 가지 삼매법과 달리 몸, 입과 관련된 고정된 수행법이 없다. 대신 수자의삼매는 순간순간 끊임없이 변화하는 일상적인 마음을 미념(未念), 욕념(欲念), 념(念), 념이(念已)의 사운심(四運心)으로 분별해서, 이들이 실체가 없는 공임을 통찰하는 수행법을 가리킨다. 즉 수자의삼매는 몸, 입과 관련된 고정된 수행법은 없지만, 사운심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집중하여 마음의 본성이 공임을 통찰하는 수행법이라고 할 수 있다.

(q3.2.3.4.2.2.1.2) 대개 심, 의, 식은 형체가 없어서 볼 수가 없다. 그러나 네 가지 모습에 근거해서 분별하면 미념(未念), 욕념(欲念), 념(念), 념이(念已)이라고 할 수 있다. 미념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마음이다. 욕념은 일어나고자 하는 마음이다. 념은 바로 대상에 관계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대상에] 충만하게[滿] 머문다. 념이는 대상에 관계하는 마음이 사라진 것이다. 만약 이 네 가지 마음의 모습을 완전히 알면 곧 하나의 모습[一相]인 무상(無相)경계에 들게 된다.(15.b)

#### 3.2.3.4.2.2.2 여러 선한 마음에 근거하다

(e3.2.3.4.2.2.2.1) 약제선은 우리의 일상적인 마음 중, 선한 마음에 근거하여 마음의 본성을 통찰하는 수자의삼매법으로, 이와 관련해서는 주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와 같은 육바라밀을 수행하는

마음을 들 수 있다. 수행자는 육바라밀을 수행할 때의 마음에 대해, 이 마음을 4운심으로 분별하고 이를 관찰함으로써 선한 마음이 본래 실체가 없는 공임을 통찰한다. 『마하지관』은 선한 마음과 관련해서 육바라밀 전체에 걸쳐 하나하나 설명을 자세히 했지만, 여기서는 보시바라밀 중 보시의 대상인 재물[色]과 관련하여 마음을 관찰하는 방법에 대해 대표적으로 살펴보았다.

(q3.2.3.4.2.2.2.2) 다음은 좋은 일을 밝아 본다. 좋은 일은 많으나 또 육바라밀에 근거해서 설명해 보겠다. 육근의 대상이 있으면 반드시 육수(六受)를 버려야 한다. 만약 재물이 없으면 반드시 육작(六作)을 운용해야 한다. 사(捨)와 작(作)은 함께 논하면 열두 가지 일이 된다. 처음에 눈이 색을 지각할 때를 논하겠다. 이 때 미견, 육견, 견, 견이의 사운심 중 어디에도 본다는 것은 없다. 그렇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또 색을 지각하는 마음을 돌이켜 관찰하면, [이 마음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밖에서 온다면 나를 참여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다. 안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다. 안에서 온다면 인연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이미 안과 밖 어느 하나에서 지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중간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항상 스스로 있는 것도 아니다. 색을 지각하는 행위는 반드시 공임을 알아야 한다. 보이는 대상은 허공과 같고 색을 보는 자도 맹인과 같다. 의(意)가 법을 대상으로 할 때 [생각할 때] 미연(未緣), 욕연(欲緣), 연(緣), 연이(緣已)의 사운심에서 모두 얻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법을 지각하는 마음을 돌이켜 관찰해보면 밖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안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다. 법이라는 대상도 없다. 법이 없는 것은 모두 허공과 같다. 이것이 여섯 가지의 지각에 대해서 관찰하는 것이다.(15.c)

### 3.2.3.4.2.2.3 여러 악한 마음에 근거하다

(e3.2.3.4.2.2.3.1) 수자의삼매는 수행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세계와 관계할 때 일어나는 마음을 네 가지 마음으로 분별해서 그 본성을 통찰하는 수행법이다.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마음에는 선한 마음만 있지 않고, 탐욕, 분노와 같은 악한 마음도 있다. 악한 마음 또한 사운심으로 분별

관찰함으로써 마음의 본성을 통찰하는 것이 악한 마음에 근거한 수자의 삼매법이다. 이는 번뇌즉보리, 중생즉불, 생사즉열반이라는 원교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번뇌가 진리의 통찰을 막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에 성립한다.

(q3.2.3.4.2.2.3.2) 이와 같이 관찰할 때 감각 대상에 대해서 받는 자도 없고 인연에 대해서 업을 짓는 자도 없다. 감각 대상, 지각하는 자, 감각 기관, 인연에 대해서 [공과 가로 함께] 비추는 것은 분명하다. [탐욕을] 환화와 같은 가로, 공으로, 법성으로 보는 것은 서로 방해가 되지 않는다. 왜 그러한가? 만약에 폐악이 법성에게 방해가 된다면 법성은 반드시 파괴되어야 한다. 만약 법성이 폐악에게 방해가 된다면 폐악은 일어날 수가 없다. 폐악이 곧 법성임을 알아야 한다. 폐악이 일어나면 법성도 일어난다. 폐악이 멈추면 법성도 멈춘다. 『제법무행경』(諸法無行經)은 말했다. “탐욕이 곧 도이다. 분노, 어리석음 또한 도이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과 같은 세 가지 법에 모든 불법이 갖추어져 있다. 만약 사람이 탐욕을 떠나서 다시 보리를 구하고자 한다면, 이는 하늘과 땅 사이의 거리에 비유할 수 있다.” 탐욕은 보리를 [구하는 토대이다.](18.a)

### 3.2.3.4.2.2.3.1 수행방법

(e3.2.3.4.2.2.3.1.1) 일반적으로 분노와 같은 악한 마음은 마음을 어지럽게 하여 진리의 통찰을 방해하므로, 진리의 통찰을 위해서는 먼저 분노를 제거해서 마음을 고요히 해야 한다고 이해한다. 이에 대해 『마하지관』은 분노의 제거가 아니라, 사운심을 통해 분노의 본성을 통찰하면 자연히 분노는 소멸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수자의삼매가 번뇌를 떠나 보리가 있지 않다는 번뇌즉보리에 근거해서 성립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q3.2.3.4.2.2.3.1.2) 만약 사람의 성품에 탐욕이 많으면 더러움과 탁함이 맹렬하고 왕성하다. 비록 조절하여 굴복시킨다고 해도 더욱 증장하여 임의대로 뛰쳐나간다. 왜 그러한가? 폐단이 일어나지 않으면 관찰을 실천할 수도 없다. 이는 낚시를 할 때 고기가 강하고 줄이 약해 싸워 끌 어당길 수 없을 경우, 낚시 바늘을 입에 물린 채 두면, 거리에 따라 혹은

부침(浮沈)에 따라 오래지 않아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예와 같다. 악폐를 대상으로 한 관찰 또한 이와 같다. 폐단은 나쁜 물고기이다. 관(觀)은 먹이를 달고 있는 낚시 바늘과 같다. 만약 고기가 없다면 먹이를 물고 있는 낚시 바늘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고기가 많을수록 더욱 좋아진다. 모든 욕망에 대해, 먹이를 달고 있는 낚시 바늘로 따라 갈 뿐 버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폐악은 오래지 않아 조절하는 대로 따르게 된다. 무엇이 관인가? 만약 탐욕이 일어나면 탐욕에 네 가지 모습이 있음을 잘 관찰하는 것이다.(17.c-18.a)

### 3.2.3.4.2.2.4 무기(無記)의 마음에 근거하다

(e3.2.3.4.2.2.4.1) 선과 악으로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무기의 마음에 근거해서 마음의 본성을 관찰하는 삼매법이다. 사람의 성품 중 어떤 근거는 선을 행하지도 않고, 악을 행하지도 않는다. 이러한 경우는 무기의 마음 그것을 대상으로 수자의삼매를 실천해야 비로소 이러한 사람도 세간을 벗어날 수 있는 인연을 닦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마하지관』은 선과 악으로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마음, 즉 무기의 마음에 근거한 수자의삼매를 설명했다.

#### 3.2.3.4.2.2.4.1 수행방법

(q3.2.3.4.2.2.4.1.1) 무기의 마음을 관찰하되 선·악과 같은지, 다른지에 대해 관찰한다. 같으면 무기가 아니다. 다르다면 분별이 멀하면 무기가 생기는가? 분별이 멀하지 않고 무기가 생기는가? 분별이 멀하고 또 멀하지 않고서 무기가 생기는가? 무기가 멀하지도 않고 멀하지 않는 것도 아니면서 무기가 생기는가? 분별을 구해도 얻을 수가 없다. 하물며 무기는 말할 필요도 없다. 분별과 같은가? 다른가? 같지 않기 때문에 합이 아니다. 다르지 않기 때문에 산(散)이 아니다. 합이 아닌 까닭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산이 아니기 때문에 멀하지도 않는다. 또 열두 가지의 현상을 두루 밝아 보아 어디에서 무기가 생기는가? 누가 무기를 낳는가? 무엇이 무기인가? 이와 같이 관찰할 때 허공의 상과 같이 [空寂해진다.](18b-c)

### 3.3 사종삼매(四種三昧)의 관계

#### 3.3.1 수행의 권유와 관련해서

(e3.3.1.1) 사종삼매는 진리의 통찰[리관]을 통해 해탈에 이르는 수행법이라는 점에서 모두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그러나 『마하지관』은 상좌, 상행, 반좌반행삼매에 대해서 이러한 수행이 가져오는 공덕을 설명하고 나아가 열심히 수행할 것을 권했던 반면, 수자의삼매에 대해서는 수행을 따로 권하지 않았다. 권행에서의 이러한 차이는 전자가 번뇌의 습기를 다스리는 의도된 수행방법이 있고 이러한 형식을 통해 진리의 통찰을 주장했던 반면, 수자의삼매는 의도된 수행방법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분노나 어리석음과 같이 도 아닌 것[非道]에서 불도를 통달할 수 있다고까지 주장했던 것에 따른다. 비도에서 불도를 통달한다는 주장은 자칫 계율을 부정하고 나아가 수행 자체를 무시할 수 있는 위험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경계하기 위해서 수자의삼매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q3.3.1.2) 반드시 이것을 설명해야 한다. 사종삼매 중, 앞의 세 가지 수행법에 대해서는 힘써 수행할 것을 권한다. 이는 실제로 세 가지 수행법들이 하나하나 실천하기 어렵기 때문에 담기를 권한다. 수자의삼매는 빛을 부드럽게 하여 악에 드는 것으로, 일단은 쉬운 듯하나 경계하고 삼가해야 한다. 대항탕을 마시는 것과 같으니 먼저 뜨거운 물을 마셔 그 독성을 완화시키는 것과 같다.(19.b)

#### 3.3.2 수행방법의 다양함과 관련해서

(e3.3.2.1) 『마하지관』은 지의가 활약하던 당시, 중국인들이 실천하고 있던 대·소승의 다양한 수행법들을 사종삼매로 정리하고 이를 원돈지관으로 정의했다. 지의는 좌선, 염불, 독경, 참회와 같은 형식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모두 리관에 근거해서 재해석함으로써 하나의 원돈

지관으로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리관은 진리를 통찰하기 위한 수행법이다. 이는 원돈지관의 핵심이 리관에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진리는 오직 하나다. 그렇다면 진리를 통찰하기 위해 이와 같이 많이 수행법들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지의는 이에 대해 수행자의 근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진리에 도달하는 방법 또한 다양해야 한다고 답한다.

(q3.3.2.2) 가난한 사람이 적은 것을 얻은 뒤 바로 만족하여 다시 좋은 것을 원하지 않는 것과 같다. 한 종류의 수행법으로만 마음을 관찰한다면 마음에 여러 가지의 상태가 있을 경우 그 때는 어떻게 하겠는가? 이것은 자기의 수행에도 손해이고 만약 남을 교화하는데 쓰면 타인의 근성은 섞여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또한 손해이다.] 한 사람의 번뇌도 이미 무량한데 하물며 많은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다. 비유하자면 약사가 모든 약을 갖고 있으면서 모든 병을 헤아리는 것과 같다. 한 종류의 병자에게 반드시 한 종류의 약을 써서 하나의 병을 치료한다면 약사가 많은 약을 갖고 있는 것은 이상하다. 너의 질문은 이와 비슷하다. 번뇌라는 마음병은 무량하고 끝없다. 한 사람에게서도 그러하고 많은 사람에게서도 그러하다.(19.c)



## 4. 방편

(e4.1) 지의는 방편을 선정에 들어가기 위해 실천하는 도구적 수행법으로 정의했다. 그는 이를 스물다섯 가지의 법으로 정리했는데, 이것이 십경십승의 관법과 더불어 원돈지관의 정규 수행 체계를 이루는 이십오방편(二十五方便)이다. 이십오방편은 정영해원의 남도지론계의 학설에서도 보이듯이, 지관수행의 전방편으로서 지의가 활약하던 당시에는 이미 불교계의 주목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지의는 이를 원돈지관의 정규 수행체계 속에 포함시킴으로써 그 중요성을 한층 강화했다. 이는 지의가 원돈지관의 체계를 밝히는 『마하지관』의 저술을 통해, 그가 활약하던 당시 돈오선을 주장하던 제선사(諸禪師)들을 비판함으로써 엄숙한 수행기풍을 재확립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마하지관』의 이러한 서술 배경과 그 동기를 고려할 때, 이십오방편은 십경십승의 관법과 더불어 지의의 원돈지관의 수행 체계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평가할 수 있다.

### 4.1 방편의 의미

#### 4.1.1 일반적 의미

##### 4.1.1.1 선교(善巧)

(q4.1.1.1.1) 방편이란 목적에 부합하는 최선의 방법(善巧)이라는 의미이다. 미묘한 선근에 근거해서 선교방편으로 수행하면, 무수한 행위를 성취하고 올바른 이해를 일으켜 보살의 지위에 들어갈 수 있다. 『대지도론』은 “아주 작은 보시, 작은 지계를 통해 성문이나 벽지불보다 더 높은 지위에 들 수 있다.”고 했다. 이는 선교의 의미이다.(35.c)

#### 4.1.1.2 화합(和合)

(q4.1.1.2.1) 또 방편은 많은 조건의 화합이라는 의미이다. 여러 조건이 화합함으로써 원인이 되고, 또 잘 화합함으로써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대품반야경』에서 “여래의 몸은 하나의 원인 하나의 조건에 따라 생기지 않는다. 무수한 공덕을 통해 여래의 몸은 생긴다.”고 했다. 이는 화합으로 인한 공덕을 설명하는 것으로, 방편의 의미이다.(35.c)

#### 4.1.2 원교에서의 방편의 의미

(e4.1.2.1) 지의는 진리를 통찰하기 위한 수행법으로서 십경십승의 관법을 주장하고, 이에 대해 이십오방편을 관법에 앞서, 관법을 실천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주장했다. 그 결과 십경십승의 관법을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진실행으로, 이십오방편을 깨달음과 무관한 방편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지의는 진실행과 방편행의 의미를 깨달음과의 멀고 가까움[遠近]에 근거해서 재해석함으로써, 이들의 의미를 고정화해서 설명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십경십승의 관법은 진리를 통찰하기 위한 수행법이라는 점에서 진실행이지만, 깨달음과의 거리에 기준해서 보면, 이십오방편과 십경십승의 관법은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수단 즉 방편행이다. 이들은 단지 진리에 가까이 있는가, 멀리 떨어져 있는가에 근거해서 전자는 원방편으로 후자는 근방편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지의에게서 이십오방편은 원방편으로서, 근방편인 십경십승의 관법과 더불어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수행자가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수행법의 의미를 갖는다.

(q4.1.2.2) 원교의 경우, 가명과 오품제자의 관행위(觀行位) 등은 진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원방편이라고 한다. 육근청정은 진실과 가깝기 때문에 근방편이라 한다. 지금 오품제자 이전인 가명의 지위를 기준으로 해서 스물다섯 가지의 법을 원방편으로 하고 열 가지의 경계(十境)를 근방편으로 한다. 근방편이란 가로와 세로에 걸쳐 십승의 관법을 갖추 관(觀)을 성취하고 진실과 유사한 깨달음을 일으키는 것을 가리킨다.(35.c)

## 4.2 이십오방편(二十五方便)의 형태

(e4.2.1) 『마하지관』에서의 이십오방편은 『대지도론』의 영향 하에 성립했기 때문에 지관을 실천하기 위한 예비적 단계로서의 일반적 의미를 갖지만, 한편으로 『마하지관』은 이십오방편을 관법과 관련해서 그 의미를 재해석했다. 전자는 사상(事相)으로서의 이십오방편이고, 후자는 리관(理觀)으로서의 이십오방편이다. 이는 이십오방편에 대한 『마하지관』의 이해가 이중적임을 보여준다. 여기서는 이십오방편이 갖는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도록 가능한 한에서 인용했다. 사상과 리관의 구분과 설명이 없더라도 방편에 대한 『마하지관』의 설명에는 이 두 가지 측면이 모두 나온다는 것을 먼저 지적해 둔다.

(q4.2.2) 지금 원방편에 대해 설명하면 다시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구오연[具五緣: 다섯 가지의 조건을 갖추다], 2. 가오욕[呵五欲: 다섯 가지의 욕망을 꾸짖다], 3. 기오개[棄五蓋: 다섯 가지 덮개를 버린다], 4. 조오사[調五事: 다섯 가지 일을 조절한다], 5. 행오법[行五法: 다섯 가지 법을 실천한다]이다.(35.c)

### 4.2.1 다섯 가지 조건을 갖추다 [具五緣]

(q4.2.1.1) 다섯 가지의 조건을 갖추다는 것은 1. 지계청정(持戒淸淨: 계를 청정하게 지키다), 2. 의식구족(衣食具足: 옷과 음식을 갖추다), 3. 한거정처(閑居靜處: 고요한 곳에 머무르다), 4. 식제연무(息諸緣務: 일상의 업무를 쉬다), 5. 득선지식(得善知識: 선지식을 만나다)로 정리할 수 있다.(36.a)

#### 4.2.1.1 지계청정(持戒淸淨)

(e4.2.1.1.1) 지의는 계율의 준수를 특히 강조했다. 그가 활약할 당시, 수행승들 중에는 돈오선을 강조하여 자유로운 증득을 주장하고 기존의 수행법들이나 경전의 가르침을 무시함으로써 과계를 행하고, 악을 스

스럼없이 실천하는 이들이 많았다. 이는 불교의 타락을 초래했고, 결국 북주폐불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지의는 이러한 불교계의 폐단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계율의 준수를 강조했다. 나아가 지계를 관법과 관련시켜 원돈지관의 체계 속에 재확립함으로써, 돈오선에 일대 수정을 가했다.

#### 4.2.1.1.1 계명(戒名)

##### 4.2.1.1.1.1 성계(性戒)

(q4.2.1.1.1.1) 먼저 계율의 이름에 대해 설명하겠다. 경론에 따라 여러 가지의 설명이 있지만 『대지도론』은 불결계(不缺戒), 불과계(不破戒), 불천계(不穿戒), 부잡계(不雜戒), 수도계(隨道戒), 무착계(無著戒), 지소찬계(知所讚戒), 자재계(自在戒), 수정계(隨定戒), 구족계(具足戒)의 열 가지로 설명했다. 이들은 성계(性戒)로서 계율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다. 『대지도론』은 “성계란 계율로서, 몸, 입과 관련된 여덟 가지의 계율이다. 즉 몸의 세 가지, 입의 네 가지에 불음주(不飲酒)를 더한 것으로, 깨끗한 생활방식을 통해 마음을 보호할 수 있다.” (36.a)

##### 4.2.1.1.1.2 객계(客戒)

(e4.2.1.1.1.2.1) 성계는 부처가 이 세상에 나오기 이전부터 범부들이 실천했던 계율로서 구계(舊戒)라고도 한다. 이에 대해 부처가 이 세상에 나와 비로소 새롭게 성립하는 계율을 신계(新戒)라고 하고, 또 본계에 대해 객계라고도 한다.

(q4.2.1.1.1.2.2) 여기에서는 삼귀(三歸), 오계(五戒), 이백오십계(二百五十戒)를 신계라고 한다.(36.a)

##### 4.2.1.1.1.3 성계와 객계의 관계

(e4.2.1.1.1.3.1) 성계는 부처가 이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있었던 계

울이기 때문에, 비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구족계는 아니다. 다시 말해 비구는 객계를 받아서 된다. 그러나 성계를 지킨 이도 부처의 허락을 받으면 비구가 될 수 있다. 구족계와 관련해서 성계와 객계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지계(持戒)와 범계(犯戒)에 대한 결과도 다르다. 즉 성계는 수계와 상관없이 범하면 죄가 되고 지키면 선이 되지만, 객계는 수계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 즉 객계는 받아들여 지키면 복을 얻고 범하면 죄가 되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복도 없고 범해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깨달음과 관련해서 객계가 중요하지만, 성계는 만약 범하게 되면 재가자들의 도덕적인 삶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출가자들의 수행도 방해한다. 따라서 성계는 모든 계율의 바탕이 되며, 해탈하기 위한 단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q4.2.1.1.1.3.2) 성계를 범해 얻는 죄는 우바세계도 방해하므로, 구족계를 방해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성계가 청정한 것이야말로 계를 성취하는 근본이며, 해탈하기 위한 최초의 조건이다.(36.b)

#### 4.2.1.1.2 계율의 의미

(e4.2.1.1.2.1) 지의는 계율의 의미를 크게 사계(事戒)와 리계(理戒)로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리계는 단순히 악을 제거하고 선을 지키기 위한 계율이 아니라, 관심의 대상으로서 진리를 통찰하기 위한 근거이다. 계율에 대한 지의의 이러한 설명은 그의 교학체계가 진리를 통찰하기 위한 관법을 중심으로 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 4.2.1.1.2.1 사계(事戒) - 현상으로서의 계

(e4.2.1.1.2.1.1) 수행자는 수행계위에 따라 지켜야 할 계율의 내용이 각각 다르다. 이에 근거한 계율의 의미를 지의는 현상적 의미의 계율 즉 사계(事戒)로 정의했다.

(q4.2.1.1.2.1.2) [성계 중] 앞의 불결계, 불파계, 불천계는 율의계로

뭉을 수 있다. 선을 지키고 악을 막는다는 의미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청정하게 지키기 때문에 율의계라고 한다. 마음이 어지러운 범부라도 이 계율은 지킬 수 있다. 부잡계는 선정을 유지해서 망령되게 행동하지 않고, 몸과 입이 고요하여 삼업이 모두 청정해지기 때문에 선정과 함께하는 계율[定共戒]이라고 한다. 선정에 들어가면 자연히 조절되며, 선정으로부터 나와도 몸과 입의 행위가 유연하여 어지러움이 없다. 범부라도 선정에 들면 이 계율을 지킬 수 있다. 수도계는 초과에서 진제를 보고 진제를 발해서 성인이 된다. 성인이 지키는 계율로서 범부가 지키는 계율과 다르다. 무착계는 삼과인이 지키는 계율로서 초과인이 지키는 계율과 다르다. 지소찬계와 자재계는 보살이 이타행을 할 때 지키는 계율로서 이승인이 지키는 계율과 다르다. 수정계와 구조계는 대근성인이 지키는 계율로서 통교의 육도보살이 지키는 계율과 다르다. 범부와 이승인은 말할 필요도 없다.(36.c-37.a)

#### 4.2.1.1.2.2 리계(理戒) -진리로서의 계

(e4.2.1.1.2.2.1) 리계는 각각의 계율들을 마음을 관찰하는 관법과 관련해서 재해석한 것이다.

(q4.2.1.1.2.2.2) 진리를 관찰하는 관심에 근거해서 지계를 설명하면, 10계는 모두 관심으로 포섭할 수 있다. 먼저 십계는 다음 네 가지 의미로 뭉을 수 있다. 불결계, 불과계, 불친계, 부잡계의 네 개는 ‘인연에서 생긴 것’이므로, 모두 관찰의 대상이 된다. 다음의 수도계, 무차계 두 개는 ‘인연에서 생긴 것은 모두 공하다’고 관찰하므로 공관(空觀)의 지계이다. 지소찬계와 자재계 두 개는 ‘인연에서 생긴 것은 곧 가이다’고 관찰하므로 가관(假觀)의 지계이다. 마지막으로 수정계와 구조계 두 개는 ‘인연에서 생긴 것은 곧 중이다’고 관찰하므로 중관의 지계이다.(37.a)

#### 4.2.1.1.2.3 사계와 리계의 관계

(q4.2.1.1.2.3.1) 사계의 관점에서 앞의 네 개의 계율을 지키려고 해도 마음에 잡념이 있으면 마음먹은 대로 계율을 지킬 수 없다. 이는 부서진 그릇과 같아서 집착하는 견해를 가진 자가 악을 만나면, 계율을 지킬

수 없는 것과 같다. 심을 관찰하여 뒤의 여섯 개의 계율을 지키면, 진리를 분명하게 보게 되어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경우 악연을 만나도 계율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다. 리계가 흔들리지 않으면, 사계는 자연히 이루어진다. 『유마경』은 “이와 같이 할 수 있다면, 이는 잘 이해한 것이고 또한 계율을 잘 지킨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리계와 사계의 관계를 설명한 말이다.(38.a)

#### 4.2.1.1.3 범계(犯戒)

##### 4.2.1.1.3.1 범계의 원인

###### 4.2.1.1.3.1.1 애(愛)

(q4.2.1.1.3.1.1.1) 애욕의 나찰이 ‘당신을 편안하게 열반에 들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욕망에 대한 만족을 열반으로 주장하는 것이다. 굶주린 사람이 음식물을 얻는 경우, 가난한 사람이 보물을 얻는 경우, 원숭이가 술을 얻는 경우를 안락을 얻는다고 하고, 이러한 안락을 열반이라고 하여 수행자를 유혹한다. 이러한 애욕의 나찰의 유혹에 빠져 사중(四重)의 죄악을 범하면, 이는 부남을 모두 나찰에게 주는 것과 같다. 이것이 계율을 범하는 모습이다.(38.a)

###### 4.2.1.1.3.1.2 견(見)

(e4.2.1.1.3.1.2.1) 계율의 위반은 진리에 대한 잘못된 견해에 따른다. 특히 지의는 잘못된 이해 중, 공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강조했다. 이는 당시의 수행승들이 선과 악을 부정하고 일체의 수행을 무의미한 것으로 보고 갖은 폐해를 일으켰던 것은 공에 대한 이들의 잘못된 견해에 근거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q4.2.1.1.3.1.2.2) 악견이란 공에 대해 이해하여 작은 지해가 열린 경우, 이 마음을 사표로 삼고 무생(無生)을 깨달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견해를 가진 마음이 강해지면 모든 법을 부정하여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다고 한다. 세간의 인과와 불세간의 인과도 부정한다. 『법화경』에서 “혹은 인육을 먹고, 혹은 개고기를 먹는다.”라는 말은 이 의미이다. 정견과 의

레, 청정한 생활을 비판하고 무분별한 생각을 일으켜 ‘무엇은 유죄이고 무엇이 무죄라고 분별하는 것이야말로 장애를 일으키는 생각이며, 이러한 장애가 있는 것은 진실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 또 탐욕이라도 불안과 장애를 느끼지 않으면 이것이야말로 보리이며 진실이고 나머지는 모두 허망한 소리’라고 한다.(38.b-c)

#### 4.2.1.1.4 참회

##### 4.2.1.1.4.1 의미

(e4.2.1.1.4.1.1) 계율의 파괴는 지관수행을 방해해서 선정과 지혜의 발생을 막기 때문에, 이 경우 죄를 청정하게 하는 참회가 필요하다. 지의는 참회를 계율의 파괴로 인해 발생하는 잘못에 대한 참회[事懺]와, 관법을 통해 죄 자체의 공함을 통찰하는 참회 즉 리참(理懺)으로 구별하고 전자는 소승과 대승에 공통하지만 후자는 대승에게만 있는 가르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의가 참회 또한 진리를 통찰하기 위한 하나의 관법으로 이해했다는 것을 말해 준다.

(q4.2.1.1.4.1.2) 이와 같이 열 가지의 방법으로 참회를 실천하면 삼제(三諦)를 깊이 관찰할 수 있다. 여기에 사법을 더해 깊고 진중한 마음으로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으면 지금까지 행한 악업을 참회할 수 있다. 이것을 제 의의 건강한 아이라고 한다. 이들이 사(事)와 리(理)의 두 가지 참회법이다. 불도에 지장을 주는 죄과가 소멸하고 계율이 청정해지면 삼매가 현전하여 지관이 개발된다.(41.b-c)

##### 4.2.1.1.4.2 수행방법

(e4.2.1.1.4.2.1) 지의는 대승의 참회방법으로서 사종삼매를 주장했다. 사종삼매를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은 순류의 열 가지 마음을 알아 그 잘못을 명확히 하고 역류의 열 가지 마음을 전개해서 이를 대치해야 한다. 순류와 역류 스무 가지 마음은 모든 참회에 일관하는 근본이다.



#### 4.2.1.1.4.2.1 순류(順流)의 열 가지 마음

(e4.2.1.1.4.2.1.1) 순류 열 가지 마음이란 한 순간의 무명심이 죄악생사로 전개해 가는 측면을 가리키는 것으로, 무명혼암심, 순악우심, 무수희심, 종자삼업심, 편일체적기악심, 상념악사심, 부장죄심, 불외악도심, 무참무괴, 일천제심의 열 가지이다.

(q4.2.1.1.4.2.1.2) 열 가지 마음이 생사의 흐름을 좇아 전도하여 악을 짓는다. 뒷간의 벌레가 뒷간을 좋아하여 그 어리석음을 눈치 채지 못하는 것과 같다. 셀 수 없이 악을 쌓아 사중, 오역(五逆)의 중죄를 짓고 마침내 절망적인 일천제가 된다. 이와 같이 생사의 고뇌는 한계가 없다.  
(40.a)

#### 4.2.1.1.4.2.2 역류(逆流)의 열 가지 마음

(e4.2.1.1.4.2.2.1) 역류의 열 가지 마음은 정신인과심, 자괴극책심, 포외악도심, 발로심, 단상속심, 발보리심, 수공보과심, 수호정법심, 염시방불심, 관죄성공심으로, 제법실상을 관찰하여 죄의 본체가 공임을 통찰하는 것이다.

(q4.2.1.1.4.2.2.2) 열 번째는 죄의 본성은 공이라고 관찰하는 것이다. 탐욕, 진애, 어리석은 마음은 모두 적정에 이르는 문이라고 깨닫는다. 탐욕과 진애가 일어난다고 해도 이들은 어디에 있는가? 이들은 망념 중에 있을 뿐이다. 망념은 전도에 근거해서 발생하고 전도는 신견(身見)에 따르고, 신견은 아견에 근거해서 발생한다. 이 아견은 실체가 없다. 모든 곳에서 찾아도 ‘나’를 얻을 수 없다. 나의 마음은 이와 같이 공이기 때문에 죄와 복은 실체가 없다. 이와 같이 깊이 죄와 복의 참된 모습을 깨달으면, 시방세계의 모든 존재를 비추어 이 공에 대한 이해를 마음과 상응시킬 수 있다. 이는 해가 나오면 아침 이슬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과 같다. 모든 마음은 적정이다. 이와 같이 모든 마음이 적정임을 아는 것이 무명으로 인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는 것이다.(40.b-c)

#### 4.2.1.2 의식구족(衣食具足)

(e4.2.1.2.1) 옷과 음식은 작은 것 같지만 수행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몸이 단정해지면 도를 행할 수 있고, 도를 행할 수 있으면 근본이 확립 되기 때문이다. 옷은 인간과 교유하지 않는 경우의 상인(上人), 삼의(三衣)의 중인(中人), 추운 나라의 경우의 하사(下士)의 세 가지 이다. 음식은 채집하는 경우, 탁발, 공양의 세 가지이다. 지의는 옷과 음식에 대해서 무엇을 입고, 입지 말아야 하는가, 혹은 무엇을 먹고 먹지 말아야 하는가와 같이 현상적인 규율과 관련한 설명에 머무르지 않고, 관법과 관련해서 수행과 음식을 갖추는 의미를 재해석했다.

(q4.2.1.2.2) 이 법회와 선열의 음식을 통해 모든 가르침을 설명하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모두 동일한 맛이 되며, 하나의 색, 하나의 향도 모두 중도에 부합한다. 중도의 가르침은 모든 가르침을 갖추기 때문에 배불리 먹었다고 하고, 다른 것은 먹지 않았다고 한다.(42.b)

#### 4.2.1.3 한거정처(閑居靜處)

(e4.2.1.3.1) 사종삼매중, 수자의삼매를 제외한 세 가지의 삼매는 삼매를 실천하기 위한 특별한 장소를 요구한다. 다시 말해 일상적인 생활 공간에서는 마음을 고요히 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요한 곳을 찾아 거기서 수행해야 한다. 여기서 조용한 곳이란 심산유곡, 두타행에 적합한 곳, 정사의 가람이다. 그러나 지의는 조용한 곳을 문자대로 산림에 은거하면서 은밀하게 방에 몸을 숨기는 것으로 설명하지 않고 진리를 통찰하는 관법과 관련해서 재해석했다.

(q4.2.1.3.2) 관심에 근거해서 수행 장소를 설명하면, 진리가 바로 고요한 곳이다. 중도의 가르침은 깊고 심오하여 일곱 가지의 방편도 흔적이 끊어져 도달할 수 없다. 그래서 깊다고 한다. [가르침이] 높고, 넓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산이라고 한다. 유무(有無)의 양극단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조용하다고 한다. 생기는 것도, 일어나는 것도 없기 때문에 한갓지다고 한다.(42.c)

#### 4.2.1.4 식제연무(息諸緣務)

(e4.2.1.4.1) 주변의 일상 업무를 그만 둔다는 것에는 일상생활, 인간 관계로 인해 일어나는 조문 등과 같은 교제, 점을 치거나 나무를 조각하는 일과 같은 기능적인 일, 경전을 외우고 이를 통해 논쟁하는 학문의 네 가지이다. 이들은 모두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지관수행을 방해하기 때문에, 수행을 위해서는 그만두어야 한다.

(q4.2.1.4.2) 문답을 주고받거나 하면 물이 흐려지고 구슬이 어두워진다. 무슨 여가가 있어 지관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학문도 버려야 하는데, 생활, 교제, 기능과 같은 일은 반드시 그만 두어야 한다.(43.a)

#### 4.2.1.5 득선지식(得善知識)

(e4.2.1.5.1) 수자의삼매와 외부와 단절된 심산에서 수행하는 경우 외호하는 선지식은 필요 없다. 수자의삼매와 법화삼매에서 동행은 꼭 필요한 존재는 아니지만, 방등삼매와 반주삼매의 경우 좋은 도반은 반드시 필요하다.

(q4.2.1.5.2) 선지식은 큰 인연이다. 교화하고 인도하여 부처를 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아난이 “선지식은 도를 얻는데 반 정도의 인연이 됩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부처는 “그렇지 않다. 완전한 인연을 갖춘 것이다.”고 했다. 선지식은 외호[外護: 외부에서 지켜주는 선지식], 동행[同行: 같이 수행하는 선지식], 교수[教授: 가르침을 주는 선지식]의 세 가지이다.(43.a)

#### 4.2.2 다섯 가지 욕망을 꾸짖다 [阿五欲]

##### 4.2.2.1 의미

(e4.2.2.1.1) 오욕은 눈, 귀, 코, 혀, 몸의 다섯 가지 감각 기관이 각

각 색, 소리, 향기, 맛, 감촉에 대해 욕망을 일으키는 것을 경계하는 법이다. 이들 욕망은 생사윤회의 원인이자, 깨달음을 위한 수행의 장애이다. 그러므로 지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이 낳는 괴로움의 결과를 잘 알아서 제어해야 한다.

(q4.2.2.1.2) 지금 [욕근 중에] 마음을 제외하고 다섯 가지 감각 기관에 대해서만 설명하는 것은 다섯 가지 감각 기관 자체가 욕망은 아니지만 여기에는 맛이 있어서 수행자로 하여금 그 맛에 집착하려는 마음을 낳기 때문이다.(43.c)

#### 4.2.2.2 관법으로서의 가오욕(呵五欲)

(q4.2.2.2.1) 색의 참된 모습을 보는 것은 선정의 실상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바라밀이라고 한다. 색의 피안에 도달한다. 이는 색의 중도를 보는 것이다. 색을 분별하는 것은 색의 속제를 보는 것이다. 색에 근거한 공이란 색의 진제를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색을 가책한다면 색의 근원과 바닥을 다하고, 삼매에 대한 삼매를 이룰 수 있고 세 가지의 지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는 색에 대한 깊은 가책이 지관의 방편이 된다는 의미이다. 나머지 네 가지도 색에 대한 가책과 같다.(44.c)

#### 4.2.3 다섯 가지의 덮개를 버리다 [棄五蓋]

(e4.2.3.1) 탐욕, 분노, 수면, 도회, 의심의 오개는 앞에서 설명한 오욕의 뿌리인 의지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악법으로서, 삼매를 수행하는 자에게는 앞의 오욕보다 훨씬 무서운 장애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 오개는 근본적으로 버려야만 하는 악법이다.

(q4.2.3.2) 기오개는 탐욕, 분노, 수면, 도회, 의심의 다섯 가지 덮개를 버리는 일이다. 덮개란 덮고 뒤집어 싸서 얹혀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마음이 어둡고 캄캄하여 선정과 지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덮개라고 한다. 앞의 가오욕은 다섯 가지의 감각 기관이 현재 각각의 감

각 대상에 대해 다섯 가지의 의식을 일으키는 것과 관련한 법이지만, 기  
오개는 이 다섯 가지 의식이 제육식에 들어가, 과거를 조건으로 하여 다  
시 미래의 다섯 가지 대상에 대해 생각함으로써 마음속에 큰 장애로 작용  
하는 것과 관련된다. 속히 버려야 한다.(44.c)

#### 4.2.3.1 수행방법

##### 4.2.3.1.1 사(事)의 기사(棄捨)

##### 4.2.3.1.1.1 부정관(不淨觀)

(e4.2.3.1.1.1.1) 부정관은 탐욕의 덮개를 제거하는 방법이다. 탐욕  
의 덮개는 마음이 앞에서 설명한 다섯 가지 욕망의 대상에 미혹되어 이  
들을 갖고자 여러 가지로 분별 사유함으로써 정념을 잃고 선정을 막는다.  
선정을 닦기 위해서는 먼저 탐욕의 덮개를 부정관을 통해 제거해야 한다.

(q4.2.3.1.1.1.2) 탐욕의 덮개가 무거우면, 부정관으로서 이를 버려야  
한다. 과거에 오욕을 깨끗하다고 여겨 애착하고 사로잡혔지만, 지금 깨끗  
하지 않다고 관찰한다. 고름 주머니, 눈물, 침 어느 하나도 기빠할 것이  
없다고 관찰한다.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나 원수에게 쫓기는 듯이 여긴다.  
지혜로운 자라면 이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부정관은 탐욕의 덮  
개를 치료하는 약이다. 이 덮개가 제거되면, 마음은 안락을 얻는  
다.(45.b)

##### 4.2.3.1.1.2 자비관(慈悲觀)

(e4.2.3.1.1.2.1) 자비관은 분노의 덮개를 제거하는 방법이다. 진에  
의 덮개는 상대방을 나를 괴롭히고 나의 부모를 괴롭히고, 나의 원수를  
찬양했던 자로 회상하고 이에 근거해서 분노와 원한을 쌓아 상대방을 중  
상하고 위해를 가함으로써 자기 몸의 편안함을 구한다. 분노의 덮개는  
모든 공덕을 태워 선정의 실천을 막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  
그 방법이 자비관이다.

(q4.2.3.1.1.2.2) 진에의 덮개가 많다면, 자비의 마음에 집중하여 화의 불길을 꺼야 한다. 이 불길은 2세의 공덕을 태워버리고 사람을 보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표독하고 해로우며, 잔인하고 포악하여 금수와 비슷하다. 생사의 원한의 대립은 여러 겹에도 그치지 않으니 바로 세간의 미미한 원한도 나중에는 커다란 원한으로 된다. 지금 자비의 마음을 닦아서 이 악을 버리고 모든 사람을 부모와 같이 보고 친근하게 대하면 모두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45.b)

#### 4.2.3.1.1.3 정진(精進)

(e4.2.3.1.1.3.1) 정진은 수면의 덮개를 제거하는 방법이다. 수면은 정신을 혼미하게 하여 사람의 밝음[지혜]를 빼앗기 때문에 제거되어야 한다.

(q4.2.3.1.1.3.2) 잠의 덮개가 많으면, 부지런히 정진하여 몸과 마음을 채찍하고 격려해야 한다. 의지를 더 굳게 하여 막고 헤아려서 법상(法相)을 생각하고, 선악의 법을 분별하고 가려서 잠의 덮개가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선악의 마음을 선택하여 법의 기쁨을 낳게 해야 한다. 마음이 이미 밝고 청정하게 되면 잠의 덮개는 자연히 없어진다.(45.b)

#### 4.2.3.1.1.4 수식관(數息觀)

(e4.2.3.1.1.4.1) 수식관은 도회의 덮개를 제거하는 방법이다. 도회의 덮개란 지각이 문득 일어났다가 문득 없어지고 하여 여러 가지로 어지러운 모습이다. 몸은 목적지 없이 이리 저리 노닐며 입은 아무런 이익도 없이 말하고 웃는다. 이와 같이 이리 저리 흔들리는 마음으로는 깊이 사유하고 근신할 수 없기 때문에 선정을 위해서는 제거되어야 한다. 도회의 회는 회개로서, 이리 저리 흔들리는 마음을 부끄럽게 여겨 마음속으로 걱정하고 뉘우침으로써 근심과 번뇌가 마음을 얹어매는 것이다. 이 또한 선정을 막기 때문에 수식관으로 제거해야 한다.

(q4.2.3.1.1.4.2) 도산은 수식법으로 해야 한다. 이 덮개는 매우 예민하여 올 때는 깨닫지 못하고서 오래 지난 뒤에야 알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지금 수식법을 써도 만일 썸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혹은 수행 중에 잊어버렸다면 바로 없어졌다는 것을 알고, 알고 난 뒤에는 다시 썸한다. 썸이 성취되면 바로 각관은 행복된다. 이것이 치료되지 못하면 일생 동안 이 덮개를 써야 할 것이다.(45.b)

#### 4.2.3.1.1.5 자신의 실제 모습을 부자의 눈먼 아들이라고 생각하다

(e4.2.3.1.1.5.1) 의심의 덮개는 선정을 막는 의심으로서, 자기와 스승, 법을 의심하는 것이다. 자기에 대해서는 자신의 능력이 열등하여 불도에 이를 그릇이 되지 못한다고 의심하고, 스승에 대해서는 스승의 말과 행동이 자기의 마음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함으로써 스승으로 섬기는 것을 의심한다. 마지막으로 법에 대해서는 가르침이 진리에 부합하는가를 의심한다. 이러한 의심은 마음에 망설임과 꺼려하는 반응을 일으켜 선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각각의 의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생각으로 제거해야 한다.

(q4.2.3.1.1.5.2) 세 가지 의심이 있으면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야 한다. 먼저 나 자신은 바로 대부의 맹인으로, 무한한 법신의 재보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 스승에 대해서는 나에게 지혜가 없으니 불보살은 모두에게 가르침을 구하고 그 사람에게는 집착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설산에서는 귀신으로부터 계송을 청했고, 천제는 짐승에게 절하여 그를 스승으로 삼았던 것이다. [...] 법에 대해 의심한다면 나는 법안이 아직 열리지 않아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한다. 의지하고 믿을 따름이다. 불법은 바다와도 같아서 믿음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45.b-c)

#### 4.2.3.1.2 리(理)의 기사(棄捨)

(e.4.2.3.1.2.1) 리의 기사란 원교의 원묘한 가르침에 근거해서 오개(五蓋)가 곧 보리라고 깨닫는 것이다. 지론종과 섭론종에 따르면, 사의 기사는

범부의 지위에서 실천하며, 이승의 지위에서는 속제상의 덮개를 버리고, 보살위에서는 중도를 막는 덮개를 버린다. 이에 반해 원교에서는 번뇌에 근거해서 번뇌의 실상을 통찰하기 때문에 초발심의 범부도 한 순간의 마음에서 모든 덮개를 완전히 버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리의 기사이다.

(q4.2.3.1.2.2.) 원교의 이해는 이와 다르다. 부처가 상경계의 사람을 위해 설법했다면, 부처는 법성의 부처가 되며, 법성의 나라를 보이고, 법성의 보살을 위해 설명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부처가 이 세상에 나타난 목적을 생각하면, 부처는 세속의 범부들을 구제하기 위해 이러한 묘법을 설하고 이 가르침을 수행하게 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방편의 가르침을 보여, 진실의 가르침으로 이끌고자 했다. 이러한 의미를 이해한다면 초심의 범부도 한 순간의 마음에서 완전하게 모든 덮개를 버릴 수 있다. 그래서 『대품반야경』에서 “모든 가르침은 욕망의 일을 향하고, 이 목표를 벗어나는 일이 없다. 욕망의 일은 불가득이므로 향한다든가 향하지 않는다는 것도 없다.”고 했다. 여기서 향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있다 [有]는 의미로서, 향하여 가는 주체와 객체가 있는 것이다. 이는 속제를 가리킨다. 욕망의 일이 불가득이라는 것은 공을 밝힌다. 공에는 향해 가는 주체와 객체는 없다. 이는 진제를 가리킨다. 나아가 향한다든가 향하지 않는다는 것도 없다는 것은 중도를 가리킨다. 이와 같이 하나의 욕망의 일에서 삼제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46.b-c)

#### 4.2.4 다섯 가지 일을 조절하다 [調五事]

(q4.2.4.1) 오조사[五調事: 다섯 가지 일을 조절하다]는 음식(調食), 잠(調眠), 몸(調身), 호흡(調息), 마음(調心)을 고르게 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비유한 대로 흙과 물이 고르지 않으면 그릇을 만들기 어렵다. 다섯 가지 일이 좋지 않으면 선정에 들 수 없다. 잠과 음식의 두 가지는 선정의 밖에서 고르게 하고, 나머지 세 가지는 선정에 들 때, 선정 중에 그리고 선정에 나올 때 주의해야 한다.(47.a)



#### 4.2.4.1 사(事)의 오사(五事)

##### 4.2.4.1.1 음식을 조절하다

(q4.2.4.1.1.1) 조식은 병을 증가시키는 음식, 수면을 증가시키는 음식, 번뇌를 증가시키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에 반해 몸을 편하게 하고, 병을 고치는 음식은 먹어야 한다. 간단히 말하면, 굶지 않고 지나치게 먹지 않도록 음식을 조절한다는 것이다.(47.a-b)

##### 4.2.4.1.2 잠을 조절하다

(q4.2.4.1.2.1) 수면은 눈의 음식이므로 지나치게 절제해서도 안 되지만, 마음의 작용을 증가시켜 공부를 방해하므로 멋대로 해서도 안 된다. 앞의 가오개(呵五蓋)에서 수면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수면이 선정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장애이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다시 수면을 고르게 한다는 것은 수면을 지나치게 취하면 신체가 방종에 빠지기 때문이다. 두 개의 설명은 그 이유가 다르다. 간단하게 말하면, 지나치게 절제하거나 멋대로 하지 않는 것이 수면을 고르게 하는 모습이다.(47.b)

##### 4.2.4.1.3 몸, 호흡, 마음을 조절하다

(e4.2.4.1.3.1) 몸, 호흡, 마음을 고르게 하는 이 세 가지는 온기, 목숨, 의식 세 가지가 결합하여 아이가 잉태되듯이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설명한다.

(q4.2.4.1.3.2) 먼저 선정에 들어 갈 때에는 몸을 고르게 하여 느슨하지도 급하게도 하지 않으며, 호흡을 고르게 하여 켜켜럽게도 매끄럽지도 않게 한다. 마음을 고르게 하여 가라앉지도 뜨지도 않게 하여 거친 상태에서 미세한 상태로 들어가 선정 가운데 머무른다. 고르지 못한 곳이 있으면 이를 지각하여 살피고 고쳐서 고르게 하여 편안하고 은미하게 한다. 이는 현을 고르게 하여 조금 연주해 보고 곡이 뜻대로 연주되지 않으면, 현의 조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이를 고치는 것과 같다. 선정에서 나올 때에는 미세한 상태에서 거친 상태로 나아간다.(47.b)

#### 4.2.4.2 리(理)의 오사(五事)

(e4.2.4.2.1) 진리를 통찰하는 관법과 관련해서, 음식, 잠, 몸, 호흡, 마음을 고르게 하는 의미를 각각 설명했다. 여기서는 조식의 한 예를 들어 리오사의 의미를 살펴보겠다. 이외에도 『마하지관』은 리오사와 관련해서 음식, 잠, 몸, 호흡, 마음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q4.2.4.2.2) 관심에 근거해서 조오사를 설명하면, 앞에서 가르침의 기쁨과 선정의 희열을 음식이라고 한 것과 같다. 처음에 진제를 관찰하여 생기는 선정과 지혜는 대개 공관(空觀)으로 들어가 모든 존재를 소화하고 청정하게 한다. 이는 굶주린 모습이다. 『법화경』에서 “굶주림으로 약해지고 말라서 몸에 부스럼과 반점이 생긴다.”고 했다. 두 번째 속제를 관찰하여 생기는 선정과 지혜는 대개 속제에 근거해서 모든 존재를 임시로 세운다. 이는 지나치게 배부른 모습이다. 이는 “여러 겹을 거쳐 갠지즈강의 모래알만큼이나 많은 불법을 수행한다.”는 의미이다. 이 두 가지 관법은 굶주림과 배부름이 고르지 않지만 중도의 선정의 희열과 가르침의 기쁨은 조화로워서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침이 없다. 이것을 “굶지도 배부르지도 않다.”고 한다.(47.b-c)

#### 4.2.5 다섯 가지 법을 행하다 [行五法]

##### 4.2.5.1 형태

(e4.2.5.1.1) 행오법은 욕(欲), 정진(精進), 념(念), 교혜(巧慧), 일심(一心)의 다섯 가지이다.

(q4.2.5.1.2) 다섯 개의 법을 행한다는 것은 곧 욕, 정진, 념, 교혜, 일심의 다섯 가지이다. 앞에서 서술했던 도예가의 비유를 따르자면, 필요한 것이 모두 갖추어져도 창작 의욕이 일어나지 않거나, 일에 집중하지 않거나, 기가 흩어져 지겨워하거나, 하나의 불만이 남아 일에 몰두할 수 없으면 그릇을 만들 수 없다. 행오법 또한 이와 같아서 앞에서 말한 20가지의 방편이 갖추어져도 이를 성취하고자 하는 의욕을 일으키고 몸과 마

음을 격려하고 생각을 새롭게 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하고 마음을 확고히 하지 않으면 지관이 실제로 드러나는 일은 있을 수 없다.(48.a)

#### 4.2.5.2 의미

(e4.2.5.2.1) 『마하지관』은 이들의 의미를 『성실론』, 『영락본업경』, 『아비담론』, 『대지도론』과 같은 여러 논서에 근거해서 설명하고, 나아가 자행(自行), 화타(化他), 관심(觀心)의 세 가지 측면과 관련해서도 설명하는 등 다양한 관점에서 그 의미를 설명했다. 여기서는 『대지도론』의 설명을 살펴보았다. 지의에게 방편은 단순히 선정을 일으키기 위한 준비과정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승원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존재는 평등하기 때문에 수행자는 모든 존재에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 이는 도가 아닌 곳에서 진리를 통찰한다는 대승원교의 주장에서 잘 드러난다. 그러나 『마하지관』의 전체구성과 관련해서 이십오방편은 십승의 관법을 실천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행오법을 근본사선의 성립과 관련해서 설명하는 『대지도론』의 입장에서 행오법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q4.2.5.2.2) 『대지도론』은 다섯 가지의 방법을 “욕이란 욕계로부터 초선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다. 정진이란 통과하기 어려운 욕계는 힘써 노력하지 않으면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고 해석했다. 『대지도론』은 “보시와 지계, 인욕은 세간의 상도이다. [...] 여기서 정진은 필요 없다. 그러나 반야를 얻고자 하면 선정에 근거해야만 하기 때문에 커다란 정진이 필요하다. 몸과 마음을 다하여 노력할 때 비로소 반야를 성취할 수 있다. [...]” ” 넘이란 항상 초선에 집중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교혜란 초선은 중요하여 존중해야 할 것이고, 욕계는 사람을 속이므로 싫어해야 할 것이라고 점검한다. 또 초선은 더 높은 경계로 나아가기 위해 중요한 것이고, 욕계는 그 아래에 괴로움의 장애를 품고 있기 때문에 싫어해야 할 것이라고 점검한다. 여기에는 원인과 결과를 합해 열두가지의 관이 있다. 이 가르침은 외도의 율행과 같은 듯이 보이지만 외도는 선정만을 추구하지만, 불제자는 잘못된 것을 올바른 것으로 하기 위해 무루의 마음을 닦는다. 이러한 이유로 불제자는 올바른 가르침을 성취한

다. 이것이 교혜이다. 일심이란 이 가르침을 실천할 때 한 마음으로 어지럽지 않다는 것이다. 다른 것에 생각을 기울이지 않고 굳건하게 정한 한 마음이라는 의미이다. 선정에 들어갔을 때의 통일된 마음과는 의미가 다르다.(48.b)

## 5. 관(觀)

### 5.1 관의 필요성

(e5.1.1) 불교의 절대선은 해탈이다. 해탈은 올바른 가르침에 근거한 수행을 통해 성취된다. 다시 말해 해탈은 단지 부처의 가르침을 지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지의의 『마하지관』은 해탈에 이르는 올바른 방법에 대한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수행론서로서, 그 방법을 지관(止觀)으로 제시했다. 이 지관은 수행자로 하여금 깨달음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경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여 중생구제에까지 이르게 한다. 이는 지관이 상구보리(上求菩提), 하화중생(下化衆生)이라는 대승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불교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q5.1.2) 지관에 대한 가르침을 이해하여, 지관을 실천하고 지관의 실천을 통해 지관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한다. 이는 해가 비추고 비가 운택하게 하여 만물을 길러 성장시키고, 몸에 있는 두 개의 손을 번갈아 사용하여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 내부의 장애물을 개척해서 자기의 길을 갈 뿐만 아니라 경론에 대해 정확하게 통달해서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어,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고 다른 사람의 목적도 성취하도록 한다. 자리와 이타의 두 가지 이익을 모두 갖추니 진실로 인류의 스승이자 나라의 보배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49.a)

### 5.2 관의 의미

(e5.2.1) 관은 진리를 통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계(戒), 정(定), 혜(慧) 삼학(三學) 중 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불교에서 해탈은 진리의 통찰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부처는 바로 진리를 통찰했기 때문에 깨달음에 이를 수 있었다고 주장된다. 중생은 진리를 통찰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탈에 이르지 못하고 생사윤회의 고해를 유전한다. 중생이 진리를 통찰하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번뇌로 인해 어지럽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중생이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고요히 하기 위한 수행을 요구한다. 마음을 고요히 하게 하면 진리의 통찰은 자연스럽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의는 이러한 수행의 의미를 지관이라는 두 개념으로 정리했다. 그는 이 둘의 관계를 수레의 두 바퀴에 비유함으로써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지의에게 ‘관’이란 지관의 두 의미가 동시에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q5.2.2) 가르침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근거해서 올바른 수행방법을 설명한다. 이는 기름과 등불이 서로를 필요로 하고, 눈과 발을 통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과 같다. 이해와 수행에 힘쓰면, 삼장(三障)과 사마(四魔)가 경쟁적으로 일어나 두꺼운 어둠이 지혜를 어둡게 하고, 커다란 동요가 선정을 어지럽힌다. 이때 아무런 생각 없이 이를 따르거나, 이유 없이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 이를 따라가면 악도(惡道)로 향하게 되고, 이를 무서워하면 올바른 가르침을 실천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이때는 관을 통해 혼미한 어두움을 관찰하여 그 어두움을 밝게 하고 지를 통해 이 동요를 멈추어 어지러운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 이는 돼지가 금산에 올라 이것이 금산이라고 점차 분명히 하는 것과 같고, 모든 강물을 합해도 바닷물의 양은 변하지 않는 것과 같고, 땀감을 더하면 점점 불이 맹렬하게 타는 것과 같고, 작은 구라 벌레가 바람이 불 정도로 그 몸을 크게 하여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것과 같다. 사마와 삼장에 근거해서 선정과 지혜의 작용은 더욱 증대하게 된다. 이 금강의 관해(觀解)는 번뇌의 적군을 물리치고, 이 강건한 다리는 생사의 황야를 넘어가게 한다.(48.c-49.a)

### 5.3 관의 형태

(e5.3.1) 지관은 관불사의경관(觀不思議境), 기자비심(起慈悲心), 교안지관(巧安止觀), 파법편(破法遍), 식통색(識通塞), 도품조적(道品調適), 조도대치(助道對治), 지차위(知次位), 능안인(能安忍), 무법애(無

法愛)의 열 가지 관법[十乘觀法]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법을 관찰한다는 관법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관법에는 반드시 관찰대상[對境]이 요구된다. 제법실상에 따르면, 깨달음은 모든 존재의 실상을 통찰할 때 가능하다. 이는 모든 존재가 관찰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지의는 이론적으로 모든 존재가 관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지관 수행의 효험을 위해 관경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하여 그는 십승관법의 관찰 대상으로서, 음입계경(陰入界境), 번뇌경(煩惱境), 병환경(病患境), 업상경(業相境), 마사경(魔事境), 선정경(禪定境), 제견경(諸見境), 증상만경(增上慢境), 이승경(二乘境), 보살경(菩薩境)의 열 가지[十境]으로 정리했다. 지의의 십경은 『열반경』, 『유마경』, 『대지도론』, 『구경일승보성론』 등에 근거해서 성립했다. 그러나 십경과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들이 지의 자신의 체험에 바탕했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먼저 관법의 대상인 십경을 정리하고, 다음으로 이를 관찰하는 법으로서 십승 관법을 설명하겠다.

### 5.3.1 십경(十境)

#### 5.3.1.1 십경의 의미

(q5.3.1.1.1) 십경은 모두 수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다. [...] 이러한 십경은 처음에 범부가 생존하는 현실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의 성인과 유사한 모습까지 망라한다.(49.b-c.)

#### 5.3.1.2 십경의 구성

##### 5.3.1.2.1 십경의 발생

##### 5.3.1.2.1.1 음입계경(陰入界境)이 처음에 오다

(q5.3.1.2.1.1.1) 음입계경은 두 가지 이유로 맨 처음에 온다. 하나는 누구에게나 현재 나타나 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교설에 근거하기 때

문이다. 『대품반야경』에서 “성문인은 사념처를 통해 불도를 실천한다. 보살인은 처음에 색을 관찰하고 나아가 일체종지(一切鍾智)를 관찰한다.”고 했다. 십경은 각각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경전의 가르침에 부합한다. 또 수행자가 이 세상에서 생을 받은 이상, 오음(五陰), 십이입(十二入), 십팔계(十八界)의 가르침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무거운 짐과 같이 몸과 마음의 문제가 현재 눈앞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 음입계경을 관찰하고,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른 아홉 가지의 대상[九境]에서 개별적으로 관찰한다.(49.b)

#### 5.3.1.2.1.2 차례로 발생하다

(q5.3.1.2.1.2.1) 오음은 사분번뇌와 함께 있기 때문에 오음을 관찰하지 않으면 그 복잡한 움직임을 알 수 없다. 이는 배를 보지 않고 물의 흐름만 보고 있으면 그 흐름의 빠르기를 알 수 없지만, 배가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 흐름의 빠르기를 알 수 있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오음의 결과를 관찰하면, 번뇌의 원인을 움직이기 때문에 음입계경 다음으로 사분번뇌를 대상으로 관찰한다고 말한다. 사대(四大)의 부조화는 육체의 병이고, 삼독(三毒)은 마음의 병이다. 이들이 평정할 때에는 이들을 자각하는 일이 없지만, 지금 오음과 하계 하는 번뇌를 관찰했기 때문에 혈맥과 내장에 충격을 주어 사대의 독사가 머리를 들게 된다. 이에 병환경이 발생한다. 셀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의 업이 있어도, 산만한 선행은 힘이 약하여 이것을 움직일 수 없지만, 지금 지관을 실천하면, 건강한 상태와 질병상태가 분명해져 생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게 된다. 선이 일어나 움직이거나, 악이 부서져 움직이고 선이 받는 과보를 보여 움직이거나, 악이 일어나 그 과보를 질책함으로써 움직이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병환경 다음 업상경을 설명한다. [...] (49.b)

#### 5.3.1.2.1.3 일정한 순서 없이 발생하다

(q5.3.1.2.1.3.1) 또 이 대상이 서로 중첩해서 일어나는 것을 모르면, 실제로 이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수 있다. 이는 기로에 서서 어느 길로 가야 좋은지를 모르는 것과 같다. 이를 알고 있으면, 어떠한 상황에 맞닥뜨려도 안심하고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수행을 진행할 수



있다. 십경이 서로 일어나는 모습은 열 가지의 예가 있다. 1. 차례불차제(次第不次第), 2. 잡부잡(雜不雜), 3. 구불구(具不具), 4. 작의불작의(作意不作意), 5. 성불성(成不成), 6. 익불익(益不益), 7. 구불구(久不久), 8. 난불난(難不難), 9. 갱불갱(更不更), 10. 삼장사마구쌍칠척(三障四魔九雙七隻)이다.(49.c)

### 5.3.1.2.2 십경의 관계

(q5.3.1.2.2.1) 음입계경은 항상 현전하고 있기 때문에 발현의 유무에 상관없이 항상 관찰할 수 있지만 나머지 아홉 가지의 경(境)은 발현할 때에만 관찰할 수 있고, 발현하지 않으면 관찰할 수 없다. 또 앞의 여덟 가지의 경(境)은 정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확실히 보호하면 정도로 돌아갈 수 있다. 마지막 두 가지 경은 정도에서 약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 지위에 도달하면 조금만 조정하면 바르게 되기 때문에 지관수행이 없음을 염려할 필요는 없다.(49.c)

### 5.3.1.3 십경의 형태

#### 5.3.1.3.1 음입계경

(e5.3.1.3.1.1) 음입계경의 음입계는 오음, 십이입처, 십팔계로서, 붓다는 이들을 모든 존재를 가리키는 것으로 설명했다. 지의는 음입계를 마음이 모든 존재를 만든다는 일체유심에 근거해서 한 마디로 마음으로 규정했다. 여기서 마음은 오음중의 식음(識陰)으로서 중생의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작용하고 있는 마음을 가리킨다. 음입계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천태지관이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현전하는 중생심(衆生心)을 대상으로 해서 관찰하는 관심법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동시에, 구체적인 현실을 떠난 추상적인 진리나, 현상을 넘어선 초월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관법이 아님을 의미한다. 요컨대 천태관법은 일념즉삼천(一念卽三千)의 불사의경을 통찰함을 목적으로 하는 수행법이라고 할 수 있다.

(q5.3.1.3.1.2) 삼계내와 삼계외의 모든 오음, 십이입처, 십팔계는 모

두 마음에서 일어난다. 부처는 비구에게 “하나의 법이 일체법을 아우르는 데 마음이 이것이다.”고 했다. 『대지도론』은 “일체의 세간에는 단지 명과 색뿐이다. 만약 있는 그대로를 보고자 한다면 명색을 관찰해야 한다.”고 했다. 마음은 미혹의 근본이라는 뜻도 이와 같다. 만약 관찰하고자 하면 그 뿌리를 잘라내야 한다. 지금 한 길의 길이를 버리고 한 자의 길이를 취하고 한 자를 버리고 한 마디를 취하듯이, 색음 등의 사음은 두고 단지 식음(識陰)을 관찰한다. 식음은 곧 마음이다.(52.a-b)

### 5.3.1.3.2 번뇌경(煩惱境)

#### 5.3.1.3.2.1 수행의 필요성

(e5.3.1.3.2.1.1) 번뇌경의 번뇌는 음입계를 대상으로 해서 십승의 관법을 실천해도 진리의 통찰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 관찰하는 대상이다. 이 때의 번뇌는 일상적인 생활 속에 드러나는 과보로서의 번뇌가 아니다. 이러한 번뇌는 방편행인 가오욕(呵五欲)과 기오개(棄五蓋)를 통해 쉽게 주의하고 제거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번뇌경의 번뇌는 음입계를 대상으로 십승의 관법을 진행할 때, 다시 말해 자각적인 반성을 철저히 행할 때 이 자극을 계기로 해서 일어나는 잠복되어 있던 번뇌를 가리킨다.

(q5.3.1.3.2.1.2) 번뇌도 이와 같다. 대개는 잠복해 있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이지만 도량에서 참회하고 음입계를 대상으로 관찰함에 따라 잠들어 있던 사자가 일어나 포효하며 지축을 흔들 듯이 번뇌가 일어난다. 이를 모르면, 이와 같은 번뇌는 사람이 커다란 중죄를 짓도록 이끈다. 지관이 성취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악업을 더욱 증장시키며 암흑의 구렁텅이에 빠져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번뇌를 대상으로 해서 관찰해야만 한다.(102.a)

#### 5.3.1.3.2.2 번뇌의 모습

(e5.3.1.3.2.2.1) 번뇌의 모습은 너무나 광범위해서 설명할 수가 없다. 여기서는 번뇌를 하나하나 분별해서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깨달음에 이르는 올바른 수행도를 확립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

에, 번뇌의 모습은 견혹(見惑), 사혹(思惑), 이사(利使), 둔사(鈍使)의 네 가지 모습으로 간략히 규정했다.

(q5.3.1.3.2.2.2) 번뇌의 모습을 설명하겠다. 번뇌라는 이름은 어둡고 번잡한 법으로 마음과 정신을 어지럽힌다는 의미이다. 또 마음을 번잡하게 하여 마음을 걱정하게 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견혹, 사혹, 리사, 둔사의 4분번뇌이다. 이는 편의상 네 가지로 분류해 본 것에 지나지 않는다. 5가지의 둔사에는 반드시 탐욕과 진에만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 둔사의 번뇌에도 리사의 번뇌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 가지의 이사의 번뇌에도 견혹만이 아니라 진애와 탐욕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리사와 둔사는 견혹과 사혹에 각각 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지금은 올바른 길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여 [번뇌에 대한 상세히 분별할] 여유가 없다. 또 이는 관법에서 긴급한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총괄적인 네 가지 번뇌를 알면 충분하다.(102.a-b)

#### 5.3.1.3.2.3 번뇌가 일어나는 인연

(e5.3.1.3.2.3.1) 번뇌가 일어나는 인연에는 1. 습인의 종자, 2. 업력의 자극, 3. 마귀의 선동 세 가지가 있다.

##### 5.3.1.3.2.3.1 습인(習因)의 종자

(q5.3.1.3.2.3.1.1) 습인이란 무한한 시간에 걸쳐 번뇌가 무겁게 쌓여 이것이 종자가 되어 훈습하면서 계속 이어진다. 이는 급류의 흐름을 타고 있는 동안에는 그 빠름을 자각하지 못하다가, 거기서 노를 저어 보면 얼마나 맹렬하게 흐르는지를 아는 것과 같다. 수행자가 번뇌의 흐름에 맡겨 생사의 바다를 윤회하는 경우 아무 것도 지각하지 못하지만, 도품을 실천하고 번뇌의 흐름을 거슬러 가고자 하면 번뇌의 파도가 높이 치게 된다. 이때는 특히 근면하게 번뇌를 드러내어 아침저녁으로 수행을 실천해야만 한다.(102.c)

#### 5.3.1.3.2.3.2 업력(業力)의 자극

(q5.3.1.3.2.3.2.1) 업력이란 오랜 시간에 걸쳐 계속된 악행이 성취되어 원망을 지게 된 것과 같다. 수행자가 도품을 닦아 벗어나고자 해도 벗어날 수 없게 한다. 나아가 악업을 일으켜 관심을 파괴하고 선한 법이 서지 못하도록 한다. 이는 강물의 흐름이 조용하면 파도가 일어나지 않지만 갑자기 폭풍이 불면 산과 같이 파도가 연이어 일어나는 것과 같다. 이러한 경우, 돛과 키를 그대로 방치하면 당연히 배는 부서진다. 마음을 하나로 하여 앞과 뒤를 바르게 하여 배를 나아가게 하면 침몰을 피할 수 있다.(102.c)

#### 5.3.1.3.2.3.3 마귀의 선동

(q5.3.1.3.2.3.3.1) 마귀의 선동이다. 마귀의 행동은 그 무리들이 짓기 때문에 대개는 움직이거나 어지럽히거나 하는 일은 없다. 그러나 수행을 하여 삼계를 벗어나고자 하거나 차안에서 피안에 이르고자 할 때, 마귀의 십군이 수행자를 잡고자 해서 깊고 예리한 번뇌가 갑작스럽게 일어난다. 이는 큰 바닷물에 풍량이 없어도 수마갈어왕(須摩竭魚王)이 입을 열어 물을 들며 마시면 그 소용돌이에 휩쓸려 들어가 아무리 힘으로 저항해도 거부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이때에는 오직 부처의 이름을 외면, 벗어날 수가 있다. 불에 비유해 보면, 장작을 불에 던지는 것은 습인과 같고, 바람을 일으키는 것은 업력과 같고, 기름을 붓는 것은 마귀와 같다. 마귀와 업력에 대해서는 마사경과, 업상경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여기서는 습인의 종자가 일으키는 번뇌가 주요 관찰 대상이다.(102.c)

#### 5.3.1.3.2.4 번뇌를 치료하는 방법

(e5.3.1.3.2.4.1) 번뇌를 치료하는 방법에는 대치(對治), 전치(轉治), 부전치(不轉治), 겸치(兼治), 구치(具治)의 다섯 가지 방법이 있다. 지의에 따르면, 이들은 소승이 번뇌를 치료하는 방법이다. 소승과 대승은 번뇌에 대한 이해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 소승은 번뇌가 실재한다고 이해하기 때문에 번뇌를 치료하는 방법에서 번뇌의 제거를 지향한다. 이에 반해 대승은 번뇌가 공으로서 실체가 없다고 이해하기 때문에,

번뇌의 제거가 아니라 번뇌의 참된 모습에 대한 통찰을 강조한다. 번뇌의 치료에 대한 소승과 대승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의는 번뇌를 치료하는 방법으로서 옛날부터 실천해 왔던 소승의 선법을 채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소승선법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대승원교에 근거한 재해석을 통해 이들을 심경심승의 원돈지관법으로 재확립했다. 소승의 수행방법에 대한 이러한 해석적 태도는 그가 활약했던 당시의 많은 선장들에게서 보이는 태도이기도 했다.

(q5.3.1.3.2.4.2) 소승은 앞에서 설명한 다섯 가지의 치료 방법을 사용한 뒤, 제지(諦智)를 통해 진실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승이 주장하는 치료 방법은 대치, 견치와 같은 것이 아니고 제일의(第一義)의 치료이다. 이는 아갈타약(阿耨陀藥)이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과 같다. 소승은 많은 경우, 삼실단으로 치료하지만 대승은 많은 경우 제일의 실단으로 치료한다. 공과 무생의 가르침에서는 번뇌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다. 따라서 번뇌를 치료한다는 것도 성립하지 않는다. 번뇌는 없기 때문에 전환하는 번뇌에 따라 치료 방법을 전환하는 전치(轉治)도 없다. 이와 같이 전치가 없으면, 함께 있는 번뇌를 치료하기 위해 약을 겹쳐서 치료하는 겹치도 없고, 이 모든 방법을 다 함께 하는 구치도 없다. 오직 무생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두루 치료할 뿐이다. 이는 지극히 간략한 설명이지만 이 의미를 잘 이해하기를 바란다.(103.a)

### 5.3.1.3.2.5 지관(止觀)수행

#### 5.3.1.3.2.5.1 번뇌경과 관련한 두 가지 오해

##### 5.3.1.3.2.5.1.1 무애도(無礙道)에 대한 오해

(e5.3.1.3.2.5.1.1.1) 대승원교에서 탐욕, 분노, 어리석음과 같은 번뇌는 모두 불도로서, 모든 불법이 갖추어져 있다. 그리하여 대승은 번뇌가 생사윤회의 원인이라고 하여, 이들을 조복하여 끊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번뇌를 조복하여 끊어버리면, 삼계를 재빨리 벗어나 중생을 구제할 수 없게 되어 성문의 가르침에 빠져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을 조복하지 않고, 따르게 되면 번뇌는 더욱 기승을 부려 중생은 결국 생사

윤회의 바다에 빠지고 만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대승은 번뇌를 조복하지도 말고, 번뇌에 머무르지도 말라고 한다. 그런데 지의가 활약하던 당시, 대승의 이러한 가르침을 오해하여 수행의 과정 중에 일어나는 번뇌에 대해 어떠한 수행도 실천하지 않음으로써 불교의 타락을 가져오는 선승들이 많았다.

(q5.3.1.3.2.5.1.1.2) 이와 같이 조복(調伏)도 아니고, 불조복(不調)伏도 아니라는 가르침을 듣고, 조복에도 거리낌이 없고, 불조복에도 거리낌이 없다. 이와 같이 어떠한 일에도 거리낌이 없는 것을 무애도(無礙道)라고 하고 이러한 무애에 근거하여 음욕을 원하는 대로 행한다. 공공연하게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면서도 조금도 수치심이 없어, 금수와 다르지 않다. [...] 『열반경』은 “내가 무상을 실천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무상을 실천한다는 것과 다르다.”고 했다. 이러한 사람은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여 불도에 통달하고자 하지만 스스로를 가두어 범부의 비루함에 동화되고 만다. 이는 조복하지 않음에 집착하는 모습으로, 어떤 것에도 거리낌이 없다는 자기의 주장과 모순이다.(103.c)

#### 5.3.1.3.2.5.1.2 중도행(中道行)에 대한 오해

(e5.3.1.3.2.5.1.2.1) 대승원교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수행자의 모습은 보살이다. 보살은 모든 존재가 공으로서 실체가 없다는 공의 진리와 이 공이 무가 아닌 불공(不空)이라는 중도의 진리를 잘 알기 때문에 열반에 집착하지 않고, 생사의 세계에 나서 두루 중생을 구한다. 보살의 이러한 모습을 두고 대승원교는 번뇌를 조복하지도 않고, 조복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 그런데 지의가 활약하던 당시, 선승들 중에는 중도의 진리를 유무의 양극단을 떠난 절대 진리로 오해하여 번뇌를 조복하지도 않고 조복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대승의 가르침을 조복과 불조복을 모두 벗어나는 수행법으로 주장했던 이들이 있었다.

(q5.3.1.3.2.5.1.2.2) 또 수행자가 조복에도 머무르지 않고, 불조복에도 머무르지 않는다고 듣고서, 조복과 불조복의 두 측면을 두려워하여 깊이 스스로를 경계하여 중도의 지혜를 닦아 두 측면을 꿰고자 한다. 이 또

한 탐욕에 근거하여 불도를 닦는 수행인은 아니다. 탐욕을 끊은 뒤에야 비로소 이것이 불도라고 하기 때문이다. 이는 조복하는 마음에 머무르는 것으로, 머무름이 없는 것이 아니다. 복지에서는 이와 같은 두 가지 오해가 횡행하고 있다.(103.b)

#### 5.3.1.3.2.5.2 대승원교의 무애도

(e5.3.1.3.2.5.2.1) 번뇌와 관련된 잘못된 수행관은 모두 중관에서 설명하는 중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대승원교에서는 무애도를 중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 하에서 조복에 머무르지도 않고, 조복에 머무르지 않는 것도 아닌 실천으로 설명했다.

(q5.3.1.3.2.5.2.2) 번뇌는 공이므로 불조복(不調伏)에 머무르지 않는다. 번뇌는 임시적으로 있는 가이므로 조복에 머무르지도 않는다. 번뇌는 중이므로 조복과 불조복에 머무르지 않고 동시에 번뇌를 비추기 때문에 조복도 아니고 불조복도 아닌 것에 머무르지 않는다. 조복과 불조복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해도 실제로는 조복과 불조복에 머무르고 있으며, 조복과 불조복에 머무르고 있어도 실제로는 조복과 불조복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는 어느 한 곳에 치우쳐 한 구절을 관찰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 구절이 모든 구절을 갖추고 있고, 모든 가르침이 탐욕에 포함되고, 탐욕이 모든 가르침의 중심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 근거해서 모든 구절을 밝아나갈 경우, 모든 탐욕은 존재한다고 고찰하는 것은 불조복에 머무는 것이고 탐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고찰하는 것은 조복에 머무는 것이라고 자유자재로 설명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체득하면 무애도의 이름에 부합한다. 모든 무애인은 탐욕의 한 도를 통해 생사를 벗어날 수 있다. (103.c-104.a)

#### 5.3.1.3.2.5.3 번뇌경에 대한 지관수행

(e5.3.1.3.2.5.3.1) 지의는 번뇌즉보리에 대한 선승들의 오해를 비판한 뒤, 대승원교에서의 번뇌즉보리는 불사의(不思議)의 관점에서 엄숙한 수행을 요구하는 것임을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음입계경에서 수행자가

중생의 한 순간의 마음을 관찰대상으로 하여 심승의 관법을 엄숙히 실천 하듯이, 번뇌경에서도 번뇌를 대상으로 해서 심승의 관법을 엄숙히 실천 할 때 수행자는 비로소 번뇌의 조복, 불조복에 거리낌이 없는 자재의 지 위에 오를 수 있다.

(q5.3.1.3.2.5.3.2) 이 서원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수행을 실천 해야만 한다. 수행의 요체는 지관이 가장 뛰어나다. 사분번뇌의 실체는 공이다. 이는 체진지이고, 공으로 들어가는 관법이다. 모든 번뇌의 약과 병에 대해 관찰한다. 이는 수연지이고, 가에 들어가는 관법이다. 모든 번 뇌가 진제와 같다고 관찰한다. 이는 식이변지이고 중도에 들어가는 관법 이다. 선교방편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삼지삼관을 실천하면 한 마음 에 삼안과 삼지를 성취한다. 안과 지혜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 장 애를 두루 부순다. 사분번뇌의 삼가(三假)가 자(自), 타(他), 공(共), 리 (離), 단(單), 복(復), 구족(具足)이 아님을 관찰하면 견사혹은 생기지 않 고, 병을 알고 약을 알면 무지가 생기지 않고, 진실도 아니고 조건도 아 니라는 것을 알면 무명이 생기지 않는다. 이는 가로와 세로로 [장애를] 두 루 남김없이 부수는 것이다. [...] (104.b)

### 5.3.1.3.3 병환경(病患境)

#### 5.3.1.3.3.1 수행의 필요성

(e5.3.1.3.3.1.1) 육체적 질병으로, 지관을 닦는 과정에 있는 수행자 를 괴롭히는 장애이다. 병환경에 따르면, 인간이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사대로 구성된 육체를 가지는 한 질병은 피할 수 없다. 사대가 조화를 이 루고 있을 경우에는 괜찮지만, 사대의 조화가 깨지면 병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질병에는 수행 중에 일어나는 실제적인 병[因中實病]과 유마거사가 교화를 위해 앓았던 방편적인 병[果上權病]이 있다. 병환경에 서의 병은 전자이다. 병은 수행에서 얻은 공덕을 잃게 할 뿐만 아니라, 악업을 짓도록 하여 수행을 방해하기 때문에 지관 수행이 필요하다.

(q5.3.1.3.3.1.2) 지금 관찰하고자 하는 대상은 업보에 근거해서 생긴



육체가 그 사대에서 조화가 깨져 성도를 실천할 수 없는 경우이다. 병환을 잘 관찰하면 관심이 점점 깊어진다고 할 수 있다. 상지(上智)로서 예리한 근기를 가진 사람은 앞에서 편안하게 인내하면 병환경에 대해서도 통달하기 때문에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아직 깨닫지 못한 이들을 위해 다시 분별해서 설명한다. [...] 긴 병과 원행은 선정에서의 커다란 장애이다. 몸이 병에 걸리면 애써 닦았던 공덕은 잃고, 무수한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은 “부력주머니를 부수고, 다리를 철거하여 정념을 잃는다.”고 했다. 병 때문에 계율을 어기는 것은 부력주머니를 부수는 일과 같고, 선정을 부수는 것은 교량을 철거하는 일과 같고, 사악한 전도된 마음을 일으켜 더러운 몸을 아까워하고 청정한 법신을 부수는 것은 정념을 잃는 일과 같다. 이러한 의미에서 병환을 대상으로 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다.(106.b)

#### 5.3.1.3.3.2 병환의 모습

(e5.3.1.3.3.2.1) 소리, 안색, 맥과 관련해서, 오장의 병에 대해 설명했다.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 설명한다. 여기서는 생략한다.

#### 5.3.1.3.3.3 병환의 원인

(e5.3.1.3.3.3.1) 병이 일어나는 원인으로서는 1. 사대의 부조화, 2. 음식의 무절제, 3. 좌선의 부조화, 4. 귀신, 5. 마귀의 행위, 6. 업이 일으키는 경우와 같이 여섯 가지이다. 여기서는 좌선을 원인으로 해서 일어나는 병환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는 이 병이 수행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나아가 병의 치료와 관련해서도 이 병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이다.

#### 5.3.1.3.3.3.1 주병(注病)

(q5.3.1.3.3.3.1.1) 벽이나 기둥 혹은 옷에 기대거나, 대중이 아직 나가지도 않았는데 눕거나 하면 그 마음이 태만해져 마귀가 끼어든다. 몸의 등과 골절이 아프게 된다. 이를 주병이라고 하는데 치료하기 가장 어렵다.(107.a)

#### 5.3.1.3.3.3.2 수식(數息)의 부조화(不調和)

(q5.3.1.3.3.3.2.1) 수식관의 부조화이다. 학질에 걸린 듯이 근맥이 경련을 일으킨다. 이는 팔촉(八觸)을 일으킬 때 수식관의 사용이 촉에 어긋날 때 생기는 병이다. 팔촉이란 마음이 사대와 만나 네 가지의 정촉(正觸)이 되고, 이것에 대해 네 가지의 의촉(依觸)이 있게 되는데 이를 합한 것이다. [...] 팔촉 중 사촉은 위로 올라가고 사촉은 아래로 내려간다. 들숨은 지대(地大)에 순응하여 무겁고, 날숨은 풍대(風大)에 순응하여 가볍다. 또 들숨은 수대(水大)에 순응하여 차갑고, 날숨은 화대(火大)에 순응하여 뜨겁다. 또 들숨은 지대에 순응하여 막히고, 날숨은 풍대에 순응하여 미끄럽다. 들숨은 수대에 순응하여 연하고, 날숨은 화대에 순응하여 거칠다. 만약 무거운 촉을 일으킬 때 날숨을 세게 되면 촉과 상응하지 않아 병이 생긴다. 다른 촉에 대해서도 똑 같다.(107.a)

#### 5.3.1.3.3.3.3 지(止)

(q5.3.1.3.3.3.3.1) 지(止)만 실천하고 방편이 없는 경우도 병이 생긴다. 항상 마음을 아래에 멈추고 있으면 대개의 경우, 지대와 관련된 병을 일으킨다. 항상 마음을 위에 멈추고 있으면 대개의 경우, 풍대와 관련된 병을 일으킨다. 항상 마음을 멈추는 것이 급하면 대개의 경우, 화대와 관련된 병을 일으킨다. 항상 마음을 멈추는 것이 완만하면 대개의 경우, 수대와 관련된 병을 일으킨다.(107.a-b)

#### 5.3.1.3.3.3.4 관(觀)

(q5.3.1.3.3.3.4.1) 관이 한 쪽으로 치우치면 사대를 움직이게 된다. 대상에 대한 관찰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이것을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저것을 대상으로 하라고 마음이 싸운다. 싸움 때문에 어지러운 바람이 일어나 풍대와 관련된 병이 된다. 이때에는 영아의 걸음에 맞추듯이 잠시 거기에 맡겨두도록 한다. 급하게 끌어당겨 빨리 목적을 이루려고 하면 병이 되기 때문이다. 또 오직 하나의 대상을 고집하여 희망의 마음을 일으켜 바람과 열기가 다하지 않으면 열병에 걸린다. 대상을 관찰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소멸한다고 생각하고 소멸할 때 생긴다고 생각하는 경우, 마음이 서로 달라서 중기가 나면 지대와 관련된 병이 생긴다. 또 관찰하는 대

상을 음미하지 않고 억지로 그것을 계속하면 당기면 수대가 증가하여 수대와 관련된 병이 생긴다.(107.b-c)

#### 5.3.1.3.3.4 병환을 치료하는 방법

(e5.3.1.3.3.4.1) 지의는 병의 원인과 그 치료 방법을 통해 좌선이 부적절할 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이러한 설명은 현대 의학상식의 관점에서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지만, 불교수행의 가장 기본을 이루는 좌선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예로서 중요하다.

(q5.3.1.3.3.4.2) 치료 방법을 설명하면, 그 방법은 똑 같지 않다. 노동과 음식을 원인으로 하여 병이 난 경우, 약을 써서 치료하면 나을 수 있다. 좌선이 조화롭지 못해 일어난 병은 좌선을 통해 호흡과 관을 조절함으로써 치료할 수 있고, 약으로는 치료할 수 없다. 귀신과 마귀를 원인으로 하여 일어난 병은 깊은 관행(觀行)의 힘이나 대신주 등을 통해 치료할 수 있다. 업으로 생긴 병은 안으로 관의 힘을 사용하고 밖으로 참회를 해서 치료할 수 있다. 각각의 치료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않고 칼을 휘두르거나 잡아서 자기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는 좌선과 관련해서 여섯 가지의 치료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하겠다.(107.c-108.a)

#### 5.3.1.3.3.4.1 지(止)

(q5.3.1.3.3.4.1.1) 지를 사용해서 치료하는 방법이다. 온사(溫師)는 “마음을 콩알 크기의 배꼽에 두고 옷을 풀어 배꼽을 보고 그 모습을 마음에 새긴다. 그 다음 눈을 감고 입과 이를 다물고 혀를 들어 입천장으로 향한다. 기와 호흡을 조절한다. 마음이 밖으로 달려 나가면 이를 안으로 모아들인다. 집중해서 기억해도 기억나지 않으면, 다시 옷을 풀어 배꼽을 잘 보고 그 모습을 마음에 새긴 뒤 앞에서와 같이 한다.”고 했다. 이는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선정을 일으키는 방법이다. 관을 실천하면 무한한 모습이 있다. 혹은 바늘로 찌르는 듯한 아픔이 있거나, 혹은 밧줄로 당기는 듯이 급하며, 혹은 벌레가 씹듯이 아프고 혹은 물을 뿌리듯이 차갑고,

혹은 불로 굵듯이 뜨거운 것과 같은 여러 가지 느낌이 일어난다. 이 때 마음을 더욱 정진하여 물러나지 않도록 한다. 이와 같은 감촉을 벗어나면 모든 선정을 일으킬 수 있고 정신이 고요해진다. 이는 전광정(電光定)의 모습이다.(108.a)

#### 5.3.1.3.3.4.2 기(氣)

(e5.3.1.3.3.4.2.1) 기를 사용해서 치료하는 방법으로 여섯 가지의 기(氣)를 설명했다. 이 중에서 희, 시는 오늘날 글자 자체도 전해지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다.

(q5.3.1.3.3.4.2.2) 기를 이용해서 치료하는 방법은 취(吹), 호(呼), 희(?), 가(呵), 허(嘘), 시(?) 여섯 개다. 모두 입술을 통해 토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서 어금니와 혀를 낮게 옮겨서 세밀하게 마음을 움직여 상념을 띠고 기를 한다. 차면 취를 사용하는데 불을 부는 방법과 같이 한다. 더우면 호를 쓴다. 모든 마디가 쭈시고 아프면 희를 쓰고 또 풍대를 치료한다. 배가 부담스럽게 부르고 기가 위로 오르면 가를 쓴다. 가래에 따른 기슴병을 앓으면 허를 쓰고 피로하고 권태로우면 시를 쓴다.(108.b-c)

#### 5.3.1.3.3.4.3 식(息)

(q5.3.1.3.3.4.3.1) 숨을 사용해서 치료하는 방법이다. 숨은 몸과 마음에 근거해서 있다. [...] 숨이란 소리가 없고 막힘이 없이 잘 들고 나는 것인데, 이를 잘 지키면 안정된다. 조용한 장소를 찾아 결가부좌하고 몸을 똑 바로 한다. 몸의 긴장을 풀어 사지를 편안하게 한다. 뼈와 근육을 바르게 하고 관절을 상응시키듯이 하여 기대지도 구부리지도 않는다. 허리 띠를 느슨하게 하고 좌우로 돌려 자세를 조절한다. 왼손을 오른손의 위에 두고 엄지를 약간 붙이듯이 하고 양 볼을 부드럽게 한다. 약간 입을 벌리고 4-5번 반복하여 길게 기를 토한다. 다음에 머리를 똑 바로 세워 서서히 눈을 감는다. 눈꺼풀을 완전히 감지는 않는다. 이런 상태에서 빛을 차단한 뒤 숨을 사용한다.(108.c)

#### 5.3.1.3.3.4.4 가상(假想)

(q5.3.1.3.3.4.4.1) 가상의 치료법은 앞에서 설명한 기식을 겹하거나 함께 해서 생각하는 것이다.(109.a)

#### 5.3.1.3.3.4.5 관심(觀心)

(q5.3.1.3.3.4.5.1) 관심으로 치료한다. 이는 가상, 숨 등과 함께 하지 않고 마음만을 관찰하는 방법이다. 안과 밖으로 구해도 마음을 얻을 수 없다. 병이 와서 누구를 괴롭히는지, 누가 병을 받는지 이 모두를 얻을 수 없다고 관찰한다.(109.a)

#### 5.3.1.3.3.4.6 방술(方術)

(q5.3.1.3.3.4.6.1) 방술로 하는 치료 방법이다. 알지 못했을 때에는 아무 관계가 없는 듯하지만 의외로 주변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방술은 천박하고 비근한 방법으로 그 본질은 거짓된 공적을 과장한다. 따라서 출가자들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방술은 처음부터 배울 필요는 없고, 배운 적이 있으면 바로 버리는 편이 좋다. 그러나 사 종삼매를 실천할 때, 물거품과 같이 약해진 몸은 증감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방술을 빌어 병을 치료할 수 있으면 몸을 편안히 유지해서 도를 보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싫어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방술을 이용해서 명예나 이익을 구하여 때때로 사람들을 선동하면 이는 악마의 일이다. 이러한 일은 절대로 해서도 안 되고, 바로 버려야만 한다.(109.a-b)

#### 5.3.1.3.3.5 병환경에 대한 지관수행

(e5.3.1.3.3.5.1) 병환경에서도 지관수행으로서 심승의 관법을 설명했다. 심승 관법의 실천에서 진리를 구하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보살의 서원은 수행의 출발점으로서 중요하다. 지의에 따르면, 중생의 병은 자비의 서원을 세우는 근거이다. 이는 병환경이 대승원교의 깨달음과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말해 준다.

(q5.3.1.3.3.5.2) 현실에서의 중생의 병은 대개 어리석음과 욕망에서 생긴다. 어리석음과 욕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대자비도 같이 일어나며, 어리석음과 욕망이 조금이라도 없어진다면 대자비도 같이 없어진다. 중생의 병이 낫거나 낫지 않거나 하면, 보살도 같이 병이 있거나 없거나 한다. 병이 없으면 그 아이가 나왔다고 알고, 병이 있으면 교화의 길을 멈추지 않는다. 그러므로 문수보살이 유마에게 병을 묻는 것도, 구시라성에서 등의 아픔을 일으키는 것도 모두 이러한 의미에서이다. 이와 같이 서원은 허공과 같아, 질병도 법계와 관계하고 있다. 이것을 불사의의 자비라고 하고 한다. 자비의 힘은 커, 보살이 처음 이 마음을 일으키면 질병은 곧 치료되기 때문에 다시 이하의 관법을 실천할 필요가 없다.(111.b)

#### 5.3.1.3.4 업상경(業相境)

(e5.3.1.3.4.1) 업상경은 무수한 세월에 걸쳐 수행자가 지은 업이 원인이 되어, 지관을 실천함에 따라 발생하여 지관수행을 방해하는 것이다. 지의는 空에 근거해서 업을 부정하는 주장을 경계하고, 업을 대승과 소승에 공통하는 불교의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q5.3.1.3.4.2) 업상을 대상으로 관찰한다. 수행자가 오랜 시간에 걸쳐 지은 선악의 여러 업은 이미 그 과보를 받은 것도 있지만 아직 받지 않는 것도 있다. 그러나 이들 업상은 평상시의 마음에 드러나지 않다가, 지관의 실천에 따라 여러 업이 움직여 선악의 업상이 나타나게 된다. 의심하는 이들은 대승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존재는 평등하므로 이러한 업의 차별상은 논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생각은 잘못이다. 평등의 거울이 청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 업의 모습이 드러난다. 『금광명경』은 “십지를 깨달을 때 모든 모습이 드러난다.”고 했다. 『아함경』은 “초과를 깨달을 때 88마리의 뱀이 그 앞에서 죽는다.”고 했다. 이와 같이 대승과 소승 모두에 업상에 대해 설명한 글이 많다. 『법화경』은 “깊이 죄와 복의 모습을 깨달아 두루 시방을 비춘다.”고 했다. 죄와 복은 곧 선악의 업이다.(111.c-112.a)

#### 5.3.1.3.4.1 업상이 일어나는 인연

##### 5.3.1.3.4.1.1 내부 인연

(q5.3.1.3.4.1.1.1) 안의 인연이란 지관을 통해 마음을 닦으면, 마음이 점차 밝고 깨끗해져 여러 선과 악을 비추어 드러내게 된다. 혹은 지에 근거해서 악을 멈추면 악이 소멸하고, 혹은 관에 근거해서 선을 관찰하면 선이 생기고, 혹은 지에 근거해서 악을 멈추고자 하면 악이 지를 통해 생기고, 혹은 관에 근거해서 선을 관찰하고자 하면 선이 관을 통해 소멸하는 등 무수한 업의 모습이 지관을 실천하는 가운데 드러난다. 이는 거울을 닦으면 수많은 모습이 자연스럽게 비쳐 드러나는 것과 같다.(112.a)

##### 5.3.1.3.4.1.2 외부 인연

(q5.3.1.3.4.1.2.1) 밖의 인연이란 제불의 자비는 항상 모든 존재에 응답하고 있지만, 중생에게 보는 힘이 없으면 이것을 볼 수가 없다. 지관의 힘을 통해 제불에 잘 감응하게 되고, 선악의 선정에 근거해서 여러 업이 드러나게 된다. 이는 꽃을 들어 대중에게 보이는 것과 같다. 이것이 안과 밖의 인연이다. 이 의미를 잘 이해하면 자세하게 죄와 복을 판단하여 흑과 백을 혼동하지 않게 된다. 대승의 스승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조복할 수 있다. 지금 지관을 통해 마음을 닦고 업을 멈추어 수행을 성취하도록 함으로써, 한 마음으로 도를 취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업의 모습에 대해 왜곡해서 분별하지 않겠다.(112.a)

#### 5.3.1.3.4.2 업상이 일어나는 모습

(e5.3.1.3.4.2.1) 업상에는 선과 악, 무기의 모습이 있지만 여기서는 선악의 모습에 대해서만 설명했다. 선업상과 악업상이 일어나는 모습에는 전후차례도 없고 전차만별로 다양하지만 보과(報果)로서 일어나는 모습, 습인(習因)으로 일어나는 모습, 보과가 앞에 습인이 뒤에 일어나는 모습, 습인이 앞에 보과가 뒤에 일어나는 모습, 습인과 보과가 동시에 일어나는 모습, 앞과 뒤가 일정하지 않게 나타나는 모습 등 여섯 가지로 정리해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습인과 보과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선

업상과 악업상을 각각 여섯 가지의 모습을 통해 그 일어나는 모습을 설명했다.

#### 5.3.1.3.4.2.1 습인습과(習因習果)의 의미

(q5.3.1.3.4.2.1.1) 『아비달마』의 학자에 따르면, “습인이란 자분인(自分因)이고 습관이란 습인에 근거한 결과이다. 습은 습속의 의미로서, 자분의 종자가 차례차례 생기는 것이다. 뒷생각의 마음이 일어나 앞생각의 마음을 잇는다. 앞생각을 인이라고 하고, 뒷생각을 과라고 한다.” 이 의미는 선, 악, 무기에 공통되지만 이 설명에서는 선악에서만 습속이 있고 무기에는 습속이 없다고 했다.(112.a)

#### 5.3.1.3.4.2.2 보인보과(報因報果)의 의미

(q5.3.1.3.4.2.2.1) 보인보과란 서로 다른 시간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서, 앞에서 설명한 습인습과는 모두 보인이라고 한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 미래의 과보를 당기기 때문에 보(報)라는 말을 사용하여 보인이라고 한다. 뒤에 오도의 몸을 받는 것은 곧 보과이다. 지금 과보로 받은 몸에서, 또 선악의 습속을 일으킨다. 습인습과를 총괄해서 과거에 대해 말하면, 지금의 습속은 결과가 되고 미래에 대해 말하면, 지금의 습속은 원인이 된다.(112.a)

#### 5.3.1.3.4.2.3 보과의 모습

(q5.3.1.3.4.2.3.1) 좌선 중에 여러 모습을 보면, 이는 보과의 모습이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과거의 원인에 근거해서 있기 때문에 보인이라고도 할 수 있다. 또 일으키는 원인이 미래의 과보를 당기기 때문에 보인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모습을 단지 보과의 모습이라고 한다.(112.b)

#### 5.3.1.3.4.2.4 습인의 모습

(q5.3.1.3.4.2.4.1) 좌선 중에 여러 모습이 보이지 않았는데 갑작스럽



게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습인이 일어나는 모습이다. 미래의 과보를 당기기 때문에 습과라고도 할 수 있고, 과거의 원인에 대한 과보이기 때문에 습과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단지 습인의 모습이라고 한다. (112.b)

#### 5.3.1.3.4.2.5 선업상(善業相)

(e5.3.1.3.4.2.5.1) 선한 업의 모습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의는 육바라밀을 통해 지관 수행 중에 일어나는 선한 업의 모습을 설명했다. 그리고 이 때 선한 업이 일어나는 모습을 앞에서 설명한 보과와 습인의 모습등과 관련해서 여섯 가지의 모습으로 설명했다. 이러한 선업상을 여기서는 육바라밀 중 보시의 선업상에 대한 설명을 통해 살펴보겠다.

(q5.3.1.3.4.2.5.2) 보시업의 모습이 드러나는 경우란 좌선 중에 갑작스레 복전(福田)이 뛰어난 경계가 나타나고 삼보의 형상과 성종과 대중, 부모와 스승, 수행하는 사람이 자기의 공양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다. [...] 혹은 과거 행한 보시의 과보의 모습이 나타나거나 혹은 즐겁게 보시를 실천하는 사람이 눈앞에 나타나 보시를 칭찬하는 것을 본다. 이와 같은 모습은 모두 보시의 보과가 나타나는 모습이다. 또 이러한 모습을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보시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 삼보, 부모, 스승을 공경하여 공양한다. [...] 혹은 보시의 가르침만이 명료해질 때와 같은 이러한 모습은 모두 보시의 습인이 나타나는 모습이다. 이러한 모습은 먼저 이러한 마음을 일으키고 보과의 모습을 보거나, 먼저 보과의 모습을 보고 이러한 마음을 일으키거나, 동시에 일어나거나, 혹은 일정한 순서 없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112.b)

#### 5.3.1.3.4.2.6 악업상(惡業相)

(e5.3.1.3.4.2.6.1) 악업의 모습은 매우 많지만, 여섯 가지의 폐단을 앞에서 설명한 여섯 가지의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 설명했다. 여기서는 여섯 가지의 폐단 중 인색함의 폐단을 통해 악업상이 나타나는 모습을 살펴보겠다.

(q5.3.1.3.4.2.6.2) 악업의 모습을 설명하면, 여러 가지 악은 매우 많지만 6가지 폐단에 대해 살펴보겠다. 하나하나의 폐단에는 선업상에서와 같이 6가지 모습이 있다. 인색함의 폐단의 모습은 삼보와 부모, 스승이 그 모습이 초채하거나, 혹은 나체로 있거나 옷이 해져있거나 남루하거나 혹은 기아로 불안해한다. 사찰이 황폐해져 있는 것을 보거나, 모든 물건이 봉합되어 있는 것을 본다. 이러한 모습은 앞의 선업상과 다르다. 앞에서는 사람이 물건에 대해 기뻐했지만 지금은 사람이 물건에 대해 화를 내거나 치욕스러워하는 것을 본다. 앞에서의 물건은 보시가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보이는 반면, 지금의 물건은 인색과 탐욕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보인다. 혹은 인색한 사람이 눈앞에 오는 것을 보기도 한다. 이러한 모습은 인색함의 폐단의 보파가 나타나는 모습이다. 이러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에 여섯 가지가 있다는 것은 앞에서 서술한 대로이다.(113.a)

#### 5.3.1.3.4.3 업장(業障)의 차이에 대해

(e5.3.1.3.4.3.1) 수행의 과정 중에 나타나는 선악의 업상 가운데, 선한 업상 모두는 수행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의미를 갖거나, 악한 업상 모두는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만약 수행자가 선한 업상에 집착하면 더 이상 수행을 진행하지 못하여 오히려 수행의 장애가 된다. 이에 반해 악한 업상이라고 하더라도 수행자가 참회하고 진리를 향하면 오히려 수행에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선악의 업상이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의 모습, 선악의 관계에 대한 정확한 분별이 요구된다. 그러나 지의는 여기서 단지 선과 악의 업상이 지관수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자세한 분별은 행하지 않겠다고 하고, 업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비담론』과 『성실론』, 『중론』을 참조하라고 했다.

(q5.3.1.3.4.3.2) 대개 발심이 바르고, 지해가 분명하면 여러 가지 업상을 알아 하나하나에 대해 오해가 없다. 여러 가지 장애에 미혹됨이 없이 마음을 힘써 진리로 향해 한층 이해를 깊게 한다. 실천에 역력이 있어 업상을 분별하여 자재로이 통달하고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교화한다. 업

상을 분별하고 그것을 상세하게 밝히지는 못해도 이것이 장애임을 알아서 집착하지 않고 바로 마음을 힘써 진리를 관찰하면 업상이 방해할 수 없다. 지혜의 마음이 없고, 발심도 바르지 않다면 이 업상을 보고 애욕과 집착이 생겨 마귀가 그 틈을 얻어 들어오게 된다. 들어오면 길흥의 일을 행하게 되고 더욱더 이것을 집착하여 재물, 음식과 교환한다. 죽으면 아귀도에 떨어진다. 이는 귀신의 선정일 뿐이다.(113.c)

#### 5.3.1.3.4.4 업상경에 대한 지관 수행

(e5.3.1.3.4.4.1) 대승원교가 업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을 대상으로 해서 지관을 실천하는 방법은, 먼저 업상에 대해 사려분별을 떠난 불사의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나아가 심승의 관법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관수행은 업상경에 한하는 방법이 아니고 심경에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심승의 관법을 통해 업상을 관찰하는 지관수행의 방법은 심승의 관법의 설명을 참조하기 바란다.

(q5.3.1.3.4.4.2) 지금 불사의업경이란 『법화경』에서 “죄와 복의 모습에 대해 깊히 통달한다.”고 말한 의미이다. 죄란 삼악이고, 복은 삼선이지만 삼악의 모습만 이해하고, 인천(人天)의 삼선의 업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깊이 통달한다’고 할 수 없다. 악에 통달하고, 선에 대해서도 통달할 때 ‘깊이 통달한다’고 할 수 있다. 선악의 업상에 대해 이것이 악이고 이것이 선이라고 아는 것만으로 ‘깊이 통달한다’고 할 수 없다. 선과 악은 모두 악으로서, 이러한 선악의 분별을 떠나는 것이 선이다. 이것을 ‘깊이 통달한다’고 할 수 있다. 인천의 선악에 통달하는 것은 생사윤회의 측면이고 이승이 선악을 떠나 열반에 도달하는 것은 공의 측면이다. 이는 두 측면으로 분별되었기 때문에 ‘깊이 통달한다’고 할 수 없다. 또 두 측면은 악이므로 이것을 ‘깊이 통달한다’고 할 수 없다. 별교보살은 두 측면의 알음을 잘 알아 점차적으로 깊이 통달하기 때문에 ‘깊이 통달한다’고 할 수 있지만, 별교가 점차적으로 깊어지는 것을 ‘깊이 통달한다’고 할 수 없다. 원교는 얕은 업에 근거해서 깊은 업에 통달하기 때문에 비로소 ‘죄와 복에 대해 깊히 통달하여 두루 시방을 비춘다’고 할 수 있다.(114.a)

#### 5.3.1.3.5 마사경(魔事境)

(e5.3.1.3.5.1) 마사경에서 마사란 지관수행이 점차 깊어져 악을 물리치고 선이 생기려고 할 때 등장하는 악마를 가리킨다. 마사경에 대한 설명은 지의 자신이 수행과정에서 실제로 체험한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 『별전』은 지의가 금릉에서의 강단생활을 버리고 천태산에 들어가기 직전, 명리(名利)라는 연적(軟賊) 때문에 정신적 위기에 봉착했던 일과 화정봉 수행시 강마(强魔)와 유마(柔魔)의 유혹과 심각한 대결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지의는 이들 악마에 대해 수행이 진행된다면 반드시 등장하기 때문에, 제자의 수행을 지도하는 스승은 이들을 반드시 설명해 주어야 하고, 수행자는 두려워하지 말고 수행을 진행하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q5.3.1.3.5.2) 마사를 대상으로 관찰한다는 것은 수행자가 사중삼매를 닦아 악을 물리치고 선이 생기고자 할 때 악마가 이를 두려워하여 그 대상을 드러낸다. 이들은 수행자가 다른 사람들을 교화하게 되면, 자기편을 잃어 자기의 궁전이 텅 비게 된다고 두려워한다. 또 수행자가 커다란 신력과 지혜의 힘을 얻어 자기와 대립하면서 커다란 전투를 통해 자신을 조복시키고 강제하여 자기를 괴롭힐 것이라고 생각하여, 수행자의 수행이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은 지금 그 선근을 부수고자 해서 마사의 대상이 등장하게 된다. 수행자의 깨달음이 아직 미약할 때에는 악마괴순을 움직일 수 없으니, 모든 귀신은 욕욕천에 속하기 때문이다. 수행이 이 경계에 이르러 적을 방지할 수 있을 때 이러한 악마들을 움직일 수 있다. 『대품반야경』은 “마사와 악마의 죄에 대해 설명하는 사람은 악지식의 보살이다.”고 했다. 마사를 알면 걱정하지 않고 지관을 성취할 수 있다.(114.c-115.a)

#### 5.3.1.3.5.1 마사의 의미

(e5.3.1.3.5.1.1) 깨달음을 막는 악마는 음마(陰魔), 번뇌마(煩惱魔), 사마(死魔), 천자마(天子魔)가 있는데, 마사경에서의 악마는 천자마를 의미한다.

(q5.3.1.3.5.1.2) 먼저 악마의 같은 점과 차이점을 밝히면, 음마는 음 입계경에 속하고 번뇌마는 번뇌경에 사마는 병이 죽음의 원인이므로 병환 경에 속한다. 그리하여 지금 마사경에서는 곧 천자마를 밝힌다. 네 가지 전도[四倒]와 네 가지의 악마를 분별하면, 네 가지 전도는 모두 번뇌마이다. 번뇌마가 있기 때문에 음마가 있고, 음마가 있기 때문에 사마가 있고 이와 같이 삼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천자마가 있다.(115.a)

### 5.3.1.3.5.2 마사가 나타나는 모습

#### 5.3.1.3.5.2.1 퇴척귀(퇴惕鬼)

(q5.3.1.3.5.2.1.1) 퇴척귀가 나타나는 모습은 사람이 좌선을 할 때 머리, 얼굴, 혹은 몸에 붙어서 떨어졌다가 또 다시 올라가는 등 반복해서 그치지 않는다. 고통은 없다고 해도 마음을 불안하게 하여 견디기 어려운 면이 있다. 사람의 귀나 눈, 코를 자르거나 꺾이고서 치고 비비고 해서 물건이 있는 것 같아 붙잡으려 하면 잡히지 않는다. 다 쫓아버렸다가는 다시 오고 새들이 우는 작은 소리를 내어 사람의 귀를 시끄럽게 한다. 이 악마의 얼굴은 비파를 닮았고 눈이 네 개고 입이 두 개이다.(115.a)

#### 5.3.1.3.5.2.2 시미귀(時媚鬼)

(e5.3.1.3.5.2.2.1) 시미귀의 열두 마리의 짐승은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의 십이간지 동물을 가리킨다.

(q5.3.1.3.5.2.2.2) 시미귀가 나타나는 모습을 『대집경』은 “열두 마리의 짐승이 수미산 가운데에서 법연의 자비를 수행한다.”고 했다. 이들은 정미귀의 주인이다. 임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반드시 괴롭히지는 않지만, 실제로 나타나는 것은 괴롭히는 면이 있다. 잘못된 생각으로 좌선으로 하면 대체로 이러한 시미귀가 붙어온다. 젊은 남자나 여자, 늙은 남자나 여자, 혹은 짐승의 모습과 같이 서로 다른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 즐겁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가르치기도 한다.(115.a-b)

### 5.3.1.3.5.2.3 마라귀(魔羅鬼)

(e5.3.1.3.5.2.3.1) 마라귀는 이미 생겨난 선과 아직 생겨나지 않은 선을 부수고, 이미 생겨난 악과 아직 생겨나지 않은 악을 증장시키고자 하는 존재이다. 업상경에 대한 지관수행에서 설명했듯이, 선과 악은 고정된 실체가 있어서 선과 악으로 분별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선과 악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에 따라 선으로 분별된 것도 실제로는 악일 수 있다. 지의는 대승원교의 수행과 관련해서 이승의 가르침은 선이기는 하지만 대승의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지향하는 수행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마라귀에 속한다고 해석했다.

(q5.3.1.3.5.2.3.2) 처음 마라귀는 선을 어기게 하고 악을 일으키지만 이를 따르지 않으면, 선만을 일으켜 탐을 짓게 하거나 절을 짓게 하는 등 여러 가지 일로 선정을 방해한다. 이래도 따르지 않으면, 이승에 떨어지도록 한다. 마라귀는 이승을 이해하지 못한 채, 오직 이승만을 수행하게 하여 대승에 들지 못하게 한다. [...] 마라귀에 사로잡혀 수행하는 이들은 실제로 대승과 소승을 구분하지도 못한다. 또 다른 사람을 교화할 때 방편이 없는 공을 가르치고 부처도 없지만 중생도 없다고 가르치거나, 편공에 떨어뜨리거나, 편가나 여러 가지 위험한 길로 나아가게 하여 원교에 들지 못하게 한다. 아난과 급다와 같은 불제자조차 불퇴전의 지위를 배울 때 모두 마라귀에 사로잡혔다. 초심의 수행자가 자행과 화타의 서른 여섯 가지의 화살을 피하기는 정말 어렵다.(115.c)

### 5.3.1.3.5.3 마사경이 일으키는 손실

(e5.3.1.3.5.3.1) 『대지도론』은 악마를 화전(花箭)에 비유했다. 이는 악마가 사람을 유인하여 집착을 일으키는 것을 꽃으로 비유하고, 또 다섯 가지 감각 기관을 통해 들어와 다섯 가지 감각 기관의 올바른 작용을 파괴하여 모든 존재에 대해 잘못된 견해를 낳게 하는 것을 화살로 비유한 것이다. 이러한 악마가 일으키는 수행상의 세 가지 장애 중, 감각 기관을 통해 들어온 대상에 대한 잘못된 이해방식을 유(有), 무(無), 명(明), 암(闇), 정(定), 난(亂), 우(愚), 지(智), 비(悲), 희(喜), 고

(苦), 락(樂), 화(禍), 복(福), 선(善), 악(惡), 애(愛), 증(憎), 강(強), 연(軟)으로 나누어, 이들이 지나치거나 혹은 모자라는 것을 사법을 얻는 것으로 설명했다.

(q5.3.1.3.5.3.2) 마사가 일으키는 장애를 밝히면, 강한 화살과 연한 화살이 처음 다섯 가지 감각 기관을 쏘게 되면, 세 가지의 잘못이 발생한다. 1. 사람이 병들게 한다, 2. 관심을 잃게 한다, 3. 사법(邪法)을 얻도록 한다는 세 가지이다.(115.c)

#### 5.3.1.3.5.4 치료 방법

(e5.3.1.3.5.4.1) 악마의 종류에 따라 치료 방법도 다른데, 퇴척귀는 이 귀신의 종조를 가책하거나 계를 독송하면 물리칠 수 있고 시미귀는 시각에 따라 각각의 짐승의 이름을 부르면 물리칠 수 있다. 여기서는 마라귀에 대한 치료법을 살펴보았다.

(q5.3.1.3.5.4.2) 마라귀를 치료하는 방법은 세 가지이다. 첫째 마라귀를 깨닫고 가책한다. 문을 지키는 사람이 악인을 막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다. [...] 둘째 마라귀가 이미 들어왔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하나 밝게 관찰한다. 마라귀를 찾아보아도 얻을 수가 없고 마음을 찾아봐도 얻을 수가 없다. 마는 어디에서부터 와서 무엇을 괴롭히는가라고 관찰한다. [...] 셋째 이와 같이 관찰해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마음을 강하게 하여 굳세게 저항한다. 죽음을 각오하고 ‘너랑은 같이 머물지 않겠다’고 하면 마음이 바뀌어 사라진다.(116.a-b)

#### 5.3.1.3.5.5 마사경에 대한 지관수행

(e5.3.1.3.5.5.1) 퇴척귀, 시미귀, 마라귀는 모두 외부에서 수행자의 수행을 방해하는 존재로 설명되지만, 실제로는 수행자 자신의 정신적 약점을 상징화한 것이다. 정신적 약점은 수행을 더욱 진전시켜 깨달음을 성취할 때 비로소 극복 가능하다. 따라서 마사경에서도 불사의의 관점에 근거한 십승의 지관관법이 주장된다.

(q5.3.1.3.5.5.2) 마사에 근거해서 십계와 백법을 갖추고 한 순간의 마음에 있으면 모든 존재가 마(魔)로 나아간다. 이는 한 순간의 꿈에 모든 존재가 나타나듯이 하나의 마가 모든 마이며 모든 마가 하나의 마이다. 하나의 법도 아니고 모든 법도 아니다. 또 하나의 마이고 모든 마이듯이 하나의 부처는 모든 부처이다. 법계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마계는 불법계와 다르지 않다. 이와 같이 관찰하면 마를 항복시키는 것이 곧 수행도량이 된다. 뛰어난 근기의 예리한 지혜는 마를 물리쳐 진리를 드러낸다. 마를 시종으로 만들어 마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는 장작이 불을 더 키우는 것과 같다. [...] 별교는 비법을 참지 못하기 때문에 이는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한다. 원교는 마를 진리에 두기 때문에 나와 같은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한다. 마를 두려워하지 않고 생사의 괴로움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있다. 이를 사의를 넘어서 마사경이라고 한다.(116b)

#### 5.3.1.3.6 선정경(禪定境)

(e5.3.1.3.6.1) 선정경은 지관수행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과거에 닦았던 선정에 대한 집착심 때문에 일어나는 마음을 대상으로 하여 관찰하는 것이다. 선정경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 얕고 깊음에도 차이가 있지만 이들은 모두 깨달음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의 음입계경, 번뇌경, 병환경, 업상경, 마사경과 다르다. 그러나 선정은 원돈지관의 실천을 방해하는 가장 두려운 대상이기도 하다. 여기서의 선정은 반야에 상대해서 성립하는 수행으로서 지관수행자로 하여금 수행의 과정 중에 일어나는 공덕을 절대시함으로써 반야를 통한 구경각에 이르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의는 선정경을 제견경과 더불어 십경 가운데 가장 주의를 기울여 설명했다.

(q5.3.1.3.6.2) 앞에서 설명한 여러 가지 대상을 통해 깨달음으로 들어가 청량지에 서고 흐름에 들어간 사람은 선정경을 관찰할 필요는 없다. 마사경을 지나게 됐지만 참된 깨달음을 아직 얻지 못한 경우 특별하게 나타나는 대상은 없다. 그래도 음입계를 대상으로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습벽이 일어나 여러 선정이 나타나게 된다. 이때 마사경은 옆에



두고 여러 선정을 대상으로 관찰해야 한다. 선정의 즐거움은 미묘하여 그 맛을 좋아해 거기에 빠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으면 더러움과 때가 날로 증가하게 된다. 이를 깨달음이라고 하면 증상만에 빠지게 되며, 그렇다고 해서 선정을 버리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을 잃게 된다. 이러한 잘못은 셀 수가 없다. 마사의 장애를 벗어나도 다시 선정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는 불을 피하려다가 물에 빠지는 것으로 조금도 삼매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선정을 대상으로 관찰해야만 한다.(117.b)

### 5.3.1.3.6.1 선정의 분류

#### 5.3.1.3.6.1.1 종류에 따른 분류

(e5.3.1.3.6.1.1.1) 선정의 종류는 무수하기 때문에, 다섯 종류, 열 종류, 열다섯 종류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단지 총괄적인 분류와 개별적인 분류의 차이일 뿐 그 내용은 같다. 여기서는 편의상 열 종류로 분류했다.

(q5.3.1.3.6.1.1.2) 선정의 종류는 무수하지만, 열 종류로 고찰해 보겠다. 1. 근본사선, 2.십육특승, 3.통명선, 4. 구상, 5. 팔배선, 6. 대부정, 7. 자심, 8. 인연, 9. 염불, 10. 신통이다.(117.b)

#### 5.3.1.3.6.1.2 유루(有漏)·무루(無漏)에 따른 분류

(e5.3.1.3.6.1.2.1) 열 종류의 선은 유루, 무루에 따라 유루선, 무루선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지의는 이들을 일단, 유루선이자 사선(事禪)으로 분류한 뒤 이를 절대적으로 고정된 것으로 하지 않고 경전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q5.3.1.3.6.1.2.2) 유루와 무루에 대해 설명하면, 『잡아비담심론』은 10종류의 선을 모두 유루선으로 분류했다. 진리를 대상으로 해서 지혜를 닦는 것을 무루선이라고 하고, 이와 달리 현상을 대상으로 해서 수행하는 것을 유루선이라고 했다. 『성실론』도 이 주장과 같다. 근본선 등은 유루선이고, 공과 무상의 마음을 닦는 것을 무루라고 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와 같은 주장과는 조금 다르다. 열 종류의 선 자체의 모습은 유루이고 모두 사선(事禪)이지만, 오이가 열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듯이, 이들에 대해 조금 분별해 볼 필요가 있다. [...] 십육특승과 통명선은 부처가 이 세상에 오지 않아도 근기가 뛰어난 범부들이 실천했다. 무루를 일으키지는 않았지만 여래가 설명하면 무루를 일으킬 수 있다. 다른 선정과 비교해서 힘은 약하지만 근본선보다는 뛰어나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두 가지 선정은 유루이기도 하고 무루이기도 하다.(117.c)

### 5.3.1.3.6.1.3 깊고 얕음에 따른 분류

(q5.3.1.3.6.1.3.1) 사선(四禪)은 근본선으로 암증인이 탐착하는 선[味禪]이다. 범부와 성인이 공통으로 실천하며 조금만 수행해도 그 경지를 얻을 수 있다. 십육특승은 약간의 관혜가 갖추어져 있어 미착선도 암증선도 아니다. 가로로는 사념처(四念處)에 상대하고 세로로는 근본선에 상대하기 때문에 먼저 미선을 설명하고, 다음으로 정선을 설명했다. 통명선은 관혜의 증득상이 깊고 세밀하다는 점에서 십육특승과 다르다. 근본선과 특승, 통명선 세 가지는 모두 사선으로 미혹을 대치하는 힘이 약하다. 구상은 바로 가상의 초문(初門)으로 그 앞의 끝이 욕망을 행복시키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이어진다. 구상은 외부의 대상을 싫어하고 미워할 뿐 그 마음을 다스리지는 못한다. 이러한 이유로 팔배사로 이어진다. [...] 세간의 정견을 성취해도 번뇌의 바다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교화하기에는 복덕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힘이 광대한 성인이 다음으로 이어진다. 앞에서 설명한 이러한 여러 선정이 있어도 복덕의 힘의 작용이 자유자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으로 신통을 닦는다.(118.a-b)

### 5.3.1.3.6.2 선정이 일어나는 인연

#### 5.3.1.3.6.2.1 내부 인연

(q5.3.1.3.6.2.1.1) 과거에 차례로 배운 것이 있으면 차례로 일어나고 또 사선을 실천했던 적이 있으면 사선을 일으키게 된다. 이는 대지가 여러 종류의 씨를 갖추고 있다가 비가 와 윤택해지면 각각 싹이 나는데 여기에는 앞과 뒤가 있는 것과 같다. 또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 데에도 앞과 뒤가 다르다. [...] 과거에 배웠던 것은 씨와 같고, 지관은 비와 같

고, 선정이 일어나는 것은 열매가 익는 것이 각각 다른 것과 같다. 여기에는 총괄하면 여덟 가지의 드러나는 방법이 있다. 이것이 안의 인연에 따라 선정이 일어난다는 의미이다.(118.b)

#### 5.3.1.3.6.2.2 외부 인연

(q5.3.1.3.6.2.2.1) 이와 같이 일어나는 선이 갖추어져 있다고 해도, 이들은 위신력이 있어야만 비로소 일어난다. 이는 대지가 씨를 갖추고 있어도 햇빛이 없으면 싹을 피우지 못하는 것과 같다. 부처는 사랑과 미움이 없이 조건에 따라 두루 이익을 준다. 차체의 인연이 있으면 차체에 힘을 주고 사선을 닦은 인연이 있으면 사선에 힘을 더할 뿐이다. 이는 커다란 종의 소리가 크게 치느냐, 작게 치느냐와 같이 치는 방법에 따라 소리가 다른 것과 같다. 부처가 들이는 힘은 항상 평등하지만 그 듣는 방법과 배우는 방법에 따라 깊이의 차이가 생긴다. [...] 이것이 선정은 외부의 인연에 따라 일어난다는 의미이다.(118.b)

#### 5.3.1.3.6.3 선정이 일어나는 모습

(e5.3.1.3.6.3.1) 지의에 따르면, 선정이 일어나는 모습은 근본사선, 십육특승, 통명, 구상, 팔배사, 대부정, 자심, 인연, 염불, 신통의 열 가지이다. 이들 선정정은 과거 수행을 통해 수행자가 도달했던 지위에 따라 일어나는 숙장(宿障)이다. 지의는 자신의 체험에 근거해서 이들 선법들의 상호관계 및 원돈지관에 대해 장애로 작용하는 측면과 그 치료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 5.3.1.3.6.3.1 근본사선(根本四禪)

(e5.3.1.3.6.3.1.1) 근본사선은 욕계, 색계, 무색계의 삼계(三界) 안의 수행법으로서 추주(麤住)에서 비상비비상정(非想非非想定)에 이르는 단계를 갖는다. 『마하지관』에서 욕계의 선정법으로서 색계의 사선으로 이끄는 욕계정(欲界定)과 이 이후에 성립하는 초선(初禪)에 대한 설명은

자세한 반면, 무색계의 사선은 간략하다. 이에 따라 여기서도 욕계정과 초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무색계의 사선에 대한 설명은 생략했다.

#### 5.3.1.3.6.3.1.1 욕계(欲界)의 선정

##### 5.3.1.3.6.3.1.1.1 욕계정이 일어나는 모습

(q5.3.1.3.6.3.1.1.1.1) 몸을 단정히 하고, 마음을 포섭하여 기와 호흡을 조절한다. 마음이 가는 길을 지각하면 고요하게 맑아진다. 편안해지고 은밀해져 깊은 경지에 들어간다. 이 마음은 여러 가지 조건 속에 있지만 밖으로 달려 나가 흩어지지 않는다. 이를 추주(麤住)라고 한다. 초주 다 음에 오면서 이 마음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을 세주(細住)라고 한다. 초주와 세주의 전후, 혹은 그 중간에 몸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이 서면 몸은 자연스럽게 똑 바르게 되어, 피곤하지도 아프지도 않다. 마치 무언가가 있어 이 몸을 도와주는 듯하다. 잘못된 방법으로 이 몸을 유지하면 갑작스런 고통이 있고, 좌선을 풀었을 때에는 몸이 느슨하게 피곤하다. 좋은 유지법은 추주와 세주에 머무르면서 완급과 같은 고통이 없고 한두 시간, 혹은 하루 이틀, 혹은 한두 달을 지내도 점점 세밀해짐을 느낀다. 흰히 트인 상태의 마음으로 일부분의 개명을 이룬다. 몸은 구름이나 그림자같이 밝고 청명해진다. 선정과 상응하여 마음을 지키고 움직이지 않고 회포가 청정하게 다스려지고 상쾌하고도 맑고 냉철하다. 공과 청정함을 따르지만 아직 몸과 마음의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림의 공덕을 지니지는 못한다. 이를 욕계정이라고 한다.(118.b-c)

##### 5.3.1.3.6.3.1.1.2 욕계정의 의미

(q5.3.1.3.6.3.1.1.2.1) 이 마음에서 한 번 굴러, 욕계정 중에 몸과 의복, 침상, 문고리 같은 것을 보지 않고 허공과 같이 밝고 환하게 되어 편안해진다. 몸은 현상의 장애로, 이는 미래를 방해한다. [욕계정을 통해] 장애가 제거되고 몸이 공하면, 미래에 선정을 일으킨다. 이 선정을 아직 도달하지 못한 선정의 모습[未到地相]이라고 한다. 모르는 사람은 이 선정을 무생인이라고 하지만, 아직 욕계의 미혹[성장(性障)]이 남아있고, 아직 초선에도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무생정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재에 덮여 있는 불을 어리석은 사람이 경솔하게 다시 밝는 것과 같다.(118.c)

### 5.3.1.3.6.3.1.2 색계(色界)의 사선(四禪)이 일어나는 모습

#### 5.3.1.3.6.3.1.2.1 초선(初禪)에서 일어나는 여덟 가지의 지각

##### 5.3.1.3.6.3.1.2.1.1 초선의 의미

(q5.3.1.3.6.3.1.2.1.1.1) 미도지정에서는 몸과 마음이 점차 허적(虛寂)을 지각하여 안으로 몸을 보지 않고 밖으로 사물을 보지 않는다. 하루, 혹은 한 달, 일 년을 지나도 선정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선정에서 몸과 마음이 미미하게 옮겨 가듯이 움직이는 것을 느낀다. 움직임, 가려움, 가벼움, 무거움, 차가움, 따뜻함, 켜끄러움, 매끄러움과 같은 8가지의 지각이 일어난다.(119.a)

##### 5.3.1.3.6.3.1.2.1.2 여덟 가지 지각의 유래

(q5.3.1.3.6.3.1.2.1.2.1) 마음 안의 번뇌는 나란히 일어나지 않는다. 선정도 이와 같다. [초선에서] 사장(事障)의 조잡한 장애는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닦으면 점차 예리해져 성장(性障)도 일어나지 않지만 세밀한 장애가 발생한다. 이는 [초선의] 지각이 반드시 밖으로부터만 오는 것이 아님을 말해 준다. 수식(數息)은 마음을 움직이고 이 마음은 화대(火大)를 움직이고, 화대는 풍대(風大)를 움직이고, 풍대는 수대(水大)를 움직이고, 수대는 지대(地大)를 움직이듯이, 사대가 움직이는 모습이 점점 세밀해져 여덟 가지의 지각을 일으킨다. 이는 보리가 변해서 누룩이 되고, 누룩이 변해서 술지게미가 되고, 술지게미가 변해서 술이 되는 것과 같다. 술지게미는 욕계정에 해당하고, 술은 초선에 해당한다. 이들은 보리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밖에서 유래하지 않는다. 그러나 안에서 유래한다, 혹은 밖에서 유래한다고 집착하면 자성과 타성의 과오를 범하게 된다.(119.a)

##### 5.3.1.3.6.3.1.2.1.3 여덟 가지 지각의 내용

(q5.3.1.3.6.3.1.2.1.3.1) 여덟 가지의 지각 현상은 사대(四大)이다. 움직임과 가벼움은 풍대이고, 가려움과 따뜻함은 화대이고, 차가움과 매끄러움은 수대이고, 무거움과 켜끄러움은 지대이다. 사대의 체와 작용이 상관하여 8가지의 지각 현상이 일어난다. 움직임의 지각 현상이 일어나면

머리, 등, 허리, 옆구리, 배, 발 등의 부위부터 차례로 몸 전체에 미쳐서 몸 안의 움직임을 지각하지만 밖에서 움직임의 모습이 온 것은 아니다. (119.a-b)

#### 5.3.1.3.6.3.1.2.1.4 올바른 지각

(q5.3.1.3.6.3.1.2.1.4.1) 움직임의 지각에는 상응하는 열 가지의 공덕이 있다. 이는 공(空), 명(明), 정(定), 지(智), 선심(善心), 유연(柔軟), 희락(喜樂), 해탈(境界), 상응(相應)의 공덕이다. 공이란 움직임의 지각이 일어날 때 빈 마음이 텅 비고 환하게 열리는 것으로, 앞의 성장이 제거되지 않았을 때와 다르다. 명이란 밝고 청정하여 아름답고 오묘하여 그 밝음을 비교할 곳이 없는 것이다. 정이란 한 마음이 편안하여 흠어짐이나 움직임이 없다. 지란 어둠을 해매는 의심의 그물이 없이 마음의 깨달음이 고요하고 예리하다. 선심이란 부끄러워하고 밋고 공경함이다. […] 유연이란 욕계의 잘못된 슬픔이나 거친 사나움을 벗어난다. 뇌나 쇠가죽이 뜻대로 말리고 늘어나는 것과 같다. 희락이란 지각이 마음을 즐겁게 하여 편안하고 기쁘며 아름답고 오묘한 것이다. 해탈이란 다섯 가지 덮개가 없는 것이다. 상응이란 마음이 지각의 작용에 따른 모든 공덕과 서로 대응하여 흠어지지 않고, 염지(念持)와 서로 대응하여 잃지 않는 것이다. 하루나 한 달, 일 년 동안 편안하게 머무르면 생각을 거둬들인다. 혼습이 오래되면 움직임의 지각이 더욱 더 깊어진다. 이것이 세로로 일어남이고, 나머지 일곱 가지의 지각이 세로로 일어나는 것도 이와 같다.(119.b)

#### 5.3.1.3.6.3.1.2.1.5 잘못된 지각

(q5.3.1.3.6.3.1.2.1.5.1) 욕계정 중에 여덟 가지 지각이 일어나면 이 모두는 잘못된 지각으로 병이자 번뇌의 지각이다. 『선문수증』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겠다. 여기서는 초선에서의 여덟 가지의 지각과 관련해서 그 옳고 그름을 분석하겠다. 첫째, 초선은 번지로서 욕계를 떠났지만 욕계와 가깝기 때문이다. 둘째, 욕계의 마음을 가지면 그릇된 것이 따라 들어오기 때문이다. 이는 문을 열면 도둑이 함께 들어올 수 있는 것과 같고 귀신이 선정에 끼어들면 귀신의 선정이 되어버리는 것과 같다. 참된 선정은 귀신의 선정과 다르다는 것을 모르면 올바른 지각이 부서져 사악한 지각이 된다. 잘못된 지각이란 여덟 가지 지각의 공덕

이 정도가 지나치거나, 혹은 미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면 [...] 움직임의 지각 중, 공의 공덕이란 환하게 뿜려 장애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영원히 적멸하여 도무지 깨달아 아는 일이 없다면 이는 지나친 잘못이고, 몽친 덩어리 같은 장애를 느낀다면 이는 미치지 못한 잘못이다.(119.b-c)

### 5.3.1.3.6.3.1.2.2 색계의 사선과 오지(五支)

#### 5.3.1.3.6.3.1.2.2.1 오지

(q5.3.1.3.6.3.1.2.2.1.1) 올바른 선정을 이루는 구성요소는 다섯 가지이다. 처음 움직임의 지각을 지각하여 대상으로 삼는 것은 각지(覺支)이다. 세밀한 마음으로 여덟 가지 지각과 각각의 지각이 갖는 열 가지의 공덕을 분별하는 것은 관지(觀支)이다. 과거에 얻지 못하였으나 지금 얻어 즐거워하는 것은 회지(喜支)이다. 조용하게 즐기는 것이 낙지(樂支)이다. 고요함을 일심지(一心支)라고 한다. 『아비담비파사론』은 스물세 가지의 마음의 작용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설명하고, 이 중 강한 작용을 보이는 것을 추려내 오지로 규정했다. 오지는 모두 선정의 근본이다.(119.c)

#### 5.3.1.3.6.3.1.2.2.2 색계 사선과 오지의 관계

(e5.3.1.3.6.3.1.2.2.2.1) 지의는 선정수행을 항상 어떤 대상에 마음을 집중함으로써 마음의 작용이 고요히 되는 측면과 그 대상을 관찰함으로써 지혜를 통찰하는 두 측면이 함께 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그리하여 그는 선정의 구성 요소인 오지 중 일심지만을 선정의 본체로 설명하고 앞의 4지는 선정의 방편으로 설명하거나, 앞의 지위에는 없던 요소들이 다음 지위로 나아감에 따라 하나하나 차례로 나타난다고 설명하는 입장을 비판했다.

(q5.3.1.3.6.3.1.2.2.2.2) 지금 각과 관이 함께 있는 선정을 바로 초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앞의 네 가지 지(支)와 일심지를 구분하여 이해하고] 설명해서는 안 된다. 오지는 동시에 함께 일어나기 때문이다. 다만 강약의 차이가 있어 나타나고 나타나지 않았다는 차이가 있지만 모두 초선에서 성취된 것을 오지로서 규정했다. [...] 처음에는 각지의

모습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 왕성하지만 각지 안에 관지 등의 네 가지 지(支)가 포함되어 있어 전혀 서로 장애가 되지 않는다. 각지가 강할 때에는 관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지만 각지가 멈추면 관지가 비로소 명확해지며, 처음부터 있었던 회지는 관지가 멈추면 비로소 성취된다. 처음부터 있었던 낙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회지가 멈추면 비로소 성취된다. 처음부터 포함되어 있던 일심지는 네 가지 지와 함께 작용하고 있었지만 지금 네 가지 지가 멈춤으로써 성취된다.(120.a)

### 5.3.1.3.6.3.2 십육특승(十六特勝)

#### 5.3.1.3.6.3.2.1 십육특승의 의미

(q5.3.1.3.6.3.2.1.1) 특승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 설명하겠다. 율교(律敎)에서는 특승법을 부정관 다음에 설명했지만 지금은 수행의 입장에서 부정관 앞에 설명한다. 『십송율』은 “부처가 비구들을 위해 부정관을 설명했을 때 모두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켜 냄새나는 몸과 함께 머물 수가 없었다. 옷과 바투를 녹장에게 주고 자기를 해치도록 했다. 이 때문에 부처는 부정관에 대한 설명을 멈추고 특승을 실천하도록 가르쳤다.”고 했다. 대황과 과두와 같은 극약을 지나치게 투여하면 체력이 약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해를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약과 조합해서 사용해야 한다. 조합하는 것은 사랑이고, 사용하는 것은 극려이다. 극려라는 측면에서 보면 특승은 근본선보다 뛰어나고,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부정관보다 뛰어나다. 관(觀)이 있기 때문에 무루이지만, 대치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유루라고도 한다. [...] 특승은 사실을 관찰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지만, 부정관은 가상의 생각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용할 필요는 없다.(120.b)

#### 5.3.1.3.6.3.2.2 십육특승이 일어나는 모습

(e5.3.1.3.6.3.2.2.1) 십육특승이 일어나는 모습은 근본사선, 도품의 사념처와 관련해서 설명했다. 즉 신념처(身念處)에 다섯 가지, 수념처(受念處)에 세 가지, 심념처(心念處)에 세 가지, 법념처(法念處)에 다섯 가지로 모두 합해 열여섯 가지의 모습이다. 십육특승은 수행방법에서 근본사선과 차이가 없지만, 통찰의 지혜[觀慧]가 있다는 점에서 근본사선보



다 뛰어나다고[勝] 정의된다. 여기서는 신념처와 관련된 다섯 가지의 특승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q5.3.1.3.6.3.2.2.2) 몸 안의 서른여섯 가지의 사물을 본다는 것은 창고를 열어 곡식 중 좁쌀, 마, 콩을 보는 일과 같다. 근본사선과 대응하면 초선에 해당한다. 초선에서의 팔촉(八觸)은 몸의 창고와 접촉만 할 뿐 아직 심안(心眼)이 열리지 않아 안의 물건을 볼 수 없었다. 특승에서는 이미 통찰의 지혜[관혜]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접촉한 몸의 창고를 열어 심안을 통해 서른여섯 가지의 사물을 본다. 즉 간장은 녹두와 같고 [...] 안으로 간장, 심장, 담, 가슴앓이와 같은 열두 가지의 사물이 있고 중간에 막, 살갓, 비계 기름 등의 열두 가지의 사물이 있고, 밖으로 머리 카락, 털 등의 열두 가지의 사물이 있으며, 들고 나는 호흡이 이 사이를 통합하고 있음을 본다. 나아가 이들이 모두 부정, 무상, 고, 공, 무아라고 본다. 그리하여 모든 행동이 멈춘다. 마침내 내 몸 때문에 짓는 모든 악을 멈추기 때문에 모든 행동을 제거한다. 도품과 관련해서 말하면 이들 오특승은 신념처에 해당하고, 근본사선과 관해서 말하면 각지와 관지에 해당한다. 심안이 비로소 열리는 것이 각지이고, 서른여섯 가지의 사물을 틀림없이 분별하는 것은 관지이다.(120.c)

### 5.3.1.3.6.3.3 통명선(通明禪)

#### 5.3.1.3.6.3.3.1 통명선의 의미

(q5.3.1.3.6.3.3.1.1) 다음으로 통명선이 일어나는 모습에 대해 밝힌다. 앞에서 말한 특승의 경우, 관혜는 아직 조잡하여 서른여섯 가지의 사물을 보고 깨닫는 모습도 조잡하다. 통명선의 경우, 관혜는 미묘하고 세밀하며 깨닫는 모습 또한 분명하다. 『화엄경』에도 이 말이 있고, 『대집경』에서 말하는 보거다라니(寶炬陀羅尼)도 바로 통명선을 말하는 것이다. 『청관음경』에도 같은 의미의 수행을 말했다. 통명선은 몸[身], 호흡[息], 마음[心] 세 가지를 관통해서 실천하기 때문에 삼명(三明)과 육통(六通)을 일으킨다. 또 보거다라니를 실천하면 멸수상정(滅受想定)에 들어간다. 이와 같이 팔해탈, 삼명, 육통을 갖추기 때문에 통명이라고 한다.(121.a)

### 5.3.1.3.6.3.3.2 통명선이 일어나는 모습

(q5.3.1.3.6.3.3.2.1) 또 속제를 알아, 피부, 근육, 뼈와 같은 아홉아홉 가지의 모습이 있고 다섯 개의 장기가 다섯 가지의 기운을 낳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또 몸 안의 벌레 등이 일으키는 언어를 보고 모두 이해한다. 모태에 머물기 시작했던 생명의 최초의 순간을 알아, 과거 무명의 업은 밀랍이고 현재 부모의 정액은 진흙이[라고 이해한다]. 과거의 업이 머물지 않는 것을 인장이 부서진다[印壞]라고 하고, 현재 식에 의지해서 명색을 갖추는 것을 어떤 형태가 이루어지는 문성(文成)이라고 한다. 생장의 아래, 숙장의 위에 있는 자궁 안에 머무는 형상은 매우 미세하다. 이는 한 순간의 망상에 근거해서 몸과 마음이 서로 의지하여 있는 것으로 있는 듯, 없는 듯, 꿈과도 같이 있다. 업이 짓는 힘이 자연히 한 순간의 생각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그 어머니가 이를 느끼고, 어머니가 거기에서 청색, 부르는 소리, 쌀을 넣은 국의 기운, 신 맛을 생각하여 이 생각하는 힘을 통해 터럭 같은 미세한 기운을 낳고 이 기운이 물이 된다. 물이 변하여 피가 되고 피가 변하여 살이 되며, 어머니의 기운이 들고 나면서 성장시키면 간이 된다. [...] 신체의 부분 부분을 이와 같이 자세하게 깨닫는다.(121.b)

### 5.3.1.3.6.3.4 부정선(不淨禪)

#### 5.3.1.3.6.3.4.1 구상(九想)의 의미

(e5.3.1.3.6.3.4.1.1) 구상은 창상(脹相), 괴상(壞相), 혈도상(血塗相), 농란상(膿爛相), 청어상(靑瘀相), 담상(噉相), 산상(散相), 골상(骨相), 소상(燒相)의 아홉 가지 모습에 대한 생각으로 시체가 썩어 한 줌의 재로 변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는 부정관을 실천하는 방법이다.

(q5.3.1.3.6.3.4.1.2) 좌선 중에 시체가 땅에 누워있는 것을 본다. 조금 전까지 같이 말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레 가버리는가? 호흡이 다하여 몸이 차가워지고 몸과 마음이 변하여 무상한 바람으로 변한다. 부자, 빈자, 늙은이, 젊은이, 잘 생긴 이, 못 생긴 이를 가리지 않고 도망갈 곳도 없다. 아무리 자애로운 부모도 효성스러운 자식도 그 죽음을 대신할 수 없다. 시체는 피비린내를 내면서 땅에 누워있고 바람이 불고

해가 비치 살았을 때의 모습과 전혀 다르다. 이와 같이 한 구의 시체나 많은 시체를 보는 것이 부정관의 모습이다.(122.a)

#### 5.3.1.3.6.3.4.2 부정관이 일어나는 모습

##### 5.3.1.3.6.3.4.2.1 창상(脹相)

(q5.3.1.3.6.3.4.2.1.1) 이 시체가 얼굴색이 어둡고, 몸은 딱딱하게 굳고 손발은 희게 변하고 항문 종기는 부풀어 올라 마치 가죽주머니에 바람이 빵빵한 것과 같다. 아홉 구멍에서 흘러 넘쳐 매우 더럽고 사납다. 수행자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자기의 몸도 이와 같다. 아직 이 몸과 떨어지지 않고 벗어나지 못했을 뿐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봐도 이와 같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이 일어나면 한 부분의 선정의 마음을 얻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편안함과 상쾌함을 느낀다.(122.a)

##### 5.3.1.3.6.3.4.2.2 괴상(壞相)

(q5.3.1.3.6.3.4.2.2.1) 아주 짧은 순간 부풀어 올랐던 시체는 바람이 불고 해가 비치게 되면 가죽과 살이 부서지고, 몸은 터지고 갈라지며, 모습과 색깔이 변해 결국은 분별할 수 없다. 이를 부서지는 모습이라고 한다.(122.a)

##### 5.3.1.3.6.3.4.2.3 혈도상(血塗相)

(q5.3.1.3.6.3.4.2.3.1) 터지고 갈라진 곳에서 피가 나와 흩어졌다가 고이고, 주위에 묻어 질펀해진다. 곳곳에 얼룩이 저 얼룩얼룩해지고 땅으로 흘러넘쳐 냄새가 이쪽저쪽에서 풍기는 것을 본다. 이를 피가 발린 모습이라고 한다.(122.a)

##### 5.3.1.3.6.3.4.2.4 농란상(膿爛相)

(q5.3.1.3.6.3.4.2.4.1) 고름이 터져 흘러나와 어지럽다. 세차게 흐르는 모습이 초가 불을 만난 것과 같다. 이를 고름이 낭자한 모습이라고 한다.(122.a)

#### 5.3.1.3.6.3.4.2.5 청어상(靑瘀相)

(q5.3.1.3.6.3.4.2.5.1) 남은 가죽과 살을 바람과 해가 말려 썩어 무너진다. 검게 무늬가 저 반쯤 푸르고 반쯤 어혈져서 축 늘어지는 것을 본다. 이를 청어상이라고 한다.(122.a)

#### 5.3.1.3.6.3.4.2.6 담상(噉相)

(q5.3.1.3.6.3.4.2.6.1) 이 시체를 여우나 늑대, 올빼미 독수리가 먹는다. 이들이 서로 먹으려고 다투어 겨루고 움켜잡아 찢으며 끌어 당겨 만발하게 피어 있는 꽃과 같은 것을 본다. 이를 담상이라고 한다.(122.a)

#### 5.3.1.3.6.3.4.2.7 산상(散相)

(q5.3.1.3.6.3.4.2.7.1) 머리와 손이 장소를 달리하여 있고 다섯 개의 장기가 나뉘어 펼쳐져 도저히 거두어 모아 감출 수가 없는 것을 본다. 이를 산상이라고 한다.(122.a)

#### 5.3.1.3.6.3.4.2.8 골상(骨相)

(q5.3.1.3.6.3.4.2.8.1) 두 가지 뼈를 보는데 하나는 고름과 기름을 띄고, 다른 하나는 완전히 희고 깨끗하다. 한 구의 시체의 뼈를 보거나, 마을 전체에 두루 흩어져 있는 것을 본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모습을 따라 관찰하면 선정의 마음도 이에 따라 깊어져 고요해지고 오묘해진다. 편안하고 상쾌한 모습이 일어나지만 모두 다 설명하기 어렵다. 이는 법을 부수지 않는 사람이 관찰하는 부정관이다.(122.a)

#### 5.3.1.3.6.3.4.3 부정관의 대치효능

(q5.3.1.3.6.3.4.3.1) 이와 같은 아홉 가지의 생각은 음욕의 병을 고치는 대황탕과 같다. 먹는 것에 탐착하는 사람은 돼지고기가 똥을 쌓아 놓은 것임을 알면서도 억지로 마시고 먹고 하는 것과 같다. 돼지 벌레가 썩은 것을 보고도 먹을 수가 있겠는가? 앞의 십육특승은 힘이 약하여 [이러한 탐욕을] 결정적으로 제거하지 못하였지만, 부정관은 힘이 강하여 음

욕의 불길을 빠르게 소멸시킨다. 그리하여 “구상의 관법이 성립할 때 욕 욕은 제거되고 또 애욕은 원수의 끈나풀임을 알고 또 허구로서 실체가 없는 것임을 안다.”고 했다. 이와 같이 싫어하는 마음은 욕망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무루를 일으켜 마하연을 성취한다.(122.b)

### 5.3.1.3.6.3.5 팔배사(八背捨)

#### 5.3.1.3.6.3.5.1 팔배사의 의미

(q5.3.1.3.6.3.5.1.1) 지금 먼저 배사를 설명하면, 배사에는 총괄적인 의미와 개별적인 의미의 두 가지가 있다. 총괄적인 의미는 이승(二乘)과 함께 하며, 개별적인 의미는 보살에 한정된다. 배사의 의미는 고정적이지 않고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된다. 원인 가운데 결과를 설명하는 경우, 배사란 해탈이라고 할 수 있고, 결과 가운데 원인을 설명할 경우, 해탈을 배사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정의하자면, 구경으로 미혹을 끊고 사와 리의 선정을 다 갖추는 것은 해탈이지만 미혹을 아직 다 끊지 못하고 선정이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는 것은 배사이다. 배(背)란 아래의 지위와 자신의 지위에서의 정결한 오욕을 싫어하는 것이고 사(捨)란 오욕을 집착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이다. 이 둘을 합해서 배사라고 한다.(122.b)

#### 5.3.1.3.6.3.5.2 팔배사가 일어나는 모습

(e5.3.1.3.6.3.5.2.1) 앞에서 말한 구상은 애욕의 번뇌가 많은 경우 이를 끊기 위해 밖에 있는 시체의 모습을 관찰하지만, 이에 반해 배사는 견혹(見惑)이 많은 경우 이를 부수기 위해 안에서 여러 모습을 일으켜 관찰한다. 한 마디로 배사란 내상(內相)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안으로 백골, 피부, 살과 같은 색에 대한 모습을 부수지 않고 이를 관찰하고 또 밖으로 시체 등을 관찰하는 내유색외관색(內有色外觀色)배사, 내무색외관색(內無色外觀色)배사, 정배사(淨背捨), 공배사(空背捨), 식처배사(識處背捨), 무소유처배사(無所有處背捨), 비상비비상처배사(非想非非想處背捨), 멸수상배사(滅受想背捨)의 여덟 가지가 있다. 이 가운데 내무색외관색배사의 예를 통해, 앞의 구상과 대비되는 내상으로서의 배사

가 일어나는 모습을 살펴보겠다.

(q5.3.1.3.6.3.5.2.2) 두 번째는 안으로 색이 없고 부정의 마음을 통해 밖의 색을 관찰한다. 사람의 뼈는 정혈(精血)이 만든 것으로 뼈의 네 가지 원소[四微]로 분석해서 가책하고 소멸해야 한다. 대승의 체법관(體法觀)은 뼈가 마음에서 생겼으며, 이 마음은 환화와 같기 때문에 사람의 뼈 또한 허망하고 임시로 있어 곧 스스로 소멸한다는 것을 안다. [...] 사람의 뼈는 제거되었지만 아직 안으로 새로운 법[청정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에는 기쁨이 많아 후퇴하기 쉽다. 주의해야 한다. 이때에는 부정의 마음을 가지고 밖의 색을 관찰한다. 밖의 색이란 밖에 있는 시체나, 또 사람의 뼈가 내 뿜는 팔색(八色)이다. 밖의 색을 관찰해야 하는 이유는 밖의 색이 육계와 가까이 있어 그 부정함을 관찰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뼈를 부수는 관법은 따로 있지만, 여기서는 이것이 일어나는 모습만을 설명하겠다. 사람의 뼈를 보든 안 보든 자연히 소멸하여 팔색과 밖의 색에 대한 부정만이 남고, 사람의 뼈가 소멸하면 중간의 지위에 머무른다. 또 팔색을 보면 안에서 청정함이 동시에 일어나 청색과 황색의 빛이 한층 광채를 더한다. 안의 청정함과 기쁨, 즐거움과 일심과 같은 네 종류의 공덕이 이전 단계보다 더 뛰어나게 되는 것이 두 번째의 배사이고, 그 지위는 이선(二禪)에 해당한다.(123.a-b)

### 5.3.1.3.6.3.6 대부정(大不淨)

#### 5.3.1.3.6.3.6.1 대부정의 의미

(e5.3.1.3.6.3.6.1.1) 대부정은 대배사라고도 하며, 팔승처(八勝處), 십일체처(十一切處)를 가리킨다. 팔승처는 팔배사[팔해탈]을 실천한 뒤, 막힘없이 정(淨)과 부정(不淨)의 경지를 관찰한다는 것을 말한다. 십일체처란 십법[청, 황, 적, 백, 지, 수, 화, 풍, 공, 식]이 모든 곳에 편만함이다. 구상, 팔배사로 관찰했던 부정이 자기와 타인의 신체를 관찰하는 소부정인데 반해 대부정은 주위환경 모두가 부정이라고 관찰한다. 신체와 주위환경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 대부정의 의미이다.

(q5.3.1.3.6.3.6.1.2) 대부정관은 단지 신체[正報]에 한정해서 이들이

부정한 것으로 흘려넘긴다고 말하지 않고 주위환경[依報]의 건물, 재물, 곡식, 의복, 음식물, 산하, 정원, 강, 연못 등이 모두 부정하며, 벌레와 고름이 흘러나와 악취가 풍기는 곳이라고 관찰한다. [...] 좌선 중에 홀연히 이와 같이 보고 대지를 보면 어느 곳도 좋은 곳이 없다. 신체와 주위환경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 대부정이 일어나는 모습이다. 이는 여러 가지 물건을 준비해서 불을 피우는 경우, 처음에는 아주 작은 연기와 불꽃이 피어오르지만 점차로 불길이 세져 어떤 뿔감도 다 태우고 끝내는 양자강과 황하의 물도 다 말라버리게 하는 것과 같다. 부정관의 처음은 하나의 시체, 하나의 국토를 관찰하여 음욕의 마음이 생기면 이를 소멸하고자 했지만, 지금은 선정의 힘이 갖추어져 염오하는 마음이 왕성해져서 신체와 환경을 모두 부정하다고 관찰함으로써, 애욕의 마음이 영원히 소멸한다.(123.c)

#### 5.3.1.3.6.3.6.2 대부정이 일어나는 모습

(e5.3.1.3.6.3.6.2.1) 대부정선을 통해 얻은 선정의 힘은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주위환경과 관련한 청정법과 부정법의 분별이 모두 마음에 근거해서 일어난다고 아는 뛰어난 지혜[勝知見]를 낳는다. 이는 수행자로 하여금 뛰어난 지위[승처]로 진입하게 하는데, 이는 곧 대승선이 일어나는 모습이다. 사중삼매를 실천하는 수행자에게 만약 대부정선이 일어나면 그는 곧 오품제자(五品弟子)의 지위로 진입한다.

(q5.3.1.3.6.3.6.2.2) 보살이 승처(勝處)를 실천하여 여러 가지의 수행을 갖춘다는 것을 설명하겠다. 신체와 환경에 대해 통달하지 못하였을 경우 아까워하고 탐착하는 마음을 일으키지만, 대부정관이 분명해지면 이 몸조차 버리기 때문에 자기 물건을 아까워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탐내지 않는다. 이는 보시이다. 이러한 관이 성취되면 재물이나 욕망 때문에 계율을 범하지 않는다. [...] 이는 지계이다. 이 관이 성취되면 다른 사람이 괴롭히거나 침범하여 물건을 뺏거나 해도 절대로 성내지 않고 더러움을 다투지 않는다. 이는 인욕이다. 이 관이 성취되면 부정한 시체나 부정한 국토를 위해 선정심을 도중에서 그만두거나 하지 않는다. 이는 정진이다. 이 관이 성취되면 관, 연(練), 훈(熏), 수(修), 신통(神通), 변화(變化), 원(願), 지(智), 정(頂) 등이 갖추어진다. 이는 선정이다. 이 관을

성취했을 때 모든 주관과 객관을 얻을 수 없고 생멸도 없어 모든 것은 청정하다. 이는 지혜이다.(124.c)

#### 5.3.1.3.6.3.7 자비심(慈悲心)

##### 5.3.1.3.6.3.7.1 자비심의 의미

(q5.3.1.3.6.3.7.1.1) 모든 중생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취하여, 원망하지 않고 번뇌하지 않고 마음으로 기뻐하여 뜻대로 된다. 사람들 사이의 즐거움을 볼 수 있거나, 천상에서의 즐거움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견해를 잘 닦으면 선정심이 분명해져 한 사람도 즐거움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 처음에는 지극히 미세한 선정이었지만 마지막에는 전환하여 깊은 선정이 된다. 자심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3종류가 있다. 친한 사람이 즐거움을 얻도록 하는 것은 광자심(廣慈心)이고, 일반사람들에 대해서는 대자심(大慈心)이고 원망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량자심(無量慈心)이다. 또 한 방향의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즐거움을 얻도록 하는 것은 광자심이고 사방의 사람에 대해서는 자자심이고 사방의 사람에 대해서라면 무량자심이다.(125.a)

##### 5.3.1.3.6.3.7.2 자비심이 일어나는 모습

(e5.3.1.3.6.3.7.2.1) 자심정은 근본선의 앞 혹은 뒤에 일어나기도 하고, 십육특승선, 통명선을 통해 혹은 십육특승선과 통명선이 자심정을 통해 일어나기도 한다. 또 자심정을 통해 소부정과 대부정선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이들 자심정은 관련된 선정에 따라 깊고 얕음에서 차이가 있고 그 일어나는 모습도 수 없이 많아 하나하나 구분하기 어렵다. 소승의 경우, 자심은 남이 즐거움을 얻는다고 하는 좁은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자심은 사선중 삼선(三禪)의 지위에만 해당한다. 그러나 하화중생을 지향하는 대승은 어느 지위에서나 자심은 함께 있다. 지의는 자심의 이러한 모습과 관련해서, 자심을 어느 특정의 지위에 한정되거나 하나의 고정된 의미를 갖는 선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q5.3.1.3.6.3.7.2.2) 먼저 자심정을 성취한 뒤 오지(五支)의 공덕을 일으키는 모습을 살펴보겠다. 처음 중생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즐거움을 얻어 마음이 선정과 부합하여 자신의 마음도 함께 즐겁다. 이를 잘 닦아 깨달음을 얻는 것은 각지이다. 즐거움을 얻는 것을 분별하여 사람 사이의 즐거움과 천상에서의 무한한 즐거운 모습을 분명하게 이해하면 관지이다. 원망하는 이나 친한 사람을 평등하게 보고 원망하는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친한 사람을 염려하는 괴로움이 없는 것은 회지이다. 회지의 작용이 멈추고 마음이 즐겁고, 나아가 이 즐거움과 중생이 즐거움을 얻는 모습을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낙지(樂支)이다. 선정법이 매우 깊어져 마음을 지킴 움직이지 않는 것은 일심지이다. 이 오지는 표현에서 근본선과 동일하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 [...] 먼저 근본선을 성취하고 뒤에 이 자심정을 더하면 근본선의 이익은 더욱 깊어지게 된다.(125.a)

### 5.3.1.3.6.3.8 인연(因緣)

#### 5.3.1.3.6.3.8.1 인연의 의미

(e5.3.1.3.6.3.8.1.1) 십이인연을 마음에서 통찰하는 선정이다. 이는 삼세의 인연에 대한 사유를 통해 관지(觀智)를 일으켜 나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부수는 것이다. 이러한 인연삼매는 관지를 분명하게 하기 때문에 근본사선, 특승, 통명, 배사 등의 선정수행을 인연삼매와 함께 실천하면 그 결과가 더욱 세밀해진다. 또 이러한 선정수행의 실천 중에 일어나는 여러 결과들을 십이인연으로 관찰할 수도 있다. 이 두 경우 모두 각각의 선정수행을 단독으로 실천할 때보다 훨씬 뛰어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q5.3.1.3.6.3.8.1.2) 이러한 삼세인연은 공으로서 실체가 없다. 이와 같이 사유해서 관지가 일어나면 남과 나[人我]와 같은 잘못된 견해가 부서지고, 정심(定心)은 점차 거친 상태에서 세밀한 상태로 된다. 욕계의 미도지정과 근본선의 오지의 공덕이 차례로 일어난다. 인연은 공으로 실체가 없음을 깨닫는 것이 각지이다. 삼세에 유전하면서 서로 원인이 되어 의존하는 것을 분명히 분별한다. 이는 관지이다. 인연에 대한 지혜를 얻어 삼세를 깊이 알면 기뻐한다. 이는 회지이다. 선정법이 마음을 잘 지켜

유쾌하고 미묘하다. 이는 낙지이다. 정심이 고요하여 분별하는 대상도, 분별도 없다. 이는 일심지이다. 인연삼매는 지혜를 본성으로 하기 때문에[慧性] 이 지혜가 분명해지면 근본선을 일으킨다. 또 근본선이 인연과 결합하면 그 수행에서 오는 맛[법미(法味)]은 더욱 두터워진다. 근본선 만을 통해 오지가 일어나는 것과 다르다.(125.c-126.a)

### 5.3.1.3.6.3.8.2 인연과 십승관법(十乘觀法)

(e5.3.1.3.6.3.8.2.1) 지의는 근기에 따라 인연에 대한 이해가 다양함을 밝힌 뒤, 『중론』의 근본 사상에 대한 해석 또한 다양하지만 『중론』의 근본 과제는 십이인연의 가르침을 명백히 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인연삼매가 일어나는 모습을 십승관법을 통해 설명했다. 이는 인연삼매에 한하는 파격적인 설명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열 가지의 선정을 설명하는 선정경의 오직 인연삼매에서만 십승관법을 설명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태도는 지의의 십승관법이 이전 『중론』 연구사의 총결산으로 그만의 독특한 입장에서 제시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로서 의미가 깊다.

(q5.3.1.3.6.3.8.2.2) 이에 대해 불사의경이란 [사의경]과 크게 다르다. 무명을 굴러 부처의 지혜를 얻으면 초발심 때부터 십이인연은 세 가지 불성(佛性)과 같다는 것을 안다. 총괄적으로 십이인연을 관찰하면 진여의 진리 자체는 정인불성(正因佛性)이고, 십이인연을 관찰하는 지혜는 료인불성(了因佛性)이고, 십이인연을 관찰하는 마음에 모든 행위를 구축하는 것은 연인불성(緣因佛性)이다. 개별적으로 십이인연을 관찰하면, 무명, 애, 취는 요인불성이고 행과 유는 연인불성이고 식 등의 일곱 가지는 정인불성이다. 고도(苦道)는 생사이지만 생사의 몸이 변하면 곧 법신이기 때문이다. 번뇌는 어두움이지만 무명이 변하면 곧 밝음[반야]이다. 업은 속박이지만 속박이 변하면 해탈이다. 세 가지 길이 곧 세 가지 덕이다. 이들이 본성으로서 갖추어져 있어 가로와 세로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삼불성(三佛性)이라 한다. 또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성취했을 때, 가로와 세로를 벗어나 세간의 이(伊)자와 같이 전후가 없기 때문에 열반의 삼덕이라 한다. 『유마경』에서 “모든 중생은 대열반이자, 부처고, 보리다.”고 했는데, 같은 의미이다. 이는 상상지의 관에 근거해서 부처의 보리를 얻는 것이다.(126.c)

#### 5.3.1.3.6.3.9 염불(念佛)

##### 5.3.1.3.6.3.9.1 염불이 일어나는 모습

(e5.3.1.3.6.3.9.1.1) 지의에 따르면, 염불이 일어나는 모습은 크게 염불을 일으켜 여러 선들을 일으키는 모습과 여러 선들을 통해 염불을 일으키는 모습 두 가지가 있다. 여기서는 전자를 살펴보았다.

(q5.3.1.3.6.3.9.1.2) 좌선 중에 제불의 공덕은 무량하고 끝이 없어 사려분별을 넘어서 있다고 생각한다. 부처를 믿고 공경하여 참회의 마음을 일으켜 깊이 사모하고 우러러보는 마음을 낸다. 제불은 커다란 신력과 커다란 지혜, 커다란 복덕과 커다란 상호(相好)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상호는 이러한 공덕을 통해 생기고, 이러한 상호는 저러한 공덕을 통해 생기고, 이러한 상호는 이러한 복덕을 갖추며, 이러한 상호는 저러한 복덕을 갖춘다는 것을 안다. 상호의 본체, 상호의 결과, 상호의 업을 안다. 각각의 가르침에 비추어 분명히 이해하고 상호의 깊은 의미를 이해해 모르는 것이 없다. 정심이 조용하여 동요가 없다. 이러한 선정에 편안히 머물러 점차로 깊어지면 홀연히 추주와 세주의 욕계의 미도지정을 일으킨다. 나아가 초선 등으로 들어간다. 염불과 근본선이 서로 방해하지 않는 이러한 염불의 경계를 지각한다. 이는 각지이다. [...] (129.c)

##### 5.3.1.3.6.3.9.2 올바른 염불

(q5.3.1.3.6.3.9.2.1) 안으로 어둡고 침몰해 공덕에 대한 가르침을 하 나도 모르면서 밖으로 광명의 상호를 보고 눈에 넘칠 지경이 되면 이는 악마의 일이다. 선의 싹이나 줄기를 꺾는 것과 같다. 불도(佛道)의 꽃을 피워 열매를 맺는 일을 방해한다고 할 수 있다. 지금 사람들이 부처를 본다고 하지만 그 마음에 가르침이 없기 때문에, 본 것이란 사실은 부처와 닮은 거짓에 지나지 않는다. 이 의미를 이해하여 올바른 염불을 취하고 올바르지 않는 염불은 취하지 않는다. 단지 색의 상호를 집착하면 이는 악마가 변한 모습이며 진흙이나 나무로 만든 부처나 그림 속의 부처나 모두 부처라고 하는 것과 같다.(130.a)

#### 5.3.1.3.6.3.10 신통(神通)

(q5.3.1.3.6.3.10.1) 신통이 일어나는 모습을 밝힌다. 대개 천안통(天眼通), 타심통(他心通), 천이통(天耳通), 숙명통(宿命通), 신여의통(神如意通)의 다섯 가지이다. 무루통은 뒤의 이승경에서 설명하겠다. 신통은 선정을 통해 일어나지, 신통을 통해 선정이 일어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앞에서 말한] 여러 선들은 선정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서로 일으킬 수 있지만 선은 신통의 본체이고 신통은 여러 선의 작용이다. 작용은 본체를 통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통은 그 본체인 선정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다. 작용만이 독자적으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신통이 선정을 일으키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법화경』은 “깊이 선정을 실천하여 오신통(五神通)을 얻는다.”고 했다.(130.a)

#### 5.3.1.3.6.4 선정경에 대한 지관수행

##### 5.3.1.3.6.4.1 선정에 대한 주의

(q5.3.1.3.6.4.1.1) 수행자가 여러 선정을 일으켜 이들을 방편으로 하지 않고 그 맛에 집착하면 오히려 보살의 구속이 된다. 그리하여 선정에 근거해서 다음 생을 받게 되어 생사의 세계를 유전한다. 이것을 피하고자 한다면, 심승의 관법을 실천해야만 한다.(130.b)

##### 5.3.1.3.6.4.2 심승관법의 수행

(q5.3.1.3.6.4.2.1) 불사의경관이란 한 순간의 마음인 정심(定心)이 미덕을 혹은 정덕(淨德), 신통을 일으킨다면, 이 마음은 곧 무명이고, 법성이고, 법계며, 나아가 십법계, 백법계로 설명되는 무한한 선정과 산란(散亂)이 한 순간의 마음에 갖춰져 있다고 안다. 법성에 미혹됨으로써 모든 산란의 악법이 있고, 법성을 깨달음으로써 모든 선정이 있기 때문이다. 선정과 산란은 모두 무명이고 무명은 법성이며, 미혹과 깨달음, 선정과 산란의 본성은 다르지 않다. 사려분별을 넘어서 미묘하며, 언어의 길은 끊어지고, 범부는 이를 상상하기만 해도 피곤하다. 범부와 이승은 이해할 수 없는 경계이다. 이처럼 상식을 넘어서 있다고 해서 중생과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니다. 『사익경』은 “모든 중생은 멸진정 그 자체다.”고 했다.(131.a)

### 5.3.1.3.7 제견경(諸見境)

#### 5.3.1.3.7.1 제견경의 의미

(e5.3.1.3.7.1.1) 제견경은 선정을 닦음으로써 생기는 독단적이고 잘못된 생각을 말한다. 선의 최고목적은 무분별, 무집착의 마음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무분별과 무집착의 마음에 마음이 집착하면 오히려 잘못된 견해를 낳아 지관의 실천에 커다란 장애로 작용하게 된다. 사건은 듣는 사람[聽學人]이 문자에 사로잡혀 심안(心眼)이 열리지 않는 경우와 선을 닦는 사람[習禪人]이 마음을 지나치게 중시하여 가르침을 경시하는 경우의 두 가지에서 발생하지만, 후자의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선정경 다음에 제견을 대상으로 해서 지관을 실천하도록 했다.

(q5.3.1.3.7.1.2) 제견을 대상으로 관찰한다는 것을 밝히겠다.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제’(諸)라고 하고, 잘못된 이해를 견이라고 한다. 또 이해해서 아는 것[解知]을 견이라고 한다. 진리에 미루어 타당하지 않고 편견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결정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을 견이라고 한다. [...] 이러한 견은 선정을 통해 일어나거나 가르침을 들음으로써 일어난다. 이는 무루의 발생이 가르침을 믿고 듣고, 생각함으로써 일어나는 것과 같다. [...] 남쪽에서는 선을 닦는 자가 적어 견을 일으키는 자도 적지만, 북쪽에서는 이러한 일이 많다. 분명한 눈이 없고, 이것이 견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참된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하거나 다라니를 얻었다고 생각한다.(131.c-132.a)

#### 5.3.1.3.7.2 제견에 따른 사람과 그 가르침

##### 5.3.1.3.7.2.1 사견인(邪見人)의 종류

###### 5.3.1.3.7.2.1.1 불법(佛法)과 무관한 외도(外道)

(e5.3.1.3.7.2.1.1.1) 석가가 활약했던 당시, 불법과 무관한 외도로는 육사외도(六師外道)가 유명하다. 『마하지관』은 이들 또한 아래 세 가지 종류의 외도와 동일한 견해에 근거하는 것으로 분류했다.

(q5.3.1.3.7.2.1.1.2) 불법과 관계가 없는 외도란, 그 근원에서 보면 세 가지이다. 첫째, 가비라(迦毘羅) 외도로서 번역하면 황두(黃頭)이다. 이들은 원인 안에 결과가 있다고 분별한다. 둘째, 구루승가(漚樓僧伽) 외도로서 번역하면 휴후(休後)이다. 이들은 원인 안에 결과가 없다고 분별한다. 셋째, 늑사바(勒沙婆) 외도로서 번역하면 고행(苦行)이다. 이들은 원인 안에 결과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고 분별한다.(132.b)

#### 5.3.1.3.7.2.1.2 불법에 근거한 외도

(e5.3.1.3.7.2.1.2.1) 부처의 가르침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사구와 관련해서 잘못된 견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불법에 근거한 외도라고 한다. 부처는 영원불변한 존재로서의 ‘나’를 오온과 관련해서 사구로 분별함으로써, ‘내’가 없다는 무아를 주장했다. 여기서 무아란 영원불변한 자아란 없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독자와 방광은 사구에서 영원불변한 나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구를 떠난 제5의 입장을 통해 영원불변한 나의 실재성을 주장했다.

(q5.3.1.3.7.2.1.2.2) 불법과 닮은 외도란, 독자(犢子)와 방광(方廣)에서 비롯하는 외도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총명함에 근거해서 불교경전을 읽고 하나의 견해를 세운다. 불법에 의지해서 견해를 세웠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부른다. 독자는 사리불의 『아비담론』을 읽고, 스스로 다른 의견을 내어 “‘나’란 사구 외에 제5의 불가설장(不可說藏)에 있다.”고 했다. 사구란 무엇인가? 외도는 색이 곧 나라고, 색을 떠나 내가 있다고, 색 가운데 내가 있다고, 내 가운데 색이 있다고 분별한다. 나머지 4음(四陰)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분별하여 열두 가지의 견해가 성립한다. 『대지도론』에서 “몸에 대한 열두 가지 견해를 부수어 수다원(須他沍)이 된다.”는 말은 이 뜻이다. 지금 독자가 이해하는 ‘나’란 육사외도의 견해와는 다르지만,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논서들이 불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불법과 닮은 잘못된 견해를 가진 사람의 주장이다.(132.b)

### 5.3.1.3.7.2.1.3 불법 내부의 외도

(q5.3.1.3.7.2.1.3.1) 불법을 배워 외도가 되는 이들은 부처의 가르침을 집착하여 번뇌를 낳음으로써 진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이다. 『대지도론』은 “지혜의 방편을 얻지 못했을 경우, 아비담에 들어가면 유견에 떨어지고, 공에 들어가면 무견에 떨어지고, 삼장을 받드는 곤륜(昆侖)에 들어가면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라는 견해에 떨어진다.”고 했다. 『중론』은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견해에 집착하는 것도 어리석은 주장이다.”고 했다. 올바른 가르침이라도 잘못해서 집착하게 되면 잘못된 견해를 가진 사람이 된다. 대승의 네 가지 가르침을 배워도 지혜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사건의 불에 타서 잘못된 견해를 가진 사람이 된다.(132.c)

### 5.3.1.3.7.2.2 사건인이 집착하는 가르침의 종류

(q5.3.1.3.7.2.2.1) 사건인이 집착하는 법의 종류를 밝히겠다. 관중의 『주유마힐경』(注維摩詰經)은 “하나의 스승에게 세 가지의 집착하는 법이 있다. 하나는 일체지법을 얻는 것, 둘은 신통법을 얻는 것, 셋은 위타(韋陀)법을 얻는 것이다.”고 했다. 일체지법이란 각자가 분별하는 데에서 하나의 견해를 내어, 이 견해에 근거해서 밝고 예리한 지혜의 마음이 모든 존재에 대해 통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체지외도라고 한다. 신통법이란 다섯 가지의 신통력을 발휘하여 성을 난간으로 변하게 하거나 술을 양으로 변하게 하거나, 가을 멈춰 귀로 들어가게 하거나 달과 해를 손으로 어루만지는 것을 말한다. 위타법이란, 세간학문으로 점성, 의술, 병법, 교역 등에 대해 잘 아는 것으로 위타외도라고 한다.(132.c)

### 5.3.1.3.7.3 제견이 일어나는 모습

(e5.3.1.3.7.3.1) 앞의 세 가지 사건이 선정과 가르침을 듣는 것을 통해 일어남을 설명한다. 여기서는 불법 안의 사건, 특히 장교, 통교, 별교, 원교의 화법사교가 선정을 통해 사건으로 일어나는 모습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마하지관』의 제견경은 선정을 통해 발생한 견해들이 구경의 깨달음을 지향하는 지관수행의 방해물로 작용하는 위험을 경계하기 위해 시설되었기 때문이다.

### 5.3.1.3.7.3.1 제견이 일어나는 원인

#### 5.3.1.3.7.3.1.1 선정의 경우

(q5.3.1.3.7.3.1.1.1) 제견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선정과 가르침을 듣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 [...] 이는 샘물이 흙이나 돌로 막혀 있다가 이들을 치웠을 때 강으로 흘러가는 것과 같다. [수행자를 막고 있던] 어두움의 장막이 [선정이나 가르침을 듣는 것을 통해] 제거되면, 멀리 분별하고 하루가 십일이 되고,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 하나하나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한다. 오랫동안 이해되지 않았던 의미를 이해하며, 관심이 없었던 것까지 마음대로 이해한다. 이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고자 하면 막힘없이 잘 설명한다. 장엄한 말을 구사하여 자기의 가르침을 펴고 사람이 물어 와도 자유자재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견해의 지혜[見慧]가 일어나는 근원은 선정 중의 관지(觀支)에 있다. 관지에는 지혜의 작용이 있어 과도하게 모든 것을 관찰하면서 멈출 줄을 모른다.(133.a)

#### 5.3.1.3.7.3.1.2 가르침을 듣는 경우

(q5.3.1.3.7.3.1.2.1) 수행자가 선정을 성취했으나 아직 견해를 일으키지 않았을 경우는 앞 사람이 설명하는 가르침을 들어 마음을 개발한다. 마음이 이미 고요하고 예리하기 때문에 원인 가운데 결과가 있다는 가르침을 들으면 마음이 막힘없이 개오하여 잘못된 지혜가 분명해지고 십만 배의 뜻이 점점 깊어져 마치 석천(石泉)과도 같이 멀리 이르게 된다. 이는 가르침을 듣고서 가비라의 외도의 견해를 일으키는 것이다. 다른 세 가지도 이와 같다. 제5의 불가설장의 가르침을 듣거나, 혹은 환화의 가르침을 들으면, 곧 독자와 같은 견해를 일으킨다. [...] 대승의 세 가지 가르침에서 각각 네 가지 가르침을 듣고 각각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이해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예리해져 앞에서 들었던 것보다 이해가 더 깊어진다. 이러한 이해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승의 방편이 없어, 소승의 현자도 아니고 또 가비라와 같은 외도의 사건과도 다르다면, 이를 대승에서의 12 가지 가르침에 근거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134.a-b)



#### 5.3.1.3.7.3.1.3 선정과 가르침을 듣는 경우의 차이

(q5.1.1.2.7.3.1.1.3.1) 대개 가르침을 듣고서 견해를 일으키는 경우는 리견(理見)을 일으키는 일이 많고 신통이나 위타를 일으키는 일은 적다. 선정에 근거해서 견해를 일으키는 경우는 신통과 위타를 일으키는 일이 많고 리견을 일으키는 일은 적다. 리견을 일으키는 사람은 학인(學人)을 조복시키고, 신통을 일으키는 사람은 속인(俗人)을 조복시킨다. 속인은 다름[異]을 취하고 이해를 취하지 않는 반면, 학인은 그 이해를 취하고 다름을 취하지 않기 때문이다. 위타를 일으키는 사람은 학인과 속인 모두를 조복시킨다. 리견, 신통, 위타 모두를 일으키는 사람은 속인과 학인 모두를 가장 잘 조복시킬 수 있다.(134.a)

#### 5.3.1.3.7.3.2 사건(邪見)이 일어나는 모습

##### 5.3.1.3.7.3.2.1 선정에 근거해서 사건이 일어나는 모습

(q5.3.1.3.7.3.2.1.1) 관지에 근거해서 도리를 추구하여, 모든 존재는 원인 가운데 결과가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이해가 예리해져 넓은 의미도 분명하게 볼 수 있어 견줄 사람이 없게 된다. 이러한 견해에 근거해서 사람에게 질문하고 이 사람이 답하지 못하면 이 사람의 말은 거짓이라고 한다. 스스로의 주장에 집착하여 사람이 반론하지 못하면 이것이야말로 타당한 무생의 참된 지혜이며, 나아가 참된 지혜야말로 진리를 깨달은 묘심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는 견혹에 근거한 세간의 지혜가 갖는 총명함에 지나지 않는다. 팔십팔사혹(八十八使惑)의 전도된 미혹의 그물망을 갖춘 것으로 진실에 대한 이해와는 관계가 없다고 해야 한다. 이것이 [선정에 근거해서 일어나는] 가비라외도의 사건이 일어나는 모습이다.(133.a-b)

##### 5.3.1.3.7.3.2.2 화법사교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모습

(q5.3.1.3.7.3.2.2.1) 관지에 근거해서 무명이 굴러 명(明)이 되며, 이 명에 모든 가르침을 갖춘다고 이해한다. 혹은 얻을 수 없는 무명이 변하여 명이 되었기 때문에 명 또한 얻을 수 없다고 이해하고, 나아가 얻을 수 없다는 것이야말로 모든 가르침의 근본이라고 한다. 혹은 법성의 명은

얻을 수 있는 동시에 얻을 수 없다고 말하거나, 혹은 얻을 수 있는 것도 얻을 수 없는 것도 아니라고 이해한다. [...] 이러한 이해는 원교의 네 가지 가르침을 통해 견해가 발생하는 모습이다. 대승의 네 가지의 가르침이 견해가 되면, 진실의 말도 허위의 말이 된다. 그 말에 대해 견해를 낳았기 때문에 열반과 생사에 대해 집착이 생겨난다. 이는 감로수를 마시고서도 생명에 상처를 주어 요절하는 것과 같다. 방편의 가르침을 놓치고 잘못된 집착에 빠지기 때문에 불법 안의 사건이라고 한다.(133.c-134.a)

#### 5.3.1.3.7.3.3 제견이 일어나는 모습에서의 차이

(q5.3.1.3.7.3.3.1) 세 가지의 외도와 육사의 외도가 똑 같이 일체지외도를 일으킨다고 해도 이는 유견의 일체지이거나 무견의 일체지에 해당한다. 이러한 일체지는 생각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 견해의 지해도 다를 수밖에 없다. 자기가 근거하는 것을 옳다고 하고 다른 사람이 근거하는 것을 틀리다고 한다. 『법화경』은 “늑대가 먼저 죽는다.”고 했다. 이는 예리한 번뇌가 일어날 때, 무딘 번뇌는 침몰한다는 의미로서, 이를 먼저 죽는다고 했다. 또 “여러 종류의 커다란 야수의 무리들이 다투어 와서 먹는다.”고 했다. 이는 집착하고 있는 하나의 견해가 모든 견해를 다 잡아먹는다는 의미이다. [...] 일체지는 사람에 따라 각각 다르다. 삼장교에서의 네 가지 가르침에 대한 일체지, 대승교의 네 가지 가르침에 대한 일체지가 각자의 견해에 집착하여 서로 잡아먹는 모습도 여러 가지로 다르다는 것은 설명할 필요도 없다.(134.c)

#### 5.3.1.3.7.4 제견의 과실(過失)

##### 5.3.1.3.7.4.1 제견의 허물에 대해

##### 5.3.1.3.7.4.1.1 중국의 경우

##### 5.3.1.3.7.4.1.1.1 삼현(三玄)

(q5.3.1.3.7.4.1.1.1.1) 제견의 허물에 대해 밝히겠다. 인도사상에서는 세 가지가 있었지만 중국에서도 똑 같이 세 가지가 있다. 주홍정은 삼현(三玄)을 “주역은 팔괘를 주장하여 음양과 길흉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는 유에 근거해서 현(玄)을 밝힌 것이다. 노자는 허(虛)와의 융합을 주장하

기 때문에 이는 무에 근거해서 현을 밝힌 것이다. 장자는 자연을 주장하기 때문에 유와 무에 근거해서 현을 밝힌 것이다.”라고 해석했다. 이 이외의 모든 학파들은 모두 이 삼현에 근거해서 성립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 삼현과 관련해서 사건의 허물에 대해 설명하겠다.(135.a)

#### 5.3.1.3.7.4.1.1.2 삼현의 이득과 과실을 논하다

(q5.3.1.3.7.4.1.1.2.1) [장자의 경우와 같이] 자연의 도를 추구하여 뜻대로 방자하게 행동한다. 마음으로 힘써 선을 따르고자 하지도 않고 또 악을 행하지도 않지만 마음의 조화가 깨진다면 이는 자연이라고 말할 수 없다. 취하고 버리는 것이 없지만, 이는 무기(無記)를 행하는 것과 같다. 무기의 업은 다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과보를 받을 것이란 사실은 분명하다. 또 자연의 도를 추구해서 악을 짓는 사람은 모든 물건을 자연 때문이라고 하여, 마음대로 악을 짓는 것 또한 자연이라고 한다. 이는 무욕을 등지고 욕망을 임의대로 하는 것으로 묘와는 다르다. 장주는 인의(仁義)를 배척하였는데, 이는 작은 도적을 막기 위해서 힘쓸 뿐 큰 도적을 막는 일에는 힘쓰지 않는 것과 같다. 인의는 그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략이라고 비판하지만, 자연에 근거해서 욕망을 멈추고자 하는 장자의 사상이야말로 자연에 기대어 나쁜 행위를 짓는 것이라고 해야 한다.(135.b)

#### 5.3.1.3.7.4.1.2 인도의 경우

(e5.3.1.3.7.4.1.2.1) 인도의 사건 중 가장 강한 것이 공견이기 때문에 공견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했다. 이들은 인연에 대해 잘못 이해함으로써, 무견에 빠지는 경우이다.

##### 5.3.1.3.7.4.1.2.1 공견[無見]의 종류

(q5.3.1.3.7.4.1.2.1.1) 인도의 경우를 보면, 사건 중 공견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지금 공견에 근거해서 과실을 살펴보겠다. 대개 공견에는 다음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 과거의 원인을 설명하지 않고 현재의 결과만을 인정하고, 미래의 결과를 설명하지 않고 현재의 원인만을 인정하는 경우이다. 둘째, 과거의 원인과 현재의 결과도, 현재의 원인과 미래의

결과도 없고 세 개의 무위만이 있다고 주장한다. 셋째, 과거의 원인과 현재의 결과도, 현재의 원인과 미래의 결과도, 나아가 세 개의 무위도 아무 것도 없다고 주장한다.(135.b)

#### 5.3.1.3.7.4.1.2.2 무건의 이득과 과실을 논하다

(q5.3.1.3.7.4.1.2.2.1) 잘못된 인연에 근거해서 공견을 일으키면 선, 악, 무기의 행위가 일어나지만, 많은 경우 악한 행위를 짓게 된다. 올바르게 공을 보는 사람은 애욕에서 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선한 행위도 짓지 않지만, 악한 행위도 짓지 않는다. 그러나 공견을 일으키는 사람은 과보로서의 재산과 지위를 다투지는 않지만 공(空)을 다툰다. 자기와 같은 공견에 동조하는 사람은 친구로서 사랑하지만 유를 찬탄하고 공을 부정하는 사람은 원수로서 여기고 분노한다. 사람들이 공을 알지 못한다고 하고, 이들을 흠과 같이 업신여긴다. 마음을 텅 비게 하여 두려움이 없고, 규칙을 무시하고 감정대로 하고 욕망을 좇는다. 정견과 위의(威儀), 정명(淨命)을 부수기 때문에 죽으면 반드시 삼악도에 태어난다.(135.c)

#### 5.3.1.3.7.4.1.3 불법 내부의 사건에 대한 과실을 논하다

(q5.3.1.3.7.4.1.3.1) 통교, 별교, 원교 각각에서의 네 가지 가르침에 대해서도 견해를 낳는 경우가 있다. 하나의 견해 각각에 모두 세 가지 행위를 갖춘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 악을 행하는 사람은 대승의 가르침이 주장하는 ‘탐욕이야말로 불도이다’라든가, ‘삼독 안에 모든 불법이 갖추어져 있다’와 같은 가르침에 집착한다. 이와 같은 진실의 가르침은 본래 번뇌를 소멸하지만 잘못 이해하여 집착하면 오히려 악업을 낳는다. 또 칭찬을 받거나 혹은 비난을 받을 경우, 자신만만해 하고 비판한다. 기만하고 오만해지거나 화를 내면서 명성과 이익을 다투게 된다. [상구(上求)]의 자행은 하나이지만 화타와 관련해서 네 종류가 된다. 이와 같이 번뇌가 다하지 않기 때문에 무명이 업을 번성시키고 업력이 생(生)을 낳는다. [...] 이와 같이 견은 성도(聖道)와 다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죄과를 짓게 한다. 이를 모르는 사람은 견에 집착해서 이것이야말로 도라고 한다. 또 견이라는 것을 알아도 이 견을 따르는 중에 스스로 거기에 빠져버린다. 이와 같이 견에 따라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하면 불도의 수행을 성취할 수 없다.(136.b)

#### 5.3.1.3.7.4.2 제견의 진위(眞僞)를 결정하는 방법

##### 5.3.1.3.7.4.2.1 제견을 일으키는 가르침의 진위를 결정하다

(q5.3.1.3.7.4.2.1.1) 통괄해서 말하면, 불법과 무관한 외도의 사구에서부터 원교에서의 네 종류의 가르침에 따른 외도의 견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견해는 위타 내지 원교에서의 가르침의 삼념처(三念處)와 삼해탈(三解脫)에 통하고 있어, 말과 의미가 모두 같고 일으키는 견해의 잘못과 속박도 모두 같다. [...] 또 외도의 사구에서부터 원교에서의 네 종류의 견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견해는 그 말이 맑고 아름답지만 이를 통해 일으키는 번뇌는 더러움이라는 점에서 같다. [...] 또 외도의 사구에서부터 원교에서의 네 종류의 가르침에 이르기까지 모든 견해는 같다고 해도 연마하기에 따라 금과 옥이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의 차이가 있다. [...] 서로 자기의 견해를 집착하여 다른 견해는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서로 시비를 다투는 것은 진실과는 무관하다. 이것이야말로 진실의 도라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유루(有漏)의 길을 열고 열반을 얻으려고 하면서 결국 생사에 빠져버린다. [...] 이는 세속에서의 의사들의 치료와 같아서, 일시적으로 낫았다가 다시 재발하는 것과 같다. 팔십팔사(八十八使)의 번뇌의 바다는 다함이 없고, 생사의 수레는 멈추지 않고 번뇌에 빠져 영원히 탈출할 수가 없다. 이 모두는 제견의 허위로서, 진실의 도라고 결코 말할 수 없다.(136.b-c)

##### 5.3.1.3.7.4.2.2 근거하고 있는 가르침과 관련해 제견의 진위를 결정하다

(e5.3.1.3.7.4.2.2.1) 모든 견해는 반드시 근거하는 가르침이 있다. 가르침의 옳고 그름이 곧 견해의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삼장교의 가르침은 대승원교의 가르침에 비하면 옳지 않지만, 삼장교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정견이 일어날 수도 있고 원교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사견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q5.3.1.3.7.4.2.2.2) 삼장교에서의 네 종류의 가르침은 출세간의 성인이 출세간의 가르침을 설명한 것이다. 이 가르침은 청정하고 번뇌를 멸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했다. 오직 부처가 베푸는 가르침만이 올바른 가르침인 것은 아니다. 5백인의 아라한이 설한 가르침을 통해서도 똑 같이 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집착함이 없는 가르

침에 대해 집착하지 않으면서 올바른 마음을 일으켜 무상을 깨닫는다. 생각 생각이 생멸하여 아침의 목숨도 저녁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뜻을 세워 출요(出要)를 추구하여 가르침에 집착하거나 집착하는 마음을 일으키거나 희론(戲論)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는 서둘러 왕을 알현하여 은사를 받아 직책을 맡고자 하는 사람이 네 개의 문으로 들어가면서 어느 문이 가장 좋은지를 멈춰 서서 고려할 여가가 없는 것과 같다. 문은 통로임을 알아 어느 것이 좋은지를 재거나 다룰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 재빨리 화택(火宅)을 나와 모든 고를 다하고 진실의 지혜를 일으켜 구경도를 깨달으면 다룰 필요는 없다. 다투지 않으면 업이 없고 업이 없으면 생사가 없어 오직 도와 멸만 있다. 심지는 편안해지고 원인과 결과도 없고 싸움도 없다. 정견만이 있고 사견은 없다.(136.c-137a)

#### 5.3.1.3.7.5 제견경이 갖는 효용

(e5.3.1.3.7.5.1) 제견은 과거에 배웠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의 선정이나 가르침을 듣는 것을 통해 일어난다. 제견은 집착하면 불도를 성취하는데 장애가 되지만, 그 본성은 지혜이기 때문에 견을 대상으로 해서 지관을 실천하면, 오히려 빠르게 해탈에 이를 수 있다.

(q5.3.1.3.7.5.2) 다시 제견의 과실에 대해 먼저 알아두지 않으면, 견해가 생겼을 때 두려워하는 마음을 일으켜 급하게 끊으려고 하면 실패하기 쉽다. 지금 [견해가 갖는] 잘못된 모습을 알면 신중하게 대처하여 급하게 끊으려고 하지 않는다. 견해가 일어나는 것에 따라 이를 불도를 성취하기 위한 힘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커다란 이익이 있다. [...] 삼장교와 같은 졸렬한 네 종류의 견해가 통교의 교묘한 네 종류의 견해를 일으킨다면, 견해는 장애이지만 깊이 불도를 돕는 것이 된다. 복덕으로 천계에 태어나기는 쉽지만, 불도를 얻기는 어렵지만, 견해는 지혜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침몰하기도 쉽지만 불도를 깨닫는 것에도 매우 빠른 측면이 있다. [...] 여러 가지의 외도도 먼저 어떤 견해를 가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처의 가르침을 받는 순간, 마치 준마가 채찍의 그림자를 보고 달리듯이 한 순간에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만약 이들에게 어떤 견해가 없었다면 가르침을 들려주어도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는 소나 말을 향해 어떤 가르침을 펼쳐도 이해할 수 없는 것과 같다.(137.b-c)

### 5.3.1.3.7.6 제견경에 대한 지관수행

(e5.3.1.3.7.6.1) 제견의 종류는 140여 종에 이른다. 지의는 이 모두에 대해 하나하나 지관을 실천하는 방법을 설명하고자 하면 너무 많은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공견(空見)을 하나의 예로 들어 제견을 대상으로 해서 지관을 실천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공견은 모든 견해를 부술 수가 있지만 다른 견해들은 공견을 부술 수 없기 때문에, 공견에서의 지관수행만을 설명해도 커다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공견은 현상에 대한 집착을 끊도록 하기 때문에 선법이지만, 이에 집착하면 오히려 구극의 깨달음을 방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마하지관』은 공견에 대해서도 공견을 사려분별을 넘어서 있는 대상이라고 관찰하는 불가사의경에서 시작해서 범무애로 끝나는 십승관법의 실천을 요구했다.

(q5.3.1.3.7.6.2) 사려분별을 넘어서는 대상이라고 관찰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겠다. 한 순간의 마음인 공견이 열 가지의 법계를 갖춘다. 공견은 곧 법성이다. 법성은 아득히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니, 공견의 마음 자체가 곧 법성이기 때문이다. 『유마경』에서 “제불의 해탈은 중생의 마음 작용에서 구해야하며, 육십이견(六十二見) 중에서 구해야 한다.”고 했다. 해탈과 중생, 육십이견은 서로 다른 독립적인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차례로 보였다. 모든 중생은 곧 보리로서, [보리는]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원정(圓淨)의 해탈이다. 오음(五陰)은 곧 열반으로서 소멸하지 않는다. 이는 방편정(方便淨)의 해탈이다. 중생의 모습은 곧 부처의 모습이다. 이는 성정(性淨)해탈이다. 부처의 해탈은 곧 색해탈(色解脫) 등의 5종류의 열반이다. 공견의 마음은 더러움에 물든 오음이지만 오음은 곧 중생이고 중생이 곧 오음이다. 오음과 중생은 서로 결합하여 서로 떠나 있지 않다. 이 오음을 관찰하면 곧 열반이다. 이 점에서 오음은 소멸할 필요가 없다. 처음부터 묶여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곧 해탈이다. 본래 이와 같은 해탈에 모든 존재가 포섭되어 있기 때문에 ‘해탈은 중생의 마음에 근거해서 구하라’고 했다. [...] 세 가지의 해탈이 서로 떨어져 존재하지 않고 가로, 세로도 없이 모든 사려분별을 벗어나 있으면서 원만하게 구축되어 있는 모습이 공견 안에서 인정된다. 이를 사려분별을 넘어서는 대상[불사의경]이라고 한다.(140.b)

#### 5.3.1.3.8 증상만경(增上慢境)

(e5.3.1.3.8.1) 『마하지관』은 제견경까지만 설명하고, 증상만경 이하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의는 십경이 일어나는 모습을 설명하는 가운데 증상만경, 이승경, 보살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를 참조해서 그 의미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증상만경을 선정의 과정 중 거의 마지막 단계에 나타나는 장애로 설명하는 이유는 증상만이 선정을 수행하는 과정에 빈번하게 일어날 뿐만 아니라 깨닫는 시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해지기 때문이다. 『마하지관』은 증상만을 막기 위해, 이즉(理卽), 명자즉(名字卽), 관행즉(觀行卽), 상사즉(相似卽), 분진즉(分眞卽), 구경즉(究竟卽)의 여섯 단계의 계위(六卽)를 설정하여 경고하였다.

(q5.3.1.3.8.2) 견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 견해에 대한 어리석은 집착을 멈추고 탐욕과 진애와 같은 날카롭고, 둔한 두 종류의 번뇌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런데 무지한 자들은 여기서 열반을 증득했다고 생각한다. 소승에서 사선(四禪)을 사과(四果)라고 주장하는 자가 있듯이 대승에서도 악마가 와서 수기를 주는 일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증상만을 일으키는 사람이 된다. 이와 같은 증상만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견경 다음에 증상만경을 설명한다.(49.b)

#### 5.3.1.3.9 이승경(二乘境)

(e5.3.1.3.9.1) 이승경은 증상만에 대한 지관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전생의 숙습으로 인해 자리(自利)를 지향하는 소승의 편집이 정신 내에 뿌리 깊게 남아 수행을 방해하는 것이다. 소승에는 사성제(四聖諦)의 진리를 듣는 성문(聲聞)과, 십이인연을 깨닫는 연각(緣覺)이 있다. 이들 이승의 교법은 서로 차이가 있지만 회신멸지(灰身滅智)의 자리(自利)를 구하고 이것을 궁극의 깨달음으로 여기는 점은 같다. 이와 같이 공에 대한 이승의 독단적인 견해는 대승의 자리아타(自利利他)의 공



극적인 깨달음을 막는 장애 요소로서, 일천제보다 더 구하기 어려운 잘못된 견해로 간주된다.

(q5.3.1.3.9.2) 제견과 증상만이 고요해져도 전생의 아주 작은 습성이 지관을 실천함에 따라 일어나게 된다. 이 때문에 사리불은 자신의 눈을 버렸다. 『대품반야경』은 “겐지즈강의 모래와 같이 많은 보살이 대승의 마음을 일으키지만, 그 가운데 한 두 사람만이 보살의 지위에 들고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이승에 떨어진다.”고 했다. 이 때문에 증상만경 다음에 이승경을 설명한다.(49.b)

#### 5.3.1.3.10 보살경(菩薩境)

(e5.3.1.3.10.1) 십경 중 보살경은 소승의 보살심으로서, 통교의 진도(眞道), 별교, 원교의 보살심은 아니다. 소승보살은 소승의 근기라는 점에서 성문·연각과 같지만, 성문과 연각은 자리를 구하고 회신멸지를 궁극의 이상으로 하는데 반해 육바라밀을 행하여 중생구제를 이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그러나 이들은 석공(析空)을 모든 존재의 참된 모습이라고 하여 공을 구경으로서 관찰하기 때문에 이승과 같이 공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 공에 대한 잘못된 견해는 지의가 제견경에서 밝혔듯이 지관수행에서 가장 커다란 장애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의는 이승경 다음으로, 보살경을 지관수행의 대상으로 삼았다.

(q5.3.1.3.10.2) 본래의 서원을 잊지 않고 공에 떨어지지도 않는 사람은 여러 가지의 방법을 시도하는 보살의 경계를 일으킨다. 『대품반야경』은 “보살이라도 오랜 기간에 걸쳐서 육바라밀을 실천하지 않는 자들은 깊은 가르침을 들으면 비방하여 지옥도에 떨어진다.”고 했다. 이들은 육바라밀을 수행하는 보살이다. 통교의 방편위에서도 비방하는 사람이 있지만, 진실의 도로 들어가면 비방하는 자는 없다. 별교에서는 처음 마음부터 이미 실상의 깊은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비방하지 않는다. 이들 보살들은 모두 권교(權敎)의 선근(善根)이기 때문에 이승경의 다음에 보살경을 설명한다.(49.b-c)

### 5.3.2 십승관법(十乘觀法)

(e5.3.2.1) 십승관법이란, 앞에서 말한 음입계경, 번뇌경, 병환경, 업상경, 마사경, 선정경, 제견경, 증상만경, 이승경, 보살경의 열 가지를 대상으로 해서 관불사의경(觀不思議境), 기자비심(起慈悲心), 교안지관(巧安止觀), 파법편(破法遍), 식통색(識通塞), 수도품(修道品), 대치조개(對治助開), 지차위(知次位), 능안인(能安忍), 무법애(無法愛)의 열 가지 방법으로 관찰하는 것이다. 이 관법은 원교일승의 가르침을 남김없이 갖추고 있으며, 초발심 수행자의 지침으로서 수행자를 깨달음으로 이끈다고 한다. 지의에 따르면, 십승관법은 여래가 오랜 기간에 걸쳐 수행한 것이며, 보리수 아래서 깨달은 내용으로 암증선사나 문자법사들은 이해할 수 없는 수행법이다.

(q5.3.2.2) 스스로 묘경을 깨달으면 곧 서원을 세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된다. 서원을 실현하기 위해 수행하고 서원과 수행이 충분해지면 잘못된 생각을 자유롭게 부술 수 있다. 부수는 가운데 수행이 정밀하게 통했는지, 막혔는지를 알게 되어 여러 가지 불도행이 진전되고 또 보조적인 수행도를 더해 불도수행을 열어 간다. 수행 과정 중에 자기와 타인의 수행 계위를 잘 알아 안과 밖에서의 영욕을 잘 참아낸다. 수행 중의 가르침에 조금도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보살의 지위에 들어가게 된다’.(52.b)

#### 5.3.2.1 관불사의경(觀不思議境)

(e5.3.2.1.1) 불사의경은 마음을 불사의한 대상으로 통찰하는 관법이다. 불사의란 사려분별을 넘어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불사의경은 언어로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먼저 마음을 사려분별하는 관점[思議境]에서 설명하고 이를 통해 마음이 불사의한 대상이라는 의미를 밝혔다.

(q5.3.2.1.2) 이 경계는 설명하기 어렵다. 먼저 사의경을 설명하고 뒤에 사의를 넘어선 경이 어떤 것인가를 드러내겠다.(52.b)

#### 5.3.2.1.1 관불사의경의 의미

(e5.3.2.1.1.1) 마음이 불사의한 대상이라고 관찰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화엄경』의 ‘일체유심조’를 통해 설명한다. 여기서 일체법은 십법계로서, 지옥, 아귀, 축생, 수라, 인간, 천, 성문승, 연각승, 보살, 佛의 열 가지의 존재모습을 가리킨다. 열 가지의 존재모습은 번뇌의 정도와 수행의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르다. 이러한 다양한 모습들이 모두 마음에 근거한다고 할 때, 일체법을 만들어내는 마음의 본성과 이 마음과 일체법의 관계 등에 대한 이해가 마음을 이해하는 핵심을 이루게 된다. 일체유심조에서 마음은 문자대로라면 일체법의 존재근거로서 일체법에 앞서 존재하는 실체를 의미한다. 『마하지관』은 이를 사의경으로 설명하고, 이러한 언어 분별을 넘어서서 마음과 일체법을 불이상즉(不二相卽)의 관계로 이해하는 것을 마음을 불사의경으로 관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q5.3.2.1.1.2) 일심이 앞에 있고 일체법은 뒤에 있다고 해서는 안 된다. 또 일체법이 앞에 있고 일심이 뒤에 있다고 해도 안 된다. 예를 들면 존재가 여덟 가지의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과 같다. 존재가 변화하는 모습 앞에 있는 것이 아니니, 만약 앞에 있으면 존재는 여덟 가지의 모습으로 변화하지 않는다. 여덟 가지의 변화하는 모습이 존재의 앞에 있다고 해도 존재는 여덟 가지의 모습으로 변화하지 않는다. 앞이 불가하듯이 뒤도 불가하다. 단지 존재가 여덟 가지의 모습으로 변화함을 말한 것이고 여덟 가지의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에 의해 곧 존재를 논할 뿐이다. 지금 마음 또한 이와 같다. 일심에서 일체법이 생긴다고 하면 이는 곧 세로이다. 만약 마음이 한 순간에 일체법을 두루 갖추었다고 하면 이는 가로이다. 세로도 불가하듯이 가로도 불가하다. 단지 마음이 일체법이고 일체법이 마음이기 때문에 세로도 아니고 가로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현묘심절하여 분별에 의해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로서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때문에 불가사의한 대상이라고 했으니 그 의미는 여기에 있다.(54.a)

### 5.3.2.2 기자비심(起慈悲心)

(e5.3.2.2.1) 십승관법 가운데 두 번째로 발진정보리심(發眞正菩提心), 진정보리심(眞正菩提心)이라고도 한다. 『마하지관』이외에서는 진정 발심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첫 번째인 관불가사의경을 실천하여 마음이 불가의사의함을 이해하게 되면, 불사의경의 완전한 체득과 동시에 일체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보리심을 일으킨다. 대승불교로서 원교는 자리(自利)뿐만 아니라 이타(利他)를 서원한다. 원교지관의 수행자가 일으키는 보리심의 성격이 중생구제를 지향한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마하지관』은 두 번째의 관을 기자비심이라고 했다.

(q5.3.2.2.2) 자비의 서원은 불사의경의 지혜와 함께 일어나는 것으로, 이 둘에는 앞과 뒤가 없다.(56.b)

#### 5.3.2.2.1 기자비심의 형태

(e5.3.2.2.1.1) 기자비심은 괴로움을 없애고 즐거움을 주려는[拔苦與樂] 마음이다. 이러한 마음이 구체화한 것이 사홍서원이다. 이 네 가지 중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은 괴로움을 없애고자 하는 서원이고 법문무량서원학과 무상불도서원성은 즐거움을 주려는 서원이다.

##### 5.3.2.2.1.1 발고서원(拔苦誓願)

(q5.3.2.2.1.1.1) 중생은 끝이 없이 무수하지만 이 모두를 구하겠다고 서원하고, 번뇌는 끝이 없이 무수하지만 이를 끊겠다고 서원한다. 중생은 허공과 같이 한계가 없지만 이들을 구하겠다고 서원하고 번뇌는 고정된 모습이 없지만 이러한 번뇌를 다 끊겠다고 서원한다.(56.a)

##### 5.3.2.2.1.2 여락서원(與樂誓願)

(q5.3.2.2.1.2.1) 부처의 가르침은 끝이 없지만 다 배우고자 서원하고, 깨달음을 향한 수행의 길은 끝이 없지만 모두 성취하고자 원한다. 가르침

이 허공과 같이 걱정함을 알지만 그 걱정한 가르침을 수해하겠다고 서원한다. 보리는 획득할 수 있는 모습이 없지만 이 가운데에서 그것을 구하겠다고 서원한다.(56.a-b)

### 5.3.2.3 교안지관(巧安止觀)

(e5.3.2.3.1) 선교안심지관(善巧安心止觀)이라고도 한다. 지관을 통해 오묘한 진리를 체득하여 마음을 법성에 편안하게 머무르도록 하는 관법이다. 마음도 법성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법성으로 하여금 법성에 머무르게 한다는 의미이다. 보리심을 일으켜 사홍서원을 한 만큼 이 서원에 부합하는 실천을 해야 한다. 이 실천이 교안지관이다. 무명이 곧 법성이라는 원교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마음을 법성에 집중시켜 무명과 법성을 분별하는 의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q5.3.2.3.2) 교안지관이란 지관을 통해 마음을 법성에 편안하게 머무르도록 하는 것이다. 위로 불사의경의 깊고 오묘한 이치를 깊이 깨닫고 널리 서원을 세웠다. 이 서원이 이와 같으면 서원에 부합해서 실천해야 한다. 이 실천이 지관이다.(56.b)

### 5.3.2.3.1 교안지관의 형태

#### 5.3.2.3.1.1 총체적 지관

(e5.3.2.3.1.1.1) 총체적 지관은 무명이 곧 법성이라는 원교의 진리를 총체적으로 관찰하는 관법으로서, 마음의 근원으로 돌아가 모든 어지러운 망상을 초탈하고 법계진여의 이법을 체득한다. 환원반본(還源反本)을 지향하는 관법이다.

#### 5.3.2.3.1.1.1 지(止)

(q5.3.2.3.1.1.1.1) 지금은 여러 가지 전도가 곧 법성이며, 법성과 동일하지도 다르지도 않다고 체득한다. 여러 가지의 전도가 일어나고 소멸하지만 이들은 회전하는 불의 고리 같은 것이다. 전도된 생각의 일어남과

소멸은 믿지 말고, 이 마음이 바로 법성이라고 믿는다. 일어남도 이 법성의 일어남이며 소멸 또한 법성의 소멸이다. 그러나 사실 체는 일어남과 소멸함이 없는데 어리석게 일어나고 소멸한다고 분별한다. 이 망상은 모두 법성이다. 법성이 법성을 대상으로 하여, 법성이 법성에 집중한다. 이 법성이 항상 법성일 때 체의 달성이 이루어지면 망상은 얻을 수가 없다. 또 법성도 얻을 수가 없다. 근원을 회복하고, 근본으로 돌아가 법계가 다 함께 고요하다. 이것을 지(止)라고 한다. 이와 같이 머물 때 지금까지 유동하던 모든 마음이 멈추어 고요해진다.(56.b)

#### 5.3.2.3.1.1.2 관(觀)

(q5.3.2.3.1.1.2.1) 관이란 무명의 마음을 위로는 법성과 같아서 본래 모두 공하다고, 아래로는 모든 망상과 같아서 모두 허공과 같다고, 그리하여 서로 다르지도 같지도 않다고 관찰한다. 이는 이 겁이 다할 때, 지상에서 초선에 이르는 세계가 모두 불바다가 되어 불만이 있는 것과 같으며, 허공장보살이 모든 것을 공으로 하여 드러내는 것과 같다. 또 해해보살이 모든 것을 물로 해서 드러내는 것과 같다. 한 순간의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하는 마음은 공하지만, 이 공은 얻을 수가 없다. 이는 불을 일으키는 나무가 땀감을 태우면서 스스로도 태우는 것과 같다. 불법의 세계가 뚜렷해지고 두루 밝게 된다. 이것을 관이라고 한다.(56.b-c)

#### 5.3.2.3.1.1.3 지관의 관계

(q5.3.2.3.1.1.3.1) 지(止)는 지혜이고, 지혜는 지(止)이다. 不動止는 不動의 智慧이며 부동의 지혜는 부동지(不動止)이다. 부동의 지혜가 법성을 비추면 관의 지혜가 편안해진다. 이는 곧 지(止)가 편안해지는 것이다. 법성에서 움직이지 않고 상응하면 이는 지의 안주이고 또 관의 안주이다. 지와 관은 둘이 아니다.( 56.b)

#### 5.3.2.3.1.2 개별적 지관

(e5.3.2.3.1.2.1) 총체적 지관만으로도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지

만 이를 실천하지 못할 경우, 사람의 능력과 관심에 따라 다양한 지관방법을 시설해야 한다. 이것이 개별적 지관이다. 『마하지관』은 크게 남에게 지관을 가르치는 경우와 스스로 지관을 실천하는 경우의 두 경우로 나눈 뒤, 각각의 실천주체를 수행의 지혜가 예리한 법행인(法行人)과 듣는 지혜가 예리한 신행인(信行人)으로 나누어, 사실단을 통해 이들에게 맞는 지관법을 384가지로 설명했다.

(q5.3.2.3.1.2.2) 삼제(三諦)를 떠나 마음을 편안히 할 수 있는 곳은 없고, 지관을 떠나 마음을 편안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마음이 삼제에 안주하면 하나의 구로서 충분하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방편을 지혜롭게 사용하여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한다. 이는 한 눈의 그물로는 새를 잡을 수 없지만, 새를 잡는 것은 그물의 한 눈인 것과 같다. 중생의 마음과 행은 서로 다르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마음과 행일 수도 있고, 혹은 한 사람이 많은 종류의 마음과 행일 수도 있다. 한 사람을 위한 것이 많은 사람에게 적용될 수도 있고, 또 많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한 사람에게 적용될 수도 있다. 법의 그물눈을 널리 펼쳐 마음과 행의 새를 잡아야 한다.(59.a-b)

#### 5.3.2.3.1.2.1 신행인(信行人)

(q5.3.2.3.1.2.1.1) 스승은 “당신은 선정과 지혜 중 어느 것을 배우고자 하는가?”라고 물어야 한다. 이 사람이 “나는 부처의 가르침을 이와 같이 듣고 있습니다. 선지식은 달이 점차 둥그레짐에 따라 밝기를 더해 가듯이, 사다리의 높이를 점점 높여 가듯이, 지혜롭게 가르쳐 사람의 마음을 전환시키는 것이 깨달음의 온전한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송아지가 어미소를 그리듯이, 이와 같이 가르침을 듣고자 합니다.”라고 한다면, 그는 신행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57.a)

#### 5.3.2.3.1.2.2 법행인(法行人)

(q5.3.2.3.1.2.2.1) 어떤 사람이 “나는 마음의 편안함을 즐긴다. 심사숙고해서 번뇌를 없애고 최종적으로는 무위를 체득하고자 하며 경전의 문구를 이리 저리 분석해서 배우는 일은 나에게 맞지 않다.”고 하면 이는

법성인이다. 이와 같은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이 지(止)를 가르쳐야 한다. “당신은 바깥에서 찾지 않고, 바깥의 사물에 흔들리지 않도록 안으로 마음을 조절하는 것이 좋다. […] ” (57.c)

#### 5.3.2.4 파법편(破法遍)

(e5.3.2.4.1) 파법편은 교안지관을 통해 지관을 완전히 체득하지 못한 경우, 이를 대치하기 위한 관법이다. 본래 법성은 청정하여 부수거나 부수지 않는다는 것이 없다. 여기서 부수는 대상은 전도(顛倒)의 미망이다. 『마하지관』은 파법편에 대해 가장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파법은 가르침을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진다. 주지하다시피 가르침에는 장교, 통교, 별교, 원교가 있는데, 『마하지관』은 원교를 기준으로 한 파법만이 법에 대한 모든 집착을 두루 부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원교에도 유문(有門), 무문(無門), 역유역무문, 비유비무문이 있는데, 이 네 가지 모두 기준이 될 수 있지만 무문에 기준해서 파법의 실천을 요구했다. 무문은 무생문(無生門)으로서 무생문은 생사의 속박을 초탈하는 것을 주장하는 불교의 제1원리로서, 무생문이 갖는 부정의 정신은 파법에서 가장 타당한 원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q5.3.2.4.2) 네 번째는 두루 법을 부수는 것이다. 법성은 청정하여 모임과 흩어짐이 없고 언어로 표현할 수도 없으며 마음의 작용이 소멸하기 때문에, 부순다거나 부수지 않는다는 것이 없다. 그렇다면 왜 부순다고 하는가? 이는 중생에게 전도됨이 많고, 전도되지 않는 것은 적기 때문에 전도된 것을 부수어 전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지혜롭게 지관을 실천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면, 선정과 지혜가 개발되어 다시 부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에 상응하는 선정과 지혜가 개발되지 않으면, 선정에 근거해서 지혜를 이용하여 철저하게 이것을 정화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부순다고 설명한다.(59.b)

##### 5.3.2.4.1 파법의 기준

(e5.3.2.4.1.1) 원교의 네 가지 가르침 중 무생명의 가르침이 기준이



된다. 무생(無生)의 가르침은 지관의 참된 의미를 드러내고 수행의 원인과 증득의 결과의 도리를 궁구하기에 가장 적당하기 때문이다. 이 무생의 가르침은 자연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통해 넓어진다. 다시 말해 이 가르침을 구체화하는 것은 인간에 달려있다. 인간이 지관을 수행함에 따라 이 가르침의 광휘는 점차 발현되고, 무생의 가르침이 중형무진으로 생생해짐에 따라 가르침의 진실이 증명되고 그 의의는 구체화된다.

(q5.3.2.4.1.2) 지금은 원교의 입장에서 말한다. 원교는 분별사유를 넘어서는 가르침으로, 하나의 대상이 모든 대상이며, 하나의 마음이 모든 마음이라고 설명한다. 가로, 세로의 모든 법이 마음으로 향하기 때문에 마음 하나를 부수면 모든 법을 부술 수 있어 두루 부순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세 가지의 가르침으로는 두루 부술 수 없지만, 원교의 네 가지 가르침은 두루 부술 수 있다. 이 네 가지 가르침은 유, 무, 유무, 비유비무의 가르침이다. 지금은 나머지 세 가지 가르침은 두고, 두 번째인 공무생의 가르침으로 설명하겠다. 무생의 가르침은 지관의 의미에 통하고, 수행인과 수행과의 이치를 궁구할 수 있으며, 무생을 드러내어 불교의 유효성을 잘 발휘한다고 할 수 있다. 지관은 행이고 무생의 가르침으로서, 이 가르침에 근거해서 수행하면 무생인욕의 깨달음에 도달하여 수행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59.c)

#### 5.3.2.4.2 파법의 방법

(q5.3.2.4.2.1) 법을 부수는 방법을 설명하면 다음 세 가지이다. 1. 수파법편(堅破法遍)으로 무생의 가르침의 근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하여 두루 법을 부수는 것이다. 2. 횡파법편(橫破法遍)으로 여러 가지의 가르침에 대해 무생의 가르침이 얼마나 유효한지를 그 근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하여 두루 법을 부수는 것이다. 3. 횡수불이파법편(橫堅不二破法遍)으로 세로도 아니고, 가로도 아닌 관점에서 무생의 가르침의 근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하여 두루 법을 부수는 것이다.(62.a)

#### 5.3.2.4.2.1 세로로 부수다

(q5.3.2.4.2.1.1) 세로로 부수는 것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의 방법이 있다. 1. 가에서 공으로 들어가는 파법편, 2. 공에서 가로 들어가는 파법편, 3. 공과 가의 두 관법을 방편으로 하여 중도제일의 진실로 들어가는 파법편이다. 이러한 삼관은 실제로 하나의 마음에 있는 하나의 관법이지만 부처의 불사의법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삼관을 통해 하나의 관법을 드러낸다.(62.a)

#### 5.3.2.4.2.1.1 종가입공관(從假入空觀)

(q5.3.2.4.2.1.1.1) 가에서 공으로 들어가는 파법편에는 세 가지가 있다. 1. 見惑의 가에서 공으로 들어가는 것, 2. 思惑의 가에서 공으로 들어가는 것, 3. 네 가지의 가르침을 분석 판별하는 것이다.(62.b)

#### 5.3.2.4.2.1.1.1 종견가입공관(從見假入空觀)

#### 5.3.2.4.2.1.1.1.1 견혹(見惑)과 가유(假有)

(e5.3.2.4.2.1.1.1.1.1) 견혹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세계에 대한 잘못된 견해로서의 견혹과, 견해 자체가 임시적인 것으로 실체가 없다는 가유로서의 견혹이다.

#### 5.3.2.4.2.1.1.1.1.1 견혹

(e5.3.2.4.2.1.1.1.1.1.1) 유, 무, 유무, 비유비무에 집착하여 세계에 대해 잘못된 견해를 세우는 것이다. 여기에는 유, 무, 유무, 비유비무의 조합에 따라 단사견혹, 복사견혹, 구족사견혹, 무연사견혹이 있다. 대표적으로 세계의 주체로서 내가 있다고 집착하는 아견과 같은 것이 있다.

(q5.3.2.4.2.1.1.1.1.1.2) 견혹이란 진리 그 자체에 붙어서 발생하여 진리 그 자체를 방해하는 것이다. 이는 불꽃이 공기에 의지해서 타면서, 다시 공기를 흔드는 것과 같고, 꿈이 잠에 의지해서 나타나지만 이 꿈이 잠을 방해하는 것과 같다. 꿈이 멈추지 않으면 잠에서 깨어날 수 없는 것

과 같이 견혹이 제거되지 않으면, 진실을 드러낼 수 없다. 그러나 눈 뜨면 진리를 볼 수 있고, 진리를 보면 미혹됨도 없다. 진리를 볼 때 견혹은 끊어진다. 이와 같이 깨달음의 관점에서 견혹이라고 한다.(62.b)

#### 5.3.2.4.2.1.1.1.2 가유

(q5.3.2.4.2.1.1.1.2.1) 견혹이란 이해의 태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견해 그 자체가 임시적이기 때문에 견혹이라고도 한다. 가란 허망하고 전도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견혹과 같이 단사가, 복사가, 구족사가 있고, 각각에 절언사가 의미가 있다. 부처의 가르침에 따르면, 십육가가 있다. 각각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하나하나의 가에는 다시 인성가(因成假), 상속가(相續假), 상대가(相待假) 세 가지가 있다.(63.a)

#### 5.3.2.4.2.1.1.1.2 파가관(破假觀) [空觀]

##### 5.3.2.4.2.1.1.1.2.1 공관의 방법

(e5.3.2.4.2.1.1.1.2.1.1) 견혹의 가를 부수는 관법에는 견혹의 종류에 따라 네 가지가 있다. 즉 파단사혹, 파복사혹, 파구사혹, 파무연사혹이다. 이들 견혹은 모두 인연에 따라 일어난 가유로서, 허망하고 진실이 아닌 공이라고 관찰하는 공관을 통해 부술 수 있다. 공관에는 법성과 관련하여 견혹이 공임을 관찰하는 방법과, 용수의 사구추검을 통해 살펴보는 방법이 있다. 전자는 예리한 근기를 가진 사람을 위한 방법이고, 후자는 둔한 근기를 가진 사람을 위한 방법이다.『마하지관』의 파법편은 둔한 근기를 위해 사구추검의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q5.3.2.4.2.1.1.1.2.1.2) 자세히 설명하면, 예리한 근기를 가진 수행인은 한 번 듣고 깨닫고, 법행인도 사유에 근거해서 깨달을 수 있다. 그러나 둔한 근기를 가진 사람은 가르침을 들어도, 생각을 해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망념이 더욱 더 깊어져 여러 가지의 잘못을 저지른다. 그래서 『중론』은 “미래에는 이 세상 사람들의 능력이 더욱 둔해져 모든 악을 짓는다. 그리고 필경공을 설명하는 그 이유를 이해하지도 못한다. 이러한 이유로 자세히 가르침을 관찰하도록 이 중론을 설명한다.”고 했다.

지금 이와 같은 이유로, 둔한 근기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단사견혹, 복사견혹과 나아가 무언사견혹까지 부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들 견혹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용수의 사구를 사용해서 두루 부수어 청정하게 한다.(63.c)

#### 5.3.2.4.2.1.1.2.2 공관의 내용

(q5.3.2.4.2.1.1.2.2.1) 가를 체득하여 공으로 들어가는 지관의 의미를 정리하면, 모든 견혹의 작용이 멈추고 공에 들어가면 견혹이 영원히 멈추는 것을 지(止)라고 한다. 견혹은 무생이고 견혹의 성도 공이고, 상도 공이라고 깨닫는다. 이를 관이라고 한다. 진제의 진리를 보는 것을 不生이라고 하고, 이 진리는 불생이므로 이 진리는 불멸이다. 따라서 진리는 불생불멸이 되고, 이를 무생인이라고 한다. 또 견혹이 생기지 않으므로 그 원인에 대해 불생이라고 하고, 세 가지 악도를 받는 일이 없기 때문에 과보에 대해 불생이라고 한다. 원인과 과보가 불생이므로 불멸이다. 불생불멸을 무생인이라고 한다. 이는 무생의 가르침이 지관과 통하는 것이며, 지관을 통해 무생의 가르침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상이 가에서 공으로 들어가 모든 견혹을 부순다는 의미이다.(69.c)

#### 5.3.2.4.2.1.1.2 종사가입공관(從思假入空觀)

##### 5.3.2.4.2.1.1.2.1 사가혹(思假惑)

(e5.3.2.4.2.1.1.2.1.1) 사가는 사유혹이라고도 한다. 탐, 진, 치 아만과 같은 번뇌로서, 바로 삼독(三毒)이다. 삼계에 걸쳐 열 가지가 되며, 삼계의 구지와 관련해서 팔십일품(八十一品)의 사유혹이 있다. 이들은 업을 짓게 하여 생사에서 윤회하도록 하는 번뇌이다. 견혹은 대상에 대해 무제한적으로 접촉하면서 번뇌를 일으키지만, 사유혹은 욕망은 있지만 자기 아내 외에는 탐하지 않는 도공계의 힘이 있다는 점에서 이들은 서로 다르다.

(q5.3.2.4.2.1.1.2.1.2) 사유란 이해에 근거한 이름으로, 처음에는 진리를 보는 능력이 약해서 아직 생사윤회를 지속시키는 장애가 있지만 뒤

에는 진리에 대한 깊은 사유를 통해 이 미혹은 제거된다. 그래서 사유혹이라고 한다.(70.a)

#### 5.3.2.4.2.1.1.2.2 사가를 부수는 관법

(e5.3.2.4.2.1.1.2.2.1) 사유혹을 부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은, 부수는 내용이 탐, 진, 치로서 견혹과 다를 뿐 방법에서는 견혹의 경우와 같다.

#### 5.3.2.4.2.1.1.3 원교에서의 종가입공관의 의미

(e5.3.2.4.2.1.1.3.1) 종가입공관에서 가와 공에 대한 이해가 장교, 통교, 별교, 원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종가입공을 통해 부수어지는 미혹이나 증득하는 공의 의미에 대해서도 네 가지 가르침이 각각 다르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마하지관』은 장교, 통교, 별교, 원교에 공통하는 원교의 가르침을 제시함으로써, 이들 네 가지 가르침이 모두 동일한 목적을 향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를 통해, 어떤 특정한 가르침만이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고 집착하지 말고, 하나하나의 가르침에서 모두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마하지관』이 지향하는 원교의 지관법이라고 정의했다. 이 정의에 따르면, 무생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가에서 공으로 들어가는 종가입공관은, 통교의 계위에 들어가는 방편행이 아니라 곧 중도제일의제를 통찰하는 진실행이 된다. 이는 『마하지관』이 종가입공관을 통해 남김없이 모든 법을 부순다고 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뒤에 나오는 종공입가관을 통해 두루 모든 법을 부순다고 할 때도 이 이유는 그대로 적용된다.

(q5.3.2.4.2.1.1.3.2) 무생의 가르침을 통해 견사혹을 부수는 것은 공의 가르침과 같다. 그러나 하나의 가르침은 모든 가르침과 통하기 때문에 무생의 가르침은 하나의 가르침에 한정되지 않는다. 하나의 미혹을 부수면 모든 미혹을 부수는 것이 되므로, 견사혹을 부수는 일은 하나의 미혹을 부수는 일에 머무르지 않는다. 가에서 공으로 들어가면 하나의 공은 모든 공이므로, 종가입공의 공이 단공으로 생사를 공으로 하는 것에 머물

지 않는다. 이는 원교에서의 네 가지 가르침으로서,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다.(75.b)

#### 5.3.2.4.2.1.2 종공입가관(從空入假觀)

(e5.3.2.4.2.1.2.1) 무생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미혹을 부순 뒤, 대승 보살의 이타행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공에 머무르지 않고 가의 현상으로 나와야 한다. 이를 위해 종공입가를 통해 두루 법을 부순다.

##### 5.3.2.4.2.1.2.1 입가(入假)의 의미

(q5.3.2.4.2.1.2.1.1) 가에 들어간다는 의미에는 공에서 가로 들어가는 것과, 공이 공아님을 알고 공을 부수어 가로 들어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이승의 지혜와 끊임으로도 진체를 증득하지만 대자비가 없기 때문에 보살이라고 할 수 없다. 『화엄경』은 “제법의 참된 성품과 모습은 이승 또한 같이 얻는다.”고 했지만 이를 부처라고 하지는 않았다. 이들은 자행(自行)의 관점에서 공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만 중생교화의 관점에서 가(假)로 나오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보살은 가에서 공으로 들어가 스스로의 속박을 끊기 때문에 범부와 다르고, 공에서 가로 들어가 타인의 속박을 끊기 때문에 이승과 다르다. 유의 현상에 머무르지만 더럽혀지지 않고, 법안으로 약을 알고, 자비로 병을 치료한다. 밖에 한계가 없으며, 중생구제에 권태로움이 없이 마음의 작용이 자유롭다.(75.b-c)

##### 5.3.2.4.2.1.2.2 입가의 인연

###### 5.3.2.4.2.1.2.2.1 자비의 마음이 강하다

(q5.3.2.4.2.1.2.2.1.1) 자비의 마음이 강하기 때문이다. 처음 가를 부술 때 모든 중생이 전도되어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을 보고 커다란 자비심을 일으킨다. 부모가 모든 자식을 똑 같이 사랑하듯이 한다. 이미 미혹을 끊고 공에 들어간 지금 일심동체의 슬픔이 더욱 깊어져 타인을 자기보다 중시하여 즐거움을 주고, 괴로움을 없애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 두터워진다.(75.c)

#### 5.3.2.4.2.1.2.2.2 본원(本願)을 기억하다

(q5.3.2.4.2.1.2.2.2.1) 본원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처음 사홍서원으로 발심해, 괴로움을 없애고 즐거움을 주겠다고 서원을 했지만 지금 중생을 보면 괴로움만 많고 여기서 구제하기 어렵다. 그러나 자기 혼자 해탈을 얻어도 이는 초발심에 반한다. 본원을 잊지 않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러한 중생들을 버릴 수 없다고 하여 가에 들어가 사람들을 인도한다.(75.c)

#### 5.3.2.4.2.1.2.2.3 지혜가 예리하다

(q5.3.2.4.2.1.2.2.3.1) 지혜가 예리하기 때문이다. 공에 들어갈 때 공에는 다른 것을 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안다. 이와 같은 공에 안주하면 불국토를 정화하여 중생을 교화하고 부처의 가르침을 충분히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공견의 잘못을 잘 알고서 공을 부정하고 가로 들어간다.(75.c)

#### 5.3.2.4.2.1.2.2.4 선교방편으로

(q5.3.2.4.2.1.2.2.4.1) 지혜롭게 방편을 사용하기 때문에 현상의 세간에 들어간다. 생사의 괴로움과 번거로움도 지혜에 손상을 주지 못한다. 여러 가지 방해나 곤란스러운 일을 만나도 점점 교화에 힘쓴다.(75.c)

#### 5.3.2.4.2.1.2.2.5 커다란 정진의 힘으로

(q5.3.2.4.2.1.2.2.5.1) 커다란 정진의 힘이 있기 때문이다. 불도는 멀고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이를 요원하다고 보지 않고, 중생의 수는 무수하지만 이 때문에 좌절하지도 않는다. 마음이 견고하여 후퇴하지 않고, 힘써 정진하여 수행을 시작한 처음부터 피곤해 하거나 게으름 피우지 않는다.(75.c)

#### 5.3.2.4.2.1.2.3 입가관(入假觀)

(e5.3.2.4.2.1.2.3.1) 가에 들어가는 관에는 병을 아는 것[知病], 약을 아는 것[識藥], 약을 처방하는 것[授藥] 세 가지가 있다.

#### 5.3.2.4.2.1.2.3.1 병에 대해 알다

(e5.3.2.4.2.1.2.3.1.1) 견혹과 사혹의 근본과 이들이 일어나는 인연, 이들을 일으키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알고 또 이들이 어떻게 증장해 가는가를 아는 것이 병에 대한 앎이다. 여기서는 견혹의 근본에 대해 아는 일만을 인용했다.

(q5.3.2.4.2.1.2.3.1.2) 견혹의 근본을 안다는 것은 아견이 모든 견혹의 근본이며, 이 아견은 한 순간의 미혹된 마음에 근거한다고 아는 것이다. 한 순간의 미혹된 마음에서 무한한 견해가 일어난다. 가로와 세로로 조밀하게 얹혀 있어 셀 수가 없다. 이 견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없을 짓고 그 결과 삼도에 떨어져 끊임없이 윤회한다. 이는 회전하는 불을 멈추려면 먼저 손을 멈추어야 하는 것처럼 이 마음은 망상에 의지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알아야 한다. 나 또한 아견의 입장에서 말하는 내가 아니고 전도된 견에 근거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전도와 망상이 멈추면 근본이 멈추어진다. 근본이 멈추면 지엽은 자연히 멈춘다.(76.a)

#### 5.3.2.4.2.1.2.3.2 약에 대해 알다

(q5.3.2.4.2.1.2.3.2.1) 병이 무량하기에 약도 무량하다. 이를 정리하면 세간법의 약, 출세간법의 약, 출세간의 최상법의 약 세 가지다.(77.a)

#### 5.3.2.4.2.1.2.3.3 약을 투여하다

(q5.3.2.4.2.1.2.3.3.1) 출세간의 약을 줄 경우 열 가지의 인연에 따른다. 중생의 근기가 다르고, 병도 다르기 때문에 병에 따라 주는 약도 다르다. 이는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 상상근기와 같이 인연에 차이가 있다.(78.c)

#### 5.3.2.4.2.1.2.4 입가의 계위

(e5.3.2.4.2.1.2.4.1) 사람들은 먼저 견혹을 부수고, 다음에 사혹을 부수어 공에 들어가는 일도 자기의 능력이 미치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



기 쉬운데 가로 나와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일은 더더욱 자기의 능력이 미치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좌절함으로써, 진실된 부처의 깨달음을 지향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이와 같은 비굴한 마음에 대해 장교, 통교, 별교, 원교의 종공입가의 수행계위를 설명하여, 모든 가르침에서 종공입가관이 가능함을 주장하여 이타의 보살수행으로 나가도록 했다. 이는 자리(自利)만을 주장한다고 이해되는 장교에서도 종공입가의 계위가 있다는 설명에서 잘 드러난다.

(q5.3.2.4.2.1.2.4.2) [삼장교의 보살 중] 상근기의 사람은 초발심 때부터 모든 중생을 구제해서 부처가 되겠다고 서원하고, 부처의 가르침을 듣고 마음에서 분명하게 이해하여 진리를 깊이 안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번뇌를 끊어버리는 깨달음을 추구하지 않는다. 마음은 더욱 견고해져 중생을 구제해야 한다고 결심한다. 마땅히 구해야 한다고 하여 모든 약과 병을 안다. 이는 공에서 가로 나오는 다섯 가지 인연이 강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아이를 안고 위험한 지역을 지날 때 자기만 안전하게 지나고 아이는 버리지 않듯이, 이들은 스스로 공의 진리를 알지만 중생을 버리지 않는다. 이는 초심에서 바로 가로 들어가는 모습으로 이아승지겁의 수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79.a-b)

### 5.3.2.4.2.1.3 중도관(中道觀)

(e5.3.2.4.2.1.3.1) 중도관을 통해 두루 법을 부순다는 것은 종가입 공에서의 파법이 자행에 치우쳐 있고, 종공입가관에서의 파법이 화타에 치우쳐 있는 잘못을 바로 잡아 자행이 곧 이타임을 밝히기 위함이다.

#### 5.3.2.4.2.1.3.1 의미

(e5.3.2.4.2.1.3.1.1) 장교, 통교의 경우, 이들은 중도에 대해 그 이름만 알고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도관을 실천할 수가 없다. 별교는 처음부터 이름도 알고 그 의미도 알지만 공, 가, 중을 위계를 지닌 독립적인 진리로 이해하기 때문에 공관과 가관 이후에 실천할 수 있다고 이해한다. 그러나 원교는 공, 가, 중 삼제를 원융하다고 이해하기

때문에, 먼저 공관과 가관을 실천한 뒤에 중도관을 실천한다고 주장하지 않고 처음부터 삼관(三觀)을 동시에 실천할 수 있다.

(q5.3.2.4.2.1.3.1.2) 원교에서는 처음부터 중도를 안다. 별교에서도 견사혹을 부수지만 여기에는 빠름과 느림의 차이가 있다. 별교는 견사혹을 제거하는데 서른 개의 마음을 지나고 수많은 겁을 지나야 비로소 무명을 부순다고 이해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원교는 현재의 이 몸에서 곧 견사혹을 부수고 중도에 들며, 이 생애에서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삼중의 적에 둘러 싸여 있을 때, 어떤 사람의 무기가 나쁘고 체력도 떨어져 있고 지모도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먼저 이중의 적진을 돌파한 뒤, 체력을 길러 비로소 세 번째의 적진을 부수는 것과 체력도 왕성하고, 무기도 좋고 지모도 뛰어난 사람이 하루 안에 삼중(三重)의 적진을 돌파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80.c)

#### 5.3.2.4.2.1.3.2 중도관의 인연

##### 5.3.2.4.2.1.3.2.1 무연자비(無緣慈悲)

(e5.3.2.4.2.1.3.2.1.1) 무연자비는 여래의 자비로, 중생의 모습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애견으로부터 자유롭다. 열반을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공적에 빠지지 않는다. 공적으로부터 자유롭게 때문에 가르침에 의지하는 자비가 아니고, 애견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중생에 따른 자비가 아니다. 그래서 무연자비라고 한다. 이는 의지적인 노력에 따른 자비가 아니라, 자석이 철을 당기는 듯이 자연스러운 자비이다. 철이 무언가에 방해를 받으면, 자석이 철을 끌어당길 수 없듯이 중생의 마음도 무명이 방해를 하면, 아무리 무연자비가 작용을 해도 생각대로 중생을 끌어당길 수 없다. 중도관은 이 무명을 부순다.

(q5.3.2.4.2.1.3.2.1.2) 지금 중도관을 통해 무명의 장애를 부수어 부처의 자비를 드러내어 무한한 부처의 가르침과 무수한 중생을 생각대로 끌어당기고자 한다. 이 자비를 닦고자 하면, 중도관이 아니면 어떤 것으로도 성취할 수 없다. 이는 물에서 불이 나면 물로는 끄지 못하고 불로써만 끌 수 있는 것과 같다. 이 무명의 장애는 공관과 가관의 두 개의 관법

에서 생겼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관법으로는 제거할 수 없고 중도관으로만 부술 수 있다. 이러한 인연으로 세 번째의 중도관을 실천한다.(81.a)

#### 5.3.2.4.2.1.3.2.2 서원의 성취

(q5.3.2.4.2.1.3.2.2.1) 공관과 가관을 실천해도 처음 세웠던 서원을 충분히 성취하지 못했다. 이는 수백 개의 강물이 아무리 모여도 바다를 채울 수 없지만 사가라용왕이 한 번 비를 뿌리면 호수와 못에 물이 가득차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중도의 정관도 이와 같다. 모든 괴로움을 알고 모든 현상 세계의 집착을 끊고 무상의 도를 닦고 구경멸을 증득한다. 이것이 본원을 성취하기 위해 중도관을 실천하는 이유이다.(81.b)

#### 5.3.2.4.2.1.3.2.3 부처의 지혜를 구하다

(q5.3.2.4.2.1.3.2.3.1) 부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은 여래의 일체종지를 얻는 것이다. 불안(佛眼)의 견은 넓고 크고 깊고 멀리 가로, 세로를 모두 다 알며, 모든 법이 다 갖추어져 있다. 공관과 가관의 안지는 부처의 지혜에 비하면 맹인이 어두운 가운데 상상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아서 제대로 볼 수 없다.(81.b)

#### 5.3.2.4.2.1.3.2.4 대방편을 세우다

(e5.3.2.4.2.1.3.2.4.1) 부처가 깨달은 진리는 인간의 사유분별로는 깨닫기 힘들다. 여래의 선교방편만이 이를 가능하게 하는데, 이는 중도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즉 중도관을 실천하는 이유는 여래의 선교방편을 얻기 위함이다.

(q5.3.2.4.2.1.3.2.4.2) 또 여래가 처음 이 세상에 왔을 때 바로 대승의 가르침을 설하지 않고 여러 가지 방편과 비유와 같은 말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인도하거나, 여러 가지 애착을 끊게 한 뒤 불지견을 열어 일승의 가르침을 보였다. 그래서 은근하게 방편을 칭찬한다고 했다. 진실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선교방편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러 개의 도를 설했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일승(一乘)을 지향한다고 했다. 또 다른 방편을

사용해서 제일의제가 드러나는 것을 돕는다고 했다. 불지는 사유분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방편을 사용해서 적절하게 설명한다고 했다. 또 부처의 의도는 측량하기 어렵다고 했다. 백천만의 방편을 통해 둔한 근기의 사람들을 인도하여 불사의의 중도진실과 계합하도록 했다.(81.b-c)

#### 5.3.2.4.2.1.3.2.5 견고하게 정진 수행하다

(e5.3.2.4.2.1.3.2.5.1) 힘써 노력해야 대사를 성취하고 커다란 공덕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도관의 다섯 가지 인연은 종공입가의 다섯 가지 인연에 대응해서 설명했다.

#### 5.3.2.4.2.1.3.3 수행방법

(e5.3.2.4.2.1.3.3.1) 중도관은 무명혹을 부수는 관법으로, 이 때의 무명혹은 앞에서 실천했던 공관과 가관에서 얻는 지혜가 된다. 이 지혜는 중도의 입장에서 보면 미혹으로서, 중도관에서의 지혜가 성립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의미에서 지장(智障)이라고 한다. 지장으로서의 무명혹을 관찰하는 방법에는 무명을 관찰하는 방법, 법성을 관찰하는 방법, 진(眞)과 연(緣)을 관찰하는 세 가지가 있다. 먼저 무명을 관찰하는 방법은 공과 가의 지혜를 사구를 통해 관찰하는 것이고, 법성을 관찰하는 방법은 무명이 곧 법성이라는 견해의 잘못을 알기 위해 법성에 대해 사구를 통해 관찰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다. 진(眞)과 연(緣)을 관찰하는 것은 조건[緣]으로서의 수행이 진실의 수행을 드러낸다는 수행론과 조건으로서의 수행이 멸한 뒤 진실[眞]의 수행이 드러난다는 대립적인 수행론을 사실단을 통해 해석하는 방법이다. 법성을 관찰하는 방법을 예로 살펴보았다.

(q5.3.2.4.2.1.3.3.2) [법성에 근거해서 무명을 부수는 방법은] 무명의 마음이 소멸하고 법성의 마음이 생기는가? 무명의 마음이 소멸하지 않고 법성이 마음이 생기는가? 무명의 마음이 소멸하고 동시에 소멸하지 않고서 법성의 마음이 생기는가? 무명의 마음이 소멸하지도 않고, 소멸하지

않은 것도 아니면서 법성이 생기는가라고 관찰하는 것이다. 무명이 소멸하고 법성이 생긴다면 소멸하는 것이 어떻게 낳을 수 있는가? 무명이 소멸하지 않고 법성이 생긴다면 법성과 무명이 함께 성립한다. 무명이 소멸하고 동시에 소멸하지 않고서 법성이 생긴다면 이 둘은 모순이다. 무명이 소멸하지도 않고 소멸하지 않는 것도 아니면서 법성이 생긴다면 법성은 우연하게 생기는 것이며, 이는 불합리하다. 이와 같이 자생(自生), 타생(他生), 공생(共生), 무인연생(無因緣生) 중 그 어느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이 사구에 대해 각각의 구와 관련해서 신행과 범행이 서로 전입하면서, 사실단에 근거한 선교방편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82.b)

#### 5.3.2.4.2.1.3.4 계위와 이익을 밝히다

(e5.3.2.4.2.1.3.4.1) 중도관을 닦는 계위는 별교가 통교와 접하는 계위[別接通], 별교의 계위[別敎], 원교의 계위[원교]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별교가 통교와 접하는 계위는 칠지(七地)에서 닦고 팔지(八地)에서 증득한다고 설명한다. 별교는 십회향(十回向)에서 닦고 초지(初地)에서 증득한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이들에 따르면, 범부들은 중도관을 실천할 수 없다. 이에 반해 원교는 범부도 중도관을 실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q5.3.2.4.2.1.3.4.2) 지금 원교의 계위를 설명하면, 별교와 완전히 다르다. 오품제자위의 처음은 범부의 지위이지만, 여기에서 이미 원만하게 삼제를 관찰할 수 있다. 삼제를 닦아 여래좌에 앉으며, 적멸인을 닦아 여래의 옷을 입고, 부처의 정혜를 닦아 여래의 장엄으로 스스로 장엄하게 한다. 무연자비를 닦아 여래의 방으로 들어갈 수 있다. 처음은 수회품에서 시작하여 점점 나아가 다섯 번째의 정행육도품까지 들어가 여기서 상사각(相似覺)을 이룬다. 고니를 보고 연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연기를 보고 불이 있다는 것을 알듯이 상사위의 사람은 육근이 청정한 지위에 들어가게 된다. 외도가 사념처를 닦지 않으면, 난위(暖位)를 영원히 얻을 수 없듯이 중도관을 닦지 않으면 공, 가의 두 관에 대한 참된 이해는 얻을 수 없다. 지금 오품제자의 지위에서 중도를 닦아, 상사각을 이루고 나아가 초주에 들어가 무명을 부순다.(83.a)

#### 5.3.2.4.2.2 가로로 부수다

(e5.3.2.4.2.2.1) 무생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법을 남김없이 두루 부수었던 위의 방법들은 여러 가지의 다른 가르침에 적용해도 똑 같이 법을 부술 수 있다고 논증한다.

(q5.3.2.4.2.2.2) 앞에서는 무생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세로로 삼관을 실천하여 삼제를 비추고 나아가 두루 남김없이 법을 부수었지만, 지금은 가로로 다른 무수한 가르침에 근거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하나로 똑 바로 통하는 길에 설치된 문들은 세로로 보면 하나의 문처럼 보이지만 가로로 보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나란히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때 가로로 본 문도, 세로로 본 문도 모두 왕궁으로 통하는 문이라는 점에서는 같다. 이와 같이 지금은 가로의 관점에서 관법에 대해 논하고, 두루 남김없이 법을 부수겠다.(83.b)

#### 5.3.2.4.2.3 가로와 세로의 불이(不二)로 부수다

(e5.3.2.4.2.3.1) 위에서 설명했던 가로와 세로의 관점에서 각각 법에 대한 잘못된 미혹을 부수는 방법들은 너무 번잡해서 혼란스럽다. 가로와 세로의 불이의 관점에서 부수는 방법은 이들을 총괄하는 방법으로, 요약하면 무명의 마음에서 공, 가, 중의 삼제를 동시에 관찰하여 견사혹과 무명혹을 다함께 부수는 일심삼관(一心三觀)이다. 이는 한 순간의 중생심, 즉 무명에 근거한 마음에 공, 가, 중의 세 가지 진리가 동시에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 5.3.2.4.2.3.1 총괄해서 무명의 일념심을 밝히다.

(e5.3.2.4.2.3.1.1) 일심삼관을 총괄해서 설명하면, 이는 무명의 마음이 인연에 따라 생겨나 곧 공이자, 가이며, 곧 중으로 관찰하는 것이다. 이는 불사의삼제(不思議三諦)이며, 일심에서의 삼관이며 일체종지와 불안(佛眼)의 가르침에 대응한다. 나아가 중생의 몸으로 부처의 지견을 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생이란 탐, 진, 치의 마음이 모두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존재로서, 아견(我見)이 바로 존재원리이다. 아견이 마음에 따라 일어나고 마음에 삼독을 낳기 때문에 중생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마음이 일어날 때, 이 마음은 공이며, 가이며, 중이기 때문에 마음이 망념을 일으킬 때 삼제를 관찰하는 지관을 이룰 수 있다. 이 때의 관은 부처의 지혜이며 이때의 지는 부처의 견(見)이다. 중생의 순간순간의 마음에 지관이 현전하면, 이것이 바로 중생의 몸으로 부처의 지견을 여는 것이다.

(q5.3.2.4.2.3.1.2) 이와 같이 삼제를 하나의 마음에서 이해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이다. 마음에 근거해서 무명을 설명하고, 또 마음에 근거해서 인연에 따라 생겨나는 모든 존재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지금 까지 설명했던 모든 존재가 마음에 근거해서 있게 되기 때문이다. 또 마음에 근거해서 공이라고 설명하기 때문에, 지금 까지 설명했던 모든 공이 마음에 근거해서 있게 되기 때문이다. 또 마음에 근거해서 가를 설명하기 때문에 지금 까지 설명했던 모든 가가 마음에 근거해서 있게 되기 때문이다. 또 마음에 근거해서 법계를 설명하기 때문에 공도 아니고 가도 아닌 중도가 모두 마음에 근거해서 있게 되기 때문이다. 즉 삼제가 모두 마음에 갖추어진다. 이는 그 모습에 근거하면 차제로 설명할 수밖에 없지만, 그 도리에 근거하면 하나의 마음에 모두 있다. 다시 말해 마음이 공이자 가이며 곧 중이다. 이는 생, 주, 멸의 서로 다른 모습이 한 순간에 있는 것과 같이 공, 가, 중의 서로 다른 세 가지 모습이 한 마음에 갖추어져 있는 것이다.(84.c-85.a)

### 5.3.2.4.2.3.2 무명 이외의 다른 마음에 대해 밝히다.

(q5.3.2.4.2.3.2.1) 무명의 일심을 관찰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을 때, 다른 마음을 대상으로 해서 관찰한다. 예를 들면, 탐욕의 마음, 분노의 마음, 교만한 마음에 대해 관찰하는 것이다. 이들의 마음은 일어나면, 공이고 가이며 중이다. 이 경우도 총괄해서 일심에 대해 설명했던 것과 같다.(85.b)

### 5.3.2.5 식통색(識通塞)

(e5.3.2.5.1) 파법편을 닦아도 지관수행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닦는 관법이 식통색이다. 식통색은 수행의 과정 중에 지혜와 행위에서 나아감과 지체함의 까닭에 대한 앎이다.

(q5.3.2.5.2) 통함과 막힘을 안다는 것은 득과 실을 아는 것이며 또 가르침에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는지를 아는 것이다. 앞의 파법편에서 설명했듯이 무생의 가르침을 따라 [미혹을 부수고 진리에] 들어가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 득실을 따져보면 반드시 시비에 빠져서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외도와 같이 공을 관찰하는 지혜에 대해 집착하여 거기에 빠져 있으면[塞] 사구를 통해 두루 부수어 막힘을 뚫어 통하게 해야 한다.(86.a)

#### 5.3.2.5.1 통색의 내용

(e5.3.2.5.1.1) 깨달음에 이르고자 하는 여정은 너무 험하고 멀기에 지혜로운 스승들이 이끌어야 한다. 수행의 과정[생사의 장소와 번뇌의 종류]과 이끄는 스승들의 지혜에 따라 통색의 내용이 달라진다. 수행의 과정을 차제가 있는 단계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차제삼관에 따르면, 앞의 단계는 뒤의 단계에 대해 막힘이 되고, 뒤의 단계는 앞의 단계에 대해 통함이 된다. 그러나 일심삼관에서는 이런 단계 없이 한 순간의 마음에서 공, 가, 중 삼제를 동시에 관찰하기 때문에 통색은 성립하지 않는다.

(q5.3.2.5.1.2) 세로로 삼관에 대해 논의하면, 처음 공관과 가관은 각각에 통하는 부분이 있지만 위의 계위에서 보면 아직 막힌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 뒤의 중관은 앞의 두 관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통한다고 할 수 있지만, 소승을 제외한다는 점에서 막혀 있다. 가로로 삼관에 대해 논의하면 삼관은 각각에 통하는 부분이 있지만, 삼관 자신이 서로 통하지 않기 때문에 막혀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각각의 관에는 각각의 깊고 얕음이 있고 이에 상응하는 통함과 막힘이 있다. 중관에도 고와 집, 무명과 여섯 가지의 폐단을 일으키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을 모두 막혀 있고 통하지 않는다고 한다.(87.b)



### 5.3.2.6 도품조적(道品調適)

(e5.3.2.6.1) 도품조적이란, 사념처(四念處), 사정근(四正勤), 사여의족(四如意足), 오근(五根), 오력(五力), 칠각(七覺), 팔정도(八正道)의 삼십칠도품(三十七道品)중 근기에 따라 적당한 도품을 적용하여 지관을 실천하여 사중삼매를 성취하는 관법이다. 삼십칠도품은 원래 소승의 수행법이지만 지의는 이를 대승원교의 입장에서 재해석하고, 이들 도품의 적절한 적용 없이는 무루의 진리를 증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q5.3.2.6.2) 지금 앞에서 말한 파법편과 식통색의 관법을 실천해도 도품을 적절하게 조정하지 않으면 진리와 더불어 빨리 상응할 수 없다. 진리는 무루이고, 도품은 유루이지만 유루는 무루의 좋은 방편이다. 이 방편이 적절함을 잃으면 진리와 만날 수 없다. 이는 술을 빚는 것과 같다. 효모와 온도가 적당하면 물은 술로 변하지만, 누룩과 온도가 적당하지 않으면 술맛은 얻을 수 없다. 『대지도론』은 “삼십칠도품은 수행도에 대한 가르침이고 열반의 성에는 세 개의 해탈문이 있다.”고 했다. 세 개의 해탈문은 근인(近因)이고, 도품은 원인(遠因)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도품을 적절하게 조정해야 한다.(87.c-88.a)

#### 5.3.2.6.1 원교에서의 삼십칠도품(三十七道品)

(e5.3.2.6.1.1) 삼십칠도품은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 팔정도와 같은 과정으로 앞의 수행법이 뒤의 수행법으로 단계적으로 나간다는 일반적인 이해에 대해, 지의는 삼십칠도품을 원교의 관점인 무작도제(無作道諦)의 의미로 재해석함으로써 일심삼관의 수행법으로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이들 도품의 위계는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며 하나의 수행법 속에 다른 일체가 함께 한다.

(q5.3.2.6.1.2) 한 순간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불사의하다. 모든 종자와 십법계의 음입계는 서로 방해하지 않는다. 법성을 관찰하면 인연에서 생기기 때문에 하나의 종자가 일체의 종자이며, 하나의 색은 일체의 색이다. 법성이 공이라면, 일체의 색은 하나의 색으로, 곧 하나의 공은 일

체의 공이다. 법성이 가라면 하나의 색은 일체의 색으로 하나의 가는 일체의 가이다. 법성이 중이라면 하나도 아니고, 일체도 아니고 하나와 일체를 함께 비춘다. 또 공도 아니고 가도 아니고 공과 가를 함께 비추기 때문에 일체는 공도 아니고 가도 아니고 공과 가를 함께 비춘다. 아홉 가지 법계의 색도 이와 같이 공, 가, 중이다. 이것이 [사념처]중, 몸에 대해 집중해서 관찰하는 신념처(身念處) 수행법이다.(88.b)

### 5.3.2.7 조도대치(助道對治)

(e5.3.2.7.1) 조도대치는 앞의 도품조적에서 설명한 삼십칠도품을 실천해도 세 개의 해탈문에 이르지 못한 둔근기의 사람을 위한 관법이다. 이들은 장애가 무거워서, 관심(觀心)을 실천해도 관심이 제대로 성취되지 않고 오히려 부서져버린다. 이 때문에 먼저 관심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써 장애[遮障]을 치료해야 한다. 그 방법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육바라밀이다. 조도로서의 육바라밀은 관심을 방해하는 여섯 가지의 폐단, 즉 탐욕, 파계, 분노, 게으름, 산만, 어리석음을 치료하기 위한 사바라밀(事波羅蜜)이라고 할 수 있다.

(q5.3.2.7.2) 일곱 번째는 조도를 사용해서 대치한다. 『대지도론』에서 “세 가지의 삼매는 모든 삼매의 근본이다.”고 했다. 세 가지의 삼매에 들면, 사중삼매를 성취할 수 있다. 예리한 근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차장(遮障)이 없으면 청량지에 들기 쉽다. 이들에게는 조도를 통한 치료가 필요 없다. 예리한 근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차장이 있어도 세 가지 해탈문을 열심히 수행하면 차장의 방해받지 않기 때문에 조도를 통한 대치가 필요 없다. 둔한 근기로 차장이 없는 사람은 도품을 통해 조적하면 둔근이 예리한 근기로 전환되기 때문에 또한 조도를 통한 치료가 필요 없다. 둔한 근기로 차장이 무거운 사람은 둔한 근기 때문에 세 가지 해탈문을 빠르게 열 수 없고 차장이 무겁기 때문에 이에 끌려가 오히려 관심이 부서진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은 조도를 통해 차장을 치료해야만 편안하게 세 가지 해탈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91.a)

### 5.3.2.7.1 조도의 지위

(e5.3.2.7.1.1) 육바라밀을 단지 여섯 가지의 폐단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해하고 실천하면, 도품을 돕는다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조도의 효용은 성립하지 않는다. 조도로서의 육바라밀은 여섯 가지의 폐단의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부처의 지위에 이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의는 육바라밀이 삼십칠도품과 밀접한 관련 속에서 실천될 때 비로소 관심을 돕기 위한 조도로서의 진정한 효용이 성립한다고 보았다.

(q5.3.2.7.1.2) 사(事)의 조도를 이용하는 것은 이만억불(二萬億佛) 아래에서 구슬을 걸듯이 수행하던 중, 대승을 잊어버려 대승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교화할 수 없게 되자 대신 육백겁(六百劫) 동안 소승의 가르침을 통해 기억나게 함으로써 생사를 두려워하고 나아가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게 하는 것과 같다. 이는 소승의 가르침을 빌어 대승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이다. 또 부처는 처음 대승을 통해 교화하고자 했지만 제불(諸佛)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부처가 방편을 생각하자 제불은 좋다고 칭찬했다. 이는 부자의 아이가 병이 났을 때 황룡탕을 먹이는 것과 같다. 부모가 좋은 약을 아까워해서 황룡탕을 먹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먹였고, 병이 낫기 때문에 먹였다. 부처도 중생들이 자기와 같이 깨닫기를 바라는 본원이 있었다. 그리하여 대승의 가르침을 결코 아까워 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근기에 맞게 치료했다. 조도를 통해 문을 연다는 의미 또한 이와 같다.(94.c)

### 5.3.2.7.2 육바라밀의 의미

(e5.3.2.7.2.1) 깨달음을 지향하는 육바라밀은 여섯 가지의 폐단을 치료하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진리의 통찰과 밀접히 관련된 리관(理觀)의 의미를 갖는다. 이는 수행을 방해하는 장애가 많은 둔한 근기의 사람이라도 육바라밀의 실천을 통해 부처의 지위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q5.3.2.7.2.2) 이와 같이 도품의 사각분(捨覺分)은 심오한 리관(理觀)에 들어가면 현상적인 행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삼장교에서와 같

이 보시행을 빈번히 행하여 몸을 잘라 구하고, 몸을 태워 구하고, 나라와 성, 처자를 버리고 구한다고 해도 리관 하나와 관계하지 않으면 이러한 현상적 행위는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현상적인 보시를 설명하는 것은 탐욕의 폐단을 부수는 것을 도와 리관의 성취로 나아가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현상적인 행위와 리관을 구분해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가령 수행자가 원교의 진실사관(捨觀)을 이해했다고 해도 억측만 할 뿐 행동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행위에서는 탐욕의 마음으로 재물을 지킬 뿐 조금도 버리지 못하고 수고로움을 아껴 적당히 하고, 자기를 낮추고 타인을 위하는 행위를 전혀 하지 못한다. 또 목숨을 아껴 이 사람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 마음을 일으키지도 않고 현상과 만나 아까워하며 조금도 행동으로 옮기고자 하는 의지를 내지 못하는 사람은 단지 이해만 했을 뿐 이를 실천으로는 옮기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와 같이 해서는 무거운 폐단을 부수어 세 가지의 해탈문을 열 수 없다.(91.c-92.a)

### 5.3.2.8 계위를 알다 [知次位]

(e5.3.2.8.1) 앞의 일곱 가지 관법을 실천한 지금, 현재 자기의 수행이 도달한 지위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이는 아직 증득하지 못한 것을 이미 증득했다는 증상만(增上慢)과 수행의 중도에서 자신은 도저히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고 절망하는 비하만(卑下慢)을 막기 위해서이다. 이 두 가지 마음은 수행자로 하여금 모두 궁극적인 해탈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다.

(q5.3.2.8.2) 계위를 안다는 것에 대해 설명한다. 진위와 사위에는 모두 해탈지견이 있지만 붉은 색과 보라색은 분명히 다르다. 아직 증득하지 못한 것을 증득했다고 말하거나, 사선근(四善根)을 초과(初果)라고, 초과를 무학(無學)이라고 분별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 스스로 끊고 증득한 것과, 아직 끊지 못한 것과 증득하지 못한 것을 알아야 한다.(97.b)

### 5.3.2.9 능안인(能安忍)

(e5.3.2.9.1) 편안히 인내하여 불도에서 후퇴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관불사의경에서 지차위에 이르기까지 수행이 깊어지고 이에 상응하는 지혜가 발현되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다. 이 때 명예와 사람들이 따르게 되는데 이에 휩쓸리게 되면 겨우 조금 이룩한 깨달음의 단서를 잃게 되어 결국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방해로부터 스스로 인내하여 불도에서 후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능안인의 관법이다.

(q5.3.2.9.2) 이러한 때 보석을 주머니에 담아 두듯이 이해했던 것을 마음속에 품고 조용하고 열심히 정진하면 수행을 성취할 수 있거나 수행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이 뜻을 굳게 하여 움직이지 않으면 점점 뛰어난 성취를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송곳을 주머니에 숨기고자 해서 아무리 덮어 두어도 드러나듯이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의 강의를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의 수행이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을 알아 자비의 마음으로 그것을 지적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강의를 해야 하고 사람들을 지도해야 한다. 그 결과 안으로는 혼란스럽고, 겉으로는 부산스러워 아주 조금의 가르침을 설하고, 아주 조금의 선을 보일 수밖에 없다. [...] 수행이 진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여러 가지의 장애가 일어나게 된다. 이는 코끼리 새끼가 힘이 약하여 칼이나 활에 쓰러지듯이, 또 끓는 물을 얼음 위에 뿌려도 얼음을 더 두껍게 하는 것과 같다. 『십주비파사론』은 이것을 ‘파패(破敗)의 보살(菩薩)’이라고 했다.(99.b)

### 5.3.2.9.1 능안인의 방법

(q5.3.2.9.1.1) 명예와 이익의 무리가 밖에서 와서 수행을 부수는 경우, 다음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이를 악물고 인내하면 아무리 많은 요청이 있어도 거절할 수 있다. 즉 사양, 숨기, 떠남이다. 번뇌, 업, 선정, 견해, 아만 등이 안에서 일어나 수행을 부수는 경우, 다음 세 가지 방법을 생각한다. 즉 공, 가, 중을 관하는 것이다. [...] 마음을 단정히 하여 올바르게 관찰한다. 작은 선정의 성취에 기뻐하지 않고, 작은 악을 보고 슬퍼하지도 않는다. 부서진 그릇은 산더미 같이 많고 암라과(菴羅果) 꽃 가운데 열매를 맺는 것은 극히 적다. 『대품반야경』은 “무수한 사람이 보리심을 일으키지만 대부분은 이승의 지위로 떨어진다.”고 했다. 대사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편안히 인내해야 한다. 이 의미를 알면 음입계경만으로 충분히 다른 아홉 가지의 대상을 관찰하지 않아도 된다. 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

람들을 위해 나머지 아홉 가지의 관찰 대상에 대해 두루 설명했다.(99.c)

### 5.3.2.10 법에 대해 집착하지 않는다 [無法愛]

(e5.3.2.10.1) 무법애는 법에 대한 애착을 없애는 관법이다. 앞의 아홉 가지의 관법을 실천하여 십신위(十信位)를 성취하고 안과 밖의 장애를 부수어 육근청정의 지위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초주(初住)의 지위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이러한 수행단계에서 얻는 공덕에 집착하는 법에 대한 애착 때문이다. 지의는 이를 『대지도론』에 근거해서 정타(頂墮)라고도 했다. 수행자는 이 법에 대한 애착을 없애야만 비로소 초주의 지위로 나아가 정각을 성취하여 실상을 알 수 있다. 이는 십승관법이 초주의 지위에 들어가기까지의 지관행법으로서, 마지막인 무법애를 실천함으로써 둔한 근기의 수행자라고 해도 상사위에서 진실위인 초주의 지위로 전입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q5.3.2.10.2) 지금 수행자들 중, 만에 하나라도 이 단계까지 이르는 자가 없지만 여기까지 이르렀다면 스스로 법에 애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 지위에는 안과 밖의 장애를 다 제거했지만 법애만이 있다. 법애는 끊기가 어려워, 여기에 머무는 일은 큰일이다. 이는 똑 같이 돛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척은 잘 나가는 반면, 다른 한 척은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머물러 있는 것은 법에 집착하여 머물기 때문이다. 배의 바닥이 모래에 박혀 있지도 않고 해안에 묶여 있지도 않으면서 바람이 자서 멈춰있는 것과 같다. 모래에 박혀 있지 않다는 것은 안으로 장애가 없는 것이고, 해안은 밖의 장애에 대한 비유이다. 법에 대한 애착의 발생은 바람이 멈춰 앞으로 나가지도 않고 뒤로 물러나지도 않는 것과 같다. 이것이 정타의 의미이다. 법애를 부수면 세 가지 해탈문에 들어가 진실중도를 낳는다.(99.c)

## 6. 열반

(e6.1) 열반은 불교의 최고선으로, 지관을 원인으로 하여 드러나는 결과이자 도달점이다. 지의는 지관 수행의 결과와 관련해서, 『마하지관』의 10장 중 8.과보장(果報章), 9.기교장(起教章), 10.지귀장(旨歸章)에서 설명하겠다고 했지만, 『마하지관』의 전체 내용이 7장 제견경에서 끝나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그러나 『마하지관』의 전체 내용을 오략십광(五略十廣)으로 분류하여 1. 대의장(大義章)의 오략을 통해 전체 십광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대의장의 감대과(感大果), 열대망(裂大綱), 귀대처(歸大處)를 통해 8장, 9장, 10장의 내용을 유추해 볼 수 있다.

### 6.1 커다란 과보를 느끼다

(e6.1.1) 과보장에 해당한다. 정관의 성취로 얻는 오묘한 과보에 대해 설명한다. 여기서는 원돈지관과 차제지관을 구별하고, 원돈지관이 얻는 대승보살이 미래에 얻는 과보를 청정대과보로 설명했다.

(q6.1.2) 보살의 청정대과보를 밝히기 위해 지관(止觀)을 설한다. 만약 수행이 중도에 위배되면 공이나 가에 편벽된 과보가 있다. 만약 수행이 중도에 순응하면 승묘과보(勝妙果報)가 있다. 분단생사를 벗어나지 않고 현세에 과보를 얻는 경우, 이 과보[華報]조차도 방편유여토와 다르다. 하물며 참된 과보는 말할 필요도 없다. 향성(香城)의 일곱 겹의 다리는 그림과 같은데 곧 이 과보의 모습이다. 이 의미는 뒤의 제8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묻는다. 차제선문에서도 수행과 증득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설명하는 과보와 차이는 무엇인가? 답한다. 수행은 습행(習行)이라고 하고 증득은 발득(發得)이라고 한다. 또 수행은 습인(習因)이라고도 하고 증득은 습과(習果)라고도 한다. 이 모두는 현세에서 얻는다. 지금 논의하고 있는 과보는 미래세에 한정한다. 이 점이 차제선문과 다르다. 이승에는 단지 습과만 있고 지금의 과보는 없다. 대승은 두 가지를 갖추고 있다.(20.a-b)

## 6.2 가르침을 베푼다

(e6.2.1) 9. 기교장에 해당한다. 정관을 통해 얻는 오묘한 과보를 통해 가르침을 세우고 남을 가르칠 수 있게 됨을 설명한다.

(q6.2.2) 모든 경전(經典)과 논서에서 발생하는 의심의 그물을 찢기 위해서 지관을 설명하였다. 어떤 사람이 능숙하게 지관으로 마음을 관찰하면 안의 지혜가 명료해져 돈점(頓漸)의 가르침에 통달한다. 마치 하나의 먼지를 부수고 수천의 경전을 내듯이 갠지스강의 모래만큼이나 많은 불법이 모두 한 마음 속에 밝게 이해된다. 만약 밖으로 중생의 이익을 위해 근기에 맞게 설법하고자 하면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에 따라서 그에 맞추어 설법한다. 또 성불하여 다른 사람을 교화할 때 어떤 때는 법왕이 되어 돈점법(頓漸法)을 설하고 어떤 때는 보살이 되어 혹은 성문, 천마, 인, 귀신 등의 십법계의 어느 모습이 되어 좋아하는 것에 대응하여 설법할 수 있다. 어떤 때는 불타의 질문에 대해 돈점으로 자세하게 답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근기를 빼고 부처에게 질문하면, 붓는 돈점의 법륜을 굴러 답할 것이다. 이 의미는 제9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또 제4장의 섭법(攝法)에서 간략하게 설명하겠다.(20.b)

## 6.3 구극의 경지로 돌아가다 [旨歸]

(e6.3.1) 귀대처는 모든 존재의 참된 모습인 필경공(畢竟空)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로서, 깨달음의 체득을 가리킨다. 이 경지는 사려분별을 넘어서기 때문에 언어로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필경공에 대한 가르침이 달을 가리키기 위한 손가락과 같다는 것을 모르고, 수행자들은 자신들의 견해만이 절대적으로 옳고, 다른 사람들의 견해는 모두 틀렸다고 다툼으로써, 필경공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나아가 그 경지에 이르지도 못한다. 여기서 지의는 이러한 논쟁을 종식시키고, 수행자들이 모두 구경각으로 나아가도록 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그는 깨달음의 경지인 필경공이 언어로 분별할 수 없지만, 이와 관련된 각각의 가르침들이 지향하



는 곳, 즉 지귀(旨歸)를 통해 필경공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분별해서 설명했다.

(q6.3.2) 귀대처란 모든 존재의 참된 모습이 필경공(畢竟空)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 지관을 설명한다. 이는 아교가 묻은 손으로 물건을 잡으면 잘 잡히는 것과 같이 또 깊은 꿈에서 깨기 어렵듯이, 문자에 사로잡혀 의미를 좁게 이해하면서도 그 이해가 옳다고 여긴다. 또 하찮은 기와조각이나 조약돌을 들고 있으면서 유리구슬이라고 고집하듯이 신변의 일과 같이 가까운 일에 대한 분명한 설명도 잘 알지 못한다. 따라서 이들은 [중도의] 심원한 진리에 대한 [원교의 항상하고] 은밀한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가르침이] 귀결하는 곳이 어디인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지귀란 문자의 뜻이 지향하는 곳을 말한다. 마치 물의 흐름이 바다를 향하는 것과, 불꽃이 허공을 향하는 것과 같다. [원교의 항상하고] 은밀한 가르침을 알아서 [중도의] 심원한 진리에 도달하면 언어로 표현된 가르침에 집착하거나 가까운 진리에 막힘이 없다. 비유하자면 지혜로운 신하가 왕의 비밀스러운 말을 이해하는 것과 같다. 부처가 설한 교설을 들으면, 모든 교설을 잘 이해하여 일체지(一切智)의 경지에 이른다. 이 의미를 이해하면 곧 지귀를 이해할 수 있다.(20.b)

### 6.3.1 지귀와 삼덕(三德)

(e6.3.1.1) 지의에 따르면, 지귀란 문자의 뜻이 지향하는 곳이다. 담연은 문자를 가르침으로 해석했다. 이는 지귀가 경전의 가르침이 지향하는 곳을 의미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지의는 부처의 모든 가르침이란 수행자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세 가지 덕인 법신(法身), 반야(般若), 해탈(解脫)로 들어가는 것을 지향한다고 했다.

(q6.3.1.2) 지는 스스로가 삼덕(三德)을 향하는 것이고 귀는 타인을 이끌어 같이 삼덕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때문에 지귀라고 한다. 또 스스로 삼덕에 드는 것을 귀라고 하고 타인이 삼덕에 들어가게 하는 것을 지라고 한다. 때문에 지귀라고 한다.(20.b)

### 6.3.1.1 총체적 의미

(e6.3.1.1.1) 부처는 모든 중생을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한 목적[일대사인연]을 가지고 가르침을 펼쳤다. 이를 위해 그는 중생들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자신을 보이고, 여러 가지 서로 다른 가르침을 펼치고, 여러 가지의 방편과 신통을 드러내었다. 그러나 이들은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법신(法身), 하나의 반야(般若), 하나의 해탈(解脫)로 이끌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 모든 다양한 가르침들이 지향하는 곳은 총체적으로 삼덕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q6.3.1.1.2) 모든 부처는 일대사인연으로 현세에 나타났다. 이 인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모습을 보이거나 이는 모든 중생들이 똑 같이 법신을 보게 함이다. 법신을 보게 되면 부처와 중생은 다 함께 법신으로 들어간다. 또 부처는 여러 가지의 교법을 설명하나 이는 모든 중생들이 여래의 일체종지(一切種智)를 궁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일체종지가 갖추어지면 부처와 중생은 함께 반야에 들어간다. 또 부처는 여러 가지의 방편과 신통변화를 드러내어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이는 한 사람만이 멸도(滅度)를 얻게 하지 않고, 모두가 여래의 멸도를 통해 멸도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다. 모두가 멸도에 이르면 부처와 중생은 함께 해탈에 들어간다. 『대열반경』은 “모든 자식들을 비밀장(秘密藏)에 편안히 두고 나 또한 오래지 않아 [교화를 마치면] 그 안에 머무른다.”고 했다. 이것이 지귀의 총체적인 의미이다.(20.b-20.c)

### 6.3.1.2 개별적 의미

(e6.3.1.2.1) 개별적 의미에서의 지귀는, 삼덕과 관련하여 부처의 가르침 속에 드러난 다양한 주장들이라고 할 수 있다.

#### 6.3.1.2.1 불신(佛身)의 세 가지 의미

(q6.3.1.2.1.1) 부처의 몸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색신(色身)이다. 둘째는 법문신(法門身)이다. 셋째는 실상신(實相身)이다. 만약 교화의 조

건을 다 마친 후 돌아가는 것[귀]를 논하면 색신은 해탈로 나아가고 범문신은 반야로 나아가고 실상신은 범신으로 나아간다.(20.c)

#### 6.3.1.2.2 불신과 삼신(三身)의 관계

(q6.3.1.2.2.1) 삼덕은 세 가지로 서로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로 같은 것도 아니니 불가사의하다. 왜 그러한가? 만약 범신만이 범신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범신이 아니다. 범신은 또한 身이며, 신이 아니며, 신이고 신이 아닌 것도 아님을 알아야 한다. 수능엄삼매에 머무르게 되면 여러 가지의 색상(色像)을 만들어 드러내기 때문에 신이라고 한다. 만들어진 몸이 다 분별되면 해탈로 나아간다. 지혜가 모든 색이 고정된 색이 아님을 분명하게 비추기 때문에 신이 아니라고 한다. 또 만들어진 몸이 다 분별되면 반야로 나아간다. 실상의 몸은 색상의 몸도 아니고 범문의 몸도 아니다. 때문에 신도 아니고 신이 아닌 것도 아니라고 한다. 만들어진 몸이 다 분별되면 범신으로 나아간다. 이 세 가지 몸에 대해 다 통달하면 같다와 다르다는 성질이 없어진다. 이것을 돌아감[歸]라고 한다. 이 세 가지 몸에 같다와 다르다는 성질이 없다고 설명하는 것이 의미[旨]이다. 다 함께 비밀로 나아가는 까닭에 지귀라고 한다.(20.c)

#### 6.3.1.2.3 반야의 세 가지 의미

(q6.3.1.2.3.1) 반야에도 세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는 도종지(道種智)이다. 둘째는 일체지(一切智)이다. 셋째는 일체종지(一切種智)이다. 교화의 조건을 다 마친 후 돌아가는 곳[귀]를 설명하면, 도종지는 해탈로, 일체지는 반야로, 일체종지는 범신으로 나아간다.(20.c)

#### 6.3.1.2.4 반야와 삼지(三智)의 관계

(q6.3.1.2.4.1) 만약 반야만이 반야라고 한다면 이는 참된 반야가 아니다. 반야는 또 얇고 얇이 아니고 얇이고 얇이 아닌 것도 아님을 알아야 한다. 도종지의 반야는 두루 세속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얇이라고 한다. 도종지의 반야가 이미 분별되면 해탈로 나아간다. 일체지의 반야는 두루 진리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얇이 아니라고 한다. 일체지의 반야가

이미 분별되면 반야로 나아간다. 일체중지의 반야는 두루 중도를 알기 때문에 얕이고 얕이 아닌 것도 아니라고 한다. 일체중지의 반야가 이미 분별되면 법신으로 나아간다. 세 가지 반야가 같음, 다름의 성질이 없음을 통달하면 이것을 귀(歸)라고 한다. 세 가지 반야가 같음, 다름의 성질이 없다고 설하는 것을 의미[旨]라고 한다. 다 함께 비밀에 들어가는 것을 지귀라고 한다.(20.c)

#### 6.3.1.2.5 해탈의 세 가지 의미

(q6.3.1.2.5.1) 해탈에도 세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는 [일반적인 인식에서의] 무지의 속박으로부터 해탈이다. 둘째는 분별상을 취하는 속박으로부터 해탈이다. 셋째는 무명의 속박으로부터 해탈이다. 만약 교화의 조건을 다 마친 후에 진실에 나아가는 것을 말하면 무지의 속박으로부터 해탈은 해탈로 나아간다. 분별상을 취하는 속박으로부터 해탈은 반야로 나아간다. 무명의 속박으로부터 해탈은 법신으로 나아간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별상의 지귀 또한 삼덕의 비밀장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20.c)

#### 6.3.1.2.6 해탈과 세 가지 속박의 관계

(q6.3.1.2.6.1) 만약 해탈만을 해탈이라고 하면 이것은 참된 해탈이 아니다. 해탈은 벗어남과 벗어남이 아니고, 벗어남이고 벗어남이 아닌 것도 아님을 알아야한다. 방편의 깨끗함을 통한 해탈은 중생을 조복시켜 다시는 더러움에 물들지 않게 한다. 때문에 벗어남이라고 한다. 이 단계의 해탈이 다 분별되면 해탈로 나아간다. 원만하고 깨끗한 해탈은 중생과 해탈의 모습을 보지 않는 까닭에 벗어남이 아니라고 한다. 이 단계의 해탈이 다 분별되면 반야로 나아간다. 본성의 깨끗한 해탈은 곧 벗어남이고 벗어남이 아닌 것도 아니다. 이 단계의 해탈이 다 분별되면 법신으로 나아간다. 만약 [이 세 가지 해탈에 같음, 다름의 성질이 없다는 것을] 통달하면 [이것을 귀라고 한다.] 만약 [이 세 가지 해탈에 같음, 다름의 성질이 없다는 것을] 설하는 것을 [지라고 한다.]. 다 함께 비밀에 들어가는 것을 지귀라고 한다.(20.c-21.a)

### 6.3.1.3 세 가지 장애와 삼덕의 관계

(e6.3.1.3.1) 지관수행은 무명, 무지, 분별상과 같은 장애를 부수고 삼덕을 드러낸다. 이는 지관수행을 매개로 해서 세 가지 장애와 삼덕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지만, 이들은 실체가 없는 공이기 때문에 앞과 뒤를 분별할 수 없다.

(q6.3.1.3.2) 또 삼덕은 새로운 것도 아니고 오래된 것도 아니나 새로운 것이고 오래된 것이다. 왜 그러한가? 세 가지의 장애는 삼덕을 가로막는다. 무명은 법신을 가로막고 분별상을 취하는 것은 반야를 가로막고 무지의 장애는 해탈을 가로막는다. 세 가지의 장애가 먼저 있기 때문에 오래된 것이라고 한다. 삼덕은 세 가지 장애를 부수어 지금 비로소 드러났기 때문에 새롭다고 한다. 세 가지 장애가 곧 삼덕이고 삼덕이 곧 세 가지 장애이다. 세 가지 장애가 곧 삼덕이기 때문에 세 가지 장애는 오래된 것이 아니다. 삼덕이 곧 세 가지 장애이므로 삼덕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나 새롭기 때문에 마음을 내어 얻는 삼덕과 구경으로 얻는 삼덕이 있다. 오래 된 것이 아니나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내어 다스리는 세 가지 장애와 구경으로 다스리는 세 가지 장애가 있다. 새로우나 새롭지 않고 오래 된 것이나 오래지 않기 때문에 진리의 본성으로서의 삼덕이 있다. 만약 총괄적으로 삼덕이 새로운 것이 아니고 오래된 것이 아니나 새롭고 오래된 것이며, 또 여기에는 같다, 다르다는 성질이 없음을 통달하면 또 타인을 위해 이와 같이 설한다면 이것이 곧 [다함께] 비밀로 나아가는 지귀이다.(21.a)

### 6.3.1.4 불사의의 지귀

(e6.3.1.4.1) 지의는 수행자들이 언어에 사로잡혀 필경공을 오해하여 구경각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 문자의 가르침이 지향하는 곳[지귀]를 밝힌다고 했다. 다시 말해 그는 부처의 모든 가르침은 수행을 위한 도구라고 이해했다. 그는 지귀의 이러한 의미를 불사의하다고 설명했다.

(q6.3.1.4.2) 지귀도 이와 같다. 지라고 하나 지는 지가 아니고 지이고

지가 아닌 것도 아니다. 귀 또한 귀라고 하나 귀가 아니고 귀이고 귀 아닌 것도 아니다. 하나하나가 모두 비밀장중으로 들어가야 한다. 위의 예를 비추어 보면 이해할 수 있다. 지는 스스로의 실천이기 때문이다. 지가 아닌 것은 타인을 교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이고 지가 아닌 것도 아닌 것은 자타(自他)가 없기 때문이다. 삼덕의 지귀가 만약 이와 같이 적정(寂靜)하다면 어찌 이름이 있을 수 있고 어찌 설명해 보일 수 있겠는가? 알 수 없는 것을 어찌 규정할 수 있겠는가? 억지로 중도, 실상, 법신, 비지비관(非止非觀) 등으로 부른 것이다. 또 억지로 일체종지, 평등대혜, 반야바라밀, 관(觀) 등이라고 했던 것이다. 또 억지로 수능엄정, 대열반, 불가사의해탈, 지(止)라고 했던 것이다.(21.a-c)

## 참 고 문 헌

### 1. 원전

『마하지관』(T.46)

『법화현의』(T.33)

### 2. 번역본

김무득, 『대지관좌선법』1-5, 우리출판사, 1995.

池田魯參, 『詳解摩訶止觀』, 大藏出版社, 東京, 1998.

### 3. 단행본

이영자, 『천태불교학』, 불지사, 2001.

安藤俊雄, 『天台學』, 平樂寺書店, 京都, 1996.

Swanson Paul L., *Foundations of T'ien-T'ai Philosophy*,  
Asian Humanities Press, Berkeley, 1989.

Donner Neal and Daniel B. Stevenson, *The Great Calming  
and Contemplation*, A Kuroda Institute Book,  
University of Hawaii Press, Honolulu, 1993.

### 4. 논문

김정희, 『천태지지의 불교수행론연구-불이론으로 본 원돈지관의 의미-』,  
서울대학교 철학과 박사학위논문, 2002.

오지연, 『천태지지의 원돈지관 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불교학과 박  
사학위논문, 1998.

## 『철학사상』 별책 2권

- 제1a호 철학의 주요 개념 1·2 / 백종현
- 제2호 『밀린다팡하』 / 서정형
- 제3호 데카르트 『방법서설』 / 윤선구
- 제4호 로크 『통치론』 / 정윤석
- 제5호 루소 『사회계약론』 / 진병운
- 제6호 칸트 『실천이성비판』 / 박정하
- 제7호 헤겔 『법철학』 / 강성화
- 제8호 벤담 『도덕 및 입법의 원리 서설』 / 정원규
- 제9호 밀 『공리주의』 / 김영정 · 정원규
- 제10호 니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 백승영
- 제11호 마르크스 『독일이데올로기』 / 손철성
- 제12호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 이선일
- 제13호 프레게 『산수의 기초』 / 최 훈
- 제14호 비트겐슈타인 『논리철학 논고』 / 박정일

## 『철학사상』 별책 3권

- 제1a호 『대학』 / 박성규
- 제2호 맹자 『맹자』 / 이해경
- 제3호 나가르주나 『중론』 / 서정형
- 제4호 조선전기 이기론 / 허남진
- 제5호 조선전기 수양론 / 정원재
- 제6호 조선전기 심성론 / 김영우
- 제7호 조선전기 경세론과 불교비판 / 강중기
- 제8호 플라톤 『국가』 / 김인곤
- 제9호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 김남두 · 김재홍 · 강상진 · 이창우
- 제10호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 박경숙
- 제11호 데카르트 『성찰』 / 윤선구
- 제12호 로크 『인간지성론』 / 김상현
- 제13호 라이프니츠 『단자론』 / 윤선구



- 제14호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 진병운  
 제15호 흄 『인설론』 / 장동익  
 제16호 칸트 『순수이성비판』 / 김재호  
 제17호 헤겔 『정신현상학』 / 강성화  
 제18호 마르크스 『자본론』 / 손철성  
 제19호 제임스 『실용주의』 / 정원규  
 제20호 니체 『유고(1885년 가을-1887년 가을)』  
     · 『유고(1887년 가을-1888년 3월)』  
     · 『유고(1888년 초-1889년 1월 초)』 / 백승영  
 제21호 후설 『유럽학문의 위기』 / 정은혜  
 제22호 비트겐슈타인 『철학적 탐구』 / 신상규  
 제23호 하이데거 『언어로의 도상』 / 이선일  
 제24호 쿤 『과학혁명의 구조』 / 박은진  
 제25호 토픽맵에 기초한 철학 디지털 지식 자원 구축 /  
     최병일 · 이태수 · 심재룡 · 김영정

## 『철학사상』 별책 5권

- 제1호 공자 『논어』 / 박성규  
 제2호 마명 『대승기신론』 / 서정형  
 제3호 황종희 『명이대방록』 / 강중기  
 제4호 플라톤 『향연』 / 김인곤  
 제5호 흄 『인간지성에 관한 탐구』 / 윤선구  
 제6호 칸트 『판단력비판』 / 김상현  
 제7호 피히테 『전체 지식학의 기초』 / 김재호  
 제8호 마르크스 『경제학-철학 수고』 / 강성화  
 제9호 니체 『도덕의 계보』 / 백승영  
 제10호 하이데거 『이정표』 / 이선일  
 제11호 가다머 『진리와 방법』 1 / 정은혜  
 제12호 군맨 『사실, 허구 그리고 예측』 / 김희정  
 제13호 군맨 『세계제작의 방법들』 / 김희정  
 제14호 롤즈 『정의론』 / 장동익

『철학사상』 별책 제7권 제 1 호

---

발행인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우) 151-742,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56-1
E-mail	philinst@plaza.snu.ac.kr
전 화	02) 880-6223
팩 스	02) 874-0126
인쇄일	2006년 5월 25일
발행일	2006년 5월 30일
출 판	도서출판 관악 02) 871-2118

---

